# 백옥빈 日記

브라질 한인의 첫번째 이민 이야기

한국이민사박물관
THE MUSEUM OF KOREA EMIGRATION HISTORY

# 백옥빈 日記

브라질 한인의 첫번째 이민 이야기

# 발간사

1960년대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이주협회를 설립하고, 해외이주법을 제정하여 여러 국가들과 다양한 방식의 이민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남미이민의 첫 행선지는 브라질이었습니다. 1962년 12월 18일 출발한 브라질 이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공식 이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백옥빈 일기〉는 부산에서 치차렌카호에 탑승했던 1차 브라질 이민자 백옥빈 선생의 이민 일기입니다. 백옥빈 선생이 이민선에 승선하기 전 한 잡지사 기자의 부탁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한 여러 해의 기록에는 브라질 한인들의 초기 이민 정착 이야기, 브라질 한인들의 삶 등 40여 년 간의 남미 이민자들의 이야기가 소중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백옥빈 일기〉가 최근 한국이민사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는 이번 기증을 기회로 일기의 원문을 정리하고 해제를 실어 그 어떤 자료보다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이민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간행된 〈백옥빈 일기〉를 통해 아직까지 멀고, 낯선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남미 한인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장

김 상 열

**총　　괄**　유동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김상열 (한국이민사박물관장)

**기획 · 편집**　김윤정 (한국이민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원　　고**　안경자 (전 쌍파울루 한국학교장)
김윤정 (한국이민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이슬아 (한국이민사박물관 연구원)

## 일러두기

- 이 책은 1962년 브라질로 간 1차 이민자 백옥빈이 쓴 일기(이하 〈백옥빈 일기〉)를 실은 보고서이다. 백옥빈은 1962년부터 2004년까지 약 42년간의 이민생활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 한국이민사박물관에 일기를 기증하였다.
- 책은 일기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제와 〈백옥빈 일기〉 원문으로 구성된다.
- 〈백옥빈 일기〉의 순서는 원본을 그대로 따르며 날짜의 서식은 ××××년 ××월 ××일로 통일하였다.
  - 일기에 요일과 날씨, 제목이 적혀있을 경우 날짜 뒤에 붙였다.
  - 제목은 〈 〉로 표기하였다.
- 〈백옥빈 일기〉의 한글은 원문 그대로 옮기고, 한자는 한글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띄어쓰기는 가독성을 위해 현재의 한글맞춤법을 따랐다.
  - 한글은 문법에 맞지 않아도 가급적 그대로 입력하였으나 오기(誤記)의 반복으로 가독성을 해치거나 의미 전달이 어려운 경우 현재의 한글맞춤법을 따른 경우도 있다.
  - 원문의 한자는 병기한 한글의 위 첨자로 표시하였다. 한자를 한글로 변경할 때에는 한자음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숫자의 경우 한자를 삭제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가 될 경우 예외를 두었다. (예 : 初 → 첫, 香港 → 홍콩, 一生→일생)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자 단어는 처음 나오는 부분에만 한자를 덧붙이고 이후로는 한글만 표기하였으며, 한자 이체자는 대표자로 바꾸어 썼다. 한자로 쓴 성(姓), 의미 전달상 한자 병기가 필요한 단어의 경우는 지우지 않았다.
  - 틀린 한자, 영어와 포르투갈어는 가급적 맞게 바꾸어 입력하고 각주를 통해 원문의 단어를 밝혔다. 틀린 표기가 반복될 경우에는 처음 등장하는 부분에만 각주를 달았다.
  - 본문에는 없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가 삽입한 문구는 [ ]로 표시하였다.

# 목차


발간사 ..... 3

해제

해제1 : 초기 브라질 이민자의 생생한 기록, 백옥빈 일기 / 김윤정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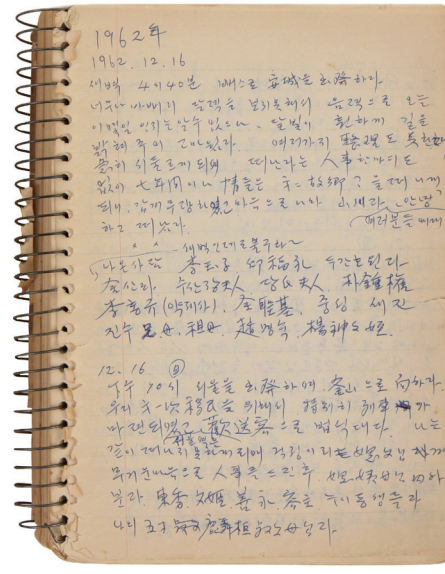
해제2 : 백옥빈 생애와 가족, 그리고 이민생활 / 안경자 ..... 21

해제3 : 대중매체를 통해 본 브라질 이민 / 이슬아 .....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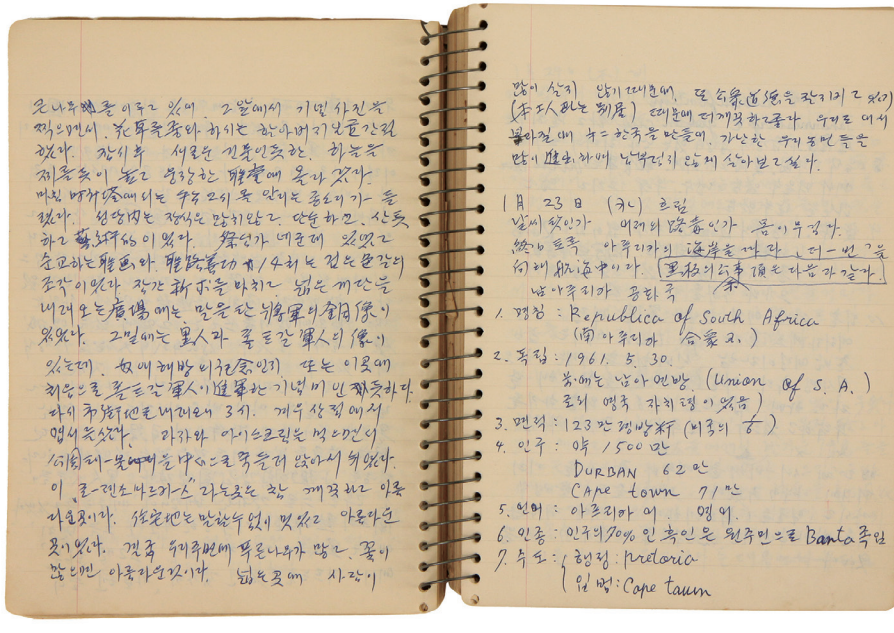
백옥빈 일기 원문 ..... 59

#1 1962 ..... 61
#2 1963 ..... 72
#3 1964 ..... 145
#4 1965 ..... 166
#5 1966 ..... 172
#6 1967 ..... 176
#7 1968 ..... 179
#8 1969 ..... 182
#9 1970 ..... 184
#10 1971 ..... 188
#11 1972 ..... 192
#12 1973 ..... 195
#13 1974 ..... 202
#14 1975 ..... 203
#15 1976 ..... 205
#16 1977 ..... 208
#17 1978 ..... 210
#18 1979 ..... 212
#19 1980 ..... 214
#20 1981 ..... 215
#21 지난일기 ..... 216
#22 1983~89 ..... 222
#23 1990년 이후 ..... 223

▲ 〈백옥빈 일기〉 표지



▲ 1962년 12월 16일 일기



▲ 1963년 1월 23일 일기

# 해제

해제1

# 초기 브라질 이민자의 생생한 기록, 백옥빈 일기

김윤정(한국이민사박물관)

1. 브라질 이민자 백옥빈
2. 1차 브라질 이민 출발과 정착
3. 브라질 한인들의 생활
4. 맺음말

# 초기 브라질 이민자의 생생한 기록, 백옥빈 일기

김윤정(한국이민사박물관)

## 1. 브라질 이민자 백옥빈

일기의 주인공 백옥빈(白玉彬, 1923~)은 1962년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했던 남미로의 농업 이민 정책에 따라 한국을 떠났던 여성이다.[1] 이민길에 오르기 전, 백옥빈은 월간으로 발행되었던 『사상계』 기자로부터 제안을 받아 1차 브라질 이민의 여정과 정착, 한인사회의 이야기를 일기형식으로 남기기 시작하였다.[2] 잡지에는 이민선 승선 2일차의 여정을 시작으로 1966년 9월까지 총 13회의 백옥빈 일기가 실렸다. 이 일기는 남미 한인들의 이민 출발과 도착, 이민 생활 등의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 브라질 이민사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당시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했었던 백옥빈은 남편의 사촌인 고광순의 권유로 이민을 결심하게 되어 남편 고계순과 4명의 자녀를 데리고 브라질을 향해 떠나게 된다. 이민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더 넓은 땅에서 마음껏 배우고 실력을 발휘해보고 싶은 마음, 우리 자손을 좀 더 크게 키우고 활약시키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기술하고 있어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위해 이민을 결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40세에 브라질 1차 이민단의 일원으로 이민길에 오른 백옥빈은 이민단이 출발한 시점인 1962년 12월부터 82세가 되던 2004년까지의 이민생활을 일기에 기록하였다. 42년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일기는 매해를 자세히 기록한 것은 아니다. 부산항 출발시점부터 이민선에 오른 후의 여정과 초기 정착과정까지 2~3년간의 이야기가 자세하고, 그 이후는 중요 사건들에 대해 간략하게 적어 놓았다.

이 일기가 최근 한국이민사박물관에 기증되었다. 그리고 2021년 특별전 《남미의 한인들》을 통해 공개되었다. 1960년대 남미로 출발했던 첫 이민자로써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전달해주고 있는 중요자료가 박물관에 기증된 것은 이민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박물관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는 한국이민사박물관에 기증된 〈백옥빈 일기〉의 내용들을 기초로 초기 브라질 이민자들의 이민 여정과 정착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고자 한다.

---

1) 브라질 이민은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남미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추진되었다. 남미의 국가들은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황무지 개척에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영토 개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2) 『思想界』는 1953년 4월 창간하여 1970년 5월까지 발행된 월간 종합잡지이다. 1970년 5월 통권 205호로 종간했다. 〈백옥빈 일기〉는 '이민 통신'이라는 제목으로 1963년 2월부터 1964년 10월까지 꾸준하게 실렸으며, 1965년 1회, 1966년 1회로 총 13회 수록되었다.

## 2. 1차 브라질 이민 출발과 정착

### 1. 이민단 환송

일기에서는 환송 모습이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서울역에서 이민단 특별 열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한 이민자들은 '브라질 이민단' 이라고 쓰여진 현수막이 달려있는 3대의 버스에 올라타 부산의 숙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다음날 12월 18일 부산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이동하였다. 부산항으로 출발하기 전날 저녁 숙소 근처 동래온천장에서는 정부주최의 환송파티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홍종철 최고위원(국가재건최고회의), 브라질 영사부부, 보건사회부 장관 등의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배가 출항하기 전 정부관계자, 인근 고등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며 이들을 환송했다고 하여, 첫 공식 이민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환송행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항해여정

1차 브라질 이민단은 한해가 저물어갈 무렵인 12월 18일 네덜란드 선박 치차렌카호에 탑승하여 부산항을 떠났다. 탑승 한국인은 총 17세대이며, 가족과 함께 떠난 이도 있었고, 가족을 두고 먼저 떠난 아버지들도 있었다. 저자인 백옥빈은 남편(고계순)과, 자녀 4명(고영자, 고홍일, 고홍철, 고홍준)과 함께 떠났다. 총 10개의 항구도시를 경유하여 가는 여정이었으며, 가장 길게 정박한 곳은 싱가포르로 기록되어 있다.

일기에는 12월 18일 출발하여 다음해 2월 12일 브라질 산토스항을 도착하게 되는 55일의 여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출발지(부산)와 도착지(산토스)를 제외한 경유지는 총 10개 도시로, 항해여정에서의 기록은 선상과 경유지에서의 생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상에서는 주로 브라질 이민을 대비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민자들은 브라질의 언어와 문화, 예절 등을 교육 받은 한편,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아이들은 술래잡기, 수건돌리기 등을 하고 어른들은 경마 게임을 즐기거나 춤을 배우면서 무료함을 달랬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페낭을 지나 적도를 지날 때 즈음에는 '적도제'를 치렀는데, 이는 항해 일정 중 적도 부근을 지나면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기원을 담은 축제성격의 행사였다. 일기에서도 적도제 덕분에 고단한 항해일정 속에서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경유지 도시에서는 짧은 시간이나마 관광하며, 다른 나라의 분위기를 느껴보는 등 일반 여행객과 다름없는 여유로운 생활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항해 중간, 특히 이민국인 브라질에 가까워질 때 즈음부터는 '목적지가 가까워지고 보니 …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고생할 각오로 떠나오기는 왔으나 불안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여 이민생활에 대한 부담감도 표현하였다.

〈표 1〉 브라질 1차 이민단 탑승 치차렌카호 항해여정[3)]

| (국가)도시 | 입항 | 출항 | 머문 시간 |
|---|---|---|---|
| (한국) 부산 | | 1962년 12월 18일<br>정오 | |
| (일본) 오키나와 | 12월 20일<br>오후 8시 | 12월 20일<br>오후 10시 | 1일 |
| (홍콩) 홍콩 | 12월 22일<br>오후 4시 | 12월 25일<br>정오 | 4일 |
| (싱가포르) 싱가포르 | 12월 29일<br>정오 | 1963년 1월 5일<br>오후 5시 | 8일 |
| (말레이시아) 페낭 | 1월 7일<br>오전 8시 | 1월 8일<br>오전 10시 | 2일 |
| 〈적도제〉 1월 11일 오전 10시 25분 | | | |
| (모리셔스) 모리셔스 | 1월 17일<br>오전 6시 | 1월 17일<br>오후 6시 | 1일 |
| (포르투갈령) 로렌수 마르케스[3)] | 1월 22일<br>오전 10시 | 1월 22일<br>오후 3시 이후 | 1일 |
|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 1월 24일<br>오전 8시 30분 | 1월 26일<br>오전 10시 | 3일 |
| (남아프리카공화국) 포트 엘리자베스 | 1월 27일<br>오전 10시 30분 | 1월 27일<br>오후 7시 | 1일 |
| 〈한일친선 탁구대회〉 1월 28일 오후 1시 | | | |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 1월 29일<br>오전 7시 30분 | 1월 30일<br>정오 12시 | 2일 |
| 〈어린이들의 운동회〉 2월 1일 오후 2시 | | | |
| 〈어린이들의 파티〉 2월 4일 오후 2시 | | | |
| 〈배 사령탑 견학〉 2월 5일 오전 9시 | | | |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 2월 9일<br>오후 7시 | 2월 11일<br>오후 4시 | 3일 |
| (브라질) 산토스 | 2월 12일 오전 7시 도착, 오후 3시 하선 | | |

긴 여정 끝에 1963년 2월 12일 아침, 이민자들은 마침내 브라질 산토스항에 도착하였다. 먼저 브라질에 와 있었던 한인들이 이민자들을 맞이하여 주었고, 이들을 위해 준비된 버스를 타고 쌍파울로 시의 주립 수용소로 향했다. 한인들은 이 주립 수용소를 임시거처로 하여 일할 곳과 집을 마련하는 등 정착을 위한 준비를 했다. 첫 이민단의 정착을 도운 이들은 먼저 정착한 이들, 즉 한국전쟁 이후 중립국을 선택하여 이곳으로 온 소위 '반공청년' 들과 공식 이민 이전 브라질 사정을 시찰하게 된 '문화사절단' 이었다.

3) Lourenço Marques. 현재는 마푸투(Maputo)로 개명하였으며 모잠비크의 수도이다.

### 3. 정착과 농장 이탈

이민자들은 정착을 위해 우선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일자리 마련을 위해 일본 이민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일명 '모범농가'를 견학하거나, 먼저 이주해 온 문화사절단이 마련해 놓은 땅을 보러 다니기도 하였다. 당시 브라질 이민이 농업이민을 표방하여 추진된 사업인 만큼 농토 상황을 고려하여 일할 수 있는 농장과 농기구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였다. 그러나 이민자들은 대부분은 군인, 버스기사 등 농사와 관련 없는 일에 종사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타국에서의 농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1차 이민단 17세대 중 농장을 정하여 우선 입주한 자들은 백옥빈 가족을 비롯한 5세대였고, 나머지도 곧 농장을 구해 입주하거나 다른 농장에 취직하는 형태로 일자리를 구했다. 백옥빈 가족이 입주한 과라레마(Guararema)의 '아리랑 농장'에는 1차 이민단과 이전에 왔던 이들을 합하여 총 10세대가 함께 농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진 1]** 아리랑 농장 사진, 1960년대

〈표 2〉 〈백옥빈 일기〉에 보이는 1차 이민자들의 정착 내용[4)]

| 정착내용 | 이름 | 비고 |
|---|---|---|
| GUARAREMA(아리랑 농장) 입주 | 고 홍 일 | 1차 이민자<br>(세대주 고계순의 아들) |
| | 서 재 옥 | 1차 이민자(세대주) |
| | 장 만 식 | 1차 이민자(세대주) |
| | 안 계 승 | 1차 이민자(세대주) |
| | 조 중 환 | 1차 이민자<br>(세대주) |
| 버섯농장 취직 | 윤 명 섭 | 1차 이민자<br>(세대주 이성용의 양자) |
| 김수조의 집 거주 | 김 덕 조 | 1차 이민자(세대주) |
| VIA ANHANGUER 농장 취직 | 유 재 선 | 1차 이민자(세대주) |
| | 장 상 기 | 1차 이민자(세대주) |
| BOM SUCESSO(서울농장) 입주 | 한 승 일 | 1차 이민자(세대주) |
| | 안 동 엽[5)] | 1차 이민자(세대주) |
| | 김 중 혁 | 1차 이민자(세대주) |
| | 서 재 성 | 1차 이민자<br>(세대주 서재옥의 동생) |
| 시내로 이사 | 한 용 전 | 1차 이민자(세대주) |
| ITAQUERA 농장 취직 | 김 철 현 | 1차 이민자(세대주) |
| | 김 승 한 | 1차 이민자(세대주) |
| 자동차 수리공장 | 양 승 갑 | 1차 이민자(세대주) |

1개의 농장에는 세대주와 세대원까지 포함하여 20~30명 정도가 모여 집을 짓고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성인들은 주로 땅을 개간하고, 일부 여인들은 농장에서의 취사, 세탁 등 가사를 돌보는 형태로 공동체적인 생활을 했다. 농장에서는 오이, 호박 등의 채소가 재배되었다.

〈표 3〉 1차 브라질 이민단의 농장

| 농장 | 위치 | 총 인원(세대) | 면적 | 소유형태 |
|---|---|---|---|---|
| 아리랑 농장 | GUARAREMA | 30명(13세대) | 40알켈 | 매매 |
| 서울 농장 | BOM SUCESSO | 22명 | 5알켈 | 임대 |

4) 일기에서는 농장 등 정착 상황을 언급하면서 1차 이민자와 다른 경로의 이민자들을 함께 언급한 경우가 많다. 표에서는 일기의 내용을 참조하여 17세대의 1차 이민자의 정착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차이민자 세대주 구분은 『브라질 한인이민 50년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브라질 한인이민사편찬위원회, 『브라질 한인이민 50년사』, 2011, pp.61~63.)

5) 1963년 6월 2일의 일기에서는 1차 이민 동선자 '안동협'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1964년 1월 12일 일기에서는 신부 최양의 양부 '안동엽'으로 기록되어 있다. 『브라질 한인이민 50년사』의 1차 이민자 17세대 명단에서는 안동엽으로 되어 있고, 양녀 최정순이 함께 적혀 있어 1차 이민자 '안동협'은 '안동엽'의 오기로 보인다. (브라질한인이민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62.)

같은 해 9월 18일에는 2차 이민단이 출발하여 11월 12월에 도착하였다. 2차 이민단들 중에는 1차 이민단으로 먼저 와있던 세대주의 가족들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가족들의 경우 먼저 와있던 세대주가 입주한 농장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1차 이민단 중 대다수는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으나 다음해부터는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고생했던 것 같다. 아리랑 농장에서는 이정수씨와 장상식씨가 농장을 이탈하여 불고기 장사, 과일 장사 등을 시작하였으며, 다른 이들도 음식점 개업을 준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타케라(Itaquera) 농장에서 일했던 이들도 공장에 취직하였다. 저자 백옥빈 가족의 경우에는 수용소에서 나와 장남 고홍일만 아리랑농장에 입주하였으며 나머지 가족은 도시에 정착했다. 백옥빈의 남편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브라질에서도 의사로서 일할 생각을 가지고 브라질 현지 의사면허 취득을 준비하였다. 의사로 개업하기 이전에는 약국을 개업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처럼 집단 농장에서의 이탈자와 도시로 정착하는 세대가 하나둘 늘어나면서 농업 이민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백옥빈 일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지금 한국이민을 엄밀히 따진다면 …
> 지금까지 완전한 집단농장을 경영하지 못했으니 한국 이민은 실패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때에 정신적으로 합심하여 2, 3년간 집단농장을 경영할 천주교계 이민계획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 〈백옥빈 일기〉 1964년 4월 19일

## 3. 브라질 한인들의 생활

### 1. 교육

초기의 남미 이민은 가족이 함께 이동한 형태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생계만큼이나 큰일이었다. 저자도 4명의 자녀와 함께 브라질로 이민을 오게 된 만큼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내용을 일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63년 4월 16일의 이야기에서 처음 학교 입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날의 이야기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한인들 간 의견을 주고받았던 일도 기록되어 있어 자녀 교육에 대한 한인들의 공통된 고민을 보여준다.

외국에서 온 아이들은 언어 문제로 연령에 맞는 학년에 편입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따라서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였다고 하며, 차츰 실력대로 진학하였다. 1965년 12월 일기 중에는 나이

가 많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아이들이 많아 입학시험을 치르고  중고등학교에 문제없이 진학하였다고 하여 한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볼 수 있다.

### 2. 결혼

일기에서는 한인들의 결혼식이 10차례 정도 등장한다. 주로 한국전쟁 이후 중립국을 선택하여 남미로 이주한 일명 '반공청년'들의 결혼식이다. 일기에 보이는 반공청년들의 결혼 상대자로 한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여럿 기록되어 있어 반공청년들과 한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긴밀하게 연락하며, 한인사회를 형성해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2]** 반공청년 손천기와 1차 이민자 최정순의 결혼식 사진, 1964년

〈표 4〉 〈백옥빈 일기〉에 등장한 한인들의 결혼

| 이름 | 이민경로 | 직업 | 배우자 | 결혼일 |
|---|---|---|---|---|
| 주영복 | 반공청년 | – | 한국에서 온 최씨 | 1963.4.20. |
| 김창원 | 반공청년 | – | 미타미에<br>(장승호씨 딸) | 1963.5.18. |
| 손천기 | 반공청년 | – | 최정순 | 1964.1.12. |
| 김서국 | 반공청년 | 철물공장 근무 | 장영자<br>(1차 이민단) | 1964.7.26. |
| 강석근 | 반공청년 | – | 김중혁 장녀<br>(1차 이민단) | 1964. |
| 김중진 | 반공청년 | – | 이현숙 | 1964.11.21. |
| 박정환 | 반공청년 | 중국식당 경영 | 성씨의 딸 | 1964.12.19. |
| 윤명섭 | 1차 이민 | 남미조합사무실<br>근무 | – | 1966.2.6. |
| 고영자 | 1차 이민<br>(백옥빈 자녀) | – | – | – |
| 고홍철 | 1차 이민<br>(백옥빈 자녀) | – | – | 1979.1.19. |

##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백옥빈 일기〉의 내용 중 이민 출발시점부터 이민국으로의 항해 여정, 농장 정착 과정, 그리고 한인들의 교육과 결혼 등 브라질 초기 한인사회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브라질 1차 이민은 대한민국 첫 공식이민자들의 출발이었던 만큼 환송에서부터 정부 주요인사의 참여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1962년 12월, 치차렌카호에 탑승한 이민자들은 55일간의 여정 동안 10개 도시를 경유하여, 1963년 2월 브라질 산토스항에 도착하게 된다. 도착한 이후 수용소를 거쳐 농장 정착을 위해 노력한 끝에, 아리랑 농장과 서울농장에 집단촌을 형성하여 농장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농장 개간의 어려움 때문에 점차 도시로 이동하여 한인사회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한편, 일기에는 자녀 교육과 결혼 등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는데, 특히 결혼은 한국전쟁 이후 중립국을 선택한 이민자들, 즉 반공청년들의 결혼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 일기의 기록 기간은 1962년부터 2004년까지 총 42년 정도 된다. 1차 이민단의 초기 정착과정 이후의 이야기들은 간단하게 정리된 면이 있지만, 브라질 한인 이민 역사의 절반이 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브라질 이민사회의 생생한 기록 〈백옥빈 일기〉가 이번 자료 기증을 기회로 공개 되어 이민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회상의 기회를, 새롭게 이민을 시도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민 준비에 대한 공감이 되어주는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해제2

# 백옥빈의 생애와 가족, 그리고 이민생활

안경자(전 상파울루 한국학교장)

1. 시작하며
2. 백옥빈의 삶 : 한국에서
3. 백모니카의 삶 : 브라질에서
4. 브라질 이민사회에서의 백옥빈
5. 마치며

# 백옥빈의 생애와 가족, 그리고 이민생활

안경자(전 상파울루 한국학교장)

## 1. 시작하며

백옥빈을 처음 만난 때를 필자는 지금도 기억한다. 1982년 아니면 83년이었을 게다. 그날은 재(在)브라질 서울대학교 동창회가 열린 날, 상파울루에서도 한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봉헤찌로(Bom Retiro) 구역의 한 작은 식당에서였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동창회는 늘 부부동반이었고 그날도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여 앉았다. 필자는 그 모임의 신참이었고, 백옥빈 그가 경성사범[1]을 나왔는지 전 한인회장의 부인인지 그런 건 몰랐을 때였다. 거기서 백옥빈은 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애들을 멀리 보내면 안 돼요. 공부한다고 멀리 유학 보내는 거 말리고 싶어요. 그 길로 자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이 지금까지 가슴에 남아있는지 모르겠다. 난 속으로 '자녀분 중 누군가를 멀리 유학 보내고 몹시 그리워하나보다. 자식과 정말 멀어지게 되었나 보다.'라고만 생각했다.

모임에서 모두들 그를 '모니카(Monica)'라고 불렀다. 대부분 한인 여성이 브라질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서로를 '아무개 엄마'라고 하거나 브라질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도 그제야 알았다. 이민 초년병인 내게는 그 사실이 너무도 우스웠다. 얼굴과 이름이 도무지 이상했다. 코메디 같았다. 그러나 어느 날 초등학생 딸이 "엄마, 엄마 이름으로 마리나(Marina) 어때? 부르기 편하고 쓰기 좋고." 한국 이름은 브라질 종업원이나 고객들이 부르기가 힘들고 몹시 낯설어 한다는 어린 딸의 설명으로 그날 나에게도 브라질 이름이 생겼다. 마리나, 도나 마리나(Dona Marina, 마리나 부인). 지금까지 그렇게 부르고 있다. 이름은 불러서 이름이다. 불러줘야만 생명을 가진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백옥빈의 이름, '모니카'는 그렇게 즉흥적으로 지어진 이름은 아니다. 영세명이다. 모니카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으로 브라질인들에게도 흔한 이름이다. 카톨릭 신자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영세명으로 서로를 인지한다. '백모니카', 그가 필자 모친의 대모(代母)[2]라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다. 그러한 관계는 성당 교우들 사이의 일이고 나는 대모라는 낱말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몇 년 아래인 백모니카를 대모로서 극진히 예우하였다. 퍽 인상적이었다.

브라질 한인사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대학 동문회 모임에 빠짐없이 나가면서 차츰 백모니카와 편안

1) 경성사범학교는 서울대학교의 전신이다. 백옥빈은 1937년에 경성여자사범학교 심상과(尋常科)에 입학했다.

2) 신앙의 증인으로 세우는 종교상의 여자 후견인을 말한다.

한 사이가 되었다. 필자는 브라질 한인회보 편집장을 역임하며 기획한 『이야기 한인사』의 발간을 위해 원로들을 찾아가 초기 이민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 5회는 백모니카편이었다. 그 인터뷰는 2004년 8월 초에 있었다. 백모니카의 생애는 한국 근대사를 고스란히 걸어 온 한 한국 지성인의 생애로, 단 몇 줄로 정리될 수가 없었다. 또한 필자는 그와의 인연으로 오래된 공책 원본, 그의 일기를 받아보게 되었다. '백옥빈 일기'는 그가 브라질 이민길에 오르던 때 한국 기자의 권유로 쓰기 시작한 이민 수기로, 그는 1962년부터 2004년까지 손글씨로 빽빽이 개인의 경험과 브라질 한인들의 일들을 적어놓았다. 백옥빈은 초기 교민회장을 역임한 의사 고계순의 부인이며 고영자, 고홍일, 고홍철, 고홍준의 어머니. 무슨 말로 그 예지를 더듬으랴. 1963~ 64년의 일기에는 농사경험이 일천한 데서 오는 불안감 속에서도 열심히 뛰어다니며 땅을 알아보고 단호히 뛰어들었던 브라질 한인 사람들의 이름과 일과 인간관계가 정확하고도 상세하게 담겨있다. 일기를 읽으면서 브라질 한인 사회에서 친분을 쌓았던 반가운 사람들의 이름이 일기 곳곳에 나올 때마다 우리 브라질 한인 역사 뿐 아니라 '반공청년'과 같은 한국 근대사의 족적을 알게 되는 새로움이 있었다.

필자는 브라질 한인의 이민 역사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데에 앞서 '백옥빈 일기'를 한 권의 책으로 간행하여 남기는 것이 매우 기초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모니카께 "책으로 만들게요."라고 약속한 적이 있다. 2021년 요즘도 모니카 백옥빈은 매일 책을 읽고 성경을 필사한다. 그의 지적 호기심과 신앙심은 지금도 싱싱하고 근면하다. 귀는 잘 들리지 않아 전화로 소통하기가 힘들지만 그는 자신의 일기가 책자로 나온다는 소식에 기뻐했다.

## 2. 백옥빈의 삶 : 한국에서

백모니카의 고향은 평안북도 정주(定州)이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성당의 '은빛대학[3]에 문학 강좌를 맡고 나서의 일이다. 필자가 자라면서 늘 들었던 나의 고향, 평안북도 박천(博川) 이야기에 등장하던 그 정주이다. 은빛대학 수강생들은 다 노년층이어서 필자와 동년배들이 많았는데, 나는 한국 문학 중에서도 시를 택하였다. 그곳에 앉아있는 노인들이 재학시절엔 배우지 못한, 또는 배울 수 없었던 작품을 알리고 싶었다. 첫 시간의 시는 김지하의 「새 봄」이었고 그 다음이 백석의 시였다. 백석의 시는 평안도 사투리가 등장하는 것이 특색이다. 시인의 고향이 정주라고 소개하였을 때 몇 분이 나도 고향이 정주라며 반겼다. 그 중 모니카가 있었다. 정주가 고향이라는 사실이 갑자기 가까움을 가져왔다. 정주는 나의 고향 같았으니까. 고향이 같다는 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가족애와 연결된다. 모니카는 강의가 끝날 때마다 지적 충만감을 드러내고 고마

3) 2007년 6월 29일 설립하였다. 9월에 개강하였으며 등록생은 110명이었다.

움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고향 평안북도 정주와 박천에 대해 서로 얘기 나눈 적은 없었다. 이제는 연로하여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모니카에게 유년시절의 회상을 서면으로 부탁드려 전달받았다.

나는 평안북도 정주군 림포면 고성리에서 태어났다. 우리 옆집은 '광산왕'이라고 하는 방응모씨의 99칸짜리 궁궐 같은 집이었다. 그 옆에 '해륙상회'에서 부친께서 일하시던 나의 어린 소학생 시절, 철없이 창고 안의 쌀 포대를 뛰어 넘으면서 놀았다. 주일에는 온 식구가 장로교회에 나가며 기쁘게 살았다. 우리 가족은 일곱 식구였다. 부친 백현행(白鉉行), 모친 김관실(金寬實), 장녀 백옥빈, 차녀 백옥실(白玉實), 장남 백룡제(白龍濟), 차남 백린제(白린濟), 삼녀 백옥희(白玉姬).

차남이었던 아버님께서 4형제분들과 함께 과수원을 경영하실 때 일곱 살이었던 나는 여섯 살 사촌 남동생 백문제와 함께 서당을 다녔다. 거리가 멀었는지 과수원의 일꾼들이 업어서 왕래했다. 이따금 사과를 한 자루 가지고 가면 모두가 환성을 올렸다. 하늘 천, 따 지, 하고 글을 쓸 때에는 나무로 만든 설합[4]과 같은 데에 모래를 넣고 글을 쓰고 또다시 흔들어서 글을 쓰곤 했다.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었다.

소학교 시절 나는 노래를 좋아해서 일본 선생들에게서 배운 것이 많은데 지금은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처음으로 올라간 탑'이라든가? 하는 노래가 있었다. '봄이 왔다, 어디에 왔나, 산에도 오고, 들에도 왔다.' 라는 노래 가사가 떠오른다. 나는 그때도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였다고 기억한다. 소학교 2, 3학년 때였나? 아침에 담임선생님이 애들 집 앞을 지나 학교에 가시는데 우리 집을 지날 때마다 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칭찬해주시곤 했다. 소학교를 졸업할 때 나는 도지사상을 받았는데 학교에서는 성적이 좋은 나를 무조건 경성사범학교에 추천해주었다.

경성사범학교에 합격한 나는 서울로 가서 기숙사에 들어갔다. 지방에서 올라온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러했다.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이 같이 있게 되어 서로 배운 것도 많고 깊은 우정을 나누기도 하였다. 음식은 입에 맞았는데 기숙사에서 일본 된장국을 먹다가 집에 가면 한국 된장국 맛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기숙사에 들어오면 일본 된장국 맛이 낯설었었다. 기숙사의 규칙은 엄했다. 한번은 고향의 대학생이 나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사감선생한테 걸렸다. 나중에 그 남학생이 정학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그때는 남녀 학생들의 편지 왕래도 허락되지 않을 때였다.

졸업 후 고향 평북 정주군 운전읍에서 소학교 교편 생활을 시작하였다. 일본인 남자 교장선생은 야무진 중년이었다. 뚱뚱한 일본인 할머니 선생, 키가 큰 초로의 한국인 남자 선생, 일본인 청년 선생이 생각난다. 어린 여자 선생은 나 하나뿐이어서 동료들로부터 귀여움을 많이 받았지만 나는 또래의 친구가 그리웠다. 당시에는 젊은 여자 선생이 극히 드물었다. 내가 학교 밖이나 집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모두가 길에 나와

4) 설합(舌盒)은 서랍을 한자로 쓴 말이다.

서 나를 쳐다보아서 너무도 쑥스러웠다. 어떤 축일에 선생들과 함께 재미있게 지냈던 일이 희미하게 생각난다. 소학교 교사로서의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아 별로 기억되는 것이 없다. 결혼을 하게 되어 그만 두었기 때문이다.

결혼은 우리 큰아버님과 고박사(남편, 고계순) 아버님이 중매를 하셨다. 친척 여관에서 선을 보게 되었다. 그때 고박사는 치과 전문학교 학생이어서 머리를 빡빡 깎았지만 착하고 순해보였다. 무엇보다 당시 대학생들이 쓰던 사각모 모습이 아주 멋있었다. 나는 어른들께서 하시는 대로 따랐다. 어른들은 그 자리에서 고박사 어머님이 보내신 비취반지를 내게 끼워주었는데 그것이 약혼이었다. 1942년에 결혼, 신부는 방년 19세.

공부를 계속 해야 하는 남편을 따라 고향을 떠난 것이 고향과 식구들과의 이별이었다. 그 후 서울에서 살았다. 내 동생 백옥실은 이북에서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1950년경에 월남하였으나 다른 식구들은 아무도 월남하지 못하였다.

백옥빈은 1923년생이다. 일제강점기에 평안북도에서 5남매 장녀로 태어났음에도 경성까지 유학을 할 수 있었던 집안 분위기 속의 신여성, 백옥빈. 일본 교육을 받아 일본어가 자연스레 나오고 한자 쓰기가 편한 여성이었고 고등교육까지 받은 당시 한국의 사정으로 볼 때 참 귀한 여성이었다. 무릎 아래 오는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 머리 총총 땋아 늘이고 경성 거리를 활보하던 모습을 그려본다. 지식인으로서의 모니카의 모습은 일기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일기를 달필의 한자로 가득 채워 쓰고 사람의 이름은 되도록이면 한자를 알아내어 적었다. 한자가 익숙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같이 온 이민자 이웃에 대한 예의, 그리고 이민사를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으리라. 한편 브라질 고유명사는 반드시 영어 대문자로 쓰고 있다. 새로 알게 된 브라질어 명사를 한글과 병기해놓기도 한다. 익숙해 진 단어는 저절로 뽀르뚜게스(Português, 포르투갈어)로 적은 것을 보고 그의 지적 활동에 새삼 놀라게 된다. 교포 식당의 긴 이름도, 단어의 액센트 기입도 잊지 않고 있다. 앞으로의 이민 후배들을 위해서 글자 하나하나 정확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온 배려이다.

백옥빈은 경성사범학교를 나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10대의 나이에 집안 어른들의 중매로 결혼하여 서울로 온 이래 다시는 고향에 가보지 못하고 식구들과 생이별한 채 자녀들을 낳고 교육시키기에 바빴던 중년의 여성, 한편으로는 의사 남편을 도와 안정된 생활을 누리던 부인이었다. 그런 그가 돌연 브라질행을 결정한 것은 그의 남편 고계순 가족들의 영향이 크다.

백옥빈의 부군 고계순(高桂珣, Camilo)[5] 박사는 대선배[6]이자 동문회 회장을 지내 우리 내외는 고박사님이라고 불렀다. 평안남도 진남포 제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제1차 이민선에서는 인솔단장이었고 동선자 가족들의 건강과 위생을 맡으신 분이었다. 초기 이민사회에서 교민회장으로, 그리고 의사로 갖가지 행사를 후원하고 고문으로서 큰 역할을 해온 분이고 많은 표창을 받으셨다. 고생 같은 건 전혀 모르고 살아 온 사람이구나 싶은 얼굴과 표정의 고박사는 우리 옷가게가 조엉 까쇼에이라(Rua João Cachoeira)에 있었을 때 자주 들르셨다. 1997년 1월 12일, 78세에 지병으로 별세하였다. 백모니카가 74세 때였다.

고계순 · 백옥빈 일가가 안정된 개업의사로서의 삶을 접고 브라질 이민을 결심한 것은 고계순의 사촌 형인 고광순(高光珣)[7]의 권유 때문이다. 평양 출신의 고광순은 브라질 이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으로, 공식적인 1차 이민보다 1년 전인 1962년에 '문화사절단'이라는 모호한 명칭을 가진 15인 단체의 일원으로 브라질에 도착했다. 홀로 브라질에 온 그는 가족들의 도착을 기다리며 먼저 브라질에 적응해 나갔으며 훗날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교포들에게 도움을 주고 일본사회와의 관계를 열어준 분이다. 한편 고계순의 여동생인 고옥순(高玉珣)도 1965년 10월에 브라질로 이민 왔다. 이화여대를 나왔으며 초기부터 활발한 리더십으로 이대 동문회를 이끌어 나갔다. 필자와는 고등학교 동문이라 인연이 있었다.

백옥빈 부부는 한국에서 1녀 3남을 낳았다. 장녀 영자, 장남 홍일, 차남 홍철, 삼남 홍준. 부모 모두 지식인이며 아버지가 의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풍족하고 편안하게 살았을 백옥빈 일가가 어느 날 머나먼 저 남미 땅으로 이민을 결정한 데에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 백옥빈은 그의 첫 아이, 장녀 고영자가 수술하던 때의 마음을 수필로 표현한 글인 「영이 수술하던 날」[8]에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을 것인가를 반성해본다."라고 적었다. 또한 필자와의 「이야기 한인사」 인터뷰에서 안성의 전원도시에서 개업의로 안정된 생활을 하던 식구들이 돌연 이민을 결심하게 된 것은 당시 숨 막히던 사회상 때문이었다는 것, 그리고 꿈과 자유 속에서 아이들을 기르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밝혔으며, 자녀들을 위해 이민을 왔는데 이것이 잘 한 일인지 의심할 때가 있다는 진솔한 말을 한 바가 있다.

---

5) 1933년 평남 진남포 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1939년 서울 휘문중고등학교 졸업. 1943년 경성치전을 졸업하고 경성의전 부속 전문병원에서 근무. 1949년 서울대학교 의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제3외과에서 근무. 1951년 국립 경찰병원 외과 근무, 중앙시험실장 겸임. 1957년부터 인천도립병원, 안성도립병원 외과 및 부인과 과장으로 근무. 196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과대학 박사과정 마침. (최금좌, 「이야기 브라질 한국이민사: 전보사부 차관 한국진과 초기 이민자 고광순을 중심으로」, 『포르투갈브라질연구』, 2008, 참조)

6) 필자 대학(서울대학교)의 선배

7) 1918년 평양 출생. 고광순의 부친 고창희(高昌熙)는 일제강점기 만주와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한 근거로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고광순은 일본 교토중학교,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왔으며 원산수산시험장에서 근무하다 1951년 1.4후퇴 때 월남하여 서울과 제주도에서 거주하였다. 제주도에서는 귤 재배 및 통조림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 그는 자신의 이민 동기에 대해 김일성대학 출신이라는 사실로 남한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금자, 위의 글, 2008 참조)

8) 1988년 4월 『열대문화』 4호에 실렸다. 계간지 『열대문화』는 브라질 한인들을 위한 문화교양지이다.

1960년대 해외 이민이 가능해지자 한국을 떠난 이민자들은 본인과 자녀들의 미래가 국내보다는 외국이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1960년대 이민자들을 분석해보면 한국전쟁 후 남쪽으로 온 북한 출신의 사람들의 비율이 높고 그 중에서도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과 기독교인, 지주나 공무원들이 많은데, 그들은 남한에서 연고가 적은 편이고 비교적 남한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었으므로 1962년 해외 이민의 시작부터 이민에 적극적이었다.[9] 월남인이자 지식인, 기독교인인 백옥빈 일가는 전형적인 초기 이민자들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모니카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다.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브라질로의 이민을 결심한 것은 남편 가족의 권유가 발단이지만 백옥빈 스스로의 결심도 있었을 것이다. 집안이 넉넉하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신여성, 그리고 독실한 신앙인인 백옥빈은 해외, 그리고 카톨릭 국가인 브라질에 대해 호의적이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 3. 백모니카의 삶 : 브라질에서

백옥빈 가족은 1962년 12월 16일에 부산항을 출발하여 1963년 2월 12일에 브라질 상파울루주 산토스항에 도착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첫 공식이민단 제1차 브라질 이민단, 영농(營農)이민으로서 온 그들은 모두 17가구에 92명이었다.

백옥빈은 이민선 안에서 계속 이민과 농장 경영에 대해 각오와 결심을 해 왔지만 농장 경영의 꿈은 도착과 더불어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 일기에 조금씩 나타난다. 농장 계약이 순조롭게 성사되지 않아 이민단들이 주립수용소에 머물던 와중에 2월 14일 백옥빈은 일기에 '우리가 한국에서 듣던 바와 같은 지상낙원이 아니'라고 쓰고 있다. 농사이민으로 왔기 때문에 도시에서 가까운 곳에 땅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몇 가구가 상의한 끝에 고광순이 매입한 땅 옆에 2알켈의 토지를 우선 100불씩 걸고 계약하였다.

그러나 백옥빈 부부가 농업에 종사한 것은 아니었다. 이민 초기 백옥빈의 가족은 농업에 도전을 할 것인지 남편 고계순의 직업인 의사에 전념할 것인지를 꽤나 고심하였다. 욕심으로는 양쪽을 다 하고 싶으나 1년에 2회 혹은 3회 농사를 짓는다면 3년 후에는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의사가 되려면 큰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브라질 말과 공부를 해야 하며, 무엇보다 당장 생활 문제가 걱정이었다. 3월 3일에는 반공청년 강석근씨의 소개로 천주교회의 일본계 신부를 만나 브라질에서 의사가 되려면 고등과 과정 시험도 보아야 하고 병원에 취직하면서 의사시험을 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에 대해 백옥빈은 '오히려 기쁜 희망의 말을 듣

9) 국사편찬위원회, 『재외동포사 총서 4 북미주 한인의 역사(상)』, 2007, 140쪽.

고 돌아왔다'고 적었다. 결국 3월 18일 상파울루에서 50㎞ 지점의 땅 과라레마 일본 사쿠라 식민지(농장) 근처 농장에 문화사절단의 고광순, 한춘교, 그리고 1차 이민자 5세대가 농지를 계약하고 입주하는데, 백옥빈 일가에서는 장남만이 입주하였다. 나머지 식구들은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남은 이미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나이의 청년이고 농업이민을 왔으니 농장을 일구겠다는 꿈을 내보였다. 백옥빈은 '홍일이는 그곳에 머물러서 자기의 희망을 실현해보려는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쓰고 있다.

상파울루 주립 이민 수용소에 머물고 있던 백옥빈 일가는 1963년 3월 24일 시내에 고광순과 함께 있을 셋집을 얻어 이사를 했고 많은 고민 끝에 의사와 가까운 직업이라는 생각에 시내 중심지에 약국을 개업하였다. 총 7,000불에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는 반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1년 동안 나누어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11월 3일, 가업으로서 약국을 시작하고 11월 말에는 약국 뒤편의 집으로 이사를 했다. 약국은 가족들끼리 아침부터 밤까지 서로 교대해가며 일하고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 매우 고생하였으나 약 3년 동안 경영하였고 1966년 10월 6일에 문을 닫았다. 남편 고계순이 의사자격을 따기 위해 1966년 9월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다음 달인 10월부터 브라질 북부 도시인 헤시피(Recife)에 있는 연방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기 때문이다. 백옥빈은 '만 3년간 경영하던 약국을 닫았다. 아침부터 밤까지 서로 교대하며 통하지도 못하는 언어로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였고 아니꼽기도 한 생전 처음인 약 장사를 인제 고만두고 보니 아이들이나 나 역시 어쩐지 허전한 기분이다. 이런 것이 아마 시원섭섭하다고 하는 마음일 것이다. 아버지께서 용단을 내려서 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고만 두게 된 것이다.'라고 일기에 적었다. 그동안 백옥빈은 가계를 위해 다른 교포들이 하는 것처럼 일거리를 얻어 구슬을 꿰기도 하고 바느질도 하였다.

고계순은 1967년 5월 5일에 50세의 나이에 의사갱신시험을 합격하였다. 남편 고계순이 합격을 알리기 위해 보내 온 전보를 백옥빈은 사본으로 남겨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04년 『이야기 한인사』를 위해 필자와 나눈 인터뷰에서 그동안 가장 기뻤던 일 중 하나로 남편이 의사시험을 끝내고 '만세!'라고 적힌 전보를 보냈을 때의 일을 꼽았다. 고계순은 한국인 제1호 브라질 의사가 되었고 백옥빈 일가는 농업을 시도하다 도시로 나와 상업에 종사하는 다른 이민 가족들의 삶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남편 고계순의 의료업 종사를 위해 다시 이사를 했는데, 1967년 8월 26일 상파울루 중심에서 약간 떨어진 빌라 까헝(Vila Carrão)에 집을 마련하고 진찰실을 만들어 환자를 받기 시작했다. 일본계 이민들이 많이 산다는 정보를 받고 그 곳으로 간 것이었다. 고계순은 오전에는 시내의 큰 병원, 오후에는 개인 진료실에서 일하면서 인지도를 올렸다. 1970년에는 상파울루 시내 아파트에 진찰실을 하나 더 열었다. 그동안 백옥빈은 남편의 진찰실에서 그를 보조하는 일을 하였다.

어느 정도 남편의 직장이 안정화되자 백옥빈의 가족은 1972년 2월 12일 막내아들의 대학입시준비 학원이 가까운 시내 중심가 아베니다(Avenida) 안젤리까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아베니다 안젤리까는 유수한 부촌 중 한 곳이다. 그리고 1975년 2월에는 백옥빈이 가고 싶어 했던 안젤리까 셀지삐길에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백옥빈 일가가 브라질로 이민 온 지 약 10년째에 접어들게 되는 1970년대에는 안정적으로 브라질에 정착한 모습이 보인다. 이민 10년 후인 1973년 7월 2일 일기에는 백옥빈 스스로 이민 10년에 대한 감회를 밝힌다. '나의 결혼 31주년의 날이다. 저녁 늦게 영자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꽃다발을 들고 오셔서 깜짝 놀랐다. 31년 동안 고락을 같이한 우리들 어려운 일도 많았고 또 기쁜 일도 있었지만 항상 조마조마한 가운데 긴장하고 살아 온 것 같다. 더구나 브라질에서의 10년간은 참으로 뜻 깊었고 너무나 바쁜 생활이어서인지 잠깐 사이에 지낸 것 같다. 영자네와 홍일네가 나의 반지와 아버지의 반지(에메랄드)를 해주었다. 오늘 현재도 우리와 영자네 홍일네 각각 아파트를 샀고 차가 4대 오토바이 1대, 또 각각 사업도 잘 되고 있으니 천주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고계순과 백옥빈 부부가 브라질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그의 자손들 또한 한국으로 역이민하거나 다른 곳으로 재이민을 하지 않고 브라질에 남아있다. 재능이 많은 첫 아이, 장녀 고영자에 대한 백옥빈의 마음은 일기 곳곳에 염려스러움 또는 애처로움으로 조심스럽게 배어 있다. 아직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한 이민 생활 속에서 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위해 미술과 음악 공부를 지원하고 그 성취 과정을 지켜보는 엄마의 기쁜 마음도 볼 수 있다. 부모를 따라 브라질 이민선에 탔을 땐 열아홉 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술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이민선 안에서는 어머니를 도와 동선자 중 유년반을 맡아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으며 한국 이민자들과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해 아코디온으로 한국 노래를 연주하기도 한 재주 많은 고명딸이었다. 고영자는 맏이로서 집안을 돌보는 한편 한국에서 공부했던 음악과 미술 분야에 계속 노력을 해왔다. 1968년에 결혼하였고 슬하에 1남 1녀가 있다. 그는 1994년부터 조각가로서의 온전한 길을 걷기 시작하였는데, 늦게 시작한 예술가의 길이었으나 2004년도에 이르러서는 개인전 단체전을 포함해 110회 이상의 전시회를 개최한 유명 작가가 되었다. 조각가로서 알루미늄, 흰 대리석, 동 등을 이용해 고향인 한국의 산, 한국 여인상, 6 · 25전쟁 등을 표현하였다. 그의 작품 중에는 한반도의 모양을 형상화 한 〈메아리〉, 〈38선〉 등이 있다. 2004년 7월에는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에 브라질 교포 조각가로 참석하였으며 그가 60세가 되던 2005년에 대한민국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이 선정되어 2006년 신소장품 전시회에 전시되었다. 한편 필자는 계간지 『열대문화』의 동인으로서 고영자에게 원고를 청탁한 적이 있다. 그는 『열대문화』 3호(1987년 8월)에 수필 「사랑의 사계절」을 기고해주었고, 이어서 다음 4호(1988년 4월)에는 그와 백옥

빈 두 분께 수필문을 청탁하였더니 백옥빈은 「영이 수술하던 날」을, 고영자는 「새벽의 언어」를 보내왔다. 이런 인연이 이어져서 『열대문화』가 오랜 휴면 끝에 2012년에 제 10호를 내게 되었을 때 고영자는 두 편의 시 「호수로 가겠습니다」, 「장미」를 기고해주었다.

1962년 이민선에 오를 때 17세의 고등학생이었던 장남 고홍일은 브라질에 도착하고 집안 어른들의 권유와 본인의 꿈을 따라 농장에 들어가 홀로서기를 하였으나, 결국 시내로 나와야 했다. 1969년 9월 6일 백옥빈의 일기에 따르면 장남은 다니던 회사에서 독립, 집의 방 한 칸에서 전자부속품을 만들다가 근처에 공장을 얻어 이사를 나갔다고 되어있는데, 그런 그를 백옥빈은 아직 경험도 없고 이 나라의 법도 잘 모르나 곧잘 해나간다며 대견해 하고 있다. 장남은 20대 후반에 전기제품 회사인 파고다(PAGODA IND de Produtos Eletronicos Ltda)를 운영하였는데 매상이 좋아 한국의 신문에도 소개되었다.[10] 그 후에 그는 한국 교포의 중심 사업인 의류업으로 들어와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1972년에는 본인이 원하던 대학의 경영학과에도 합격하여 공부하기도 했다.

그의 결혼식이 흥미롭다. 1972년 10월 한국 성당에서 거행하였는데, 백옥빈은 일기에 신랑신부 양가의 여자들 전부가 교포 역사상 처음으로 브라질 사람들처럼 긴 드레스를 입었다고 적어놓았다. 이것을 보면 10년 가까이 되자 브라질 문화에 많이 적응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어 흥미롭다. 새로운 드레스를 입는 것이 브라질 결혼 풍습이므로 이젠 교포들도 청첩장을 받으면 제일 먼저 옷을 찾아 나선다. 한복은 폐백 드릴 때에만 입는다. 고홍일은 슬하에 2녀가 있다. 필자 내외가 옷가게를 하고 있을 때 고홍일은 근처에서 의류업을 크게 하고 있었고, 그도 우리가 다니던 컨트리클럽의 회원이어서 주말마다 만날 수 있었다. 거의 브라질 사람이 다 된 그는 아주 쾌활하고 부모님과 가깝게 지내는 우리에게 깍듯하게 인사하곤 하였다.

백옥빈의 둘째아들과 셋째아들도 대학을 나와 브라질에 잘 정착하였다. 둘째 아들 고홍철은 1972년 1월에 상파울루 중심가에 있는 화삐(FAAP) 공대에 입학하여 공부하였고 결혼 후 역시 의류업에 종사하였고 1남 1녀를 두었다. 셋째 아들 고홍준은 브라질리아 연방 의과대학에 입학하였으나 휴학계를 내고 자신이 원하던 상파울루 의과대학으로 갔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의사가 된 그는 저명한 소아외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다. 1남 1녀를 두었다.

10) 「南美의韓国人〈1〉 브라질(上)」 『동아일보』 1974년 7월 26일

## 4. 브라질 이민사회에서의 백옥빈

1962년 브라질 이민을 위해 오른 이민선에서 백옥빈은 제1차 이민단의 구성원이자 이민선에서 이민단장으로 선출된 고계순의 부인으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심한 뱃멀미 중에서도 많은 역할을 감내하였다. 1964년 8월에는 교민회의 회장으로 고계순이 추대되면서 남편과 함께 브라질 한인 사회에서 주요 인사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백옥빈 스스로는 1966년에 교민회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었다. 이때 백옥빈과 함께 여성 이사로서 황점례[11]도 선출되었다. 이민 사회에서 가정생활의 중심인 어머니, 이민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의 의견 수렴이나 2세 교육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교민회에서는 '이사'라는 구성원에 두 여성을 넣었으나 아무래도 남편들의 활약이 참작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5대 임정섭 회장 때에도 백옥빈은 교민회 이사가 되었다.

1967년 7월 이사회 개최 공문을 받고 이사로서 회의에 참석하였던 백옥빈은 그날 일기 말미에 '우리 여성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 적고 있다. 여성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더불어 한 가닥 회의를 느끼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백옥빈은 이민선과 수용소에서 한국 이민단이 협의를 위해 자주 열었던 세대주 간 회의가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것을 계속 목격해왔다. 그러나 그는 그 까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도 자신이 떠나 온 시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지니고 그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 이민사회의 한 특징이다. 60년대 이민 초창기, 본국 사회의 윤리와 도덕적 가치를 그대로 옮겨놓은 브라질 교민사회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돋보일 자리는 없었다. 초기의 교민회에서 여성의 할 일이 있다고 여성이사를 둔 것은 상당히 일찍 민주화한 것이었으나 그 분위기가 굳건히 지속되진 못하였으니 초창기 백옥빈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하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백옥빈은 본국에서 오는 많은 손님들을 맞아 이 땅에도 한인들이 잘 살아내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본국과 브라질 교포사회가 잡고 있던 길다란 관심의 끈을 단단하게 해주었다. 백옥빈은 남편과 함께 초기 브라질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본국에서 오는 많은 귀빈들을 맞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국인의 브라질 공식이민이 이루어진 1960년대부터 점차 국제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우리나라 학계와 학술계가 브라질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음을 백옥빈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백옥빈은 1964년 권오익 서울대 상대학장, 1966년 7월 21일에는 펜클럽대회에 온 조경희 여사, 1967년 9월 24일 제9회 상파울루 비엔날에 참가한 박래현 · 김기창 내외, 김인승 화가, 1979년에 열린 펜클럽대회 차 브라질을 방문한 모윤숙, 전숙희, 윤호영, 정한숙 문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였다.

11) 1962년 1월 문화사절단의 일원으로 브라질에 정착한 이종만의 부인이다. 1963년 가족 초청 이민으로 브라질에 왔다.

또한 백옥빈은 한인 사회의 여성 모임인 부인 합창단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1971년 일본인 부인 합창단 공연을 보고 뜻 깊은 일이라는 생각에 재백 한국인들도 모임을 결성한 것인데, 백옥빈은 스스로 '나이가 들고 자신이 없지만 같이 해 볼 생각'이라고 소감을 밝힌다. 1988년에는 어머니 합창단에도 참여하였다. 이민 온 지 20여 년이 흐르자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겨난 5, 60대의 여성들이 모여 결성하였는데, 백옥빈은 고향에 대한 추억과 초창기 이민의 고생스러웠던 기억들을 회상하며 기쁘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활동에 임하였다고 회고한다. 어머니 합창단은 부인들의 일선 활동이 적어지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 외에도 백옥빈은 브라질 한인사회의 다방면에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갔는데, 1992년 불우이웃돕기 자선 음악회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어 2005년까지 12회의 자선음악회를 열었다. 또한 2002년 성소위원회 창립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백옥빈은 브라질 1차 이민자로서 남긴 '백옥빈 일기'의 집필자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1962년 12월 16일 이민자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 기차를 타기 위해 서울역에서 지인들과 이별을 고하고 17일 부산역에 도착한 백옥빈 일가는 동래에서 정부 주최 환송 파티를 받고 18일에 부산항에서 언론, 시민, 학생들, 친구, 친척들과 눈물 어린 송별식을 한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 백옥빈에게 다가왔는데, 당시 가장 지가(紙價)가 높았던 월간지 『사상계(思想界)』의 기자였다. 그는 이 순간부터 모든 나날의 일들을 『사상계』에 연재하려 하니 부디 글을 써서 보내달라고 부탁해왔다. 백옥빈은 얼떨결에 약속을 하고 특파원이 되었다. 백옥빈은 이민선에서 심한 멀미를 겪으면서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기를 아주 소상히 써나가게 된다. 이를 계기로 평생 일기 쓰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일기는 문학으로 분류된다. 가장 유명한 일기는 〈안네 프랑크의 일기〉일 텐데,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의 일기이지만 세계 7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한 소녀의 문학적 감성에 그 기본이 있다. 그러면 백옥빈 일기는 어떤 가치가 있는 일기인가 생각해 본다. 최초의 국가 간 협약에 의한 이민이므로 역사적인 기록, 즉 날짜부터 사건, 지명, 인명, 풍습과 문화 등이 소상히 기록되었다는 데 큰 가치가 있으며 일기 문학으로서 유려한 문장과 감성적인 표현을 감상할 수 있다.

백옥빈의 일기는 처음의 목적이 한국의 잡지에 이민 수기를 전송하려는데 있었으므로 개인의 일기라기보다는 브라질 한인에 대한 관찰이자 기록과 같다. 매우 사실적이고 상세하게 브라질에 이민 온 한인들의 모습들을 적었으므로 일기를 통해 1차~4차 이민자들의 가족 상황까지 알 수 있다. 일기는 이민선 항해일지부터 시작된다. 선상에서의 일을 자세히 기록했는데, 많은 외국인들 앞에서 우리의 고전무용을 직접 보여주었다는 이야기 또한 『사상계』에 연재되어 후속 이민자 중에 고전무용을 배워 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

고 브라질에 도착한 후로는 자신의 가족과 한인들의 적응 과정을 소개하고 이곳저곳에 흩어져 간 이민자들의 여러 모습을 그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기록하려 애썼다. 또한 교민회의 결성과 구성원들, 공식 행사, 교민들의 상호 대립, 대사 영사와의 대립도 자세히 술회하였다. 남편 고계순과 백옥빈이 교민회에서 오래 활동하였으므로 포한사전 편찬 계획, 현재 많은 한인들이 잠들어있는 상파울루 겟세마니(Gethsemani) 공동묘지에 대한 일화 등 교민사회에서 있었던 일들도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백옥빈이 기독교인인 만큼 한인 천주교회의 성장 과정도 자세히 써놓았다.

어머니인 백모니카의 관심사는 본인보다는 주로 가족, 가정생활이었다. 주부로서 그는 우선 식료품과 물가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의식주와 관련해서 알게 된 것을 세세하게 일기에 기록하였는데, 주부로서 가정생활에 유익한 정보들이었다. 집을 구하러 나섰을 때의 알게 된 것들, 일반 아파트나 주택은 방이 두 개, 쌀라(응접실) 하나, 부엌, 변소, 세탁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당시의 보증금, 집을 살 때에는 수년간 월부로 나누어 낸다는 것 등을 적었다. 또한 식료품이나 미장원의 파마 값, 시외버스 요금, 봉급 등의 값을 한화로도 적어 놓아 물가를 한국과 비교하고 있는 주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자녀들의 교육에 관해서도 세세하게 기록하였다. 일기에는 이민선에서부터 시작된 포어(葡語, 포르투갈어) 교육과 1964년부터 교민회 사무실에서 실시한 문법 및 회화 강의에 대한 내용도 있고, 처음 이민 와서 통하지 않은 언어로 인해 자녀들이 학업에서의 어려움을 겪어 안타까워하고 걱정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토로되기도 한다. 언어 고충에 대해서는 계속 아쉬워하지만, 한편 브라질에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브라질의 학교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공부만 잘 하면 한 사람이 두 학교를 다닐 수 있으며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어, 경제와 시간이 허락하면 얼마든지 일평생 공부할 수 있는 나라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백옥빈의 필치와 감성으로 적혀 있는 일기는 한 지성적인 여성의 역사인식이라는 시각 속에 날카로운 비판과 미래지향적인 관점이 담백하게 담겨 있어 이민역사를 연구하는 이들에겐 흥미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민단이 입주 예정지에 대해 고뇌할 때 백옥빈은 '앞으로 각자가 살 곳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명료하게 결론을 내렸다. 좀처럼 크게 의견을 피력하지 않는 백옥빈이지만, 브라질 한인 사회의 분열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적었다. 영농이민으로 브라질에 왔지만 자금난, 인력난, 자녀 교육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결국 하나 둘 농촌을 떠나 도시인 상파울루로 오게 되면서 교민들은 국가 간의 약속을 어겼다는 일말의 죄책감으로 마음이 편치 못한 상황이었다. 협의보다는 자기 주장이 우선인 사회로 변질되어가는 와중에 백옥빈은 '일치단결하지 못하고 남을 헐뜯고 서로 자기만을 내세우려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할 일이나 꾸준히 하고 내 자식들이나 잘 키우면 그것이 내 나라를 빛나게 하는 것'이라고 자기 소신을 밝혔다.

1969년 광복절 행사에서 소동이 일자 백옥빈은 그날 일기 말미에 '아무튼 외국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챙피하다. 양쪽 다 잘못이다. 좀 더 외부에 나타나지 않게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라고 적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생활하며 이곳의 문화, 풍습, 물가, 교육제도, 정치, 지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느낀 점을 한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소감을 남겼다. 처음으로 산토스 바닷가에 갔을 때에는 한국사람처럼 복잡하지 않고 그저 간단하게 차려와서 상보를 깔아 놓고 점심을 먹는 모습, 휴일을 즐기는 브라질 사람들을 보고서는 여유가 없는 한국 사람이 불쌍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공원에 앉아 서로 부둥켜 앉아있는 브라질 젊은 남녀를 보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한다고 거부감을 내보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겉으로만 얌전을 빼는 한국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도 한다. 그리고 브라질의 최대 축제인 카니발을 경험하고 나서도 실컷 놀고먹으려는 듯한 행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그 '광적인' 축제가 천주교 자녀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염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실제로 필자가 보아 온 모니카의 자세는 늘 반듯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었다. 브라질의 역사적 현장에서의 체험담도 자세히 적었다. 1964년 3월 31부터 시작된 브라질 쿠데타의 소식에 서울에서의 군사정변을 떠올렸던 그는 비교적 상세하게 그 날을 기록하였는데, '지난날에 한국의 정치인들을 생각하며 과연 자유를 사랑하는 전통적인 카톨릭 국가인 브라질은 모든 면에서 대륙적인 감을 느꼈다.'고 하였으며,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사상과 관련한 수색을 당해야 했을 때에는 분개하는 한편으로 '어수룩하다고 믿어오던 제2의 고국이 될 이 브라질의 꽉 째인 일면을 엿본 듯싶어 한편 대견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고 의외의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 5. 마치며

백옥빈의 일기는 브라질 한인 이민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 교수들과 작가들의 필독서가 되고 한인이민사의 기초자료가 되어 주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복사를 하여 읽었을까? 필자가 집필에 참여한『브라질한인이민50년사』(2011)에서도 백옥빈 일기는 중요한 자료로 쓰였다. 브라질 한인 이민사에 있어서 이 일기 이상의 자료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오래된 일기장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민사의 간행보다 백옥빈 일기의 간행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이 일기에 담겨있는 이야기, 백옥빈이 직접 적은 글들이 너무도 아까웠다. 게다가 기록자인 백옥빈이 생존하고 있어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 이 자료가 더욱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백모니카와 가깝게 지내는 집안, 모니카에게는 조카벌인 한 교포는 자신에게 백모니카는 "어머니 같고 때로는 형님 같고 친구 같은" 분이라고 말한다. 그가 보았을 때 모니카는 도무지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 깔

끔하고 꼬장꼬장하고 까탈스러운 면도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나이가 든 지금도 모든 것의 정리정돈이 완벽하고 늘 책을 옆에 두고 지내며 독서로 하루를 보내는데 빌린 책의 목록을 다 써놓을 정도이다. 한편으로는 갓 구워 따뜻한 뻥징요(Páozinho)와 까페 공 레이찌(Café com Leite)[12]를 드실 때 행복해하시며 오후에 누워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봄에 꽃이 피면 소녀같이 좋아하는 분이라고. 그리고 슬픈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어도 탄식하지 않고 믿음으로 꼿꼿하게 사는 분이라고 한다. 1964년부터 2004년까지 일기 한 권을 잊지 않고 계속 쓴 데에는 그의 성격이 한 몫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백옥빈 일기〉에 앞서 백옥빈을 소개하는 이 글을 써가면서 자연스레 떠오른 하나의 의문이 있었다. 심한 뱃멀미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던 이민선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낯선 이민 생활 속에서도 매일매일 일기를 쓰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 마지막 날 일기에서 필자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일기를 관통하는 정신은 백모니카의 신앙심이었다. 그녀의 신앙심은 일생을 거쳐 다듬어져 온 것인데, 그 신앙심으로 가족을 이끌고 이민생활의 풍상을 견디었다. 신앙의 힘은 점점 더 깊어져 갔고 그래서 고통을 인내하고 슬픔을 정화한 것이리라. 백옥빈은 스스로 자신의 성격을 '활발할 것 같으면서도 내성적이고 무엇이든지 귀찮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는 신앙심으로 성당에서 중책인 프란시스코회의 회장을 맡고 성가를 불렀다. 또한 평신도 신앙공동체인 레지오 마리에(Legio Mariae)회원이 되어 어려운 사람, 환자나 냉담자 교우를 방문하는 일을 열과 성을 다하였다. 성당 어머니회에서도 회장에 선출되어 계속 중책을 맡았다.

브라질에서의 삶이 익숙해지고 단조롭고 한가로워지자 백옥빈은 점차 일기를 쓰는 빈도가 줄어간다. 가끔 써내려간 일기의 내용은 주로 가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한인들을 위한 성당 축조에 대한 내용이다. 일기 쓰기를 멈춘 것은 삶의 무상함,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어도 모니카는 매일 책을 읽고 성경 필사를 멈추지 않는다. 지금 그의 기도는 자녀들의 건강을 비는 것뿐, 바랄 게 없다. 브라질에 정착하여 더할 나위 없는 안정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백모니카의 가슴 속과 기억 저 깊은 곳에 있을 더 많은 이야기들이 더 풀어내어지길 바란다.

12) 브라질 사람들이 아침에 먹는 프랑스풍의 빵과 커피에 우유를 넣은 카페라떼.

▲ 백옥빈 장녀 고영자의 피아노 연주회날(1963년)

▲ 백옥빈의 가족들(2019년 12월)

▲ 글을 쓰고 있는 백옥빈(2021년 6월)

해제3

# 대중매체를 통해 본 브라질 이민

이슬아(한국이민사박물관)

1. 들어가며
2. 해방 이후 집단 이민의 논의
3. 브라질 이민열풍
4. 이민에 대한 이상과 현실
5. 나오며

# 대중매체를 통해 본 브라질 이민

이슬아(한국이민사박물관)

## 1. 들어가며

해방 이후 집단이민은 한국 사회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외국으로의 집단이민은 1945년 일제의 패망 이후 한반도의 식민지 경제구조가 붕괴된 상황에서 과도한 인구밀도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여겨졌다. 한국인의 집단이민 대상지는 동양인의 이민에 호의적인 남미, 그 중에서도 브라질이었다.

대한민국은 1959년 브라질과의 수교를 시작으로 1960년대 초 중남미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었고, 이와 더불어 남미 대륙으로의 이민길이 열렸다.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집단이민인 브라질 이민은 1962년 12월 18일 제1차 브라질 이민단이 부산항을 떠나며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이듬해 2월 12일에 브라질 산토스항에 도착했다.

브라질로의 첫 이민에 대한 가장 생생한 기록이 〈백옥빈 일기〉이다. 1차 이민자인 백옥빈은 월간지 『사상계』기자의 요청으로 일기를 쓰고 한국에 전송하였다. 그리고 잡지 기고 이후에도 일기 쓰는 일을 지속해왔다. 〈백옥빈 일기〉는 이민자 백옥빈의 개인적 경험을 기록한 일기이지만 1960년대부터 형성된 브라질 한인 사회의 기록이기도 하다. 또한 일기를 쓰게 된 동기가 개인의 결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월간지 기자의 요청이라는 외부 요인에 있다.

본고에서는 이민자 백옥빈이 왜 〈백옥빈 일기〉를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 주목하여 대한민국 정부 공식의 첫 집단이민인 브라질 이민의 시작과 그 첫 이민을 둘러싼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시의 대중매체, 주로 신문기사에 접근하였다. 〈백옥빈 일기〉 또한 『사상계』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된 글이기 때문이다. 이민에 대한 당시 사회의 시선이 어떠했는지를 읽는다면 〈백옥빈 일기〉의 월간지 연재와 더불어 브라질 이민을 택한 이민자들의 행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2. 해방 이후 집단 이민의 논의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의 이민 논의는 국내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타개책으로서 등장하였다. 낮은 생산력과 과도한 인구 밀도로 인해 심각한 불균형 구조를 가진 당시 한국의 실정상 당장에 산업의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잉 인구를 이민으로서 해소하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그린 이상적인 이민의 형태는 개인의 자유 이민이 아닌 많은 수가 한꺼번에 타국으로 가서 소위 한국인촌을 형성하는 집단이민이었다. 그리고 집단이민은 국가 간 협의에 의해 사전에 계획되는 이민으로서 외교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한국인의 해외 진출이라는 면에서 권장할 만한 외교활동으로 여겨졌다.[1] 해방 이후 한국의 이민은 1960년대 브라질 집단이민의 실현 이전까지는 자유로운 이민길이 열려있지 않았다. 그러나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는데, 주로 외국인과의 결혼이나 입양을 가는 경우만 허용되었고, 대상지는 주로 미국이었다. 1956년의 경우 1년간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인은 413명 정도였다.[2]

정부는 해방 직후인 1940년대 후반부터 집단이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1948년 말에는 미국을 방문하는 윤을수 신부를 사회부 촉탁으로 임명한 뒤 브라질과의 이민 관련 교섭을 시도하기도 하였다.[3] 교섭과 현지조사를 마친 후 이민과를 신설하여 해외이민 알선을 주도해나갈 계획이었으나 이민 사업이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1952년 외무위원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이민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국회 공동의 해외이민추진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건의하였다. 한국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고려하였을 때 이민은 불가피하며, 일본만 하더라도 브라질 이민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한국 또한 시도해 볼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이민추진위원회 조직은 불발되었다. 이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전시 상황인데다 남미와의 외교 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집단이민을 추진하기에는 마땅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민 대상국과의 국교 및 공관 설치 이후에 이민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4]

**1952년 9월 3일 제13회 제24차 국회 본회의, 〈해외이민 촉진에 관한 건의안〉**

외무위원장 정일형 : … 오늘 우리 한국 내에서 이 6 · 25사변 이후에 이 남한으로 보드라도 이천만의 많은 인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제한된 지역에 인구의 팽창하는 자연증가율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통계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증가율을 말할 것 같으면 1000에 17, 일본이 1000에 15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대한 자연증가율을 가진 이

1) 「視野가 좁은 韓國 外交」『동아일보』 1955년 6월 30일.

2) 「四百十三名이 昨年一年間에移民」『조선일보』 1956년 1월 14일.

3) 「移民을 보내고저 「부라질」 實情調査」『동아일보』 1948년 12월 23일. 윤을수신부는 브라질에 방문하지 않았고 교섭 업무는 새로 임명된 주미대사 장면(張勉)이 이어받았다.(「부라질 移住問題 張大使가 繼續 交涉 中」『경향신문』 1949년 2월 16일.)

4) 대한민국국회(본회의), 「해외이민촉진에관한건의이송의건」, 1952년 10월 16일. (국가기록원 BA0587728)

한국에서 하로속히 우리 인구를, 우리 동포를 해외에 진출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우리들이 찾어서 보낸다는 것은 국가적 견지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우리 외무위원회에서 토의되었읍니다만도 이번에는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에서 공동위원회를 설정해 가지고 부라질이라든지 남아메리카라든지 동남아세아에 적당한 지역에 잉여 인구를 해외에 이민하자는 이러한 안이올시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사뢰니다만도 최근의 일본을 말할 것 같으면 해외이민협회를 조직해 가지고 크게 활동을 개시하고 있읍니다. 최근에는 부라질만도 9000호, 약 4만 5000명의 이민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출발 단계에 임하였다고 합니다. … 하로속히 우리 잉여 인구를 해외에 속히 진출시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 외무위원회에서 건의한 것이올시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민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이민 대상지는 주로 남미였는데, 그 중에서도 브라질이 우선 고려되었다. 한국인에게 브라질은 멀고도 생소한 나라였다. 당시에 대중들이 생각하는 브라질은 '거리의 오아시스'[5]로 불리는 다방에서 불티나게 팔리며 해방 이후 식문화를 뒤흔든 커피의 주요 산지라는 것, 그리고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것이었다.[6] 개간하지 않은 광활한 땅을 가진 반면 인구 밀집도가 낮았던 남미 대륙은 지속적으로 이민을 받아왔으며 누구든지 이민을 가면 받아주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다. 남미 중에서도 브라질은 예전부터 최적의 이민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었다.[7] 해방 이전 중국인과 일본인의 브라질 이민 소식은 신문지면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였으며, 1920년대에는 일본인의 이민과 함께 조선인의 브라질 이민도 가능하리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8] 정부가 이민 대상지를 브라질로 염두에 둔 것은 일본인의 이민 사례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9] 일본인의 브라질 이민은 1908년에 처음 이루어졌는데, 일본 내의 인구 팽창과 농업 정책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추진되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외교관계가 단절되면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1953년에 다시 이민을 재개하여 1954년까지 브라질에 약 37만 명의 일본인이 이주하였다. 일본인의 브라질 이민은 지속적인 이민 정책의 추진으로 축적된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결성된 이민단체가 이민자들을 보조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10] 또한 브라질과 기타 남미 국가들은 다른 대륙보다 인종차별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었다.

---

5) 「커피한잔圓 協定價格되면 引下?」 『동아일보』 1949년 3월 16일; 「커피病患者」 『경향신문』 1950년 5월 18일.

6) 1960년 브라질에서 개최한 국제펜클럽에 참가한 소설가 정비석은 떠나기 전 브라질에 대해 '사람은 적고 땅은 광활하여 누구든지 이민을 갈 수 있는 나라', '커피의 명산지'라는 상식밖에 없었다고 감회를 밝힌 바 있다.(「祖國을 돌아보며」 『동아일보』 1960년 7월 30일.)

7) 「滿洲の移民」 『부산일보』 1933년 7월 5일.

8) 「朝鮮農民 海外移住計劃 응모자가 만을듯」 『매일신보』 1924년 12월 3일.

9) 「移民을 考慮中」 『경향신문』 1952년 2월 13일.

10) 김영철, 「브라질의 이민정책과 아시아계 이민특성 연구」, 『포르투갈-브라질연구』 8, 2011, 83-84쪽; 조기성, 「일본의 이민정책과 현황」, 『사상계』 99호(1961년 10월호), 207쪽.

1950년대 정부의 이민 시도가 성과를 보이지 못했지만 집단이민의 기대감은 대중으로 퍼져나갔다. 이민 추진을 위해 정부가 브라질과의 교섭을 시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브라질로의 대규모 이민이 곧 실현될 것이라는 기사들이 실리고, 한편으로는 이 기사에 대한 반박으로 집단이민이란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서는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정부 측의 답변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민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혼란스럽게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이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는 높아져만 갔으며 막연한 기대감이 생겨났다. 살기 힘든 국내에서 벗어나 보다 좋은 곳을 찾아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였으며,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였을 때 집단이민이 국내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과 함께 이민으로써 실현될 한국인의 해외 진출로 국내 또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이민의 필요성에 동조하기도 하였다.[11] 그리하여 아직 뚜렷한 이민 계획이 없었음에도 외무부에는 이민 문의가 끊이질 않았고 민간차원에서는 YMCA 소속의 현동완이 1948년 브라질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가한 이후 국내에서 집단이민을 준비하기도 하였다.[12] 심지어 이민 관련 신종 사기도 생겨났는데, 사기범들이 주로 농민들에게 접근하여 이민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했다.

**1948년 5월 28일 동아일보 〈『부라질』이민(移民) 전연(全然) 낭설(浪說)〉**

과학 기술의 빈곤 생산기능의 저하 공업시설의 파괴 마멸 원동력의 부족 등 가진 악조건으로 수백만 실업군중이 가두와 농촌에 범람하고 잇는 오늘 조선에서 "부라질"국과 교섭하여 수다한 조선이민을 "부라질"로 입식케한다는 소문이 써도라 이에 관심을 가진 동포들이 그 진부를 알고자 매일 수백 명씩 중앙청 외무처로 돌려와 그러지안하도 모든 사무가 적체되어 권태종을 느끼고 잇는 박봉 관리들을 몹시도 시달리게 하고 있다.

**1948년 12월 23일 경향신문 〈백국(伯國)에 이민 교섭〉**

**1948년 12월 23일 동아일보 〈이민을 보내고저 「부라질」 실정조사〉**

**1949년 1월 25일 동아일보 〈남미 이민을 촉진〉**

**1949년 1월 29일 경향신문 〈백국(伯國) 이민은 낭설(浪說)〉**

백국(伯國)에 한인 노동자 이주에 관한 모든 풍설은 전연 사실 무근인 것이니 항간에 떠도는 풍설을 믿고 당국에 제의 혹은 신청을 하지 말 것이며 …

**1949년 2월 16일 경향신문 〈부라질 이주 문제 장대사(張大使)가 계속 교섭 중〉**

**1949년 4월 28일 동아일보 〈남미에 이민계획 불원(不遠)간에 협정 성립 기대〉**

**1949년 5월 18일 동아일보 〈부라질, 큐바 이민 연내(年內)엔 일차(一次) 실시 가망〉**

… 수일 내로 동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조건을 절충하고자 대표 수 명을 전기 양국정부에 파견하기로 되었는데 이번 절충 여하에 따라서는 늦어도 금년 내에는 제 1차 이민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11) 「移民의 必要性」 『경향신문』 1958년 4월 26일.

12) 브라질한인이민사편찬위원회, 『브라질한인이민50년사』, 교음사, 2011, 54쪽.

**1949년 7월 13일 경향신문 〈해외 이민설은 유언비어이다〉**

**1949년 12월 18일 동아일보 〈대일외교(對日外交)를 강화, 남미(南美) 이민 일 년 후 실현〉**

임장관(林長官), 조특사(趙特使) 귀국을 환영 … 금후 일 년만 있으면 우리의 남미 이민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1952년 2월 13일 경향신문 〈이민을 고려 중〉**

**1952년 3월 21일 동아일보 〈이민 운운에 속지 말라 최(崔)사회장관 언명(言明)〉**

**1952년 7월 11일 경향신문 〈이민풍(移民風)으로 농촌 소연(騷然)〉**

…제주도를 비롯한 각처에서 공연히 「부라질」등에 해외로 이민시켜준다는 구실로 십만 원 또 수십만 원 이상을 받고 다니는 사기한이 있는가 하면 사회부에 해외이민에 관한 문의를 하러 오는 자들이 많아 … 또 어떤 지방에서는 해외이민대책위원회라는 유령단체를 설립하고 이민 수속을 한다고 하면서 순진한 농민들을 속이고 있는가 하면 이민만 하게 되면 호화스런 생활을 할 줄 안 일부 농민들은 가재까지 처분하여 송별회까지 하는 등 추태가 실현되고 있다 한다. … 당국에서는 재산을 매각하거나 또 어떠한 단체에도 속지 말고 농촌에서 충실히 증산에 힘쓰기를 요망하고 있을 뿐이며 이민을 시킨다고 만약 금품을 요구하는 자는 엄중 처단할 것이다 한다.

## 3. 브라질 이민열풍

1940년대 말부터 들끓었던 이민에 대한 기대감은 1950년대 중반이 되면서 점차 사그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민 교섭에 다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1950년대 후반 다시 해외 이민이 화두에 올랐다. 1958년 정부는 주미대사관을 통해 중남미 각국의 외교사절에게서 한국인 이민의 가능성을 전달받고 이민 사무를 위한 위원회의 설립과 기본적인 이민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이와 함께 브라질에 공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다음해인 1959년 외교부는 당해 외교 목표를 대국련(對國聯)외교 강화, 민간외교 육성 등과 함께 이민 추진을 7개 주요 외교 정책으로 설정하였다.[13] 해방 직후부터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민들 또한 큰 관심을 보였던 해외 이민을 비로소 실현할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1959년 정부는 〈해외이민위원회령〉(대통령령 제1491호, 1959년 6월 1일 시행)을 통해 해외이민위원회를 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민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그리기 시작했다. 정부는 집단 이민 정책의 목적을 과잉 인구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한국인의 해외 진출에 두고 첫 이민 정책의 대상지를 브라질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선호하는 대로 이민의 성격을 영농(營農)이민으로 두어 브라질의 광활한 토지

13) 「週間小史」『조선일보』 1959년 1월 18일; 「南美移民 實現될까?」『조선일보』 1959년 2월 7일; 「不遠 實現될 南美 移民 具體的 方案은 「移民委員會」서 決定」『조선일보』 1959년 8월 6일.

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 종사자를 우선 이민 대상자로 고려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민 대상자에 제대 군인과 월남 피난민을 고려하기도 하였다.[14] 1차 이민은 약 2천 5백 명 정도의 규모로 예상하였으며 향후 이민자 수를 늘려 주기적으로 이민을 보낼 계획이었다.

**1959년 8월 6일 조선일보 〈불원(不遠) 실현될 남미 이민 구체적 방안은 「이민위원회」서 결정〉**
**1차 모집은 2천 5백 명 대상국은 「브라질」**

정부에서는 오랫동안 한국인들이 해외진출과 식량사정의 조정 및 농지의 영세화(零細化) 방지를 위해서 이민계획을 구상하고 있던 중 작년 양유천주미대사가 남미각국을 친선 방문한 기회를 이용하여 세계 각국의 이민의 본거지인 「치리」, 「파라과이」 및 「부라질」등 각국 정부당국과 이민에 관한 비공식적인 의사타진을 함과 동시에 그 예비교섭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얻게 되어 본격적 교섭을 진행시켰다. 정부의 남미 각국과의 접촉은 비단 이민을 목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이들 각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며 이미 한국 재외공관(공사관 또는 영사관) 설치를 요청한 것이나 아직 이에 대한 회답은 없다.

… 「부라질」이 인종차별이 없고 농토가 비옥하며 이민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으며 그 나라 정부 자체로서도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곳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민계획을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제2차 대전이 끝난 뒤 해외에 있었던 동포들의 귀국과 월남동포 등으로 인구가 격증하게 된 데다가 더구나 국내 실업자들이 적지 않게 속출하게 되어 농지의 일정한 경작면적과 농업인구의 관계에서 현실적 영세농민 실업자의 구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민의 해외진출로써 국위를 선양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상대국과 외교적 접근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민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반면에 국민들은 해외 이민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였다.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외 이민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이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점차 높아져만 갔다. 어느 나라나 상관없이 한국인의 집단 이민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신문 기사가 보도되면 관심이 쏠리고 언론기관에 질문 공세가 이어질 정도로 이민에 관심은 대단했지만, 이에 비해서 정부는 이민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었다.[15]

**1959년 1월 9일 동아일보 〈정부 남미이민 추진〉**

**1959년 1월 9일 조선일보 〈파라과이 이민〉**

… 외무부는 최근 「파라과이」로부터 우리나라 이민을 받아들이겠다는 통고를 정식으로 받았다고 한다.

---

14) 「約 四萬名 程度로 保社部서 南美移民을 推進」 『경향신문』 1959년 1월 21일; 「除隊軍人에 優先權」 『경향신문』 1959년 1월 10일; 「除隊軍人의 移民摸索」 『동아일보』 1961년 2월 1일.

15 ) 「移民은 實現되려나?」 『경향신문』 1959년 2월 21일.

**1959년 1월 10일 경향신문 〈제대군인에 우선권〉**

… 이민 자격은 제대군인을 우선적으로 하고 가족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1959년 1월 16일 동아일보 〈실현은 내년 이후 이민사업심의회 설치〉**

정부에서 금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한 중남미 이민사업을 위하여 15일 첫 관계당국 실무자회의가 외무부에서 열렸다. …

**1959년 1월 17일 동아일보 〈집단이민을 추진〉**

… 중남미제국에 한국인 집단이주의 교섭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16일 공표하였다. … 종래의 이민은 외국에 연고 있는 자만을 허가하였던 것이나 앞으로는 영주할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이주하는 이민 실시 …

**1959년 1월 20일 조선일보 〈해외이민에 생각해볼 일〉**

금후 우리의 경쟁력이 향상됨과 동시에 생산이 증가될 희망이 있다면 당분간 해외이민을 장려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한다.

**1959년 1월 21일 경향신문 〈약 4만 명 정도로 보사부서 남미이민을 추진〉**

**1959년 1월 25일 경향신문 〈이민을 갈 수 있는가?〉**

문(問) = 남미에 이민을 갈 수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는데… 답(答) = …해외에 이민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연구 중에 있읍니다. … 제1차 계획으론 "파라과이"와 "부라질"을 선정하고 있는 모양이니 너무 조급히 서둘지 말고 그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예비지식이나 준비해두십시오.

**1959년 2월 21일 경향신문 〈이민은 실현되려나? 본사에 태국 관한 질문 쇄도〉**

'이민을 부르는 태국'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본지 2월 15일자 이민관계 기사가 나가자 경향각지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을 본사에 보내오는 것으로 미루어 이민 문제는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바야흐로 절실한 사회문제로 등장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1959년 8월 16일 동아일보 〈무르익어가는 이민 계획〉**

**1959년 8월 17일 조선일보 〈불급불요(不急不要)한 이민을 왜 서두르나?〉**

**1959년 8월 19일 동아일보 〈이민 빨라야 내후년〉**

**1959년 8월 19일 동아일보 〈19일 정오 개회 『이민위원회』〉**

**1959년 8월 23일 동아일보 〈탁상공론의 이민계획〉**

… 신년도 이민계획은 엄청나게 부족한 예산 책정으로 말미암아 일대 난관에 처해있으며…

**1960년 9월 28일 동아일보 〈명년도(明年度)에 대상자를 선정〉**

정부는 실업자구제책과 국제민간교류를 목적으로 신년도 예산에 이민 사무에 수반되는 예산을 책정하고 내년부터 이민 후보자를 선정하여 … 브라질에 한국대사관 설치 문제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하였다.

**1960년 1월 3일 동아일보 〈브라질 이민 양국(兩國) 간間)에 합의〉**

주미 장이욱 대사는 주미 브라질대사와 만나 … 양국에 공히 이익을 재래한다는데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정부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1961년에는 민간단체인 한백협회(韓伯協會)가 이민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1960년 국제군인사격대회에 참가하고자 브라질에 방문한 정인규 대령과 이종욱 소령이 일제강점기에 브라질로 이주한 한인인 김수조를 만나 그와 함께 브라질 이민사업을 계획하였고, 이들은 제대 군인들의 이민 계획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건의하고 1961년 직접 브라질에 방문하여 브라질 정부로부터 이민에 대한 확약을 받았다.[16] 한백협회는 국내에서 브라질 이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1961년 9월 이민희망자를 모집하였는데, 이민 상담을 위해 약 5천여 명이 몰려왔을 정도로 성황이었다.

**1961년 9월 7일 조선일보 〈오백세대의 이민 브라질서 받기로〉**

**1961년 9월 10일 경향신문 〈백국(伯國)의 수입태세(受入態勢)는 이렇다〉**

… 도합 2천불이면 일개 자작농으로 충분하다. 집과 농토대금은 처음에 2할 내지 4할을 지분하고 개간을 하면 영농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으므로 … 자작농일경우 지주는 연간 1알켈 당 약 70여만 환의 실수입(생활비 제외)을 볼 수 있고 소작인은 80여만 환의 실수입을 보게 되어 2, 3년 후에는 완전한 자작농이 될 수 있다. …

**1961년 9월 13일 조선일보 〈브라질과 이민(상) 10년이면 소지주 된다〉**

… 적수공권 소작인으로 이주하여 10년만 있으면 자동차를 가지는 당당한 소지주(소지주라 함은 최소한 육만 오천 평 소유)가 될 수 있었다고 하며 현재 또한 그러하다.

**1961년 9월 14일 조선일보 〈브라질과 이민(중) 미개지 개간이 원칙〉**

**1961년 9월 14일 조선일보 〈브라질과 이민(하) 자작은 연 순익 170만환〉**

**1961년 9월 15일 조선일보 〈「붐」이룬 「브라질」이민〉**

14일 하오 현재 약 5천 명의 희망자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고 지방으로부터는 1백 80통의 서면지문이 들어왔다 한다. 외무부에서는 그 세칙도 발표하기 전부터 「부라질 · 붐」이 불고 있는데 찾아온 사람들은 중류와 하류생활층으로서 거개가 농장집단 개간을 하겠다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민간단체인 한백협회(1962년에 해외이주법에 따라 한백진흥주식회사로 변경)가 브라질 정부에게 접근하여 이민 계약을 얻어내었지만 정작 브라질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협의는 없었다.[17] 또한 이민 관련 민간단체의 통합체인 한국이민협회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잡음이 생기기도 하였다.[18] 한백협회를 중심으로 브라질 이민이 적극적으로 홍보되는 와중에 정부는 아직 이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민에 대한 기대감에 충만해있던 대중들에게 혼란만 가중되고 있었다.

16) 「移民 500世帶」『경향신문』 1961년 9월 2일.

17) 「브라질」에의 移民問題」『조선일보』 1961년 10월 28일.

18) 국사편찬위원회, 「1960년대 남미 농업 이민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재외동포사총서-중남미 한인의 역사』, 2005, 143~144쪽.

**1961년 9월 17일 경향신문 〈이민이란 「때 아닌 잠꼬대」?〉**

브라질 이민소식이 불쑥불쑥 신문지 상에 나타나자 외무부 관계자의 입에는 "웬 때 아닌 잠꼬대냐"…"글쎄 브라질 이민계획은 자유당 때부터 있어온 것인데 그것이 아직도 구태의연한 계획 그대로 한 발자국도 진보 못하고 있는 것은 돈 때문이에요, 돈……. 그것이 어디 그리 쉬운 문제입니까……."…"한백협회인가 하는 데서 말하는 이민소식은 어디서 듣고 온 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우리는 그런 구체적인 소식을 접하지 못했어요."

**1961년 10월 26일 조선일보 〈브라질 이민 소식에 혼선(混線)〉**

벌써 몇 년 전서부터 말이 오가고 있는 브라질 이민계획은 도무지 진척이 있는 것 같지 않다가 요즈음에 와서는 금세 실현이나 될 것 같은 말이 곧 잘 튀어나오는 바람에 구직하려는 실업자들에게 일종의 흥분제가 되고 있는 듯.

**1961년 10월 28일 동아일보 〈이민문제 아직 협의 없었다〉**

1960년대 초 브라질 이민은 그야말로 열풍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 이민의 첫 실현을 고대하고 있었으며 조선일보는 1962년 당시 10대 화제에 '이민'을 꼽았다.[19] 언론에서 보도되는 브라질 이민은 매우 이상적이었다. 광활한 국토를 가진 브라질은 아직도 미개척지가 무궁무진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점진적인 경제적 성장을 일궈내고 있는 전도유망한 국가로, 브라질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미개척지에서 몇 년 수고로움을 감내하여 농장을 경영하면 국내에서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묘사되었다. 해방 이후에 전쟁까지 겪은 후유증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의 상황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에서의 도전이었다. 그리고 브라질 이민의 밝은 전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서 브라질로 이민 간 사람들의 사례가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브라질에서의 성공 사례, 브라질 거주자들의 증언은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를 부추기며 이민열이 더욱 과열되는 상황을 낳았다.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일본인의 농업적 성공이었다. 1908년부터 브라질 이주를 시작한 일본인 이민자들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집단농장에서 큰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었는데, 1947년 브라질 보도에 따르면 일본인 집단 농장의 농산물이 상파울루주(州)의 연간 생산 농산물에서 상당한 비율을 점유하였으며 향후의 전망 또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브라질에서 일본인 이민자들이 농업에서 크게 성공하였다는 소식은 일본에도 이민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1950년대 일본 사회에서도 '내일의 나라', '신천지' 브라질로의 이주를 격려하여 라디오나 신문에 브라질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이며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체감될 정도였다.[20] 그리고 일본인 이민자들이 이민 자금에 대한 이자를 본국의 정부, 그리고 수익금 일부를 가족들에게 송금하면서 본국에 이익을 가져다주기도 하고, 브라질 거주 이민자들이

19) 「今年에話題를일으킬10大問題 移民」『조선일보』 1962년 1월 12일.

20) 심용수 번역, 『(海外移民을 위한)브라질 讀本』, 東谷出版社, 1960, 7쪽.

일본 본토와의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일본 상품에 대한 판로 개척에 기여하기도 했다.[21] 일본의 브라질 농업 이민 성공 사례와 일본 본토의 해외 이민 붐은 한국에도 영향을 끼쳤다. 한국에서는 같은 동양인인 한국인도 브라질에서 이민을 받아줄 것이며, 근면하게 일을 해낸다면 한국인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미 브라질에 거주 중인 소수 한인들의 인터뷰는 브라질 이민자로서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미래상을 심는데 기여하였다. 이들은 1920년대 일본인의 브라질 이민이 성행하던 시기에 일본인의 이민을 따라 이주한 조선인들과 6.25전쟁의 휴전협정 이후 중립국을 선택한 반공포로들이었다. 반공포로들은 1954년에 인도로 수용되었다가 2~3년 후에 대부분 브라질에, 그리고 일부가 아르헨티나에 정착하였다. 1961년 언론사는 직접 브라질 현지에서 이들과 만나 브라질에서의 생활이 어떠한지, 향후 한국인 이민자들의 삶은 어떠할지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당시의 기사에서 비춰진 브라질은 일자리가 너무 많아 부지런하게 일한다면 풍족하게 쌀밥을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나라, 노동법의 엄수로 일만 잘 한다면 넉넉한 수입이 보장되는 나라였다. 비슷한 시기인 1962년 부족한 쌀로 인해 혼 · 분식 장려운동을 펼쳤던 한국의 사정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그들은 일본인 이민자들의 성공 사례를 근거로 계획적이고 철저한 이민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1961년 7월 16일 동아일보 〈브라질의 우리 교포 현지서 본사 기자와 좌담회(상)〉**

저는 벌써 30여 년 전에 이 나라에 왔읍니다만 지금도 늘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와서 첫째로 먹을 것이 많아서 좋았읍니다. … 이곳에서는 쌀이 많아 백반만 먹지 보리 같은 잡곡은 섞어 먹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흰 쌀밥이 무척 좋았읍니다. … 제가 「브라질」에 와서 느낀 것은 무슨 일이든 사업이나 취직을 하는데 자유롭고 일터도 많아서 좋은 것이었읍니다. 처음에는 언어 문제로 곤란도 겪었지만 1년쯤 지나니까 자연 환경에 적응케 되더군요. …「브라질」의 인상은 참 유쾌했읍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깃들고 인정미가 있고 참 친절합니다. 저는 이 점에서는 이곳이 북미보다 낫다고 봅니다. 직업은 적극 알선해주고 일만 하면 사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읍니다. 지금 한국서 오라고 해도 돌아갈 생각이 안 날만큼 이곳에 정이 들었읍니다. …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은 와서 처음 2년간은 일을 배우기에 고생합니다. 그러나 일만 배우면 직장은 얼마든지 있읍니다. 노동법령에 의하여 8시간 노동제가 엄수되며 일요일에는 결코 일을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1961년 7월 18일 동아일보 〈브라질의 우리 교포 현지서 본사 기자와 좌담회(중)〉**

「브라질」은 지금 모든 것이 공업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술자는 너무나 모자랄 지경입니다. … 일만 하려고 마음먹으면 일터는 얼마든지 있읍니다. … 지금은 이곳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데 주로 조립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훨씬 싸서 3600「끄루제이로」이었는데 저는 초급(初給)이 약 배(倍)인 칠천「끄루제이로」를 받았읍니다. 지금은 2만 5천「끄루제이로」를 받고 있는데 처와

21) 조기성, 앞의 글, 212쪽.

어린애 셋이서 충분히 살고 있읍니다. … 전에는 「브라질」서 한 달 벌면 3개월간은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두 달은 잘하면 살 수 있겠지요. … 이 신문의 광고란을 보십시오. 신문의 약 사분의 일(四分之一) 정도의 지면이 사람을 구한다는 란입니다. 여기에 없는 직업이 없읍니다.

**1961년 7월 19일 동아일보 〈브라질의 우리 교포 현지서 본사 기자와 좌담회(하)〉**

이곳에서는 일본인들에 대한 신용이 큽니다. 소위 「쟈파니스 · 가란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통하고 있읍니다. … 일본인들이 와서 잘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이민해 오고 있읍니다. 만약에 한국의 첫 이민이 와서 사고만 내고 잘 못한다면 그 다음에 오는 이민은 극히 불리하게 됩니다. … 일본사람들이 잘한다고 되어 있고 한국사람도 일본인과 같다고 이곳에서 생각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 오실 분들은 「브라질」에서 돈 벌어서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오면 성공을 못합니다. 눌러 앉아서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이곳 사람이 되어서 일을 해야 모든 것이 안정되고 토대가 잡힙니다. 물론 1세는 와서 고생을 하겠지만 2세, 3세들은 행복해집니다.

## 4. 이민에 대한 이상과 현실

1962년 드디어 정부는 해외이주법을 제정하고 이와 더불어 해외이주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5년간 약 2만여 세대를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와 동남아 여러 나라에 이주시킬 것을 목표로 잡았다. 첫해에 해당하는 1962년에는 브라질에 총 550세대의 이주를 계획하였는데, 이 중 160세대를 먼저 보내기로 하였다. 이주자로는 5인 이하의 가족, 영농에 경험이 있는 자, 사상이 견고하고 병역을 마쳤으며 교양이 있는 사람 등의 자격 조건을 두었다.[22] 그리고 본격적인 이민 추진에 앞서 3월에 정부는 이민 교섭단을 브라질 및 파라과이로 파견하여 정부 간 정식 협의와 현지답사를 실시하였고, 그보다 먼저 한백협회는 문화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1961년 12월에 이민 문제 협의차 브라질에 체류하였다. 해외 이민이 점차 현실화 되어가면서 신문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사들이 등장하였다.[23]

그러나 이민 직전에 이루어진 정부 및 문화사절단의 답사 결과는 기대와는 달랐다. 현지시찰 후 4월에 귀국한 한국진(韓國鎭) 보건사회부 차관은 이민자들에게 주어지는 농토가 좋은 조건이 아니며 이민 사업의 실행에는 한국정부의 재정적 보조가 상당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24] 정부시찰단의 브라질 답사 이후 이민 실현에 앞서 아직은 재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의견도 생겨났다.[25] 또한 그동안 이

22) 「二萬餘世帶目標」 『조선일보』 1962년 2월 20일.

23) 「경향쌀롱」 『경향신문』 1962년 1월 16일; 「「브라질」의 通貨」 『경향신문』 1962년 2월 24일; 「收穫많은 多毛作」 『동아일보』 1962년 4월 1일.

24) 「"브라질은 「유토피아」 아니다"」 『경향신문』 1962년 4월 17일.

25) 이와 함께 민간 사절단의 활동에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브라질 이민 정책의 중요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결국 7월 예산 심사에서 이민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일부 삭감되었다.(「交涉간 『紛爭移民』」 『동아일보』 1962년 5월 12일; 「外務 · 保社등 修正」 1962년 5월 12일.)

민에 대한 국내의 과열된 분위기를 지적하고 항간에 떠돌던 '여유로운 나라', '조금만 일해도 놀고먹을 수 있는 나라' 브라질의 환상에 대해 경계하는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26] 이민을 목적으로 브라질을 찾아간 민간 문화사절단원은 브라질 이민을 가기만 하면 놀고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이민병(移民病)'이 한국 안에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27]

**1962년 4월 17일 경향신문 〈"브라질은 「유토피아」아니다"〉**

**1962년 5월 30일 동아일보 〈혁명 일 년을 비판한다(完) 사회정책〉**

일종의 현실도피 심리가 겹쳐 가장 많은 관심과 화제를 모은 것은 역시 이민 문제이다. 지난 3월 9일 정부가 해외이주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공식 이민 교섭단이 대상국의 현지답사를하는 등 한 때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민문제는 일말의 개운치 못한 여운을 남긴 채 약간 후퇴한 느낌도 없지 않다. … 이제까지 풍선여행이나 하는 기분으로 떠있던 「이민열(移民熱)」에 하나의 냉각제가 된 것 … 실상 「브라질」의 현지를 돌아보고 온 이민 교섭단장인 한국진 보사부차관도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했으나, 그보다도 많은 돈을 들여 몇 천 명을 보내 봤자 국가적으로 큰 실속이 있는 것도 아니며 또 옛날 만주나 북해도로 가는 식의 이민과는 근본적으로 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의 「지나친 서두름」을 비판하는 소리도 적지 않다.

브라질 이민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자 예산이 일부 삭감되기도 하였으나 정부는 예정대로 브라질로 가는 이민선을 출항시키기로 하는데, 인구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논의되었던 이민정책이지만 이에 대한 효과보다는 한국인의 해외진출이라는 점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에 맞춰 장차 브라질 및 타국으로 이주할 이민자들은 외국에서의 삶이 다소 고될지라도 국위선양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외국에서 잘 살아서 한국인의 해외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한다는 논조의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28]

**1962년 9월 12일 경향신문 〈정부 이민에 적극 정책 브라질로 조사단 곧 출발〉**

… 최고회의는 앞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때 한보사부차관으로부터 남미이민정책의 현황을 청취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기상조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혁명정부는 이민의 목적이 단순한 인구정책의 일환에서 멎는 것이 아니라 국위선양이라는 차원에서 "시행착오를 해서라도 단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반관반민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26) 「移民事業이 成功的으로 促進되기를 바라며」『조선일보』 1962년 4월 17일; 「브라질移民交涉에 異狀 使節團三派로 對立」『조선일보』 1962년 5월 12일; 「브라질에 와있는 反共捕虜의近況(4)」『조선일보』 1962년 6월 18일.

27) 「부라질 通信」『동아일보』 1962년 3월 21일.

28) 「交涉간 『紛爭移民』」『동아일보』 1962년 5월 12일; 「外務 · 保社등 修正」『동아일보』 1962년 7월 27일; 「移民과 人口問題의 解決方案」『경향신문』 1962년 4월 18일.

**1962년 12월 3일 동아일보 〈『브라질』이민단 출발을 앞두고〉**

이민 문제가 인구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인구문제는 이민문제의 어느 측면임에 지나지 않는다. … 이민문제는 첫째로 민족이 해외에 비약, 진출하는 길이고 둘째로 국제적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보다 더 중시되어야 한다.

해방 이후부터 오랫동안 염원하던 이민은 1962년 12월에야 이루어졌다. 그동안 해외 이주의 희망자들은 전국적으로 수천 명에 달하였으나[29] 정부는 집단이민의 시범 케이스가 될 브라질 1차 이민단의 규모를 우선 30가구로 한정하였다. 첫 이민단은 한백문화협회가 교섭한 것으로서 그 이후로 정부 및 기독교연합회에서 주도하는 이민이 심사 대기 중이었다. 대중의 관심사는 이민의 자격 요건이었기 때문에 첫 이민을 떠날 이민자들이 정해지자 신문에는 이민자 세대주들의 이름, 나이, 직업, 학력, 가족 수가 모두 기재되었다.[30]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민자들의 절반 이상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었고, 국내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삶을 영위하던 중산층들이 많았다. 이민을 가는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민단으로 선정되었어도 뱃삯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결국 절반에 가까운 16가구 92명이 이민선에 승선하게 되었다.[31] 영농이민이므로 농업 노동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정하겠다는 방침과도 거리가 있었다.

이민자들을 향한 시선에도 일종의 낭만이 서려있었다. 한국사회가 브라질 이민에 보인 관심은 이민을 통해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망을 넘어 우리나라의 '조국의 명예를 빛내고' 외국에서 '굳센 투지와 밝은 교양'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투영되었다.[32] 브라질로 이주하는 첫 이민자들은 '태극기를 지고 브라질로 가는 개척자들' [33]이 되었으며 국내의 국민들은 생면부지의 이민자들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34]

**1962.12.18 경향신문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면서〉**

나는 이따금 친구들에게 농을 받았다. 「브라질」로 이주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알고 있는 그들이었다. 무척 선망하는 눈빛마저 보이지 않겠는가?

---

29) 「政府 移民에 積極政策 브라질로 調査團 곧 出發」 『경향신문』 1962년 9월 12일.신문』 1962년 4월 18일.

30) 「「브라질」에의 단꿈 · 선꿈」 『경향신문』 1962년 12월 5일.

31) 「줄어든移民團」 『조선일보』 1962년 12월 11일.

32) 「祖國의 名譽를 빛내도록 移民가는 분들에게 바람」 『경향신문』 1962년 12월 19일.

33) 「아득한母國에의 歲拜」 『동아일보』 1963년 1월 1일.

34) 「「브라질」移民과의交信」 『동아일보』 1963년 3월 12일.

브라질 이민은 1962년 12월 18일 부산항에서의 출항으로 시작되었다. 출발 전날에는 보건사회부 주최의 환송식을 열었고 출발 당일 부산항에서는 고등학교 음악대의 연주와 더불어 홍종철(洪鍾哲) 최고회의 위원과 정희섭(鄭熙燮) 보건사회부장관, 브라질 영사 부부 등의 인사들과 이민자들의 친지 및 시민들이 나와 이민자들을 환송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민선 출항 당시의 모습은 각종 영상과 활자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졌으며,[35] 이민선상의 소식은 그때그때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전송되었다. 선박에 신문기자가 동행하여 이민선의 항해 일정을 알리고 이민자들의 모습을 전했으며 이민자가 스스로 쓴 항해일지, 편지와 일기 등이 신문에 실렸다.[36]

브라질 1차 이민단에 대한 높은 관심에서 생겨난 다양한 기사들 중에서도 이민단의 모습을 가장 세세하게 대중에게 전달한 것은 이민자 백옥빈이 잡지 『사상계』를 통해 기고한 「브라질 이민통신(移民通信)」이었다. 『사상계』는 이민단의 현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민단 중 한 명인 백옥빈에게 지속적인 이민 수기의 전송을 의뢰하고 그에게 해외 특파원 자격을 부여하였다. 백옥빈은 의사인 남편 고계순(高桂珣)과 자녀들을 데리고 이민길에 오른 인물로, 경성여자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던 엘리트였다. 당시 40세의 그는 세 자녀의 부모로서 가정을 관리하여야 했으며 남편 고계순이 선상에서 이민단장이 되면서 이민단을 두루 살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브라질 이민단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브라질 이민통신」은 하루 단위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적은 개인의 일기 형식으로 되어있으며, 개인 및 가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민에 대한 각종 정보, 이민단의 전반적인 생활상과 브라질에서의 정착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백옥빈은 자신의 일기장 〈백옥빈 일기〉에 각종 정보를 적어두고 지속적으로 한국으로 전송하였고, 「브라질 이민통신」은 1963년 2월부터 1964년 10월까지는 비교적 꾸준하게 연재되었으며 1965년에는 1회, 1966년에는 1회가 실려 총 13회 연재되었다. 1963년 4월까지는 이민선을 타고 브라질로 향하는 여정, 이후로는 브라질에 정착하는 과정의 내용이었다. 「브라질 이민통신」이 실린 잡지 『사상계』는 1953년 장준하가 창간한 교양 및 담론 종합지로 지식인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으며 백옥빈의 「브라질 이민통신」이 연재되던 때인 1960년대 초에는 판매 부수 5만 부 이상이 발행된 대중적인 잡지 중 하나였다. 백옥빈이 연재한 「브라질 이민통신」은 처음 실시된 집단 이민의 정착 과정을 세세하게 국내에 전달하면서 브라질 이민에 많은 관심을 보인 대중들은 물론이고 1차 이민 이후 브라질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35) 「브라질 이민단 출항」 『대한뉴스』 1962년 12월 30일(제397호); 「정든 땅뒤로 惜別의 出港」 『조선일보』 1962년 12월 19일; 「『브라질』移民團 壯途에 歡送도 목멘 惜別의 釜山埠頭」 『동아일보』 1962년 12월 18일.

36) 「朴舜在記者特派 브라질移民取材」 『동아일보』 1962년 12월 28일; 「移民船航海日誌」 『동아일보』 1963년 1월 29일; 「고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동아일보』 1963년 1월 29일.

〈『사상계』에 실린 「브라질 이민통신」〉

| 번호 | 발간연월 | 호 | 제목 및 부제 |
|---|---|---|---|
| 1 | 1963년 2월 | 117호 | 아리랑에 드새는 이민항로 – 한 이민주부의 일기 |
| 2 | 1963년 3월 | 118호 | 이민선 남인도양을 통과 – 고국의 향수를 달래주는 두 장의 한국판레코드 |
| 3 | 1963년 4월 | 120호 | 불안해지는 마음을 달래면서 |
| 4 | 1963년 5월 | 121호 | 브라질의 한국인 – 사육제의 흥분 속에서 향수의 세레를 |
| 5 | 1963년 8월 | 124호 | 아리랑촌 GUARAREMA – 브라질 노변에 핀 무궁화 |
| 6 | 1963년 10월 | 126호 | 친절한 브라질 사람들 – 기쁘나 슬프나 노래로써 향수를 달래는 한국이민들 |
| 7 | 1964년 1월 | 130호 | 브라질의 환희 – 환희 뒤에는 향수의 정이 잇달아 서린다 |
| 8 | 1964년 5월 | 134호 | 향수를 달래며 – 첫 번째 새해를 맞이하는 브라질의 한국인들 |
| 9 | 1964년 6월 | 135호 | 이역에서 맞은 3 · 1절 – 3 · 1정신 이어받아 재백교민합심하자 |
| 10 | 1964년 7월 | 136호 | 브라질 군부혁명과 교포 –적색으로 화를 입는 한국계 · 중국계 · 동양인들 |
| 11 | 1964년 10월 | 139호 | 이역에서 출생한 2세들 |
| 12 | 1965년 11월 | 153호 | 2년 반이란 세월을 보내고 – 잡초만이 우거진 아리랑 농장 |
| 13 | 1966년 9월 | 161호 | 흑녀(黑女)에의 향수 – 태양을 상징하는 화려한 사육제 |

그러나 브라질 이민의 시작은 국내의 기대와는 달랐다. 브라질 1차 이민단들의 소식은 항공편을 통해 바로 국내에 알려졌으므로 브라질에 집단 농장을 경영할 토지와 자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실정이 파악되자마자 국내에 보도되었다.[37] 정부의 준비 부족과 성급한 정책 이행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으며 이민단 구성원들의 고학력과 농사 경험 부족 또한 지적되었다.[38] 브라질 1차 이민단이 한국 사회에서 큰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만큼 이민단이 이민수용소에 들어가고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동향이 국내 신문기사를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고 이에 따른 실망감도 크게 일어났다.[39] 정부는 1차 이민이 이민협회의 계약 초청에 의한 자유이민이었을 뿐 상호 협정에 의해 실시된 농업이민이 아니었다고 해명할 뿐이었다.[40]

**1963년 2월 15일 경향신문 〈한심스러운 이민 사업〉**

**1963년 2월 18일 경향신문 〈브라질 이민 대책에 일언(一言)〉**

37) 「브라질 移民은 어디로 가나 꿈은 부풀어도 앞길은 險難」 『조선일보』 1963년 2월 8일; 「와서보니 收容所신세 브라질移民團 難關에逢着」 『동아일보』 1963년 2월 14일.

38) 「廣漠한땅 人心은좋으나」 『조선일보』 1963년 2월 8일; 「收容所의 나날」 『조선일보』 1963년 3월 2일.

39) 「세 패로 뿔뿔이 갈라져나간 「브라질」이민 17가족」 『조선일보』 1963년 4월 13일.

40) 「"政府엔責任없다"」 『동아일보』 1963년 2월 26일.

**1963년 2월 24일 조선일보 〈브라질 이민에 차질이 생긴 경위를 밝히라〉**

**1963년 3월 23일 동아일보 〈「브라질」이민실패의 불씨〉**

**1963년 6월 13일 경향신문 〈「브라질」 2차 이민 연내 실현 어려울듯〉**

… 제1차이민단은 테스트케이스의 이민단이었는데 그들의 이민 정착이 완료되지 않아 브라질 정부 측은 한국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을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다.

브라질 이민단 또한 이러한 여론에 대해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마치 지상낙원으로 비춰진 브라질이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과 이민단의 수용소 신세에 큰 걱정과 낙담이 국내에 만연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옥빈의 「브라질 이민통신」은 브라질 1차 이민자들의 의견과 입장을 국내에 전달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사상계』를 통해 국내에 전달된 백옥빈의 일기는 주로 농장 경영에 대한 1차 이민단의 고군분투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내용이었다. 백옥빈은 자주 한국인 농장으로 가서 그들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직접 파악하여 일기에 남겼다.

**1963년 8월 사상계 124호 〈브라질 이민통신〉**

「사상계」에서 2, 3월호를 발송했다는 편지가 왔다. 고국의 신문지상으로는 무슨 큰 고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그래서 신문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의 약간의 고생은 미리 예상했던 지금의 환경은 그 사람 사람의 마음에 따라 행, 불행, 잘 왔다, 못 왔다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브라질을 지상의 천국과 같이 생각했던 사람은 실망했을 것이고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다 고락이 같이 한다는 것을 각오하고 온 사람은 나같이 이곳의 심정을 잘 알게 됨에 따라 정말 낙원에 왔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나는 잘 왔다고 생각한다.

1964년 10월까지의 연재 이후에 백옥빈은 『사상계』를 통한 연재를 중단하였다. 그리고 약 1년 후인 1965년 11월호에 백옥빈은 다시 「브라질 이민통신」을 통해 초기 브라질 이민단의 근황을 알렸다. 그는 '오랫동안 펜을 들지 못했다', '만 2년 반이란 시간을 지내니 별로 알려드릴 것이 없어진 것 같다'고 말하였지만, 잡지 기고를 위한 초고로써 썼던 개인의 일기인 〈백옥빈 일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써내려갔으며 한국으로의 전송을 끊은 것이 『사상계』측인지 백옥빈 개인의 선택인지는 알 수 없다. 1965년의 「브라질 이민통신」을 통해 그는 초기 이민단 대부분이 농장에서 도시로 나오게 된 상황을 알리고 그 이유에 대해 서술하며 특히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꼽았다.[41]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브라질 정부 측에서 '한국 이민은 실패했다'고 볼 것이며, 앞으로 올 교민들이 '집단농장을 경영하면 한국인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

41) 이민단이 도시로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 기자가 직접 이민단을 찾아가 인터뷰하기도 하였다.(김성렬, 「적도하에 심은 코리아」, 『신동아』 1966년 6월호)

을 것'이라고 쓰면서 한국의 여론과 다르지 않은 시선으로 초기의 브라질 이민을 보고 있었다. 약 1년 만에 전송한 「브라질 이민통신」을 통해 그는 국내에 초기 브라질 이민단의 입장을 알리고 브라질 한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고국 동포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하였다.

## 5. 나오며

해방 이후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높은 인구밀도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논의되기 시작한 해외로의 집단 이민은 당시 사회 문제의 돌파구로 여겨지면서 나라를 되찾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1940년대 말부터 집단 이민의 성사를 모색하던 정부는 남미와 1950년대 말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이민을 추진하였다. 당시 한국인에게 브라질은 생소하고 머나먼 나라에 불과하였지만, 막연한 국내의 사정과는 달리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이민에 대한 관심이 치솟았다.

십 년 넘게 검토와 논의에만 그쳤던 해외 집단 이민을 성사시킨 것은 더 좋은 곳에서 살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에 힘입어 한국 사회에 불었던 이민열풍이었다. 집단 이민이 많은 외화를 소요하면서도 국내의 인구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에 따라 이민 정책의 당위성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박정희 정부는 한국인의 해외 진출과 외화 획득, 국위선양 등 국가에 대한 이익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결국 성사시켰다. 정부와 대중이 끊임없이 생산해 낸 국위선양이라는 화려한 이민 목적에 따라 대중의 선망을 한 몸에 받고 국가적 사명감을 스스로 체득한 브라질 1차 이민자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이민의 준비과정부터 출항, 그리고 정착과정까지 국내의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이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갖가지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 속에 〈백옥빈 일기〉가 있었다. 브라질 1차 이민자 백옥빈은 자신의 일기를 국내의 월간지에 「브라질 이민통신」으로 연재하면서 이민단의 경험과 상황을 국내에 알리고 이민단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였다.

당시의 한국 사회는 브라질 이민단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고 이역만리에서 농업 이민에 성공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길 원했지만 바람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농장 경영에 실패한 브라질 이민단에 대해 누구는 한국인 이민의 실패이며 잘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의 고국을 등지고 떠난 '귀족이민'이라고 비판하였지만, 〈백옥빈 일기〉에는 개인과 가족의 영화만이 아니라 첫 이주자로서 솔선수범하고 성공하여 국가의 이름을 드높이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그리고 초기 브라질 이민자 개개인은 실제로 잘 살기도 하였다. 일본인 이민자들처럼 브라질 정부의 의도에 맞는 모범적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이었다. 잡지 연

재를 위해 쓰기 시작한 그의 일기는 2004년까지 이어졌다. 개인의 일기라고 하기에는 객관적인 정보로 가득한 그의 일기는 고국으로 보내고 싶었던 이민자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백옥빈일기

#1

# 1962

## 1. 1962년 12월 16일

새벽 4시 40분 뻐스로 안성安城을 출발出發하다.

너무나 바뻐서 달력을 보지 못해서 음력으로 오늘이 몇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달빛이 훤하게 길을 밝혀주어 고마웠다. 여러 가지 정리整理도 못한 채 급急히 서둘르게 되여 떠난 자는 인사人事 한마디도 없이 7년간七年間이나 정情들은 제2第二고향故鄕?을 떠나게 되어 감개무량하였고 마음으로나마 산천山川과 여러분들에게 '안녕'하고 떠났다.

× ×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나온 사람 이옥자李玉子, 인복례印福禮 두 간호원과 김산파, 수산장부인夫人, 당씨氏부인, 박종권朴鍾權, 이李홍규(약제사), 전성기全聖基, 중성, 세진, 진수 형兄, 모母, 조모祖母, 조趙명숙, 양신부楊神父 조카姪.

## 2. 1962년 12월 16일 일

하오下午 10시 서울을 출발하여 부산釜山으로 향向하다. 우리 제1차第一次 이민移民을 위해서 특별特別히 열차列車가 마련되였고 서울역은 환송객歡送客으로 법석대다. 나는 같이 떠나지 못하게 되어 걱정이라는 시부媤父님께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 드린 후 시이모媤姨母님 내외內外분과, 동수東秀, 문희文姬, 선영善永, 용주容主 누이동생들과 나의 오촌 인환麟桓 숙부모叔父母님과 친정동생親庭同生 내외와 또 강신부姜神父님과 막달레나. 홍일弘一[1]이 친구, 성聖휘와 중성, 심용수沈龍洙씨 박씨朴氏 등등等々 일일히. 어쩌면 다시 못 볼 마지막 악수와 인사말을 교환交換했다. 서로가라 목이 메여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특特히 휘문학교 홍일 동창생同窓生 10여명余名이 목이 터저라고 애국가愛國歌와 교가校歌, 아리랑을 연連거퍼 불러줄 때에는 푸랫트홈은 우룸바다가 되였다. 서울이여 안녕!

1) 고홍일. 백옥빈의 첫째 아들

### 3. 1962년 12월 17일 월

아침 7시 반半 부산에 도착到着. 역전驛前에 대기하고 있던 '브라질 이민단移民團'이라는 푸란카-트가 달린 3대台의 뻐스에 분승分乘하여 동래東萊온천장 소재所在 국립國立재활원에 짐을 풀고 오후午後 5시까지 자유행동自由行動한다기에 마지막으로 목욕을 하고 영주백伯에 있는 후일後日에 브라질에 오실 사촌형四寸兄님 댁宅에 들렸다가 숙소宿所에 돌아오다. 오후 7시부터 동래에서 홍洪종철 최고위원最高委員과 브라질 영사領事 부처夫妻 보사부保社部 장관長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政府 주최主催 환송歡送 파-티-에 우리는 참석參席, 한국韓國에서의 마지막 만晩찬을 모두 맛이 있게 먹다. 다시 숙소로 돌아온 우리들은 고국故國에서의 마지막 하룻밤을 그 숙소의 이름(재생원)과 같이 내일來日에 희망希望을 걸고 재생하려는 재생원들과 함께 한 지붕 밑에서 잠을 자다.

### 4. 1962년 12월 18일

새벽부터 이러나 모-든 준비準備를 갖추고 또다시 3대의 뻐스에 짐을 싯고 출발. 뻐스 앞에는 백차白車[2]가 인도引導하고 왱왱 달리니 길가는 사람마다 모두 멈추어 서서 쳐다본다. 부산 제2부두에 도착했을 때에는 예정豫定보다 좀 빠르게 화란선和蘭船 "치챠렌가"호號가 서서히 부두에 닫고 있었다. 어쩐지 예상豫想보다 작은 배 인 것 같아 좀 실망失望했다. 그러나 동東쪽 수평선水平線에서는 희망에 벅찬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 햇빛.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빛나는 햇빛. 오! 우리 자손子孫들도 해외海外에 나가 저- 태양太陽과처럼 빛나라!

× ×

이른 아침이어서 그런지 오늘 날씨는 몹씨 쌀쌀하다. 앞으로의 희망과 불안不安과 추위에 오들오들 떨었다.

9시 반에 세관稅關의 짐 검사檢査를 마치고 짐을 들고 카메라의 후렛쉬 세례를 받으며 이민선移民船에 오르다.

배가 떠날 시간은 12시이다. 친척親戚 내內에 아직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들이 조마조마 했다. 11시 경頃에 정부요원政府要員들이 나오고 부산 고등학생高等學生들과 여학생女學生들이 나오고 송별식送別式이 있었다. 우리는 높은 갑판甲板 위에서 내려다보고 많은 환송객들은 멀리 부둣가에서 우리를 올려다보며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 봉창奉唱을 할 때에는 정말 아니 우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를 위해서 나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더욱 인印상에 남는 것은 학생學生들의 뺀드와 경남고교생慶南高校生들이 마지막으로 휘문교복校服을 입은 우리 홍일이를 불러 '인터뷰'를 하고 멀리멀리 떠날 때까지 "고홍일 잘 가

2) 군대나 경찰에서 순찰할 때에 쓰는 흰 칠을 한 차(지프)를 말한다.

라"고 여러 번 웨치고 격려해주던 때이었다.

12시 정각正刻 출항出航.

인제 고국을 떠나게 되니 미운 사람도 없어지는 것 같고. 좋지 못했던 일들도 모두 사라지고 좋은 추억追憶만으로 남게 될 것이다.

바다에서 우리 국군들이다. 또 끝까지 오래도록 우리에게 손을 흔들며 지켜 보내주신 303호 경비선원警備船員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고국을 떠나면서 다시 한 번 애국가를 가만이 불러보며 대한민국의 훌륭한 어머니가 되기를 다짐해보며. 우리에게 건강健康과 주主의 은총恩寵 중中에 앞날의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기구祈求[3]하며 다닥다닥 산山꼭대기까지 붙은 부산항港을 안개가 서린 눈으로 멀리 바라보았다.

× ×

3등三等객실客室에서 침대를 정定하고 가족家族 단위로 첫 점심식사食事를 하고 난 후 짐정리를 하고나니 벌써 오후 3시 반 tea time[4]이 되여 종을 친다. 또 식당食堂에 몽여 케-키 한조각과 커-피- 한잔씩을 하고 구명대救命帶를 배급配給받다. 배는 벌써 큰 바다에 나선 듯 흔들리기 시작始作하여 영자玲子[5]는 누어있고 나는 어쩐지 긴장緊張해서인지 아직 괜찮다. 애들은 좋아라고 이리저리 뛰여다니고 갑판에서 운동運動을 한다.

대한의 귀여운 아들딸들이여. 착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라. 배가 점점 더 흔들린다.

또 갑판에 올라가보자. 4시 반.

## 5. 1962년 12월 19일 흐림

배멀미하기 시작하다.

어린이 놀이터를 마련하고 저녁에 '키리만자로'라는 영화映畵를 구경[6]하다. 날씨가 포근해져서 속내의內衣를 벗다. 식사는 일식日食, 중식中食, 서양식西洋食이며 중류中流에 속하나 많이 먹지를 못하겠다. 사상계思想界의 청請에 의依하야 처음으로 편지便紙를 하다. 여러 가지 공부工夫가 부족不足하여 써 보내기가 부끄럽다.

---

3) 기도의 옛말. 원하는 바가 실현되도록 빌고 바람.

4) 원문은 [tha time].

5) 고영자. 백옥빈의 첫째 딸.

6) 원문은 [求景]. '구경'은 한글이기 때문에 한자를 삭제한다.

## 6. 1962년 12월 20일 맑음 오후 흐림

오후 8시 '오끼나와' 도착. 찬란한 햇빛에 눈이 부시다. 춘추복春秋服 투-피-스를 입고 갑판에 올라갔다. 오끼나와는 과거過去 일본日本영토領土였고 지금은 미군정하美軍政下에 있으며, 말은 일본어日本語이고 모-든 간판看板도 한문漢文이고보니 우리나라와 별別로 다른 것이 없는 것 같다. 내리지는 못하고 갑판에서 내려다보니 길게 뻗은 조고만 섬이며, 항구港口가 좁아서 바다 한가운데서 발동기를 끄고 다른 작은 배로 이끌어 부두에 닿다. 전송 나온 사람들도 춘추복을 입었고 파라솔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인물人物은 키가 작고 얼굴색色이 우리보다 훨신 검다. 이곳에서 브라질이민 80여명이 승선乘船했고 그네들은 일본과 같이(역시 80명名 동선同船 중) 근近 반세기半世紀(40년年)동안 계속 이민을 하고 있기에 떠들석하지도 않고 평범平凡하였다.

1등 갑판에 주인主人[7]양반과 함께 올라가다.

햇빛이 뜨겁다. 반소매 옷을 입은 사람이 많다. 아모 관계關係도 없는 각各 국제인國際人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부두를 향하여 테-푸를 던진다. 나도 그들 틈에 끼어서 부드[8]를 내려다보고 또 동승同乘한 인도인印度人(턱수염에 가느다란 그물을 씌운)과 그의 애기와 같이 사진을 찍었다.

10시 오끼나와 출항. 선실船室에 돌아와 옷을 가라입고 빨래실室까지 가기는 멀고 해서 가까운 목욕탕에서 그새 벗어논 겨울 속옷들을 딸애와 같이 빨다. 더운물 찬물을 동시同時에 틀어 놓고 타이루 바닥에 빨래를 비벼대니 때도 잘 지고 편便하다. 그러나 점점 배가 흔들리어짐에 따라 어지러워져서, 참다못해 변소便所에 다녀온 후에 다시 빨래를 끝낼 수 있었다. 온 몸이 땀에 함빡 젖었다. 침대 옆에 공간空間이 있기에 줄을 매고 큰 아들 홍일이兒가 빨래를 다시 꼭 짜주어서 줄에 널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붙은 공기空氣통을 빨래줄을 향해 돌려둔다.

선중船中에서 절실히 느낀 것은 건강이다. 특히 이민을 가는 우리들 개척대隊?가 이렇게 약해서야 어찌하나? 고국의 여러 주부主婦님들과 특히 제2, 제3第三…… 이민 오시는 분들께 부탁하노니 부디 매일 매일每日每日 각자各自 자기 일은 자기自己가 할 수 있또록 가족 전체를 훈련訓鍊시켜 두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멀미 중에는 어린애는 제외하고 큰 사람들은 쉬로 가다.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한다.

지금 이 배의 일본인日本人들에게는 본국本國에서 한국 이민과 충돌하지 않게 주의注意하라는 무전無電이 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번에 우리 첫 이민단을 몹씨 주시注視하고 있으며, 우리가 예정대로 18일十八日 12시까지 떠나지 못할 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비자도 제대로 나오고 정각 12시에 출항한데 대對하여 깜짝 놀라고 있다고. 그리고 이번 우리 이민은 모두 중류中流 이상以上이고보니 선중언어船中言語로 되여있는 영어英語는 물론, 일어日語, 중국어中國語 등 모두 통通함으로 우리 이민단이 화話제꺼리라고

7) 남편을 간접적으로 부름.

8) '부두'의 오기로 보인다.

한다. 우리는 더욱 고국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努力 중에 있으며, 아빠들은 정부인솔자政府引奉者와 같이 매일每日밤 회합會合을 가져 모-든 일을 토의討議한다. 언어言語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삼등선실三等船室은 가는 곳마다 일어로 된 주의사항이 많이 써 붙여있다.

우리도 우리 후진들이 어서 자주 이 배를 많이 이용利用하게 되면 이二, 삼십년三十年 후後에는 여기저기 우리말로 된 주의사항注意事項이 나붙게 되고 우리나라 쿡이 만든 우리 음식飮食을 먹게 되겠지 하고 자위自慰해 본다.

12시十二時 반부터 날씨가 흐리더니 빗방울이 뿌리다. 파도波濤는 없으나 긴 파장波長인 물결에 우리 배가 부딪쳐 흰 물거품이 갑판 위까지 올라 뛴다. 그럴 때마다 애들은 좋와라고 함성을 올린다. 바람은 차지 않으나 어쩐지 추워서 다시 오-바-[9]를 꺼내 입고, 사면四面 걸리는 데 없는 수평선을 바라본다.

저녁때에는 배가 너무 흔들려서 침실寢室로 들어가 모두 토하고 저녁 식사도 못하고 그냥 잠이 들다.

## 7. 1962년 12월 21일 금

7시 세면소洗面所에 가면서 밖을 내다보니 아직도 캄캄하고 하늘에는 하현下弦달과 별이 반짝인다. 어제 밤보다 배는 덜 흔들리며 공복空腹을 느낀다. 어제 널어 논 빨래는 공기통에서 바람으로 거진 다 말랐다. 8시 아침식사는 깨끗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다. 요새 식사는 일식에 가까우므로 좀 싱겁다. 홍콩香港에서부터는 어떤 것을 주려는지 궁금하다. 점심 후에는 사과, 저녁 후에는 "미깡"을 꼭 준다. 그동안 먹을 것은 너무나 많았다. 서울과 부산을 떠날 때 친지親知들께서 주신 많은 과자, 과일 감사하게 먹고 있다. 선중에서 제일第一 좋은 것은 과일果實이며 과자는 너무 달지 않은 짭짤한 것이 좋다. 한국의 배가 생각난다.

11시 홍콩에까지 동승하게 된 브라질 영사(재한在韓)와 또 선장船長이 우리 한국 이민실移民室을 방문訪問한다기에 몸단장과 청소淸掃를 하다. 우리를 맡아보는 선원船員이 잘 보고報告한 탓으로 유례類例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 12시까지는 아직 시간時間이 있으므로 갑판에 올라가 보다. 중국선원中國船員들이 갑판 소제掃除[10]가 한창이다. 햇빛은 조곰 덥고 멀리 안개 속에 대만台灣이 보인다. 물결은 잔잔하여 일광욕日光浴하기에 알맏다.

12시 반 점심때에는 영사부처領事夫妻와 선장과 함께 식사를 하고난 후 선장에게는 우리나라의 인형人形, 영사부처에게는 조그만 자개 사진틀을 선사하다.

× ×

오늘은 선실생활船室生活 4일日째, 웬만한 흔들림에도 면역성이 생겨서 배멀미하는 사람도 없고 전원全

9) over. 외투.

10) 청소.

員 기쁘게 뛰놀다. 나도 께임도 하고 갑판에 올라가 외국인外國人과도 사귀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다. 바다는 넓고 깨끗한 푸른 물은 잔잔하다. 저녁 8시 반부터 (한국 시간보다 30분 늦게 돌림)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보리수' 영화를 보다. 몇 년 전前에 서울에서 본 영화지만 또 새로운 감명感銘을 받았다. 오늘밤 12시를 기期해서 또 두 뻔째로 30분을 돌리게 된다. 즉卽 한국과 1시간 차의.

## 8. 1962년 12월 22일 토 맑음

잔잔한 바다 위에 기관機關 소리만 들릴 뿐. 우리가 무엇을 타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程度로 고요한 바다이고 또 우리는 선중생활船中生活에도 익숙해졌다. 이 배는 지금 너무나 순조順調로이 항해航海 중이며 후면後面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因하여 예정시간豫定時間보다 약約 20시간 빠른 금일今日 오후 4시에 홍콩 도착하게 될 것 같다. 너무 한가하다. 게으름뱅이가 될까 걱정이다. 영자는 '아코데온'을 메고 앞갑판(1, 2등실二等室 선객船客들)에 가서 우리나라 민요民謠와 트위스트를 키고 인기人氣랜다. 애들 아빠는 선중 이발소理髮所에 가셔서 면도面刀는 하지 않고 40센트를 주고 이발理髮을 하다. 홍콩에서는 23, 24일 두 차례로 나누어서 관광觀光하기로 했다. 오후 4시 홍콩 도착.

과연 홍콩 ……. 하고 떠들어 댈만한 국제항구國際港口라 각국各國 기선汽船들이 닻을 내리고 있었으며 넓은 부두에는 고층건물高層建物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다. 배가 서있을 때를 이용해서(멀미도 하지 않으므로) 오래간만에 빨래를 하고 대리미질을 하다.

## 9. 1962년 12월 23일 일 맑음

성당聖堂에 못 가는 대신 아침 일찍 가족이 몽여서 첨례[11]를 하다. 10시경 관광사에서 보내 온 작은 배를 타고 홍콩 시내市內에 닫다. 뻐스를 타고 구경하다. 날씨는 맑게 개이고 마침 일요일日曜日이라 인파人波다. 기후氣候는 우리나라의 9, 10월月경과 같고 나무잎이 푸르며 밭에 새로 갈아서 자란 시금치, 캬베쓰[12]가 싱싱하다. 고층건물이 즐비하게 서있었고 정원庭園이나 울타리에는 이름도 모를 아름다운 꽃들이 피여 있었다. 지상地上의 낙원樂園이었다. 백百화점에는 싸고도 좋은 물건物件들이 많이 싸여 있었고 때마침 X마스 때를 맞이하여 법석을 대고 있었다. 차車는 모두 좌측통행左側通行이며, 전차電車는 2층二層, 도로道路는 서울보다 좁은 것 같다. 저녁에는 모여서 사가지고 온 것들을 자랑하면서 법석들이었다.

돈의 가치는 미불美弗 1불弗 = 홍콩불香港弗 5.6불 ~ 5.7불 = 한국원韓國圓 130원

11) 예배하는 일.

12) 양배추(cabbage)의 일본식 발음.

## 10. 1962년 12월 24일 월 맑음

아버지와 홍일이는 외출外出하고 우리들은 집?에서 쉬기로 했다. 배에서는 종일終日토록 하물荷物을 싣고서도 모자라는지 밤새껏 퉁탕거린다. 나는 소화消化가 안 되여서 빨래감을 찾아내여 위로 오르내린다. 저녁식사 후 배를 타고 COWLOON[13]에 구경을 갔다. 홍콩보다 더 근대적近代的인 도시都市다. 홍콩은 섬이고 COWLOON은 대륙大陸에 붙은 곳이다. 한 바퀴 휘-돌고는 다시 배를 타고 홍콩에 돌아왔다. 이곳은 '대환大丸[14]'이라는 백화점百貨店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상점이 많다. 애들의 크리마스 선물 겸 옷을 사가지고 성당에 들려보니 문門이 잠겨 있기에 그냥 돌아왔다. 은종이 테-푸가 있기에 십자가十字架 고상[15]을 중심으로 간단한 추리[16]를 만들다.

## 11. 1962년 12월 25일 화 맑음

서울은 지금 눈이 오고 영하零下로 내린 추은 날씨겠지. 오늘 이곳의 기온氣溫은 17, 8도度 가량이다. 아침 식사는 이곳 교민회僑民會(100여명이 살고 있음)에서 보내주신 맛이 있게 담근 '김치'를 보고 환성을 올렸고 귤 3상자도 나누어 먹었다. 귤은 괭장히 크며 시지도 않고 맛이 있었다.

홍콩주재駐在한국영사부처가 내선來船하여 같이 환담했다. 이곳 교포僑胞들은 중국인中國人과 결혼結婚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그 분도 우리와 같이 처음에는 추운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겨울이 참 따듯하게 느껴졌으나 2년이 된 지금에는 그 따뜻함이 습관習慣이 되여 옷을 두껍게 입게 된다고.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이 배의 본국 네덜란드和蘭에서는 아마 크리스챤이 아닌지 선중에서는 아모 행사行事도 없고 너무나 조용하고 식사도 말이 아니다. 선중 우리 천주교天主教 신자信者들이(3가족 21명) 함께 모여 성탄聖誕 축하祝賀 첨례를 하고 영자의 '아꼬데온'에 마추어 성가聖歌"고요한 밤", "구유에 누어"를 합창合唱하다.

12시 홍콩 출항. 배가 움직이자마자 나는 벌서 배멀미를 하여 식사를 못하고 종일 누었다가 저녁나절에 잠깐 갑판에 올라가다. 날씨는 따뜻하고 우리들의 어린이들은 모두 귀엽게 뛰논다.

'한국일보' 19일 20일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직도 고국을 떠난 지 수일數日 바께 되지 않아서인지 그렇게 살틀하게 고국 냄새를 느끼지 않았다. 성탄 날 호래비부대部隊(군인軍人영급領級 11명)들은 가족들 생각[17]에 눈물짓고 있었다. 나는 가엽은 마음에 부산을 떠날 때 같은 고高씨고 같은 의사醫師인 미지未知

13) 원문에는 [COWLOON]. 홍콩의 가우룽(九龍)이다.

14) 다이마루(일본 백화점).

15)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수난을 그린 그림이나 새긴 형상.

16) 트리.

17) 원문은 [生覺]. '생각'은 한글이기 때문에 한자를 삭제한다.

의 노년老年 신사紳士께서 주신 「조화朝花」 정종 술 한 병과 호콩[18]을 선사했다.

### 12. 1962년 12월 26일 수 맑음

잔잔한 바다를 고요히 항해하다. 어제 밤에 돌려 논(30분 늦게) 시간 때문에 잠을 자도 자도 일찍 이러나는 시간이 된다. 중국中國 신문新聞에서 고국의 소식消息을 보았다.[19] 23일 우리가 홍콩에 도취되여 있을 때에 고국 인천仁川 해상海上에서는 큰 일이 벌어졌었으니……. 오! 조국祖國이여, 부디 안녕安寧하시요. 신神께 자꾸만 기구했다.

오늘부터 선원들의 유니폼은 백색白色 일색一色이다. 깨끗하다. 참 덥다. 고국은 지금 0하下 1도라는데.

### 13. 1962년 12월 27일 목

홍콩을 떠난 지 2일째 지금 이 배는 베트남 옆을 지나고 있다. 섬과 같이 보인다. 잔잔한 호수湖水와 같은 바다를 쾌속도快速度로 달리고 있다. 새벽 일찌기 조용한 틈을 타서 빨래를 하다. 저녁 8시부터 또 영화를 보게 되였다.

### 14. 1962년 12월 28일 금 맑음

매일 아침 빨래를 하기로 했다. 몸단장을 하니 한결 마음이 상쾌하다. 오늘 선실 기온은 아마 25, 6도는 넘을 것 같다. 서울에서는 스케-트를 탈 텐데 더워서 못 견디겠으니……. 아무리 어름 생각을 해도 덥다.

9시 반부터 회의를 하다. 모-든 주의사항 다 새로 편성編成을 하다. 유년반幼年班은 영자가 맡고, 위생衛生은 아버지가 맡다. 이렇게 해서 점점 질서가 잡히게 되고 좀 더 계획성計劃性있는 생활生活을 하게 되겠지. 무더운 선실에 누어서 '남미이주지南美移住地에서의 건강과 위생을 위爲하야'라는 책冊을 읽다. 여러 가지 무서운 병病이 많다고 하지만, 우선 잘 먹고 깨끗한 생활만 하면 아모 걱정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저녁 7시 반부터 전원 식당에 모여서 이민협회移民協會 인솔자引率者인 박상무朴常務[20]로부터 브라질의 예절禮節에 대한 강의講義를 받다. 유익有益한 말을 재미있게 잘 들었다.

× ×

너무나도 무더워서 선실에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다시 캄캄한 갑판 위에 올라갔다. 그 때 마침 우리

18) 땅콩.

19) 1962년 12월 23일 북한 함정의 남침이 있었다.

20) 원본 상부에 [박동렬?]이라고 이름이 표기되어 있다.

배 꼭때기에서는 무슨 신호信號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기에 자세히 주위周圍를 살펴보니, 옆으로 또 다른 배가 지나가면서 서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우리가 무심無心코 고이 잠자고 있을 밤중에도 우리의 생명生命을 맡고 있는 선장실船長室에서는 온 정신精神을 기우리고 긴장하고 있어야하니 참말 고맙다고 생각했다.

별빛이 박짝이는 갑판 조금 높은 곳에 조용이 혼자 따로 앉아 고국의 여러분을 그리며 오늘의 마지막 묵주신공을 바치다.

## 15. 1962년 12월 29일 토 흐림

5시에 또 빨래를 하여 팔의 힘은 세지는 것 같으나 배가 고프다. 요새 식사를 잘 못하여 스카-트 허리가 헐렁거린다.

6시 반 조기체조早起體操에 참가參加. 9시부터 동선同船한 호래비부대?의 한 분인 김金소령少領의 브라질어語 강좌講座를 시작하다. 모두 열심熱心이다.

10시 15분分 "엄마 빨리 바다 색갈을 보세요" 떠드는 소리에 갑판에 뛰여올라가 보니 벌써 '싱가폴'의 육지陸地가 많이 보이고 바다가 얕아서인지 또는 사람 사는 곳에 가까워서인지 그렇게도 파랗던 바다물은 엷은 흐린 옥색玉色으로 되여 있었다. 12시 싱가폴 해상 정박碇泊. 갑판 위에는 너무나 더워서 서 있을 수가 없다. 선실에 다시 되돌아와서 천장天障[21]에 달린 여러 개의 선풍기의 바람을 맞아도 무더워서 살 수가 없다. 내일까지는 외출도 안 되고 질식할 것만 같다. 과연 더운 고장이다. 옷을 벗고 가만이 누어서 부라질어 공부하다.

저녁 7시부터 제2회第二回의 교양강좌敎養講座를 받았다. 남미南美는 카톨릭국國이기 때문에 모-든 문명文明과 교양敎養이 카톨릭을 중심中心으로 발달發達되였고 그래서 더욱 성모聖母님을 공경하는 정신으로 어머님을 존경尊敬한다는 말을 들은 후에는 우리 애들도 좀 더 엄마를 소중所重히 여기는 것 같다.

## 16. 1962년 12월 30일 일 흐림

이곳에 있는 단單 1명인 교포가 김치를 담거다 주었고 또 아버지들을 초대招待해 주셔서 다들 외출하셨다. 우리 배는 아직 부두埠頭에 닫지도 않고 해서 종일 무더위에 허덕거리다. 웬일인지 등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하다. 빨래를 계속 해서 무리였는지. 선실이 너무 더워서인지 그새 먹기 싫어서 끊었던 '비타민'과 '나이드라짓'[22]을 먹고 누어있었다.

21) 원문은 [天井].

22) 나이드라지드(Nydrazid). 결핵 치료약.

오후 3시 반쯤 '스콜-'이 퍼부어 시원했다. 뽀-얀 안개 속에 바다와 하늘이 맏다은 것 같다. 저녁식사 후 늦어진 주일主日 첨례를 하고 곧 부라질어 강좌를 모두 열심히 하다. 9시 반부터 주의사항 전달傳達에 이어 이민사移民史에 남을 정식正式회의를 했다. 즉 단장團長(서울에서 출발 전 바쁜 중에 선출選出했다 함)에게 불만不滿이 있는 것 같아 약간의 옥신각신이 있었다. 그러나 김金소령이 "우리가 지금 일개인一個人의 장단長短을 논論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모 사고事故없이 무사無事히 건강하게 브라질까지 가느냐가 문제問題이다"라는 말에 임시臨時 의장議長으로 추대推戴하고 회의를 진행進行했다. 유권자有權者는 각 가족에서 한 명과 독신부대獨身部隊(군인출신出身)해서 27명 모두 개성個性이 뚜렸하다. 아직 여정旅程의 5분의五分之 1바께 여행을 하지 않아서 기력氣力이 왕성한지 회의 진행進行이 활발活潑했다. 결국結局은 한韓단장의 사의辭意는 수리受理가 되고 엉뚱하게도 우리 영자 부친父親이 선출되였다. 공연이 또 한 가지 무거운 짐을 지게 되였고 걱정꺼리 기구 조건條件이 하나 더 늘었을 뿐이다.

## 17. 1962년 12월 31일 월 흐림

아침부터 깨끗이 개이지 않은 흐리멍덩한 날씨다. 점심식사 후 애들을 데리고 작은 배를 타고 '싱가폴' 시내에 갔다. 첫인상은 사람이 많치않아 한적한 기분氣分이고 나무가 많아서 좋다. 지붕은 큰 기와가 아니고 조고마씩한 것이 다닥다닥 붙은 감이였고 경사가 가파롭다. 그것은 비가 즉 "스코-ㄹ"이 자주 와서 빨리 물이 잘 내려갈 수 있게 하누라고 그랬을께고. 또 말레-인人들의 지붕은 나무잎이고 옷은 인도인과 비슷한데 즉 치마 같은 옷 위에다 부처님의 옷 같이 긴 천을 한 편 어깨에 위 아래로 내려트리고 있고 머리에는 마후라를 쓰고 있다.

얼골은 토인土人보다 희며 코는 오뚝하고 눈은 크며 속눈섭이 길다. 얼굴색이 검기 때문에 도리혀 모-든 티가 가리우게 되여 아름답게 보인다. 그 옛날 일본 여류작가女流作家가 쓴 소설小說에 "어떤 종군기자從軍記者가 마레-에 종군從軍되여 갔다가 시일時日이 오래되여 신혼新婚하고 온 부인 생각을 심甚히 하던 끝에 깨끗하게 일을 잘 돌보아 주는 마레-여성女性과 교제交際하게 된다"는 줄거리가 문득 머리에 떠올라 다시금 매력적的인 마레-여성들을 다시 보게 된다. 우리는 차를 타고 Tiger Garden에 갔다. 이곳은 중국의 '호문표胡文豹 기념비記念碑'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니 호씨胡라는 부자가 건설建設한 것 같다. 하여튼 여러 가지 동물動物을 만들어놓았고 부처와 기타其他 여러 가지 마치 꿈나라와 같이 잘 꾸며져 있어 아이들은 좋아라고 환성을 올리며 서로 사진을 찍누라고 법석들이었다. 어린이들에게 좋은 꿈을 안겨주는 곳이었다. 다음은 '수족관水族館'에 갔다. 서울에서는 다방茶房 어항에서나 보던 조그만 열대어熱帶魚들이 여기서는 얼마나 큰지 깜짝 놀랐다. 별라별 열대어들이 많았다. 또 우리는 식물원植物園에 갔다. 너무나 많은 열대식물熱帶植物들, 서울에서는 화花분에서나 기르는 줄 알았던 난초, 사보뗑[23], 기

23) 선인장(sapoten)의 일본식 발음.

타 식물植物들이 이곳에서는 대자연大自然 속에 마음대로 자라서 꽃이 되여있지 않은가? 땅은 흙이 보이는 곳은 없고 어디를 가나(식물원 내) 잔디가 푸르게 깔려 있었다. 우리 한국 잔디와 같이 곱고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좀 더 잎이 넓고 큰 잔디었다.

시간이 없어서 열대식물들의 이름을 적을 새가 없어서 서운한 마음으로 시내 구경을 마치고, 마레-식당에 들어갔다. 집 앞에서부터 무슨 독한 냄새가 난다.

밥은 안安랑미米이고(한국서와 같이 뜬 냄새가 없다.) 여전히 풀기가 없다. 닭고기는 볶은 것인데 맛이 있었고 채소, 오이도 싱싱했다. "싱가폴"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만 할 줄 알면 말은 다 통한다. 상점 점원店員이나 운전수運轉手나 모두 영어 못하는 사람이 없다. 물론勿論 영국령英領이니까 그렇겠지만. 인종人種은 영국인英國人, 중국인, 말레이인馬來人이 많다. 기후는 일 년年 내내 덥다고 한다.

저녁은 선선해졌다. 그래서 살 수 있나보다.

밤에는 정부인솔자인 독獨고씨가 주선하여 아버지들에게는 약간의 술, 어머니들에게는 주-스를 대접해주어서 망년회忘年會를 하였다. 1962년이여 안녕!

#2

# 1963

## 1. 1963년 1월 1일 화 맑음

어제보다 더 더운 날이다. 춥지 않고 눈이 오지를 않고 무더운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니 통 기분이 나지 않는다. 아침 식사는 훌륭했고. (한가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식사에 관심이 많다) 또 라이스팡이라 쓴 깡통에 넣은 찰떡도 따끈따끈하게 데워서 주었다.

오후에는 외출하여 시내 구경을 하였는데 인구人口 150만万을 가진 도시라 과연 넓다. 길을 잘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저녁에는 이곳 사시는 교포 김金씨부부夫婦와 아들, 딸이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을 가지고 왔다. 저녁 '티-'시간에 나누어 먹고 또 이 배에서는 '맥주'와 '코카콜라'를 주어서 신년축하회新年祝賀會를 잘 했다. 아침에는 어린이들에게 '사탕'과 '작난감'을 주었다. 나는 현지現地의 교포들이 찾아왔을 때마다 생각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당연當然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점点이다. 그 이들은 물론 각지各地에서 우리를 만나보게 되여 너무 반갑고 기뻐서 이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건(선물)까지 사가지고 오시는 그 성의誠意만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물건의 값으로만 따지지 말고 우리는 좀 더 감사感謝할 줄 알아야 될 것이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본을 보여주고 좋은 교육敎育을 해야 할 것이다.

## 2. 1963년 1월 2일 수 흐림

날씨가 흐려서 선선하다. 아버지와 함께 영자를 데리고 외출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일본인이냐? 중국인이냐? 하고 저이들끼리 수군거린다. 보통은 일본인으로 보지만 떳떳하게 한국인韓國人이라고 말해준다. 우리 한국인도 이렇게 건전하고 멋지다고 속으로는 뽐내면서……. 어제 잠깐 나갔을 때에 조곰 이상한 곳이 있어서 거기부터 찾아가기로 했다. 연蓮꽃모양의 무늬가 새겨져 있는 대문大門을 들어서니, 남자들이 여러數 명 하반부下半部에만 헌겁을 두루고 맨발로 서 있다. 우리에게 무어라고 하기에

눈치를 보니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고 한다. 자세히 보니 여러 개의 회랑迴廊[24]을 거쳐 깊숙히 정면正面에 커-텐이 쳐있고, 천정에는 중국인들의 무슨 그림이 있다.

우리는 들어가지 않고 밖을 돌아보았다. 비둘기들이 부셔준 '코코낫'을 꾸꾸거리며 먹고 있었다. 지붕 끝에는 여러 가지 사람의 모양의 조각이 새겨져 있어 우선 사진을 찍고 있노라니, 잠시 후 종이 울리고 나무로 만든 까만 나팔을 불고 또 북을 치고. 한편에서는 독한 향香을 피운다. 한참 불고 뚜두리고 하는데 어떤 노인老人이 합장을 하고 이상한 손짓을 한다. "불佛타?"하고 물었드니 그렇타라고 끄덕인다. 아마 인디안의 절인 모양이다. 우리는 '코코낫' 쪼각을 얻어 들고 시내로 나왔다.

고국을 떠날 때에는 겨울철에 너무 급히 서둘러서 왔기 때문에 여름옷이 없다. 아이들의 여름 속내의들을 조곰 사가지고 선실에 돌아오니 뜻밖에도 사상계의 전영全永창씨의 격려의 서신書信과 또 계동桂洞에 계신 동수아저씨에게서 반가운 편지가 왔다. 처음에는 반가움에 서로 먼저 읽는다고 다투어가면서 읽었으나 나중에는 목이 메여 읽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또 미지未知의 두 분에게서 우리들 전체에게 서신이 왔기에 회람回覽하여 읽기로 했다. 편지에 동봉同封해 온 한국일보(12월 26일 발發)에 우리가 풍랑風浪을 맞아서 멀미를 했다는 기사記事를 보고 말성이다. 혼자 오시는 분들은 가족들을 공연히 걱정시켰다는 것이다. 그때 오끼나와 해협海峽에서 배가 좀 흔들리기는 했으나 나와 같이 택시를 타도 멀미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지 큰 걱정은 없었다. 하여튼 가족과 같이 오지 못한 사람은 좋은 것을 보나 타인他人의 가족이 외출하는 것을 보거나 모두가 부럽기만 하고 가족 생각만 하기 때문에 신경神經이 날카로워진다. 아모것도 아닌 데도 그렇다. 여행을 한다거나 이민은 물론 모든 가족이 다 같이 하여야 하겠으며, 사정事情에 의하여 같이 못가는 경우에는 서로 위로慰勞하는 좋은 말로 자주 소식을 전傳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오후 8시 부터 브라질어伯語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이곳은 자치국自治國이지만 말레-연방국聯邦國 주재대사大使님이신 최崔장군將軍님과 서기관書記官께서 이곳의 철도鐵道스트라익[25]으로 인하여 할 수 없이 갑짝스런 수속手續 관계로 타기 어려운 비행기로 오셨다. 몸집은 작으나 참 다부진 분이었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말슴은

1. 과거에 실현實現하지 못했던 이민을 현現 정부가 여러분들의 원願하는 곳에 가게 해주셨으니 한국이민개拓척단으로서의 자부심自負心을 가지고 노력할 것.
2. 외국인들에 비比해서 우리 한국인은 쉽게 그 나라에 동화同化되는 수가 많으니 한국이민개척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성공成功해서 제2의 한국을 만들 것.
3. 선중에서나 도착해서나 서로 단결團結하여 일해 나갈 것.

24) 원문은 [迴郎].

25) 파업.

등이었다. 이어서 싱가폴에 계신 일전日前에 우리 아버지들을 초대해주신 분의 인사 있은 후 최崔대사는 우리 이민 전체 인원人員들에게 일일一一히 악수로서 인사 했다.

### 3. 1963년 1월 3일 목 흐림

그새 종일토록 나가 다니누라 밀렸던 빨래를 했다. 싱가폴은 하루에 한 번씩 가장 더울 때인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꼭 '스코-ㄹ'이 내려서 살기 좋다는 것과 낮에 시내를 거닐을 때, '파라솔'을 받은 사람이 없고 또 모자를 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몇일을 지나보니 과연 볕이 그렇게 따겁지를 않다. 더울 때는 무더워서 비가 오고 그렇치 않으면 시원하다. 하여튼 살게 마련이다.

오늘은 참 시원한 날이다. 요새는 참 그야말로 팔자八字가 늘어졌다. 주야晝夜를 가리지 않고 한 침대에 2개 3개씩 달린 선풍기가 윙윙 소리를 내며 바람을 보내 주지를 않나? 빨래, 목욕은 마음대로 하겠다, 때만 되면 가만이 앉아서 가져다주는 좋은 식사와 과果일을 먹고, 또 가는 곳마다 신기한 구경을 하겠다, 이렇게 편한 생활이 또 있을까. 다만 사람이 편한 생활을 하면 마음의 긴장이 풀리게 될가 걱정일 뿐이다. 전번 홍콩에서 하지 못한 고국의 친지들에게 편지를 했다. 이후以後는 할아버지께만 하기로 했다.

안성을 떠날 때에 꼬마 홍준弘俊[26]이 담임擔任선생先生이시던 신준완申俊宛 선생께서 건강 속에[27] "영원히 조국 대한의 품에 살아라"고 적혀있는 한국아동문학독본 2권券인 마해송 아동문학독본을 읽었다. 동화童話와 수필, 동童극이었는데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도 좋았다. 어린이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또 부산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사준 "알푸스의 푸른 깃발"이라는 책을 심심풀이로 읽었다. 속이 시원해지는 내용內容이었다. 요새 늘 생각해 온 일이지만 선중에서는 딱딱한 내용의 책보다 소설 같은 것이 좋으며 무엇보다도 내용이 좋고 재미있는 책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좋다.

### 4. 1963년 1월 4일 금 날씨 좋음

아침 식사 때에 빵과 커-피-, 계란, 뻐터- 짬을 주어서 모다 좋아서 잘들 먹었다. 선중에서는 한가하기 때문에 또 각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사 때마다 이번에는 무었이 나올가 기다려진다. 인제 한국에서 가지고 온 과자菓子가 떨어져서 식욕食慾이 왕성旺盛한 애들에게 줄 간식間食을 조곰 샀다. 온 가족이 길을 떠나고 보니 사소한 일에도 돈이 든다. 그 중에도 "비누" 값이 제일이다.

× ×

26) 백옥빈의 셋째 아들.

27) 『사상계』에는 겉장에 적혀있었다고 되어있다.

어제 세수하고 거울을 들여다볼 때부터 느낀 일이지만 내가 고단해서 얼굴이 좀 부었나 했는데 암만해도 암만해도 잘 먹고 아모 걱정 없이 마음이 편해서 살이 찌나보다. 그야 장래將來의 개척을 위해서 푹 쉬고 마음과 몸을 준비하는 시기時期이기는 하다. 하여튼 편해서 어쩐지 그 누구에겐지 알 수 없으나 미안未安한 감이 든다.

× ×

그간 항해 중 가장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들의 생활교육문제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처음으로 각국인各國人들과 사귀게 되여, 큰애, 작은 애 모두들 들뜬 마음이다. 나는 가만히 관찰하며 잘못되지나 않을까 항상 걱정이었다. 더구나 딸애는 음악音樂, 미술美術 다 좋아하며 열광적이고도 신경이 예민하다.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더욱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 2, 3인 이상 단체적團體的으로 행동行動하게 했고 종교적宗敎的으로 지도하려고 애쓰고 있다. 인제 선중생활 10여일을 지내는 동안 마음도 가라앉고 또 신기한 것도 없어지게 되고 타인과 사귀는 일에도 익숙해졌으며, 앞으로 긴 항해가 시작됨으로 자주 항구에도 들리지도 않게 되였으니 어떻게 하면 정상적正常的으로 긴 선중생활을 교육적敎育的인 면面에서 잘 생활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우선 전과 같이 일기日記를 적을 것. 일기는 생활기록이며 후일에 좋은 추억이 될 뿐 아니라 반성反省의 재료材料도 될 것이며 일기를 적기 위해서라도 어린이들은 좋은 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해왔기에.

또 싱가폴을 떠나면서부터 유년반을 맡은 영자에게 자기 취미를 살려서 다시 좋은 언니가 되게 하고 재미를 부쳐주기 위해서 간단한 "스켓취"라도 할 수 있게 4B연필과 '크레욘'을 사다 주기로 했다.

밤에 싱가폴에서의 마지막 외출을 했다. 야시장도 구경하고 난 후 속이 좀 쓰리기에 중국우동을 먹었다. 이곳은 외식外食값이 비싸다. 말레이馬來음식점을 지날 때면 그 독특한 열매의 향료香料(바샤라고 한다) 냄새 때문에 비위가 상해서 번번히 구역질을 한다. 이상스런 냄새다. 식당 같은 데서 잘 살펴보면 조고만 그릇에 적게 담을 식사를 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모두 뼈만 남은 것 같이 마른 사람들뿐인가 보다. 팔 다리 허리 모다 가늘다. 이곳은 너무 더운 것과 (요새가 겨울이라서 선선하댄다) 음식 관계 때문에 날신하다 못해 가느다란 사람들인가 보다. 선실에 돌아와서는 최崔대사님께서 주신 "노-트"를 각자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교포들이 보내주신 "파인에풀"을 나누어 먹다. 향기로운 냄새가 온 선실을 진동한다. 맛도 좋다.

### 5. 1963년 1월 5일 토 맑음

반짝 맑은 날씨다. 그러니 더욱 덥다.

아침에 빨래를 하고 누워서 쉰다. 그러면 좀 시원하고 방房도 지킬 겸 좋다. 아버지는 매일 외출이

다. 다시 못 올 곳을 곳곳이 잘 보아 두려는지. 하여튼 강철 같은 다리다. 침실에 D·D·T [28]를 뿌려주었다.(까만 인도인 인부人夫들이 물건을 훔친다기에 방을 지킨다.)

오후 5시 부두 출항. 우리 교포들과 "스코-ㄹ"을 맞으며 석별惜別하다. 그간 싱가폴은 철도 스트라익으로 늦어지게 되여 3일에 출항 예정이던 것을 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겨우 부두만을 떠나 바다 가운데서 다시 짐을 싣는다. 짐은 생고무가 많으며 목재木材(나왕)도 싣는다.

## 6. 1963년 1월 6일 일

아침 체조體操 종소리에 일어나 갑판에 뛰여 올라가니 어느덧 배는 우리가 고이 잠든 사이에 항구를 떠나 바다를 달리고 있어 시원하였다. 결국 8일간의 '싱가폴' 생활과 굳빠이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무나 신기하고 아름다운 것만 보아 왔기에 관광 기분이었으나 이제부터가 진짜 이민항해의 생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8시 반 천주교 신자들의 주일 마자 대송(삼왕래조三王來朝[29] 첨례)을 하고 난 후 머리가 아프기에 누었다. 몹씨 더웁다. 오후에는 오래간만에 영자가 갑판에서 어린애들을 몽아놓고 '아코데온'에 맞추어서 여러가지 노래를 하고 있었다.

이 배는 잔잔하게 말레이반도馬來半島를 끼고 '뻬낭'을 향하고 있는 중이다. 서북西北쪽을 바라보며 가기 때문에 저녁까지 덥다. 모두 갑판에서 늦게까지 내가 서울에서 사가지고 온 단 두 판인 민民요곡曲 레코-드를 들으면서 한국 기분을 냈다.

## 7. 1963년 1월 7일 월 흐림

아침 8시에 뻬낭 항구에 도착.

인구 50여만, 영국인 8만, 중국인이 가장 많고
말레이인, 인도인, 아랍인
남북南北 70리里, 동서東西 50리 되는 섬
말레이의 연방국이고 뻬낭 자치제自治制고 총독總督이 있다.

10시에 아버지와 홍일와 같이 적은 배로 뻬낭 부두 착着. 멀리서 바라다보던 바와 같이 아담하고 깨끗하며 도로는 전全혀 흙이 안 보이고 쎄멘트다. '뱀의 절'이라는 데가 있다기에 가보렸드니 너무 멀다기에 가지 못하고 시내 구경을 다녔다. 우선 편지를 부치기 위해 뻬낭 최고最高 높이의 꼭 트런지스터-와 같이 네모나게 생긴 우편국에서 편지를 부치고 기념촬영 후 성당을 찾아가서 성체 앞에 장궤

28) 살충제 DDT(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 맹독성으로 인해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29) 1월 2일부터 8일 사이의 주일.

[30]하고 우리들의 앞날을 위하야 기구했다. 또 이상한 좋은 건물을 지나다가 들어가 보니 아마 '인디안'들의 이스람교회[教會]란다. 기도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 안에서 여기저기 누어 있는 데는 놀랐다. 입구[入口]에는 조그만 못의 물을 떠서 손과 가슴을 씻고 있었다. 또 허름한 '마레-'인들의 이스람교회도 있었다.

말레이어馬來語 - 아침인사 - 슬라마빠기

고맙다 - 이마카시

교회 옆에 전형적[典型的]인 마레- 가옥[家屋]이 있기에 어린애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다. 그 건물[建物]은 1918년에 지었다고 하며 그 사람은 아랍인이며 조곰 후에 동생 부처가 오-트바이를 타고 돌아왔다.

그들은 영국계[英國係] 영어 발음[發音]으로 우리는 미국어[美國語] 발음으로 한참 이야기하다가 차[茶]를 마시고 가라고 권하기에 그의 집에 들어갔다. 벽에는 자기나라 왕[王]과 수상[首相](낫셀) 그리고 기타 인물 사진들과 낙타와 야자수를 수놓은 것이 부처있었고 동생[同生]부인이 생후[生後] 6개월된 여아[女兒]를 안고 2층에서 내려왔다. 동생은 '트럼벳'을 불 줄 알고 또 무슨 악단[樂團 31]을 지휘하고 있으며 부인은 가수[歌手]였다고 한다. 차를 대접받고 그 집을 나왔다. 선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과일을 좀 사가지고 작은 배를 타고 오후 5시 10분 우리 배에 도착했다. 마침 고국의 안성읍사무소[安城邑事務所]에 근무하고 있는 친동생과 같이 지내던 전성기[全聖基]씨에게서 긴 편지가 와 있었다. 저녁 먹을 것도 잊고 그냥 읽고 또 읽었다.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염려해주시는 분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다는 것은 우리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며 용기[勇氣]를 북돋으어준다.

× ×

홍콩, 싱가폴, 빼낭을 통털어서 유사[類似]한 점은 우선 건물은 영국[英國], 중국, 말레이식[馬來式]의 모두 다 문이 많고 지붕은 깊숙이 내려져 있다. 언어는 영어, 중국어에다가 일본어를 섞어서 하면 고만이다. 여자[女子]들은 미인[美人]은 아닌 것 같고 팔 다리가 너무 가늘다. 그러나 멋쟁이들이다. 도로는 전부[全部] 세멘트이고 자동차[自動車]와 오-토바이가 많고 삼륜차[三輪車]도 많다. 상가[商街]는 물론 모든 면에 중국인이 판을 치고 있으며 말레이인 음식점[飮食店] 앞을 지날 때마다 그 독특한 열매의 향료(비싸다고 함) 때문에 이상한 냄새가 나고 번번히 구역질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신발은 전부가 다 "산달[32](산달리아)"이 아니면 일본 조리 같이 생긴 고무로 만든 것을 신고들 있었다.

30) 몸을 세운 채 꿇어앉음. 가톨릭에서 미사를 볼 때 신자들이 취하는 자세이다.

31) 원문은 [樂壇].

32) 샌들.

## 8. 1963년 1월 8일 화 맑음 〈뻬낭 출발〉

오전午前 10시 브라질어 강좌를 하는 중에 어린이들이 와서 배가 떠난다고 알려준다. 짐을 싣누라 복잡대던 갑판도 말끔이 치워서 깨끗했고 어린이 놀이터도 다시 마련되였다. 즉 갑판 중앙中央의 뚜껑을 열면 그 밑이 우리 식당이고 어린이 놀이터이며 또 그 밑 깊숙히 배 밑에까지 몇 층層으로 되여있고 그곳이 짐을 실어두는 곳이다. 그래서 항구에 기항寄港[33]할 때마다 그곳에 짐을 싣기 때문에 시끄럽고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지군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저기 들려 온 그 날짜만큼 단숨에 긴 항해를 하게 된다. 정오正午 12시 지금 이 배는 서북쪽을 향하고 '뻬낭' 섬을 끼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좌측左側에는 뻬낭 섬의 해수욕장 집 등이 보이고 우측右側에는 말레이의 북부北部와 타일랜드의 남부南部가 보인다. 섬이 보일 때마다 아니 벌써 여러 번 필요를 느낀 것은 우리 말 지地도이다. 그렇게 가지고 온다고 잘 챙겨 놓았었는데 법석거리는 통에 아마 부치는 짐 속에 넣었는지 보이지를 않는다. 깨알같이 받은 조고만 수첩手帖 속의 지도地圖를 들여다보누라 눈이 아프다. 후일 오시는 분들은 제발 세계지도를 꼭 가지고 오라고 부탁하고 싶다.

오후부터 갑판 전체全體에 텐트를 했다. 참 시원하다. 젊은이들은 이등실에 탄 영국 대학大學 여교수女敎授가 오늘부터 "트위스트" 춤을 가르쳐준다기에 모두 갑판에 올려 보냈다. 우리도 영자, 홍일 같이 갔다. 원기元氣가 넘쳐흐르는 청년靑年들에게 좋은 일이다.

저녁에는 망망한 바다 위에 나무 막때기가 보여도 환성, 조그만 돌섬이 보여도 환성이다. 어린이들의 술래잡기, 수건돌리기 하는 것을 보여 지루함을 잊는다. 우리 어머니들은 몽여 앉아서 각자가 그동안 보고 온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옛날 우리가 소학교小學校[34] 교과서敎科書에서 배우던 장님들이 코끼리를 더듬고 코끼리에 대해서 말하는 식이다. 전체는 모르기 때문에 부분적部分的으로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나 역시 그런 식으로 일기를 적고 있는 것이리라.

밤 8시부터는 2등 갑판 상上에서 경마競馬가 있었다. 30번호番號까지를 적은 헌겁을 아래에 U자字로 깔고 나무로 만든 말을 6개를 번호를 부쳐서 출발점出發点에 놓고 기수旗手는 누구든지 마음대로 나가서 가슴에 번호를 달고 얼룩얼룩한 모자를 쓰고, 우리는 그 숫짜대로 마권馬券을 산다.(한 번에 40원)

앞에서는 양兩쪽에서 주사위를 흔들어서 그 수에 따라 몇 호 말이 몇 스탭하고 중앙에서 마이크를 통해 발표發表하는데 따라 말을 움직인다. 아주 재미있다고 야단들이다. 2호 말이 두 번 이기고 6호 말이 한 번 이겼다. 이렇게 해서 지루하고 무료함을 잊게 하는 것이다.

---

33) 배가 잠시 목적지가 아닌 항구에 들름.

34) 원문은 [敎課書].

## 9. 1963년 1월 9일 수

빼낭을 떠난 지 2일 째 날은 밝았다. 아침 7시 25분 좌측에 인도양印度洋의 '스마트라' 섬이 보인다. 어제 밤을 기期해서 또 30분을 늦추었다 하며 식사 시간이 늦었다. 인제 한국 시간보다 2시간 늦은 셈이다.

8시 반 브라질어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 배가 점점 흔들린다. '스마트라'를 지나고 인제 인도양에 들어선 모양이다. 독고씨 말이 무슨 해류海流가 교交차하는 데라 약 한 시간가량 흔들릴 거라고 한다. 나는 또 누어 있었다.

몇일 후 적도赤道를 지날 때에는 적도제赤道祭가 있고 그 다음은 연예회演藝會가 있어 재미있는 푸로가 많다고들 한다. 우리 학생들은 합창 연습演習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무용은 별로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차례가 온 모양인데 나 역시亦是 시골에서 살 때에 조곰 배운 것 가지고는 외국인들 앞에서 할 것이 못 된다. 어린이들을 가르쳐서 시키고 싶은데 시일도 촉박하고 한복韓服 관계도 있고 해서 결국은 이 늙은 사람이 하게 될 모양이니 큰일이라 생각되여 멀미 중에도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 잊어버린 것을 누어서 혼자 구상해 본다. 식당 중앙에서는 청년들이 UNO[35], DOIS 하고 갓 배운 브라질어로 "핑퐁" 께임을 카운트 하는 소리가 들린다.

## 10. 1963년 1월 10일 목 맑음 〈트위스트 춤〉

바다물 색갈이 파랗다 못해서 감색紺色이다. 바다가 굉장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일동안 쉬지 않고 계속 항해하기 때문에 어지럽다. 10시 영국계英國系 여교수가 우리 갑판에서 트위스트를 가르친다기에 나도 기분전환도 할 겸 간신이 머리만 쓰다듬고 올라갔다. 젊은 애들만 배우고 있고 어른들은 배우고 싶으면서도 구경만 하고 있었다. 우리 정부인솔자인 독고씨께서 먼저 이러나셨다. 그제서야 한 사람 두 사람 나서서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어지러워서 이러서지 못하고 구경만 했다. 우리는 지금 무었이든지 이 지루함과 어지러움을 잊게 하는 그 무엇을 원하고 있다. 이 트위스트, 차차차는 좋은 운동이 되고 모-든 것을 잊게 해주고 원기를 북돋우어 주고 있다. 음악에 맞추어 모두 신이 났다.

× ×

독고씨는 외모의 생김새도 얼굴이 희고 잘생기신데다가 영어는 물론 잘 하시고 음악에도 조예가 깊고 또 항상恒常 우리들을 친절親切하게 잘 돌보아 주신다. 선장과 잘 타협해주어서 식사도 늘 걱정해 주시고 전번 홍콩에서 중국인 약 80명이 승선했을 때에 우리 선실의 빈칸에 같이 들게 될 것을 교섭해 주어서 일본인칸에 들게 하여 얼마나 다행多幸이었는지 모른다. 싱가폴에서 대부분大部分은 내렸지만 일

35) 원문에는 [UN]. 포르투갈어(브라질어)로 1을 뜻하며, DOIS는 2이다.

본인들은 그 중국인 독특한 냄새와 쫄라거리는 소리 때문에 큰 골치를 알았다고 한다.

● 오후 2시 적도제 준비 연습 관계로 다들 몽이게 되였다. 적도제는 즉 1, 2등실, 선객 중에서 적도의 왕과 여왕女王을 뽑고 나머지는 3등실三等室의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중에서 순경, 여왕의 시녀侍女(어린이들),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인어人魚(여), 또 제물祭物로 된 남자男子 등 여러 명을 뽑는다. 줄거리는 적도왕赤道王이 생각해 볼 때에 적도를 지나는데 아모 인사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인간人間들이 괘심해서 순경을 시켜서 각국 나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다(선중 뿔)에 제물로 바치는 것인데 이것을 무언無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 11. 1963년 1월 11일 금 맑음 〈적도제〉

뻬낭을 떠난 지 4일째. 어지러워서 간신이 세수만을 하고 누었다. 모두들 어지럽다고 하면서도 잘들 먹고 잘들 논다. 만 천千 톤인 우리 배는 짐을 잔득 싣고 가건만 원체 넓은 바다라 이 배는 잔잔한 바다 위를 한결같이 흔들리면서 항해한다. 유별나게 배멀미를 늘 누어있게 되여, 있다금 갑판에 올라가면 몇 년 만에 뵙겠읍니다, 하고 놀려댄다. 어제 밤에 또 반 시간을 돌려 논 10시 25분 수치數次례 울리는 이 배의 기적奇鐘소리와 함께 적도를 넘었다. 그리 덥지도 않다. 갑판은 여전이 시원할 것이다. 전원이 적도제를 지내려고 올라갔다. 한 시간 후에 홍일이와 홍철弘哲[36]이는 온 몸에 물감을 칠을 한대로 뿔에서 마음것 헤염을(보통시에는 3등선 승객은 사용 금지)쳤다고 기뻐하면서 엄마는 재미있는 구경을 못하셨느냐고 아쉬워한다. 나종에는 선장, 여왕, 의사, 순경, 구경꾼 모두 '뿔'에 집어넣어서 수라장이 되였다고 한다. 이런 놀이를 하면서 이 배는 적도를 몇 번이나 넘었느냐는 기록을 세우게 되고 선객들에게는 지루함을 잊게 하고 원기를 돋우어 주는 것이리라.

나는 점심에 죽을 먹고 나서 살 것 같다. 나는 일생一生에 한 번 있을 적도제에 참례參禮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엄마가 약弱해서 아이들에게나 아버지께 미안하다. 큰 애들이라 별로 손이 가는 일은 없으나 그래도 엄마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또 건강한 어머니의 웃음과 따뜻한 마음으로서 가족을 감싸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후 3시 그 뚱뚱한 여교수가 우리 갑판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춤을 가르치고 있다 한다. 떠들석하다. 고맙게도 그이는 좋은 생각을 했다. 나도 운동 삼아 슬슬 올라가 볼가 한다.

× ×

저녁때 갑판에 올라가 보니 석양夕陽이 바다물결에 반사反射되여 아름답다. 우리가 미리 겁을 집어 먹었던 인도양이 이렇게도 잔잔할 수 있을까. 그렇것만 저 멀리 수평선이 30-50cm씩 올라갔다 내려

36) 백옥빈의 둘째 아들.

갔다 한다. 참 시원하다. 밤에는 쌀쌀하다. 애들은 적도제 이후 생기가 났다. 적도제를 한 효과效果가 100%이다.

갑판 위에는 시장과 같이 떠들석하다. 한편에서는 마작을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핑퐁을 치고 있고 어린애들은 뛰놀고 한편에서는 춤을 배우고 있고 '오목'을 두고, 또 구석진 곳에서는 독고씨가 학생들을 데리고 합창 지도指導를 하고 있다. 나는 가만이 앉아서 시원한 바람에 머리를 식히면서 모-든 소리를 듣고 있다. (밤 9시 영화 '남태평양南太平洋'을 보게 된다.)

## 12. 1963년 1월 12일 토

이민협회 박朴상무常務는 또 아침 식사 때 우리를 돌아보았다. 멀미로 조곰이라도 몸이 불편不便한 듯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억지로 이르켜서 식사를 하게 한다. 그러면 모두 괜찮다. 나는 누어서 식빵을 두 쪽 먹었다.

선장 싸인을 한 적도통과通過증을 매인每人의 이름을 적어서 나누어주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생각도 못할 유-모러스 한 일이다. 선객들의 기분전환을 시켜주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 것이 엿보인다. 나도 내 이름 적힌 것을 한 장 받았다. 고국의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상계로 보내련다. 오전 9시부터는 통례通例로 되어 있는 브라질어伯語를 배우고 있다. 나 혼자만이 누어있어서 브라질어伯語에도 낙오가 될까 걱정이며 분하다. 나는 가만이 누어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일기는 물론 누어서 적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이곳은 덥지만 서울은 추울텐데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시나. 누이네는 무고無故한가. 내 동생네는 어떤가. 또 이모姨母님 댁, 또 여러 신부神父님, 또 우리가 떠나던 18일에 결혼했을 사람들, 우리 병원에 있던 간호원들 모-든 친親척, 붕우朋友, 은인恩人, 지인知人 들을 죽 한 번 생각해본다. 시원하고 칼칼한 동치미 색강[37]에 이르면 미칠 것만 같다.

## 13. 1963년 1월 13일 일 맑음

어제 밤에 또 반시간半時間 늦게 시계 바늘을 돌려놓았다. 일요일이여서 각각 종교별宗敎別로 미사대송(성가聖家 첨례) 또는 예배禮拜를 보고난 후 브라질어伯語 공부를 했다. 오늘은 이 배가 덜 흔들리는 것 같다. 전 군인 아저씨들(독신부대)은 "배가 흔들려야 배를 타는 것 같지. 이래서야 어디"하고들 말한다.

인도양은 잔잔하다. 빼낭을 떠난 지 6일째 너무나 단조單調롭다. 영자는 어제 독수리와 같이 생긴 큰 새를 보았다고 한다. 이 넓은 바다에서 쉴 곳도 없이 어떻게 사나? 하시더니 그 새 이름은 해왕조海王鳥이고 바다 물고기를 먹고 물 위에서 잔다?는 말을 들었다.

37) 생각의 오기로 보인다.

지금 오수午睡가 끝나고 전축電蓄(전지電池로 된)에서는 도중途中에서 사가지고 온 일본판레코-드(다른 것은 못 샀기 때문에)로 노래가 흘러나온다. 어린이들 교육상 좋치 못하겠기에 할 수 없이 아끼고 있던 (외국外國에 가면 다시는 살 수 없으니까) 한국판 2개를 꺼내서 들려주었다.

### 14. 1963년 1월 14일 월 맑음

오늘은 조곰 더 배가 흔들린다. 멀미하는 사람이 더 늘어가서 죽이 잘 팔린다. 우리 식탁食卓의 죽은 그냥 다 남았다. 그러면 남은 밥은 무조건 바다에 버린다. 되지들이나 먹이면 얼마나 살이 찌랴 싶다. 매번 아깝다고 느낀다. 항구에 머젓을 때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나 바다 위에서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갑판 위에서는 시원하다 못해 춥다. 밤에는 또 일본 영화를 보여준다고 한다.

### 15. 1963년 1월 15일 화 맑음 〈연예회(예술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시계를 반시간식 돌려놓는 것이 일과이다. 몇 번째인지는 잊어버렸으나 브라질에 도착하면 서울 시간과 꼭 12시간 차의가 된다고 한다. 오늘 저녁에 드디어 브라질이민합동연예회移民合同演藝會가 열린다.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이들도 연습을 하고 있다. 〈푸른 하늘 은하수銀河水〉, 〈새나라의 어린이〉, 〈나의 살던 고향은〉…… 하고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우리들의 제2세第二世들은 잘 먹고 잘 뛰놀고 싸우고 울고 웃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명랑明朗하다. 흐뭇하고도 대견하다. 나는 그새 식사를 잘 못해서 춤을 출 것 같지 않다.

× ×

오후 8시 지나서부터 연예회가 있었다. 일본인들은 수십數十 년래年來의 반복反復하는 행사라 무대막舞臺幕까지 준비해가지고 올만큼 틀이 잡혀 있었다. 우리는 처음이라 연습도 제데로 못하여서 어리벙벙했으나 학생들의 합창도 악기樂器도 없이 화음和音이 잘 되었으며 특히 어린이 노래는 씩씩하고 잘 마추었다. 나는 어지러웠으나 독고獨孤씨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난 후 억지로 기운을 내서 '노-들 강변江邊'을 추었다. 반주伴奏는 영자가 "아코데온"으로 하고 옷은 안성의 친구들이 선사해 준 연노랑 나이롱갑사 색동저고리에 남치마를 입었다. 어지러움을 무릅쓰고 대한민국大韓民國을 억깨에 질머지고 열심히 추웠다. 모녀母女간의 출연出演이 좋왔는지 한국 옷과 춤이 신기한지 자주 '후랫슈'를 번쩍번쩍 터뜨렸고 끝났을 때는 여기저기서 앵콜 소리가 요란했다. 잘 추지는 못했으나, 한국에도 춤이 있다는 것만은 가르쳐 준 셈이다. 나도 책임責任 완수完遂를 하고나니 기쁘고 마음이 흐뭇하다. 정신없이 열심히 춤을 춘 보람을 느낀다.

## 16. 1963년 1월 16일 수 〈무용에 관한 것〉

9일째 두려워하던 인도양도 고국의 여러분께서 많이 기원祈願해주신 덕분德分에에 멀미들은 좀 했으나 무사히 횡단橫斷이 끝나간다. 내일 아침이면 영국령인 모리샤스섬島에 도착하게 된다.

그곳은 사砂탕 산지産地로써 제製당공장工場이 있다하며 공장에서 일하는 중국인이 많다 한다. 어디를 가나 중국인이 안 끼인 곳이 없으며 또 그들은 대륙적大陸的이어서 마음이 넓으며 서로 뭉쳐서 잘 살고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울 점이 많다.

배는 어제보다 덜 흔들린다. 내일 오래간만에 외출할 준비에 바쁘다. 목욕沐浴, 빨래, 대리미질. 나는 어제 춤을 추었으니 지금까지 누어있던 것이 꽤병같이 되였으나 누구나 억지로라도 기분전환을 시키면 아모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나 보다. 그러기에 선중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만들어서 선실의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리라. 하여튼 어제 밤 그 연예회 때에 한국 춤 하나 출연시키기 위해서 독고씨 박朴상무씨 또 우리 영자아버지께서도 무진 애들을 쓰셨고 나 역시 근 10일간을 멀미로 먹지도 못하고 누어있었으나 쓰러질 것을 간신히 참고 나갔었다. 지금 생각해도 쓰러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 ×

오늘은 갑판 위에서 많은 시간을 지낼 수 있었다. 학생들과 여러 가지 토론討論을 많이 했다. 한 남학생男學生이 어제 저녁 연예회 끝 푸로에 일본인 남녀男女들이 같이 민속무용民俗舞踊을 추는 것을 보고 느낀 것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생활화生活化된 무용舞踊이 없다는 것이다. 나도 동감同感이다. 그야 춤이라면 전문가專門家들이 추는 고전古典춤, 바레-[38]따위고, 그리고 서구西歐에 들어 온 사교社交 춤인데 모두 일부一部 사람人들만의 것이지 우리 국민이 즐겨서 다 같이 출 건전健全한 의미意味의 명랑한 춤이 없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브라질에 가서 농토農土만 개척開拓[39]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또 모-든 면에 개척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춤도 개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 고국의 무용의 전문가들께 온 국민國民 남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건전한 군무群舞를 창작創作했으면 하고 원하고 싶다.

오후 2시 반부터 10분간 오래간만에 비를 보았다. 시원하고 또 바다물이 출렁거려 수평선이 1미터米 이상으로 오르내리는 것은 참 멋이 있었다. 오늘 매每 세대 약간씩의 돈을 걷어서 선중에서 우리 식사 시중을 드는 중국인들에게 팁을 주게 된다. 이런 것이 모두 외국식外國式 예의禮儀이고? 또 일본이민들에게 배운 것이다.

---

38) 발레.

39) 원문에는 [開(石)+直].

## 17. 1월 17일 목 맑음

아침 5시 반 갑판에 올라가보니 벌써 '모리샤스'섬의 구름 낀 산이 보인다.

6시 항구에 도착. 열대식물이 우거진 조용한 작은 섬이다. 오래간만에 육지를 보게 되니 그야말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무슨 꿈속의 나라와도 같이 보인다. 9시부터 외출들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 몸도 시원치 않고 또 사상계에 보낼 일기도 정리할 겸 혼자 남았다.

× ×

오후 1시에 작은 배를 타고 외출했다. 10여 일 만에 땅을 밟는 감각感覺 무어라 말 할 수 없다. 지리도 잘 모르고 무턱대고들 나왔으니 "모리샤스"가 아니라 "몰라샤스"라고 하여 유쾌하게들 웃었다. 그 옛날에는 폴트갈, 프랑스佛蘭西 등의 영토였던 이곳은 다른 곳보다 깨끗해 보였다. 마침 오수 시간이어서인지 자동차들도 다 자고 있고 행인行人도 많치 않다. 길가에 큰 십자가 고상이 세워진 성당에 들어갔다. 그 안에는 많은 성화聖畵와 조각들, 깨끗한 꽃들도 장식되여 있었다. 그 다음은 박물博物관에 갔다. 섬답게 자그마한 곳이었으나 대양大洋 중의 섬인만큼 해산물海産物의 표본標本이 많았다. 다음은 음식점, 따끈한 닭국물의 우동으로 정신을 좀 차리고 시장市場에 갔다. 없는 것이 없다. 파, 마늘, 생강, 감자, 상추, 콩, 가지, 오이(대大), 풋고추, 배추, 시금치, 녹두 하여튼 서울에 있는 것은 다 있는 것 같다. 우리는 풋고추와 오이를 샀다. 이곳은 지금이 여름이며 오늘이 더운 날이라고 한다. 10여일이나 걸려서 오는 대양 중에 이런 땅이 있다는 것부터가 신기스러우며 아마 한국인으로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상륙上陸했을 것이다.

지도상으로는 1점과 같은 이 섬에 인구가 60만이 살고 있다니 놀랍다. 우리나라 제주도濟州道만 할 것 같다고들 한다. 시내는 가는 데마다 동상銅像이 많이 세워져 있다. 어떤 공원公園에를 갔더니 타-잔 영화에서 많이 본 늘어진 나무가 있기에 자세히 가서 보았더니 큰 나무 높은 가지에서 일종一種의 나무뿌리가 굵고 길게 늘어져 있다. 아마 타-잔이 그 늘어진 뿌리를 붙잡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그네를 뛰며 다녔나보다. 우리 홍일이도 그 늘어진 나무뿌리를 붙잡고 매달려서 사진을 찍어 모두 웃었다.

육지는 더웠으나 갑판 위는 시원하고 싸늘했다. 오후 6시 '모리샤스'섬 출항.

## 18. 1963년 1월 18일 금 맑음

오래간만에 된밥을 먹었다. 풋고추에 고추장을 찍어 먹으니 맵기는 하나 개운하다. 매운 것을 먹지 못하던 우리 식구食口들이 이런 것을 좋아하니 이상하다. 선중에서는 고추장 볶은 것, 김, 무 짱아찌가 인기다.

오늘은 갑판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많다.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도 어제 육지 상륙

했던 효과가 있었는지 수평선이 1미터 이상 흔들려도 시원하고 좋다. 부산항釜山港을 떠난 지 벌써 1개월이 되고 보니 모두 바다에 익숙해졌다. 어제 출항하기 전에 빨래도 다 했으니 한가해서 책을 읽었다. 윈[40] 사람인 슈니쓸러 단편집短篇集이었는데 끝에는 자살自殺하는 글들이었다. 요새 선중에서는 큰 애들이 부딪치는 파도가 배에 출렁대는 아름다운 풍경風景을 볼 때에 빠져 보고 싶다고들 하는 소리를 들었다. 감상적感傷的인 큰 아이들에게 이런 소설을 본다는 것은 위험危險한 일이라 16세歲된 소녀小女에게 빌린 것인데 잘 타일러서 돌려보지 않게 하련다. 좀 더 건전한 여러 가지 책이 아쉽다.

## 19. 1963년 1월 20일 일 흐림

새벽에 육지가 보인다기에 갑판에 올라갔더니 우측으로 수평선 저쪽에 희미하게 산의 형태形態가 보인다. 아마 동남東南아푸리카의 우리나라의 약 4~5배倍 될 섬. 마다가스카루섬인가보다. 우리는 지금 아프리카의 본토本土를 향하야 모잔비꾸 해협을 통과 중이라고 한다. 아침나절에는 뽀얀 안개 속에 우리의 주위만 보여 아늑하게 느낀다. 내리는 안개비는 더욱 우리 마음마저 차분이 가라안게 해준다. 나는 오래간만에 브라질어伯語 공부에 참가했다. 앞으로의 생활의 설계設計를 그려본다.

오후에는 아버지께서들 갑판에 올라가신 후 우리 어머니들은 나의 국산國産 L.P.음악을 들었다. 무슨 가락 소리가 나오면 할머니들은 좋와하신다. 한국에 있을 때에는 유행流行가는 도모지 시시한 것 같아 듣기가 실었는데 요즈음은 어쩐지 좋와졌다. 무엇이나 한국적인 것이 그리운 모양이다. 2세世들은 명곡名曲이 나오면 같이들 따라서 큰 소리로 노래들을 부른다.

홍철, 홍준이가 또 머리를 갂았다. 어떤 분 두 분께서 이발 기계를 가지고 오셔서 묵묵히 봉사奉仕해 주신다. 미안하다. 무엇으로 사례謝禮를 해야 하나? 적도를 지났으니 이곳은 여름인데 도리어 시원하다.

## 20. 1963년 1월 21일 월 맑음

바다 물이 반짝반짝 빛나는 깨끗하게 개인 날이다. 인도양도 마지막 고비에서는 지쳤는지 잔잔히 흐르고 있다. 오래간만에 춤선생(여교수)이 내려와서 모두들 신이 나서 추고 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 선생은 임지任地인 남南아프리카의 첫 기항지寄港地인 '로-렌소 마르케스'에서 내일 아침에 내리게 될 것이다. 점심點心 후 오수 중에 수제비국을 만들어서 갈채를 받았다. 일전에는 녹두죽을 쑤어서 입맛을 도꾸어 주신 분이다. 재료만 있으면 해 먹을 수 있다. 밀가루는 취사장에서 얻어다가. 한가하니까 모여앉아서 먹는 타령만 한다. 불고기에 시원한 김치에 한잔하면 소원所願이 없겠다는 말에 모두 침을 꿀걱 삼킨다.

40) 빈(Wien).

× ×

선중 간호원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다. 누구던지 인도양 중에 있는 모리샤스섬에 한 번 내려갔다 오면 원기가 난다는 것. 일본선日本船은 코-스가 달라서 더 빨리 남미에 도착은 하나 여러 곳에 들리지를 않아 쉬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하여 멀미가 더 한다는 것. 또 우리가 앞으로 들릴 남아프리카의 각 항港은 지금까지 들려 온 어떤 곳보다도 훨씬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그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된다고 하며 과일 값도 싸다고 한다. 그러나 그 나라의 원주민原住民들의 생활을 보면 참 불쌍하다고도 한다. 뜨거운 뙤약볕에 신발도 제데로 못 신고 옷도 누더기를 겨우 걸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나도 지금까지 기항하는 중에 느낀 것은 대륙이나 작은 섬이 몇 군데 있으면 서로 통치국統治國이 다르다는 것과 그 중에도 영국령이 많은 것 같다.

## 21. 1963년 1월 22일 화 흐림

모리샤스섬을 떠난 지 5일째. 아침 6시 아프리카 대륙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무가 무성한 깨끗한 남국南國의 풍경, 폴트갈령領인 "로-렌소 마르케스" 부두에는 정각 10시 입항入港. 머리는 바시시 타는 듯한 고수머리, 신발은 대개가 다 신지 않고 다 떨어진 옷에 앞의 치齒아가 빠진 본토의 흑인黑人들이 인부들이다. 수속 관계로 늦게야 외출할 수 있었다. 부두까지 기차선로汽車線路가 뻗어 있어서 하물荷物운運반하기에 편리便利하겠다. 시내에 들어서니 마침 오후 1시 점심시간이다. 상점은 모두 닫치고 길가에는 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있어 무인도無人島와도 같이 고요하다. 행인은 이따금씩 한 두 사람뿐이고 고양이 한 마리가 살금살금 기어다니고 있었다. 이곳은 오후는 3시에서 5시까지 가게 문을 연다고 한다. 그만큼 문화생활文化生活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름이어서 볕은 더우나 음달은 나무가 욱어저 시원하다.

우리가 처음에 간 곳은 자그마한 공원이었다. 아름다운 곳이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프리카! 하면 흑인들만이 사는 곳인가 연상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곳도 있다. 고요한 공원에서는 무궁화와 비슷한 빨간 꽃이 조화造花와 같이 달려 있었고 사루비아, 칸나, 모두가 남국의 정열情熱을 상징하고 있는 듯 붉게 피여 있었다. 더욱 놀란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던 '봉선화'꽃이 가지각색으로 피여 있었고 과꽃도 있지 않나. 참 반가웠다. 참 멋있다, 좋지, 를 연발連發하면서 사진을 찍고 고국에 엽서를 쓰고는 그 옆에 있는 옛 성벽城壁에 올라가 보았다. 1,800년대年代의 대포大砲들이 장식되여 있었다. 사내아이들은 저마다 대포를 중심으로 사진 찍기에 법석이다. 나종에 알고 보니 그 밑은 마치 박물관과도 같이 옛날 폴트갈 왕이 쓰던 물건이며 사제司祭들이 입었던 제의祭衣, 묵주를 보관해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다음은 작은小 식물원 겸 공원엘 갔다. 흑인 인부들이 긴 고무 호-스로 갓자란

'베꼬니아'에 물을 주고 있었다. 남국의 열대식물이 무성한 가운데 그늘 '벤치'에서는 흑인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 조그만 '화분'에서나 기르는 줄 알았던 갖가지 '사보텐'들이 큰 나무를 이루고 있어,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화초花草를 좋와하시는 할아버지 생각 간절했다. 잠시 후 새로운 건물인 듯한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웅장한 성당에 올라갔다. 마침 시계탑時計塔에서는 오후 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성당 내內는 장식은 많치않고 단순하고 산듯하고 예술적藝術的이었다. 제대祭台가 네 군데 있었고 순교하는 성화와 성로선공聖路善功 14처[41]는 검은 색갈의 조각이었다. 잠간 기구를 마치고 넓은 계단을 내려오는 광장廣場에는 말을 탄 장군의 동상이 있었다. 그 밑에는 흑인과 폴트갈 군인의 상像이 있는데 노奴예해방의 기념記念인지 또는 이곳에 처음으로 폴트갈 군인이 진군進軍한 기념비인 듯하다. 다시 시가지市街地로 내려오니 3시, 겨우 상점에서 엽서를 샀다.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공원 태-불을 중심으로 죽 들러 앉아서 뉘였다. 이 "로-렌소 마르커-스"라는 곳은 참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주택지는 말할 수 없이 멋있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결국 우리 주변에 푸른 나무가 많고 꽃이 많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넓은 곳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또 공중도덕公衆道德을 잘 지키고 있기(본토인本土人과는 별거別居) 때문에 더 깨끗하고 좋다. 우리도 어서 브라질에 제2 한국을 만들어 가난한 우리 농민들을 많이 진출進出하여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고 싶다.

## 22. 1963년 1월 23일 수 흐림

날씨 탓인가 어제의 노독路毒인가 몸이 무겁다. 종일토록 아푸리카의 해안海岸을 따라 '더-번'을 향해 항해 중이다. 흑판黑板의 공시사항公示事項은 다음과 같다.

**남아푸리카 공화국**

1. 명칭 : Republica of South Africa (남아푸리카 합중국合衆國)
2. 독립 : 1961. 5. 30
   전에는 남아연방(Union of S. A.)로서 영국 자치령이었음.
3. 면적 : 123만 평방킬로미터粁 (미국의 1/6)
4. 인구 : 약 1500만
   Durban 62만
   Cape town 71만
5. 언어 : 아프리카어, 영어
6. 인종 : 인구의 70%인 흑인은 원주민으로 Bantu족임
7. 수도 : 행정 : Pretoria
   입법 : Cape town

41) 십자가의 길.

사법 : Bloemfontein
Johannesburg는 golden city라고 불리우는 금광金鑛과 금강석 공장이 있는 남아 최대의 도시임.

8. 음식 : 우육牛肉, 어육魚肉 요리되며 가벼운輕 식사는 milk Bar에서 먹을 수 있음. 냉수, 우유, 그리고 많은 과실을 살 수 있음.

9. 화폐貨幣 : 영국식 Pound제가 없어지고 Rand제를 쓰게 되었음. 상금尙今도 주화鑄貨는 종전 것을 사용하고 있는 고로, 별別표의 크기와 가치를 참고할 것.

10. 외출 : "더반"에서 3일간 기항 예정. 에리자베스항과 Capetown에서는 당일當日 출발 예정이라함. 선박회사 측에서는 하오 7시경 후의 외출(캄캄한 곳)을 삼가해 달라고 하며 집단으로(5, 6인) 외출하기를 부탁하고 있으니 각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람.

× ×

구정舊正에 써-비스해 줄 맥주와 쥬-스를 미리 저녁에 나누어 주었다. 아버지들은 한 병씩 마시고 얼굴들이 붉으레하다. 아마 지금쯤 서울 방아칸에서는 '흰 떡'을 만들기에 바쁠 것이다.

## 23. 1963년 1월 24일 목 비

어제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오늘도 줄기차게 온다. 고국을 떠난 후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오는 비를 보았다. 7시부터 더-번 시市의 건물들이 보인다고 한다. 하늘과 바다는 밀접密接한 관계가 있어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바다의 물은 출렁인다. 밤새것 잠결에도 배가 흔들리는 것을 알게 되여 아침나절에는 멀미를 했다.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갑판에 올라가 보았다. 8시인데도 보이는 시내의 고급高級 건물들이 재빗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아 어둑컴컴하게 번들거린다. 남이 입고 있는 털 스웨-터-가 좋와보인다. 나는 춥고 어지러워서 얼른 내려왔다.

8시 반 "더-반" 부두 도착. 9시 반 쯤에 고국에서 편지들을 받고 울었다, 웃었다, 신문을 읽는다. 한동안 어수선하다. 우리 영자와 홍일에게도 각각 친우親友들에게서 반가운 소식들을 받고는 큰 소리로 나에게 읽어준다. 그리고 우리는 시누이로부터 온 편지, 우리들의 소식을 신문지新聞紙 상으로 자주 보고 있으며 영자의 "아코데온" 주위에 꽃송이같이 뫃여 앉아 노래 부르고 있는 사진을 보고는 눈물 지었다는 대목과 고령高齡이신 시부님께서는 외아들이고 의사 아들을 떠나보내시고 난 후 타인의 병원病院에서 맹장 수술手術을 받으셨다는 글월에는 목이 메여 흑흑느껴 울었다. 우리가 먼저 가서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굳이 사양을 하시고 떠나보내시드니, 그 고생苦生을 하시다니. 지금까지 여행旅行 중에 어디를 가나 좋은 곳을 볼 때마다 아버님과 같이 못 온 것이 후회後悔였었는데, 그야 물론 상냥하고 잘 돌보아 드리는 따님이 있어 걱정은 없겠지만, 서먹서먹한 입원실入院室에 계실 생각을 하니 어설프다. 더욱 수술 후 마취가 깨신 후 즉시卽時로 신문지상의 손자孫子, 손녀孫女들의 사진만을 들여다

보셨다니 자꾸만 눈물이 난다. 온 가족이 함께 할아버지와 고모姑母에게 편지를 썼다.

× ×

궂은비가 종일토록 내리드니 저녁에야 멎었다. 외출했다 돌아 온 홍일이는 지금까지 들렸다 온 어느곳 보다도 더 좋은 곳이고 상점에는 여러가지 물건이 많다고 떠들어댄다. 나는 배가 멈추어있는 동안 멀미하지 않는 동안 빨래와 대리미질을 했다.

× ×

저녁식사 후 잠간 밖에 산보散步삼아 나가 보았다. 바닷가에는 저녁먹이를 찾아 헤매는 "갈메기"들이 수면水面에 가깝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비가 온 끝이라 그런지 혹或 이 지방은 좀 선선한 곳인지 쌀쌀하였다.

## 24. 1963년 1월 25일 금 맑음

이곳은 요새가 장마철인지라 아침에 비가 와서 아이들은 오늘 외출을 못할까 걱정들이다. 그러나 점점 개이기 시작하여 9시경 외출, 박물관博物館에 갔다. 처음에 본 것은 조류鳥類들이 많았고 다음은 어류魚類, 패류貝類, 또 수백數百 가지의 광석鑛石과 어류와 동물들의 뼈의 형태가 나타나 있는 화석化石들은 신기하였다. 다음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의 표본들이 진열陣烈되여 있었고 나는 사자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그 2층은 미술관美術館이었고 나는 잘 모르겠으나 1,700-1,800년대의 작가作家 미상未詳이 많은 그림들은 대개가 섬세한 인물화人物畵들이었고 여성적女性的인 것 같았다. 자기磁器들도 몇 개 구어져 있었는데 어쩐지 중국 것과 비슷한 것 같다. 내려오는 층층層層대 앞 좁을 곳을 이용하여 귀엽게 꾸며놓은 화단花壇을 바라보며 시청市廳 앞으로 갔다. 여행자旅行者와 이곳 주민住民들이 풀밭에 앉아서 수많은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사서 준다. 그러면 비둘기 떼들이 몽여온다. 그 찰나에 여기저기서 샷타-를 누루기에 바쁘다.

백인白人들의 상점을 구경했다. 흑인들은 안 보이고 모다 이쁘고 늘신한 백白인들 뿐이다. 수數 층으로 된 높은 건물 안에는 고급 물품物品이 가득하다. 다른 곳보다도 세련되고 깨끗하고 값이 비싸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고 싶지 않은 물건이 없다. 점심은 "카레-라이스" 후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손님이 직접直接 "쿡"에게 가서 음식을 주문注文하고 먹을 사람이 들고 와서 먹게 된다. 결국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습관인가?

시장엘 갔다. 흑인들만이 우굴거리는 흑인 시장엘 잘못 간 것이다. 알아듯지도 못할 말로 떠들어대고 이상한 눈으로 자꾸만 쳐다본다. 우리는 무서워서 문간에서 되돌아왔다. 어떤 음식점에는 "구라파인 외外에는 들어오지 마시요"라고 써 붙어 있었고 어떤 어린이 놀이터에는 백인과 백인이 아닌 사람

들이 따로 이용하게 되여 있는 변소가 양쪽에 갈라져 있었다. 우리는 여행자인지라 또는 황인종黃人種인지라 아모 쪽에도 속해있지 않은 듯? 예외例外인 듯하였으나 그 풍속風俗에 젖어있는 흑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남자와도 같이 생긴 흑인 여인女人들이 평화平和롭게? 그네를 뛰고 있었으나 공연이 내가 분통이 터지는 것 같았다.

### 25. 1963년 1월 26일 토 흐림

배에 실었던 '고무'는 다 내려놓고 어떤 이주자移住者인지 여행자가 자가용自家用 자동차를 가지고 가는지 배에다가 싣는 것을 처음으로 보는 우리 애들은 놀라고 있다. 구미인歐美人들은 보통 있는 일이다. 근일近日 중 선중 일본인들과 탁구시합卓球試合이 있다하여 우리 젊은이들은 열심히 연습練習하고 있다.

여태것 우리 어머니 몇 분이 담그던 김치와 된장찌개는 우리가 안 해도 '쿡'이 제법 잘 해낸다. 재료와 솜씨를 열심히 적어둔다고 하더니 인제 다 배운 모양이다. 다음의 우리 이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저녁에는 또 비. 아침 10시 "더-반" 출항出港.

### 26. 1963년 1월 27일 일 맑음

비가 개이고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을 바라보면서 잠간 어디 다니러 가는 기분으로 항해하던 우리들은 만 하룻만에 오전 10시 30분 남아 연방聯邦의 '뽀-트 에리자베스'에 도착. 일요일이어서 편지도 못 부치고 시간도 없고 하여 간단히 구경하기로 했다. 점심 전에 중국인 선원들과 같이 우리 홍철이도 갑판에 죽 늘어져서 낙시질들을 하다. 잠시 후에 애들 팔뚝만한 도미, 숭어, 고등어들이 막 물려나온다. 오후에 아버지와 같이 외출. 상가는 물론 전부 폐점閉店. 높은 꼭대기에 있는 성당을 지나서 자꾸만 올라가니 공원도 많았고 하얀 '유니폼'을 입은 젊은이들이 테니스장場에서 공을 치고 있었고 어린 애들은 고무 "튜-부"를 메고 가까운 "풀"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곳은 부산을 연상聯想[42]케하는 산 꼭대기에 다닥다닥 집이 붙어있었다. 그리 큰 집은 아니나 울긋불긋 이쁘게 칠해져있어 깨끗하다. 우리 부산도 하루바삐 발전發展을 해서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한다. 높은 곳의 주택지住宅地에 가 보았다. 모두 경쟁이나 한 듯이 집들을 가지각색으로 아름답게 '펭키[43]'칠을 했으며 나무를 심었거나 파란 '잔디'를 깔았고 또 꽃이 심어져 있다. 어떤 외과의사外科醫師의 집 앞에는 보라색 꽃이 활짝 핀 수국水菊을 쪽 심어있었다. 조용한 일요일 오후를 혹은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또는 가족 전체 또는 할머니들끼리 자가용 차를 몰고 '드라이브'하고 있었다. 하여튼 재미있게들 살고 있다.

42) 원문은 [連想].

43) 페인트.

도로는 포鋪장이 잘 되여있고 공기는 맑고 가는 데마다 공원이어서 아이들의 건강에도 참 좋겠다. 좀 선선하다. 털옷들을 걸치고 있다. (지금이 여름인데) 몇 군데 열린 식료품食料品 가게들을 지나면서 돌아오다. 저녁 7시 출항.

### 27. 1963년 1월 28일 월 맑음

오후 1시부터 한일친선탁구대회韓日親善卓球大會?가 우리 식食당 중앙 놀이터에서 열렸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한 팀이 되어서 복식複式으로 했다. 화기和氣가 도는 한 때였다.

지금 오전 5시 현재現在로 이 배는 남아프리카南阿 최남단最南端을 통과 중이며 (남위南緯 37도선度線) 해상은 몹씨 춥다. 나는 종일 선실에서 누어서 책을 읽었다.

### 28. 1963년 1월 29일 화 맑음

새벽부터 아름다운 "케-푸타운" 전체가 보인다고 하기에 갑판에 올라갔다. 어찌나 추운지 전부 겨울 옷들을 입고 있다. 7시 반 부두 도착. 조곰 따뜻해지다. 이곳은 희망봉希望峰이라는 유명有名한 산이 있고 "테-불[44]"과 같이 편편하게 생겼다고 해서 "테-불"산이라 부르는 관광지觀光地가 있다. 꼭떼기까지 "케-불카-"가 다니고 있고 산 정상山頂에는 음식점도 있다 하나 가족이 다 가면 비용費用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기에 우리는 가지 못하고 다시 못 올 그곳을 바라보며 식물원까지 갔다. 그 주위에는 도서관圖書館, 박물관, 국민학교國民學校 등이 몽여 있었다. 미술관에 들어갈 때는 '카메라'를 맡끼고 들어갔다. 그림은 옛날 것들이었다. 경치景致 좋은 공원 겸 식물원에서 땀을 드리고 오랫동안 좋은 공기를 마시며 쉬였다.

우리 배의 주변周邊에서 아귀 새끼들을 많이들 잡았다. 저녁에는 "물개"들이 몽여와서 생선을 잡아먹는 구경들을 했다. 인제부터 남대서양南大西洋을 건너갈 때 아이들에게 줄 과일과 과일을 좀 샀다.

### 29. 1963년 1월 30일 수 맑음

좋은 날씨다. 아버지는 독고씨와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에서 오신 분과 같이 "테-불"산에 올라가신다고 나가시고 애들은 타인들과 함께 갑판에서 낙시질에 재미를 붙이고 있다. 나는 아침부터 머리가 아퍼서 A.P.C 두 알을 먹고 누어서 사상계에서 보내 온 1월호月號를 첫 면頁에서부터 한 자 빼놓지 않고 읽기 시작했다. 선중 여러분께 처음에 실린 이민화보畵報만은 벌써 돌려서 보였다. 틈틈이 또 돌려서 읽을 것이다. 고국 미지未知의 분들께서 아버지께 수 통通의 편지가 왔다. "부라질"에 가고 싶다는 것과 우리들

44) 테이블(Table).

의 무사한 항해를 빌어주시는 글월들이다. 계백桂伯 이모부姨母夫님 댁에서 또 반가운 소식을 받았다. 오늘은 울지 않고 기쁘게 보았다. 나는 사상계사思想界社에 남아프리카南阿에 대한 서신을 보냈다.

× ×

밖에 나가셨던 아버지들께서는 바람 관계로 테-불산에 못 올라가시고 "파인애풀" 간즈메[45](미제美製보다 적은 것)를 미美 1불에 6통을 사가지고 오셨다. 편지를 부치러 나갔던 홍일이는 시내에서 한국동란韓國動亂에 참가했다가 전사戰死한 이곳 용사勇士들의 기념탑記念塔을 보았다고 한다. 어쩐지 이곳 사람들이 한국 이야기를 하면 아른 체를 하는 것 같드니…….

정오 12시 케-푸타운 출항. 모두 갑판에 올라가서 구름 낀 아름다운 테-불산을 바라보며 남아프리카南阿에 작별作別을 했다. 10일 후에 우리의 제2의 조국이 될 부라질 땅에 도착하게 된다. 벌써 짐 정리들을 하기 시작들 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나 부친 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서 제출提出했다. 앞으로 내릴 때에는 몸만 내리게 되고 짐은 따로 조사調査하게 된다고 한다.

저녁 8시부터 이 '치챠렌가'가 다녀온 여러 도시를 소개紹介하는 영화를 보았다. 남아프리카南阿의 흑인들의 독특한 생활, 춤, 기타 우리가 보지 못한 아름다운 풍경들을 볼 수 있었다.

## 30. 1963년 2월 1일 금 맑음 〈운동회〉

인도양에서 단련을 받은? 우리들은 남대서양에서는 멀미도 하지 않고 무사히 항해 중이다.

오후 2시부터 17세 이하以下의 어린이들의 운동회運動會가 있었다. 나도 오래간만에 몸단장을 하고 2등 갑판에 올라갔다. 우리는 임원任員과 부소部所[46]를 정해놓고 계획성 있게 잘 진행되였다. 확실確實이 일본인들보다 우리가 월등越等하다. 행사 중 제일 재미있었다. 경주競走, 빵 따먹기, 큰 물통에 있는 사과 먹기, 또 자루 속에 들어가서 토끼 뜀뛰기, 또 발 묶고 둘이 뛰기. 오래간만에 한바탕 웃었다. 나종에는 선장 이하 어른들의 줄다리기로 끝을 맺었다. 운동이라는 것은 참으로 사람을 명랑하게 만들어 준다.

## 31. 1963년 2월 2일 토

아침 식사 때에 일전에 우리들에게 춤을 가르쳐주어 인도양에서의 멀미와 지루함을 잊게 해 준 남아프리카南阿의 더-번 근처近處의 어느 대학 부교수副敎授인 여선생女先生에게서 우리들에게 보내준 고마운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여러 가지 과일을 통채로 설탕에 절인 듯한 몹씨 단 것이었다. 많치는 않았으나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고마운 일이다. 그야 그네들은 생활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고만이겠지만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것이야말로 인류애人類愛의 발로가 아닐까? 배울 바가 많다. 과

45) 일본어로 통조림을 말한다.(かんづめ)

46) 부서.

연 교육자教育者다.

오늘 이 배는 대략大略 서위西緯[47] 28도, 남위 17도선 상에 있는 것 같다. 한국과 9시간 차差의가 된다. 회귀선回歸線이 가까워지니 훨씬 더워졌다. 갑판 위도 춥지 않아 많이들 올라가서 지내고 있었다. 애들은 재재거리며 뛰놀고 있다.

## 32. 1963년 2월 4일 월 흐림

바다는 거울과 같이 맑고 평면적平面的이고 무슨 잔잔한 호수와 같이 조용한 나날이 계속되더니 점점 날씨가 흐려져 약간 물결이 보인다. 오전 10시부터 의무실醫務室에서 눈의 검사가 있었다. "부라질"에 하선下船할 때에 까다로우므로 잘 치료治療해야 한다. 오전[48] 2시부터는 선중의 12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의 파-티-가 있었다. 모다 깨끗이 씻고 새 옷을 가라입고 얌전해야 한다는 부모父母들의 주의를 듣고는 한 자리에 몽였다. 어린들이 좋와하는 아이스크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이 나왔다. 즐거운 한때였다. 어떤 외국인 어머니는 어린이 둘을 시중드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사방四方에서 귀여운 자녀子女들의 모습을 찍어두느라고 열심들이다. 우리도 꼬마 홍준이 사진을 찍었다.

× ×

운동 부족이 되여서인지 또는 하도 꼭 같은 반찬만을 주어서인지 통 밥을 먹을 수가 없다. 가지고 온 부식물副食物은 벌써부터 다 떨어졌고, 이곳에서 끼마다 나오는 생선生鮮은 물려서 손도 안 댄 채, 바다로 쏟아져 나간다. 이따금 나오는 식빵 역시 보기도 싫고. 한국산産 쌀밥에 한국산 김치에 고추장만 먹고 싶다.

## 33. 1963년 2월 5일 화

오전 9시 반부터 3조組에 나누어서 사령탑司令塔을 견학見學한다고 한다. 이 배를 움직이는 생명부生命部인데, 나는 전에 한 번 잠깐 올라가 본 일이 있어서 가지 않았다. 이 배는 벌써 20여 년 전에 명성을 날리던 배이기 때문에 시설이 지금은 구식에 속한다고 한다. 내릴 준비로 대大빨래, 다리미질을 했다. 사령탑에 갔다 온 영자는 눈을 반짝이며 자기가 키-를 잡고 이 배를 운전運轉했다고 하며 좋와한다.

점심에는 또 칼국수를(몇 사람이 쿡을 도와줌) 먹을 수 있었다. 200명분名分인 밀까루 한 포를 훌렁 다 먹어버렸다고 중국인 쿡들이 웃는다. 인간은 먹어야 살지만 사람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는 그리 아름답지 않다. 더구나 맛이 있다고 해서 굶은 사람 모양으로 덤비거나 동물과 같이 싸우면서 먹는 것은 더욱 보기 싫다. 우리는 항상 조심스럽게 또 외국인들게 흉잡히지 않게 조용히 먹어야 한다.

---

47) 서경(西經)의 잘못이다.

48) 오후를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 34. 1963년 2월 7일 목 흐림

짐을 정리했다. 필요必要한 것은 가져오지 않고 그리 필요치 않은 물건들은 부쳤으면 되는 것을 선중에까지 가지고 와서 처處치곤란困難한 것이 많다.

조용하던 바다에 물결이 이러난다고들 한다. 어쩐지 어지러웠다. 오후 3시부터는 목적지目的地에 내릴 때의 여러 가지 절차節次와 주의사항을 듣고 맞겨두었던 여권旅券과 짐표를 받았다.

요새 몇일째는 목적지가 가까워지고 보니 초조해서 그런지 여름 해가 더욱 긴 것 같고 지루하다.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고생할 각오覺悟로 떠나오기는 왔으나 불안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다.

× ×

어제 밤 너무나 달이 밝고 바다가 아름다워 늦게까지 갑판위에 앉아서 "남십자성南十字星[49]"을 뒤로 바라보면서 일본인 학생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그네들은 지금은 집단초청集團招請은 없고 모두 개인초청個人招請이고 또 정부 예산豫算으로 여비旅費는 10년 후 반환返還[50]하기로 하고 전부 나라에서 대여貸與[51]해준다고 한다. 얼마나 부러운 일이냐. 나의 이상理想도 틈틈이 몽아 수년 후에는 토지土地를 많이 사서 한국의 어려운 농민農民들을 많이 데려오는 일이다. 만일 그때에 우리나라에서도 여비를 전부 부담해준다면 얼마나 좋으랴.

저녁나절부터는 배가 꽤 흔들린다.

## 35. 1963년 2월 9일 토 리오 도착

비와 바람에 밤새껏 흔들리던 배는 기분적氣分的으로 그러는지는 몰라도 대륙에 가까워지니 덜 흔들리는 것 같다. 오늘 밤에 우리의 동경의 땅인 브라질에 도착하게 된다. 첫발을 내디딜 "리오데쟈네이로"(간단하게 "리오")는 수년 전까지도 부라질의 주도主都였으며 세계世界 삼대三大 미항美港으로 유명하다. 지금도 대개 정부 사무事務는 이곳에서 행行해지고 있다 한다. 그곳에 게신 우리 대사님께서는 우리 전원들에게 내일 아침 8시에서 오후 3시까지 관광시켜주신다는 무전이 전하여져서 미리부터 준비에 바쁘다. 이런 때는 짧은 치마저고리를 입었으면 좋겠다.

× × (상식 부족)

오후 3시부터 브라질의 작은 "섬"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한다. 나는 선중에 있는 미장원에서 머리

49) 별자리 중 하나.

50) 원문에는 [反換].

51) 원문에는 [代與].

를 비섰다. 도중 하선할 때마다 머리의 손질을 잘 못해서 골치였었는데 오늘은 할 수 [없이][52] 한국인으로서의 첫 선을 보이게 될 우리의 제2의 조국이 될 땅에 들어서는 인사로써, 비싼 돈을 내고 머리 셋트를 했다.

저녁 식사 후 5시 지나서 갑판에 올라와보니 멀리 높은 산에 둘러쌓인 "리오"의 해안이 보인다. 10일만에 보는 육지이것만 또 그렇게도 그리던 브라질의 땅이 보이것만 그 부옇게 멀리 안개 속에 보이는 것과 같이 내 마음도 기쁘지도 않고 그저 무감각無感覺하였다. 그러나 5시 반부터 작은 돌섬이 손에 닿을 듯이 가깝게 지나갔다. 마음이 점점 이상해졌다. 우리가 그림엽서에서 본 그대로의 네모반듯한 건물이 우뚝 솟아있는 "코파가파나" 해수욕장이 길게 전개되고 바위 하나로 된 뽕데아수-가루[53](사탕의 빵)산에는 "케-불카-"가 올라가고 있었고 그 산 꼭데기에는 천주교국天主敎國답게 모든 사람을 감싸주듯이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십자가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저녁 하늘 전체로 구름이 덮인 사이사이로 저녁 해가 비추워저 더 한층 예수상이 장엄하게 하늘 높이 나타나보였으며 마침 어깨에 메고 있던 트린지스터-[54]에서는 우연히도 "아베마리아"의 고요한 멜로디가 흘러나와 나는 경건한 마음으로 가슴에 조용이 십자十字성호를 놓고 머리 숙여 삼종三鍾[55]을 바쳤다. 나는 그때의 심정心情을 무어라도 표현表現할 수가 없다.

높은 산을 배경으로 평풍과 같이 빙 둘러서 있는 리오 항구는 지금까지 지내 온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웅장하고 멋있는 도시로 보였다.

정각 7시 항구 중앙에서 닻을 내리고 배는 멎었다. 얼마 후에 어둠을 뚫고 검역관과 세관을 실은 배가 왔다. 뒤이여 빨간 불을 켠 배를 타고 여러 사람들이 오고 있었다. 우리들은 혹시 한국인이 탄 배가 아닌가 하고 우리 배에 올라오기를 기다렸다. 이곳에 먼저 온 남편男便과 아버지를 기다리는 가족들은 더 조마조마해한다. 아! 정말 기다리던 아버지들과 함께 뜻밖에도 우리 대사님과 직원職員들이 올라오시지 안는가. 모두 반가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 식당에 몽였다. 브라질인들의 주시注視 속에 들어 온 첫 이민인 우리들에게 다음 분들을 위해서 모든 면에 자각自覺하라는 대사님의 말슴과 우리 아빠 단장의 간단한 답사答詞가 있은 후 독고씨 방에 올라가셨다. 우리는 최후最後의 상륙 준비에 바쁘다.

---

52) 원본에는 [할 수]만 적혀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생략된 듯하다.

53) Pao de Acucar(빵 데 아수카르). '빵산', '설탕산' 등으로 부른다.

54) 트랜지스터라디오.

55) 아침, 점심, 저녁에 드리는 기도인 삼종기도의 준말이다.

## 36. 1963년 2월 10일 일 맑음

아침 7시 반 리오 부두 착着. 작일昨日 약속約束한대로 오전 8시부터 서둘러서 깨끗이들 차리고 있는데 한국 국제國際우郵체부夫로서 중남미中南美로 떠났던 김진수씨를 만났다. 3일 전에 이곳에 도착하였다 하여 참 반가웠다. 우리는 하선하여 브라질 땅에 첫 발을 내딧고 기다리고 있던 3대의 관광뻐스에 분승하여 시내 견학을 하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로 솟아오르는 경쟁이나 하는 듯이 수 10층으로 까마득하게 올려다 보이는 빌딩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관청가官廳街를 지나 일요일을 잘 지키는 고요한 상가들, "미사"에 참례하고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건축建築을 자랑하는 브라질답게 예술적으로 된 무슨 기념탑을 지나 일사천리千里라더니 그야말로 한 눈에 끝없이 바라다 보이는 반원형半圓形의 5km의 길이의 "꼬파까파나" 해수욕장에서는 마침 휴일休日을 즐기고 있는 인파들이 울긋불긋 꽃과 같이 꽉 차 있었다. 모래사장에서는 축구의 나라답게 어린이들까지도 축구를 차며 놀고 있었고 넷트를 치고 배구를 하고 있는 축도 많았다. 다음은 어떤 장굴을 뚫고 아스팔트를 깐 산비탈을 지루하도록 오랜동안 올라갔다. 산정山頂에는 Vista Chinesa라는 전망대展望台가 있어 리오의 시가市街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우리는 잠간 쉬면서 기념사진들을 찍고 또 다른 내리막길을 달려갔다. 리오의 자랑인 40m높이의 멋있는 다리에서는 '과나바라'만灣이 보이며 곳곳이 다 공원이었다. 또 우리는 높은 산(PAÔ DE ASUCAR)의 그리스트의 동상을 바라보며 계속 드라이브를 하여 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웅장하고 멋있는 체육관體育館을 지나서 오후 2시에 지친 몸으로 돌아왔다. 한 말로 "리오"는 모-든 규모가 "크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배에는 뜻밖에도 9개월 전에 오신 저의 집 양반의 사촌형님이 와 계셨다. 풍신은 좋와지셨으나 여러 달 동안 객지客地에서 고생하셨을 형님을 뵙고 보니 눈물이 앞서 말이 잘 나오지를 안는다. 저녁에는 대사관에서 보내 온 과일들을 나누어 먹었다.

## 37. 1963년 2월 11일 월 맑음

형님과 또 같이 온 이철희씨와 같이 외출했다. 어제는 조용하던 거리가 복잡하다. 우리나라와 꼭 같이 더운 날이다. 지금이 여름이니까. 그러나 응달에서는 시원하다. 상가들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다. 물건 값이 지금까지 다녀온 곳보다 조곰 비싼 듯하다. 몇10 년 몇100 년이 된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세멘으로 만든 길고 높은 구름다리(견고한)가 있었다. 그 옛날 이것을 만들 때에는 인부들이 많은 생명을 잃었다고 한다. 마침 구름다리 위에는 창문이 없는 소위 나이롱 전차가 지나가고 있었다.

어떤 전차정류장停留場에 서있을 때에 주위를 살펴보니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섞여있는 것 같다. 이철희씨 말이 이 좁은 이 한 장소에도 수10 인종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그야 이민의 나라이니 각종各種 인종들이 몽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큰 태극기太極旗가 펄럭이는 곳을 따라 들어갔다. 우리

대사관大使館이다. 엘레베-타-를 타고 6층으로 갔다. 대합실待合室에는 에어컨디션이 장치되여 있어 시원하였고 중앙에 놓인 한국 인형과 그네를 뛰고 있는 고풍경古風景을 수놓은 벽壁거리가 눈에 띄었다. 이李씨의 용무用務를 마칠 때까지 오래간만에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응접실應接室에는 조화와 한국 농촌農村 풍경화風景畵가 걸려 있었다. 굼주렸던 커-피-와 레몬 주-스를 대접받고 외국인 여비서女秘書와 사진을 찍었다. 대사관에서는 지금 우리 이민 일 때문에 바쁜 모양이었다. 시간이 없으므로 일찍 나와서 오래간만에 닭고기랑 식사를 잘하고 타고 싶던 나이롱 전차를 타고 돌아왔다. 도중 우리 이민들에게 나누어 줄 포도는 형님(고광순高光珣)씨가, 또 무화과는 이철희씨가 사서 선사해주셨다. 그분들도 이곳에 온지 얼마 되지도 않으며 아직 가족들도 데려오지 못해 걱정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다. 아모쪼록 이곳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다 보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오후 4시 출항. 구름에 가린 고루고마-도산[56]의 예수 동상을 바라보며 다시 올 때까지 "안녕"을 하고 항내港內의 군함들을 보았다. 저녁에는 최종最終 목적지인 SANTOS에 내릴 준비로, 짐 꾸리기와 서류書類 작성作成에 바쁘다. 영자는 이 배에서의 마지막인 이별離別의 "아코데온"을 키며 모두들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같이 근 2개월 동안 생활해 온 우리들이 인제 다 어디로 흩어져 가려는가? 혹은 한 농장으로 가게 되려는지?

### 38. 1963년 2월 12일 화 맑음 〈영자 생일〉

아침 7시 싼토스 부두 착着. 각국 이민선이 도착하는 곳이며 커-피- 수출항인 이곳은 복작복작하였다. 3등 승객乘客(이민)은 전원 2등 갑판에 모여서 상륙 절차를 밟누라고 장시간長時間이 걸렸다. 여권조사와 황열병黃熱病 예방주사注射를 맞고 정오경에 선실에 돌아와보니, 이곳 교포들이 많이 와 계셨다. 10일 전에서부터 40년 전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가장 오래된 그리고 우리를 이곳으로 초청招請해준 김수조씨는 우리와 같이 온 누이동생 48년만의 극적劇的인 대면對面이 있었고, 우리들과의 인사가 있었다. 또 35년이 된 그의 운전수 이李씨, 9남매男妹를 길러낸 훌륭한 일본인日人 부인을 동반同伴한 미타三田(장승호)씨, 또 7년간의 고난苦難을 극복하신 고국에 있을 때에 신문지상으로 뵌 주영복朱永福씨를 비롯하여 많은 반공청년反共靑年들(중립국中立國인 인도印度에 갔다가 오신 분들), 80km 떨어진 쌍파울로에서 아침 5시에 출발하여 이곳에 오신 분들이다. 참 고마웠다. 미타三田씨의 다섯째 따님이 우리 단장인 아버지께 꽃다발을 주었다.

왜 그렇게 이곳은 더운지 과연 일 년 사시절 수영水泳할만한 곳이다. 오후 3시에 근 2개월간이나 신세를 지고 정들었던 "치챠렌카"배와 굳빠이 하고 하선. 그 더운 중에도 한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긴

56) 코르코바도(Corcovado).

치마를 입고 내렸다. 여기저기서 촬영하기에 바쁘다. 출구出口에서 하물荷物 검사가 있었다. 일일이 다 풀어야 하니 법석이다. 그러나 우리의 짐들은 초라했고 도중에선 산 전축 정도가 조금 말성이었으나 쓰던 것이라 무사했다. 우리는 항구 밖에 대기待期하고 있던 2대의 뻐스에 분승하여 "쌍파울로"로 향했다. 아버지들은 하물荷物 운반運搬 관계로 남으시고 얼마가지 않아서 차가 멎었다. 알고 보니 운전사運轉士가 커-피-를 마시러 갔다 한다. 이곳 사람들은 그렇게도 커-피-를 잘 마시며 또 승객들도 대륙적이어서 성미가 급하지 않고, 가만이 앉아 기다리고들 있다 한다. 심지어 전차 차장도 운행運行 도중에 커-피-를 마시러 간다고 한다. 차에 고장이 나서 3, 4시간 머저 있어도 승객들은 아모때고 목적지에 데려다주겠지 하고 실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기다린다고 한다. 이곳 대륙적인 국민성國民性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전에 중국에 갔을 때에도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

자그마한 SANTOS 시내를 지나 차는 교외를 달렸다. 잠시 후 앞에 바라다 보이는 높은 산으로 꼬불꼬불 올라간다. 산 중앙에는 수도관水道管과 석유石油수송관이 보인다. 아스팔트 길 옆에 칠한 흰 펭키가 눈에 뚜렸하다. 양 길가에 늘어선 원시림原始林, 한 나무에 보라색色 꽃과 흰 꽃이 같이 핀 많은 나무, 푸른색 백색 보라색 천지다. 높은 산을 꼬불꼬불 올라가면서 양쪽 계곡을 내려다보니 경치가 멋있다. 누구나 싼토스에서 쌍파울로에 가려면 이 길을 통행通行하게 마련이다. 이 길이 바로 이민도로移民道路이리라. 눈 아래 산과 계곡은 안개가 자욱하다. 차는 산 꼭대기에 올라섰다. 거기서부터 평지平地가 계속되고 그곳에 쌍파울로시가 있다고 한다. 즉 쌍파울로시는 해발海拔 800m의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퍽 시원하고 겨울에는 눈은 오지 않으나 서리가 내리고 꾀 추우며 가장 한국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큰아버지(형님)의 설명을 들으며 차는 달렸다. 이 높은 평지에는 밀림密林과 넓은 호수뿐이다. 이 호수를 이용利用해서 발전發電을 하고 있다고 한다. 호수가에는 푸른 나무 사이로 아담한 별장別莊들이 있었고 욧트배가 떠 있었다.

6시 반. 우리는 쌍파울로시 기차汽車 정류장 옆에 있는 저녁이어서 그런지 좀 검으스레한 건물 앞에 도착했다. 이곳이 우리가 임시로 신세 질 주립수용소州立收容所이다. 저녁 식사가 7시까지라고 하여 급히 식당에 갔다. 넓은 그곳에서 우리는 각자 자기自己가 식사할 것을 받아가지고 와서 먹었다. 메뉴-는 밥(부라질 밥), 빵(길죽한 것), 콩, 감자, 쇠고기(간즈메 같은 것), 바나나 등이다. 그 후 우리는 큰 방房에 죽 늘어놓은 침대 하나씩을 차지하고(남녀 각 별실別室) 쉬였다. 아버지들이 안계시는 남자의 방은 브라질어伯語를 잘 하시는 주영복씨(반공청년)께서 같이 지켜주셨다.

## 39. 1963년 2월 13일 수 흐림

부라질 땅에서의 첫날은 밝았다.

어제 밤에는 춥지도 덥지도 않은 기후에 평안平安이 잠을 잤다. 아침에는 여름인데도 선선해서 엷은 스웨-터-를 입어야했다. 우리는 2층에 있고 아래에 구내構內 성당이 있다기에 6시 반에 내려갔다. 마침 신부님께서 미사를 드리고 계셨다. 수녀修女님들도 4분이나 계시고 우리는 한국을 떠난 지 근 2개월 만에 감개무량하게도 미사에 참례했다.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한 것을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갈 길을 지켜주시기를 기구했다. 7시 반에서 8시까지가 아침 카페-시간이라기에 식당에 들어서서 반공청년의 한 분인 김흥복씨가 벌써 와서 우리에게 자기의 주소住所 적은 쪽지를 주었다. 상의할 일이 있을 때에 찾아오라고. 모두 고마운 분들이다.

우유와 커-피- 한 잔에 빵 두개를 먹었다. 이런 것이 다 무료無料이다. 방에 돌아올 때에 잘 살펴보니 그곳은 굉장이 넓고 큰 수용소이며 우리는 외국인이라서 특별대우特別待遇를 받고 있었다. 이곳에 와 있는 국내國內 북쪽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나 각 곳에서 온 수재민水災民, 이재민들의 허름한 모양도 처량하거니와 그네들은 맨발이며 침대도 없고 바루 바닥에서 기거起居하고 있으며 남녀노소男女老少 할 것 없이 한 곳에서 복작대고 있었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열列을 지어 나가고 들어오고들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경영하는 고아원인지 탁아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세탁부도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또 대리미질 하는 곳이 있다.

오후 2시경 아버지들께서 짐을 부치고 기차로 오셨다. 이 나라는 기차보다 뻐스 편이 더 발달한 곳인가 보다. 기차는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화가 날 정도이며 짐을 싯고 고지高地로 올라올 때에는 다시 미끄러져 내려가드라고 한다.

점심, 저녁 모두 훌륭한 식사였다.

## 40. 1963년 2월 14일 목 맑음

오후 2시 대사와 김수조씨가 오셨다. 대사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용품日用品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 우리의 하물이 도착했다. 짐이 억망이다. 처음이어서 경험經驗도 없는데다가 부산 이민회移民會에서 다시 짐을 잘 싸준다고 1,000원식을 받고도 겨우 푸대자루에 넣은 엉성한 짐이었다. 한 짝에 약 2,000원식 멕여서 겨우 부라질에 온 셈이다. 그러니 아모쪼록 짐은 큰 궤짝에 넣어서 자기 손으로 밧줄로 잘 묶어 보내는 것이 좋다.

이곳에 와서 여러 선배先輩님들의 말을 종합綜合해 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듯던 바와 같은 지상낙원地上樂園

도 아니며 아모데나 사람 사는 곳에는 고락苦樂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주世帶主 회의會議를 자주 열고 모-든 일을 협의協議하고 있다.

저녁에는 미타三田씨(장승호) 그의 딸 2세들이 정성껏 만들은 케-키를 가지고 와서 우리 영자의 생일生日(12일인데 싼토스 도착으로 바쁘던 날)파-티-를 성대히 베풀어 주었다. 장로교長老敎에서 일을 보고 있는 신앙信仰속에 사시는 착한 분들이다. 고국도 아닌 멀리 타향他鄕에서 서먹서먹한 우리들을 정성精誠껏 대해주시니 참 고마웠다. 우리들도 배울 바가 많았다. 이야기 끝에 나온 생일 이야기를 듯고 같은 또래와 통하는 점도 있었겠지만 영자 개인뿐 아니라 각지의 우리를 위로해주는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전기 불을 끄고 케익에 불을 켜들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3자매姉妹가 입장入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여 여러 가지 여흥으로 즐거운 분위기였다. 참 일생 잊을 수 없는 뜻 깊은 날이었다. 나는 물론 영자도 감격感激해서 목이 메인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복福 많은 영자야. 여러분의 축복을 받아 더욱 잘 자라고 행복幸福하라.

## 41. 1963년 2월 15일 금 맑음

머리가 아푸다. 바람도 쏘일 겸 큰아버지의 권유에 같이 외출했다. 큰아버지의 아퍼-트에 들린 후, 20여년 만에 일본영화 "그대 이름은"이라는 것을 보았다. 3부까지 있는 4시간에 걸친 긴 영화였는데 좀 지루하기는 했으나 좋은 영화였다. 우리 한국영화를 이곳에서 상영上映할 날은 언제가 되려는지. 저녁에는 먹고 싶던 닭고기와 새우 요리料理를 먹고 처음으로 황혼黃昏의 쌍파울로 시가를 걸었다. 수 10층의 아퍼-트가 늘어선 길이었다. 까맣게 올려다 보였다. 선선했다. 엷은 반소매를 입은 나는 추웠다. 여름밤이 이렇게 시원하다니 이상했다. 상점商店은 전부 문을 닫고 있었고(6시까지). 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 42. 1963년 2월 16일 토 맑음

아주 더운 날이다. 아버지들께서는 30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우리가 입주入住할 예정지豫定地인 "미라까-드"로 가셨다. 장승호씨 딸 어머니의 성姓을 딴 미타 미에三田美惠씨가 와서 말도 통하지 않는 영자를 구경시켜준다기에 할 수 없이 나도 같이 갔다. 시네라마[57] 극장인데 처음 보았다. 스크링이 거진 반월형半月形으로 되여 있고 3대의 영사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굉장한 것이었다. 70mm의 것보다 더 넓고 입체적立體的이었다. 오-스라리아와 그 근처의 아름다운 경치와 풍속을 소개하는 것이었는데 실감實感이 나고 참 좋았다.

57) Cinerama. 와이드 스크린 방식의 영화. 입체감이 두드러진다.

## 43. 1963년 2월 17일 일 흐림

우뢰[58]소리만 요란스럽게 울리고 비는 오지 않아 무더운 날이다. 여러 교포들이 많이 찾아와서 거리 구경을 시켜준다고 아가씨들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어린애들은 놀이터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또 맛이 있는 과자를 갖어다주는 분도 있고 하여 고맙게도 많이들 찾아와 준다.

× ×

【아버지들은 몇일 전에 '미라까-뚜' 땅에 갔다 오신 후 말성이다.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없는 땅을 문서文書를 만들었다느니, 부라질에 땅이 얼마든지 있는데 다른 땅을 사면 되지, 아니 그러면 돈이 없이 온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하느냐는 둥, 김승한이라는 장노까지 지냈다는 사람은 없는 땅을 없다고 한다고 싸우자고 덤빈다. 앞으로 각자가 살 곳을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 나라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 44. 1963년 2월 19일 화 맑음

아침부터 머리가 아픈 것을 참고 성공한 ITAQUERA 모범농가模範農家를 찾아나섰다. 몹씨 싼 승차권乘車券(약 60환)을 사고 전기 기차를 탔다. 쌍파울로시에서 25km지점에 있는 일본인 농장이었다. 그는 처음에 찾아간 곳은 재백在伯 42년이나 된 키가 작으마한 올해 60세가 된 할아버지다. 그는 맨손으로 일본에서 건너와서 이곳에서 영주永住할 생각을 가지고 이곳 사범학교師範學校에 입학入學, 4년 졸업卒業 후 교사敎師 생활을 하다가 현재의 3알겔(1알겔-약 7,000평) 농장을 사가지고 복숭아와 기타 과수果樹를 심고 농사를 짓다가 지금은 양계養鷄 전문專門을 하고 있었다.

인제 노년인지라 힘자라는 데로 약 6,600마리의 닭 중 알을 받을 백색 레구홍과 식용 미국 큰 닭들을 빠다리식[59]?으로 기르고 있었다. 그의 말이 자기들은 그 옛날 원시적原始的인 시대에 미개의 땅地에 도착하여 수 10년 동안 고생한 끝에 오늘을 이루었지만 당신들은 인제 많은 이민 선배들과 또 자본資本도 있고 하니 조곰만 연구硏究하고 노력하면 가까운 장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좋은 말을 해주었다. 그 다음에 간 곳은 재백在伯 35년이 된 일본인 할머니가 금붕어와 잉어를 기르는 양어장養魚場이었다. 일본 소나무를 심고 길은 세멘트로 다듬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갖인 할머니는 아들, 딸들은 따로 살고 있고, 손자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마침 쌀묵어리와 같은 먹이를 못의 잉어들에게 던져주면서 여러 가지 경험담經驗談을 들려주었다. 우리도 10년 후가 되면 그만큼 살 수 있겠지 하고 자위해보기도 했다. 그런데 그네들은 그 살림에 어울리지 않게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어서 나는 불만이었다. 그저 일하는 재미로만 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과 같이 옷치장을

58) 원문에는 [雨雷].

59) 배터리식 사육. 닭장을 여러 단으로 포개어 사육하는 방식을 말한다.

많이 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 저녁에는 비가 쏟아져서 시내에서 식사를 하고난 후 남의 아뻐트 큰 건물 처마 밑에서 2시간이나 서 있었다.

### 45. 1963년 2월 21일 목 흐림, 비

비가 오는 아침 길을 토지회사土地會社 찚차로 쌍 · 파울로에서 "리오"로 가는 도중 50km 지점地点에 있는 1년 전에 문화사절단文化使節團이라는 명칭하에 비공식非公式으로 이주해 온 우리 교포 몇 분이(큰아버지도) 사놓은 땅을 보러 갔다. 나는 처음이어서 어떤 곳이 좋은 땅인지는 모르겠으나 큰 나무는 없고 조그만 강이 있고 약간 경사진 초원草原이었다. 토질土質이나 위치位置로나 좋은 땅이라고 한다. 그 옆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일본인 농장도 견학했다. 심은 지 2개월 된 도마도(한국 것보다 훨신 작은 종류) 5,000수가 잘 자라고 있었으며 감자도 심었다고 하고 트럭타-도 중고中古 1대가 있었고 자기 손으로 벽돌로 창고를 짓고 있는 중이었다. 우리도 농업이민農業移民으로 왔기 때문에 도시에서 가깝고 땅이 좋으니 이런 곳에 우선 농토를 잡아야 할 것이다. 이곳 땅 시세는 1알켈(약 7,200평) 400꼰뜨(약 80만 환)인데 처음에 4할만 내고 나머지는 3년 후에 지불支佛한다고 한다. 1년에 2회回나 3회 농사를 짓게 된다니 금새 토지값을 뺄 수 있다는 계산計算하에 누구나 쉽게 땅을 사게 되는 것 같다.

그곳 어떤 일본인 노부부는 3알켈의 농토의 2/3를 '괭'이로 흙을 파고 농사를 지었다 한다. 지금은 2년생인 "귤"나무에는 귤이 어찌나 다닥다닥 달렸는지 나무가지가 휘어져 있었다.

우리는 농사는 지어보지 않았으나 기계화機械化하고 또 머리를 써서 너무 무리無理하지 말고 힘이 자라는 데까지 서서徐々히 노력한다면 건강도 좋고하니 그네들보다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 46. 1963년 2월 24일 일 흐림, 비

농토를 보러가기도 하고, 남의 농장을 (말이 잘 통함으로 주로 일본인 농장) 견見학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방침方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構想하기에 바쁘다. 아침 미사에 참례한 후 큰아버지의 안내案內로 몇 명이 이곳 시립극장市立劇場엘 갔다. 쌍파울로시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몇 백 년이나 되였을 고풍古風 그대로인 전당이었다. 일류一流 예술가藝術家들은 이곳을 거쳐야만 된다는 곳인데 매일 일요일 오전 중에는 무료로 음악이나 무용 공연公演 등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장내는 우리가 외국영화에서 많이 보아 온 그대로이며 몇 층으로 된 발코니?에는 가지각색 이쁜 옷을 입은 관중들이 많이 와 있었다.

우리는 10시 정각에 4층 구석진 빈자리에 앉았다. 처음에는 Schubert의 현악사중주가 있었는데 아주 조용하고 고운 곡이였다. 둘째번에는 동물들의 "사육제謝肉祭"라는 것인데 나는 아모것도 모르지만 곡은 그리 어려운 곡은 아닌 것 같지만 동물들의 특징을 그대로 잘 나타내고 있었으며, 여러 악樂기를

연주하는 것이 마치 한 사람이 연주하는 듯 호흡呼吸이 일치一致하고 있었다. 도중에 악단들이 있는 장소가 아래로 쑥 내려가드니 뒤의 넓은 무대막舞台幕이 열리고 "백조白鳥의 호수"와 비슷한 "발레-"가 있은 후 11시 20분에 끝났다.

× ×

일전에 애들 아버지가 우연偶然한 기회機會에 알게 된 미국 시민권市民權을 가진 Lebanon인人 Nassar[60] 씨에게서 가족 동반 초대를 받았다. 전날 병들은 그의 동생을 보아준 데 대한 보답報答인 것 같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조곰이라도 신세를 지면 곳 보은報恩을 잊지 않는다. 오후 4시 큰아버지와 함께 이곳에 비행기로 온지 한 달이 좀 지난 박응호씨와 최인규崔仁圭(전 장관)씨 장남長男인 최홍종군君과 우리 가족 일동一同은 기다리고 있던 그의 차(복스와-겡[61] 뻬루와)에 동승하여 수용소를 출발했다. 요새가 우기雨季인지 또 내리기 시작한 비에 도리어 먼지가 나지 않아 깨끗한 드라이부를 할 수 있었다. 3시간 남짓 처음으로 쌍파울로의 떨친 이름을 긍정할만한 여러 곳을 볼 수 있었다. 마침 26일까지의 CARNAVAL 즉 사육제로 인하여 우중雨中인데도 인파를 이룬 들뜬 군중群衆들 틈에서 차중車中에 쏘아부치는 향수香水(물이 섞인)의 세례洗禮를 받으며 곳곳에서 웃으운 풍습風習을 볼 수 있었다. 도중 식당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의 주택住宅에 안내받았다. 부인은 아직 미국에 있고 동생 둘과 함께 가정부家政婦를 두고 살고 있었으며 형은 고무공장을, 동생은 메리야쓰공장을 경영經營하고 있다는데 주부 없는 집안은 쓸쓸해 보였다.

NASSAL씨와 아버지는 그의 동생의 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내놓은 포도, 사과, 감, 배, 바나나 등의 과일을 대접받으며, 그가 UN 감시원으로 있을 때 다녀 온 한국 부산 부근과 일본, 하와이, 홍콩, 그리고 그의 고향인 레바논 등의 경치를 풍습을 그의 환등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부의 스페인 노래와 춤을 보고난 후 장시간의 방문을 치사致謝한 후 나오니 또 수용소까지 데려다주었다. 그는 한국인을 (한국서 3년 동안 지냈기에) 잘 알기 때문에 허물없이 잘 지낼 수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외국인들과 접촉함으로써 그들의 풍습도 배우게 되거니와 그들의 친절함과 인사성을 배우고 싶다.

## 47. 1963년 2월 26일 화 맑음

더운 날이다. 시내 중심지中心地에 있는 중앙 천주교회天主敎會에 갔다. 명동성당明洞聖堂과 같은 건축인데 더 크고 웅장하였다. 낮에도 성당 내는 어둑컴컴하였다.

60) 이 레바논인은 일기에 자주 언급되는데, 이름이 매번 다르므로 원문대로 기입한다.

61) 폭스바겐.

× ×

저녁 9시 일전의 그 LEBANON인 NASSAL씨가 차를 가지고 와서 마지막 날 카-니발 구경을 갔다. 큰 원형圓形으로 된 10만을 수용할 수 있다는 IBIRAPUERA에 있는 현대식現代式 체육관에 들어갔다. 발 들여 놓을 틈이 없이 가지각색 인종들이 꽉 들여차인 그곳은 앉을 자리도 없고 우리도 맨 뒤 꼭대기에 서 있는데 그 더위에 흥분과 열기熱氣가 가득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10시가 되니 멀리 저 아래 경기장에서는 흑인 남녀들이 적색赤色과 백색으로 배합配合된 귀족貴族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그 흑인 독특獨特한 엉뎅이 춤을 추며, 노래도 하고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하여 요란스러운 쇼-가 버러졌다. 백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곳 흑인들의 원시적인 광적狂的에 가까운 이 사육제가 우리 천주교 자녀들에게는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 48. 1963년 2월 27일 수 맑음

오늘은 성회례聖灰禮 날이다. 미사 때에는 머리에 죄인罪人의 표시로 재를 받았다. 좀 더 올바른 생활을 하기로 노력하는 때다.

× ×

【아침 차茶 시간 후 또 회의가 있었다. 두 번째로 보고 온 땅 IGUAPE 또 말성인가 보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인다고 큰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우박이 내리고 서리가 와서 농작물農作物이 되지 않는 땅에야 어떻게 가서 살 것인가? 또 아모리 땅이 좋다 해도 각자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타인의 자유自由를 속박하지는 못할 것이다. 책임자責任者들이 좀 더 건설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의 평등平等 자유를 위해서 일해주었으면 한다.

이래서 우리가 입주할 제2의 예정지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 49. 1963년 2월 28일 목 맑음

1차次이민보다 먼저 온 장만식(부인와 우리와 동선) 아퍼-트를 갔다. 한씨가 와 있었다. 모-두 상의한 끝에 다 같은 땅으로 가기로 했다. 우리도 형님 땅 옆에 2알켈의 토지를 우선 100불식을 걸고 계약契約을 했다.

× ×

오후에는 미타씨三田(장승호) 부인의 소개로 전기 뻐스를 타고 일본인 의사 "와따나베"씨를 방문했다. 부라질의 의료제도醫料制度에 대해서 수 시간 동안

【친절하고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이민 60년이 된 일본인으로서 이곳 의대醫

大를 졸업하지 않고 의사가 사람은 없다고 하며 의사면허免許갱신자更新者(검정檢定시험을 쳐서)는 하나도 없다면서 의대에 다시 다니지 않으려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수바께 없다는 말을 듯고 낙심천만이다.】

## 50. 1963년 3월 1일 금 맑음

이역異域에서의 뜻깊은 3·1절節 기념식記念式이 있었다. 고령이신 한韓영감님의 선창先唱으로 만세삼창三唱을 부를 때에는 모두 감개무량하여 눈물들이 글성했다. 몹시 더운 날이다. 그러나 응달은 조곰 났다. 온도溫度는 30도가 되지는 못했다.

## 51. 1963년 3월 3일 일 흐림

NASSAL씨가 또 차를 가지고 와서 포도원에 가자고 하기에 서재옥徐載玉(전前 중령中領)댁 아이들과 함께 10여명이 2대의 차에 탔다. 1시간 반쯤 후에 쌍파울로 차는 다 몽인 느낌을 줄 정도로 꽉 차있었고 입구에는 많은 사람이 줄을 지여 있었다. 포도 산지이며 포도 전시회展示會를 열고 또 미쓰포도도 뽑고 하며 재미있는 하루를 지낸다고 한다. 물론 우량품優良品에는 등급等級을 부쳐서 상賞도 주고.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만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큰 옥수수 구운 것을 사 먹으면서 돌아왔다.

밤 9시 반공청년(전에 인도로 건너가 신학생으로 있던) 강석근姜石根씨 소개로 일본천주교회(예수회) 다케우치竹內신부님을 만나러 갔다. 재백在伯 30년이 된 신부님은 자그마하고 아주 단단한 감이 드는 분이신데 노盧대주교大主敎님의 소개장과 아울러 이력서履歷書를 내고 천주교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意思를 표시表示했다.

【여러가지 말을 교환한 후 지금 봉재 때를 기해서 일가족一家族이 묵주신공과 또 열심히 기구하면서 좋은 길이 열릴 것을 기다리라고 말슴해주시고 이곳에서 의사가 되려면 우선 브라질 국어國語, 지리地理, 역사歷史 등의 고등과 정도의 시험을 치루고 병원에 취직就職하면서 의사시험醫師試驗을 치루어야 한다는 기쁜 희망의 말을 듯고 돌아왔다.】

## 52. 1963년 3월 6일 수 맑음

오늘이 제일 더운 날인 것 같다. 27도라고 한다. 저녁에 반공청년 중 가장 연소하지만 또 가장 성공한 이봉엽李鳳葉씨가 차를 가지고 왔다. 벌써부터 가보고 싶던 그의 (쇠를 뚜르는 강철) 공장 견학을 하러 갔다. 아직 20대인 어린 그는 야무지다. 눈이 살아있다. 그의 공장은 그의 생김새 모양으로 자그마하고도 내용이 충실充實한 기계가 설치設置되여 있었으며, 자동차 공장에 납품하는 강철로서 정밀한

도본에 의해서 제작製作하고 있었다. 7년간 갖은 고난을 겪었다고 하며, 공장을 시작한지 1년인데 장소가 작어서 다른 곳을 물색 중이라 한다. 그 공장과는 문 하나 사이로 그의 젊은 일본인 부인과 사는 방이 있었다. 어린 나이로 부모 슬하膝下를 떠난 관계로 17세에 군에서 직접 외국에 와 한국말을 하지 못했기에 한국 의례儀禮는 물론 한국말이 서툴러서 남이 오해하기가 쉽다. 그러나 한국인의 자랑이다. 앞으로의 발전을 빌면서 BOA NOITE(저녁인사)를 하고 돌아왔다.

### 53. 1963년 3월 8일 금 맑음

요새 이곳은 늦더위가 심하다. 아버지는 대만에서 6개월 전에 온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중국인 외과의사를 찾아갔다. 오래간만에 의사意思가 통하는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 만나서 점심 대접까지 받으면서 환담했다 한다.

× ×

지금 우리 가족은 농장農場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의사의 길을 갈 것인가를 결정決定하지 못하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욕심은 양쪽을 다 하고 싶으나 이곳 면허를 얻기까지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농장에를 들어가면 3년 후에는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 하고 제대로 의사 공부를 하려면 큰 병원에서 근무勤務하면서 말을 배워야 하고 또 우린 생활문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매일 가족회가 벌어진다.

우리와 같이 온 (가족을 남겨놓고 단신만이 온) 무리가 이름 지은 독신부대 11명은 벌써부터 취직들을 하고 뿔뿔이 헤어져서 가족들을 초청할 준비를 시작하였다.

### 54. 1963년 3월 9일 토

소위 문화사절단이라 하여 우리보다 1년 먼저 온 교포 고광순(큰아버지), 한춘교韓春敎씨와 우리 17세대 중(제1차 이민) 5세대 즉 우리 고계순高桂珣, 서재옥, 장만식張萬植(가족만 동선), 조중환趙重煥, 안安계승承[62] 씨 등은 일전에 가 본 쌍파울로에서 50km지점의 땅 GUARAREMA 일본 사꾸라 식민지 근처에 합계 38알켈(273,600평)을 나누어 살 계약을 해 놓고는 최소한도最小限度로 가구家具와 농기구農器具 등을 사며 입주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혼자 온 어린 소녀少女 정명자양은 가족이 올 때까지 "리오"의 류참사柳參事댁에서 유하게 되였고, 또 총각 윤명섭尹明燮씨는 개인個人이 경영하는 버섯농장에 취직이 되여 수일 내로 이곳을 떠나게 되였다. 혼자 온 김덕조金德祚(여女)씨는 우리의 초청자인 김수조씨 댁으로 가게 되여 나머지 9세대는 다른 좋은 땅으로 갈 준비로 매일 회의를 하고 있다.

62) 본문에는 [안계승씨].

## 55. 1963년 3월 10일 일 맑음

큰아버지를 따라 중앙시장中央市場에 갔다. 일요일은 12시까지라고 하기에 서둘러서 갔으나 벌써 끝날 때가 되여서 조용하다. 이곳은 과일, 고기, 생선, 기타 식료품 일체一切를 파는 시장이며 높이 지은 깨끗한 곳이였다. 우리보다 먼저 온(문화사절文化使節) 교포 홍관순順씨는 이 시장 내에 식료품 가게를 내고 있으며 전일前日 우리들에게 쌀, 간장, 된장 전표를 선사해 주신 분이다.

어떤 중년中年 남자가 팔고 있는 조그만 과일점에서 바나나 한 타打에 80원(160환)을 주고 사면서 물었드니 1개월에 100꼰뜨(10만환)의 이익利益이 된다고 한다. 물건도 다 갖어다 주고 가만이 앉아서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장사를 하면 된다고 하니 해볼 만한 것 같다. 12시가 되니 가게 주인들은 모두 가게에다 포장을 친다. 물건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즉 팔던 고기와 생선生魚은 그냥 그대로 대台 밑에 있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과일들은 포장하나 덮어놓고 나가버린다. 그 큰 시장에 문직이 한 사람이 직히고 있게 하고 양쪽에 있는 철문鐵門만 닫으면 그만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후에 나가는 사람이 먼저 나간 상점의 물건을 가지고 갈 만도 한데. 어서 다투어서 빨리 나가버리기만 하니 그만큼 여기 사람들의 마음이 선량善良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큰 도시에는 각 곳 길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장"이 선다. 큰 상점은 일요일에는 문을 닷고 이 장이 일요일에도 서기 때문에 식료품을 싸게 살 수 있다. 이 중앙시장 밖에는 큰 도매상들이 죽 늘어있는데 새벽 2시부터 시작한다는데 시골 농장에서의 생산품生産品을 싣고 와서는 도매하고 필수품必需品을 사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서울 명동明洞 거리 모양 차도 다니지 않고 상품이 가득히 쌓인 상가를 잘도 다니는가보다. "명동 거리"라 하며 가보면 물건 값이 싸다고들 한다. 그러나 손이 많이 간 물건은 비싸드라고도 한다. 나는 아직 나가보지 않았다. 별로 살 것도 없고.

## 56. 1963년 3월 13일 수 맑음

저녁 5시 아버지들 5명(같은 땅으로 입주할)은 이민국장移民局長을 만났다. 우리가 GUARAREMA 땅에 가게되였다고 하니 좋은 땅에 가게되여 기쁘다고 하면서 오는 월요일 '추럭'과 '뻐스'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고 한다. 농업이민으로 온 우리들이 갈 땅이 없다 하여, 어찌할 것인가 하고 주목하고 있던 터에 농토를 마련하고 농사를 지으러 간다고 하였드니 좋와하며 여러모로 도와준다.

× ×

이 주립수용소에 들어온 지도 어언 1개월이 되였다. 이곳은 만 평坪이 넘는 무료수용소이며 성당에는 매일 미사가 있고 병원에는 환자와 산아産兒들이 가득히 있고, 탁아소託兒所에서는 항상 어린애들의

울움소리와 웃슴소리가 들리고, 그 부속 세탁소에서 우리는 가끔 "아이론[63]" 신세를 지군 한다. 바오로회 수녀들 세 분이 병원으로, 탁아소로, 성당으로 바쁘게 원주민들을 위하여 뛰여다닌다.

이곳에 오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먼 외국에서 온 이민, 또는 근처 외국에서(남미) 이곳 농장에 실습實習 온 고등학생들(대우가 좋다), 또 시골에서 취직하러 온 사람, 또는 집을 수리修理 중에 있는 사람, 수재민, 하여튼 단시간短時間 장시간이든 별별 사람이 많다. 그 중에 이런 곳만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편리한 나라이다.

## 57. 1963년 3월 17일 일 맑음

당분간當分間 큰아버지와 같이 유留할 집을 구하러 나섰다. 아모데고 다니면서 "ALUGASE"(세집)라고 써 붙인 곳만 찾아 다녔다. 작년만 해도 집값이 싸다고 하였는데 올해에는 인구가 부쩍 증가增加되여 비싸다고 한다. 장소場所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아빠-트나 세집은 방 2개, 쌀라[64] 1, (응접실) 부엌, 변소, 세탁대洗濯台해서 한 달에 30꼰트(6만환)이고 보증금이 30꼰트이다. 집을 살 때에도 수년간 할부로 산다고 한다.

여기저기 많이 다녔다. 조곰 변두리에(중심지에서 뻐스로 40분) 아담한 2층집이 한 채 있기에 내일 주인을 만나보기로 했다.

몹씨 더운 날이다. 한 집 걸러 만큼식 있는 BAR에서 자주 시원한 것을 마셨다. 이곳 BAR라는 곳은 주로 카-페-, 음료수, 간단한 점심, 담배 등 간단한 생활필수품生活必需品은 다 팔고 있다. 돌아오는 길에 ACLIMACAÕ 공원 꽃 자란 유-까리나무숲(빠루쁘용用) 속에 있는 호수가에서 앉아 쉬였다. 쌍쌍이 앉아서 즐기는 남녀들의 안하무인眼下無人인 양, 서로 부둥켜 않고 속삭이며 열중熱中해 있는 것을 볼 때에 겉으로만 얌전을 빼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교比較해보기도 했다.

## 58. 1963년 3월 18일 월 맑음

예정대로 17세대 중 4세대가(우리는 홍일이만) 목적지인 GUARAREMA 땅에 오전 10시 모든 사람들의 눈물어린 전송을 받으면서 추럭과 뻐스로 출발하였다. 농장을 동경하는 우리 애들과 장소를 알고저한 몇 분이 동행하여 갔다가 오후 4시에 돌아왔다. 홍일이는 그곳에 머물러서 자기의 희망을 실현을 해보려는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 중 안安씨의 여동생妹씨는 장차 수녀원에 갈 희망을 갖인 관계로 우선 부라질 말을 배우기 위해

63) 다리미(iron).

64) sala, 거실.

이 수용소 수녀님들과 같이 유숙하기로 되였다. 이로써 제1차 이민단의 농장 입주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용기와 건강을 그들에게 주소서.

### 59. 1963년 3월 20일 수 맑음

이곳은 인제 가을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낮에는 여전히 더우나 하늘이 높아진 것 같다. 가게에는 먹음직스런 알젠친산의 빨간 사과가 많이 있고 주택가住宅街의 담 넘어 넓은 뜰에는 까마득한 감나무에 잘 익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또 어떤 나무잎은 누렇게 시들어 낙엽落葉지고 있으니 가을은 가을인가 보다. 문을 열고 자면 새벽녘에는 제법 춥다. 지금 한국은 새봄을 맞이하여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있겠지. 가보고 싶다.

요새는 부쩍 한국의 방송을 듣고 싶다. 알아듯지 못하는 말로 지꺼리는 이곳 방송放送은 틀었다가도 화가 나서 음악도 듯지 않고 꺼버린다.

× ×

사상계사에서 2, 3호를 발송發送했다는 편지가 왔다. 고국의 신문지상으로는 아마 우리가 무슨 큰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나는 그래서 신문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외국에 와서 안정될 때까지 미리 예상했덧 지금의 환경環境[65]을 그 사람 사람의 마음에 따라, 생각에 따라, 행幸, 불행不幸, 잘 왔다, 못 왔다고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부라질을 일하지 않고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듯 지상의 천국과 같이 생각했던 사람은 실망했을 것이고 수년간의 고생을 각오하고 온 사람은 나날의 이곳의 실정을 잘 알게 됨에 따라 낙원에 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40일 봉재 때를 맞이한 지금 모든 어려움을 참아 받아야하는 이 때 이 생활은 너무나 편안한 감이 든다. 사실이지 이름만 수용소이고 남녀로 가족이 구별되여 있어야하는 불편뿐이지 매일 때마다 마음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간식도 주고 외출은 자유, 잠자리는 항상 깨끗한 홋이불울 갈아주고 현재의 생활은 평안하다. 다만 없는 땅엘 다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머리 아픈 일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우리 대사관의 알선으로 이민국移民局과 잘 협의해서 각자 좋은 곳을 찾아서 자기 역량力量대로 이곳을 떠나가게 된 것이다. 윤명섭씨는(총각) 버섯 재배원栽培園으로 취직이 되여 오늘 떠났다. 이로써 6세대가 떠난 셈이다.

65) 원문은 [還境].

**사상계사 주소**

MR.JOAN YOUNG CHANG
100-2KA, CHONG-RO
SA-SANG-GE MONTHLY
SEOUL KOREA DO SUL (SOUTH)

× ×

**새로 오는 이민들을 위해 올 때에 선중에서 필요한 것.**

① 읽을 책을 많이 가지고 올 것
② 지도를 꼭 가지고 올 것
③ 옷은 여름옷을 많이 가지고 올 것. 특히 런닝샤쓰, 단短 쯔봉66), 잠옷, 한복도 한 벌(하복夏服) 행사 때 필요.
④ 미용美容 – 머리 손질하는 법을 배워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⑤ 한국판 "레코–드"를 가지고 올 것.
⑥ 간단한 악기
⑦ 음식. 고추장, 짱아찌, 김, 미수가루.
도착 후에 먹을 것. 김, 미역, 명태, 당면, 인삼
⑧ 짐은 – 한 짝에 2,000환씩이니 아무쪼록 크게 묶을 것(나무 궤짝에 넣어서 든든하게)

## 60. 1963년 3월 24일 일 흐림

시내에 큰아버지와 함께 있을 셋집을 얻었다. 아침부터 우리 식구들은 얻어놓은 집에 갔다. 새로 수리한 아담하고 깨끗한 집이었다. 마당에는 풀이 많이 자라 있었다. 우리는 오래간만에 일을 만나 힘이 들어 하면서도 풀을 뽑고 집 청소를 하였다. 밤늦게 돌아오는 길에 노상에서 요새 고국에서 오신 보사부 오吳사무관事務官과 농림부農林部 직원 한 분을 만났다. 참 반가웠다. 먼저 입주한 사람들을 찾아서 GUARAREMA에 갔다 오시는 길이라고 한다. 조고만 섬과 같이 된 우리 땅에도 가보셨다고 한다. 큰아버지는 어서 빨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보내주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하고 헤어졌다.

## 61. 1963년 3월 25일 월 흐림, 가랑비

아침부터 날씨가 흐리다. 짐이 젖을까 걱정이 있으나 가랑비가 멋는 듯 하기에 추럭을 얻어 이사移舍하기로 했다. 한 달 남짓 신세를 진 이민수용소와 또 같이 온 우리 동포同胞들과 작별하고 오후 1시경 집에 도착했다.

짐 정리에 바뻤다. 더구나 큰아버지께서 사신 가구들마저 배달配達되여 와서 밤늦게까지 기진맥진하

66) 양복바지.

도록 뛰여다녔다. 저녁에는 오래간만에 한 가족이 몽여서 마음놓고 평안히 쉴 수 있었다. 아직 수용소에 남아있는 다른 동포들도 어서 속히 좋은 땅을 구求해서 나가야 할 텐데…….

## 62. 1963년 3월 26일 월[67]흐림

어제의 고단함도 있지만 바쁠 것도 없고 부라질식式?으로 늦장을 부리고 누어 있었드니 앞집 일본인 부인이 와서 깨운다. 옆집 부라질인의 애기가 아파하니 좀 보아달라고 한다. 아버지는 바삐 나가셨다. 의사는 어디를 가나 쉴 새가 없이 일이 많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외국인 의사를 정식으로는 인정認定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는 난처하게 되는 것이다. 의사이면서 의사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위반이라 해도 방금 아퍼서 죽겠다는 데야 의사로써 가만이 보고만 있을 수가 있을까? 앞으로 이런 때가 많이 있을 것을 생각할수록 하루속히 말을 배우고 시험을 치뤄서 정식의사가 되여야 한다.

집의 구조가 좀 이상하다. 거리에서 보기엔 단층집이고 뒤에서 보면 2층이라 종일 오르내리니 다리가 아프다. 양식洋式 생활은 외국인들 모양으로 정원을 다닐 때에 신발에 흙이 묻지 않게 되였거나 또 외출할 때에는 차를 타고 다니면 걱정은 없겠지만 제데로 되지 못한 양식생활은 방이 더러워질까 더 마음이 씨운다. 아직 서툴러서 그런지 차라리 한국식 생활이 편하다고 느꼈다.

처음으로 FOGÃO(께스풍로)를 사용使用해보았다. 그 옛날 학생 시절時節에 가사家事 시간에 깨스는 써보았지만 이런 것은 처음이다. 우리가 그림에서 많이 본 그대로 위에는 깨스불을 키는 데가 네 군데가 있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밑은 음식을 데우거나 구어 먹을 수 있게 되여 있었다. 아주 빨리 취사炊事를 할 수 있었다. 딸애 영자는 재미가 나서 처음으로 부엌일을 하여 서툰 솜씨로 일을 도와준다. 저녁에는 주소 변경變更을 알리는 편지를 썼다. 어째 고향에서 소식이 없을까. 궁금하고 기다려진다. 매일 한 통씩 왔으면 좋겠다.

**우리 주소**

RUA GENERAL CHAGAS SANTOS 414
SAÕ PAULO, BRASIL
VILA MARIANA

67) 1963년 3월 26일은 화요일이나 원문대로 쓴다.

## 63. 1963년 3월 28일 목 흐림, 비

음력陰曆 초初하루에 비가 오면 한 달 내내 시원치 않다드니 매일 같이 꾸물거리고 찔끔찔끔 비가 와서 빨래하기도 힘이 들고 말리는 것도 어렵다. 나는 혼자서 가사 일에 바쁜데 아이들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가깝한 모양이다. 어서 농장에 들어가자고 조르기만 한다. 가지고 온 짐을 인제 겨우 끌러 보는 것이 많다. 그릇은 튼튼한 궤짝에 넣어왔더니 접씨 하나 안 깨지고 잘 왔지만 이불은 고만 선중 밑에서 기름이 묻어 한 채는 아주 못쓰게 됐다. 그리고 책을 넣은 궤짝은 터졌고 제일 못 쓸 것은 우리나라 "트렁크" 들이다. 대개가 만환을 넘겨 주고 산 것들이 부산을 떠나기 전에 벌써 못쓰게 되였으니 선중에서도 짐을 꺼낼 때마다 골치였거니와 이곳까지 와서 보니 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러니 국산품國産品들이 욕을 먹게 된다. 그러나 국산 아루미늄 쇠 트렁크는 좋다.

수용소에서들은 그저 여전如前한 모양이다. 농장견학, 토지를 보러가는 모양이다. 아버지는 "리오"에 가셨다.

## 64. 1963년 3월 29일 금 흐림, 비

큰아버지는 요새 매일같이 외출이다. 가족이 올 때까지 남을 위해서 봉사하신다고 한다. 아직도 수용소에 있는 분들이 농장 견학을 갈 때에도 안내를 해주고 또 11인 중의 어떤 분이 토지를 보러 간다고 하면 같이 가준다. 결국 우리보다 10개월 먼저 오셔서 경험한 것을 교포의 1인으로서 후진後陣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이같이 우리 교포들은 음으로 양으로 모두 친절하다. 덕분에 유재선俞載善씨와 또 그의 매부인 장상기張相基씨는 오는 수요일水曜日에 농과農科 출신의 일본인이 경영하는 양계장과 야채농장野菜農場으로 우선 배우기 위해 들어가게 될 것이다.

## 65. 1963년 4월 3일 수 맑음

벌써 4월이 되였다. 가을 하늘이 높다.

아버지는 꼬마 홍준이를 데리고 우리 땅이 있고 4세대가 입주한 GUARAREMA에 들어가셨다. 나는 오래간만에 동선자同船者들이 아직 유留하고 있는 수용소에 가 보았다. 우리들 7세대가 나간 자리가 휑하다. 유재선씨와 장상식씨는 내일, 전일 가본 VIA ANHANGUER 지점에 있는 농과출신이 경영하는 착실한 농장에 들어가게 되였다. 우리는 지금 적은 자본을 갖이고 경험도 없이 자작농自作農을 하는 것보다 우선 모-든 면에 배우는 것이 좋은 방법方法이다.

인제 도합 9세대가 수용소를 나간 것이다.[68] 나머지 세대들은 아직도 갈 곳이 확정치 못했다고 하니 걱정이다.

### 66. 1963년 3월 31일 일 청晴

아침 일찍 집 가까이에 있는 큰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례하고 큰아버지와 같이 앞에 서는 “장”에 갔다. 시장용 구루마를 끌고 참 편리한 것이다. 장에는 무었이나 없는 것이 없이 다 있고 또 그 전에 가본 중앙시장 내의 물건 값보다 도리어 싸다. 주로 과일, 채소가 농장에서 직접 갖이고 오는 것이 많다고 한다. 바나나는 1타에 30원(60환)이고 또 귤, 감, 도마도(작은 종류)를 샀고, 또 오래간만에 배추, 무우를 사다가 김치를 담았다. 오후에는 근처에서 사시는 미타씨三田 가족이 교회에 갔다 오는 길에 들려주었고, 버섯농장에 들어간 윤명섭씨가 찾아왔다. 단신으로 온 윤尹씨에게 된장, 고추장찌개로 가정 분위기를 돋우어주었다. 손님 대접으로 바쁜 하루였다.

### 67. 1963년 4월 4일 목 맑음

좋은 날씨다. 이불과 양복洋服들을 뜰에 줄을 매고 널었다. 선중에서 2개월이나 묵은 것이기에.

GUARAREMA에 다니러가셨던 아버지와 함께 서재옥씨 내외분과 안단승安斷承[69]씨가 나왔다. 영주권永住權 수속 때문에 나왔다고 한다. 사진을 찍고 손까락 전부의 지문을 찍는다고 한다. 그들은 농장에서 우선 풀을 뽑고 집을 지을 준비들을 하고 있다 한다. 전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 살던 낡은 집에 묵으면서 나무를 작만하는 사람, 집 터를 닦는 사람, 우선 마차馬車를 산 사람도 있고, 트럭터를 산 사람도 있다 한다. 홍일이는 대자연과 같이 살고 있는 모양이다. 남자애들은 그저 "말"만 보아도 좋아하는데 매일같이 말을 타고 자기 농장을 돌아다니기만 해도 젊은 가슴이 부푸는 모양이다.

### 68. 1963년 4월 9일 화 맑음

아침 일찍 아버지와 나, 큰아버지, 또 장상기씨 동생 장상식(아직도 수용소에 있는)와 함께 쌍파울로에서 100km 지점에 있는 CAMPINAS시에 가기 위해 시내 중심지에 있는 뻐스(ONIBUS) 정류장(RODOVIARIA)– 각종 뻐스가 집합集合하여 있는 곳으로 갔다. 아침부터 출근出勤하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으로 인파를 이루고 있었으며 뻐스에서 내뿜는 깨스 연기로 탁한 냄새를 맡은 나는 타기도 전에 벌써 메슥거렸다. 8시 15분 출발, 시내를 벗어나서 교외로 나서니 완연히 공기가 달랐다. 푸른 유–까

68) 『사상계』에는 7세대라고 썼고 해당 지역도 조금씩 다르다.

69) 斷은 繼의 잘못일 수 있으나 원문대로 쓴다.

리나무가 무성한 밀림을 오랫동안 지날 때에는 가슴으로 심호흡을 하며 아! 나도 이런 대자연 속에서 살고 싶었다. 옥수수밭을 지나고 부라질의 CALIFORNIA라고 말하는 곳인 이 지대地帶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잘 다듬어 부유富有한 농촌들이었다. 우리도 10년 후에는 이렇게 되겠지? 하는 희망과 포부에 가슴이 부풀어 다시 한 번 심호흡을 했다. 도중 국제공항國際空港(VIRASCOPOS)으로 가는 갈림길을 지나 도로세道路稅를 두 번이나 운전수가 치루는 것을 보면서 또 도로에 핀 무궁화(한국 것보다 꽃꽃송이, 잎이 다 크고 깨끗하다)꽃을 손에 닿을듯이 지나쳐 곧바르게 복선複線으로 되여 있는 아스팔트를 달렸다.

10시 CAMPINAS시에 도착했다. 인구 30만이라는 이 도시는 주위의 농장의 중심지이며 현대現代 건물이 날씬하게 서 있고 남아프리카를 연상케 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였다. 발전상發展相이 눈에 보이게 살아 움직이는 도시인 것 같았고 입구 로-타리는 현대식으로 짓기 시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시였다.

그곳에서 30년간 농장 경영을 한 반공청년 이봉엽씨 장인丈人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경험담을 듣고 점심식사까지 대접받았다. 그리고 같이 간 장씨를 위해서 농장을 몇 군데 견학을 했다. 교통交通이 편리한 곳에 있는 도시다. 오후가 되니 쌍파울로보다 더 더운 곳이었다.

## 69. 1963년 4월 12일 금 맑음

오늘이 예수 수난기념일이다. 이곳에서는 연중 큰 행사로 부활절復活節을 앞두고 오늘부터 경축한다. 모-든 학교는 물론 여러 직장이 오늘부터 3일간 휴일이다. 카톨릭국 답다. 그리고 서로 축하의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준다. 우리도 예例의 친절한 NASSAR씨가 우리 애들에게 토끼모양을 한 초코렛을 갖다주었다. 우리는 그의 자녀가 이곳에 오면 어떻게 보답해야할지 모르겠다.

## 70. 1963년 4월 14일 일 맑음

부활절 아침 일찍이 온 가족이 함께 성당에 갔다. 길가에나 집 앞 뜰에는 높이 만국기 모양 늘어뜨린 이쁜 종이로 만든 깃빨이 아침 맑은 공기에 나붓기고 있었다. 축일祝日을 경축하는 의미로 장식한 것이다. 성당 안은 많은 신자들로 꽉 차 있었다.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열심히들 미사 참례를 하고 있었다. 그 옛날 예수를 따라 40일 간의 봉재[70]때를 고난을 참아 받고 적은 희생이나마 바치려고 노력은 해왔으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영적靈的으로 얼마만큼이나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새 희망으로 또 다시 새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또한 많은 신의 가호加護가 있

70) 사순절을 말한다.

기를 기구할 뿐이다.

오후에는 반공청년 강석근씨가 왔기에 그의 차로 시내 IPIRANGA에 있는 박물관에 갔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드니 별러서 갔었는데 휴일이라 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 공원에서 휴일을 즐기는 인파 속에 잔디에 앉아 쉬였다. 이곳은 140년 전 브라질 독립선언獨立宣言의 땅地이며 웅장한 박물관을 배경背景으로 높이 세운 독립기념비(1919년)는 국제적國際的인 조각가彫刻家들을 초청하여 그 시대時代의 독립자獨立者 베두루 1세를 비롯하여 반역자反逆者와 그들을 처형處刑한 자들의 모습을 청동靑銅으로 잘 다듬어진 예술품藝術品이 있었다. 선선한 가을 저녁의 아름다운 공원을 작별하고 돌아왔다.

## 71. 1963년 4월 16일 화 비

가을비가 내린다. 춥다. GUARAREMA에서 서재옥씨, 장만식씨의 딸 건인양과 그 댁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박응호朴應鎬씨가 와서 오래간만에 떠들석했다. 서씨는 과거 중령까지 지낸 분인데 가장 의욕意慾이 많고 솔선수범率先垂範해서 개척하는 분이며 그간 손수 8m 깊이의 우물을 파던 때의 힘들었던 일과 또 물이 솟아나왔을 때의 기쁜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이번에 나온 것은 집을 지을 준비로 문짝을 사러 온 것이라고 한다.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에 꽃이 피고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다. 주입식注入式 교육의 장단점長短點, 자유교육自由敎育의 장단점, 이곳 교육은 우리나라보다 시설施設로 보나 좀 뒤떨어진 것 같으며 초, 중, 고 대학 할 것 없이 공립은 무료이다. 대학 졸업생卒業生이 적은 탓인지 직장이 많아서인지. 아무튼 대학만 나오면 잘 살 수 있다고 한다. 현재 GUARAREMA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우선 말을 모르기 때문에 큰 사람이나 어린 애나 할 것 없이 다 국민학교 1학년學年에 8명이 입학을 하였다 한다. 모두가 다 동창생들이다. 그러나 차차 자기 실력대로 진학進學하게 될 것이라고.

## 72. 1963년 4월 17일 수 흐림

머리가 자라서 혼자 손질하기가 어려워 파-마를 하러 갔다. 17, 8세 가량 되는 일본 2세들이 하는 미장원이었다. 손님이 들어가도 낯서른 사람이 되여서 그런지 인사말도 없고 멋적다. 그저 간단하게 잊고 요구를 듯고는 계속해서 일만 한다. 구두 수리방엘 가도 흘깃 쳐다만 보고 이쪽에서 주문하는 말에만 대답할 뿐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잘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뚝뚝한지 참 이상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친절하다 못해 장삿속으로 붓들고 늘어지는 것 하구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파-마 값은 800원(1,600환).

## 73. 1963년 4월 19일 금 맑음

유재선씨와 장상기씨 가족이 입주해 간 이곳에서 24km 지점에 있는 VIA ANHANGUERA 농장에 가보기로 했다. 오후 2시 시내에서 GATOPRETO행 뻐스를 탔다. 말이 통하지를 않아서 목적지를 알아듯지 못한 차장이 어리둥절했으나 하여튼 1인 50원(100환)씩이면 된다고 하니 웃으워서 야단이다. 교외郊外로 나서면서부터는 차내 승객들은 얼굴이 검은 농민들과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생들뿐이다. 약 1시간 후 하차하여 잘 닦은 넓은 길을 1km쯤 걸어갔다. 꽤 가파로운 농장이 시원스럽게 바라다보였다.

집도 여러 채 있고 계사鷄舍가 많다. 비탈길을 내려갔다. 마침 유俞씨부인이 딸과 함께 계사에서 닭에게 물을 갈아 주고 있다가 반갑게 맞아 준다. 나는 반가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도 구두와 양말을 벗고 모녀를 도왔다. 바깟양반들은 밭에서 풀을 매주고 있다 한다. 큰아버지 소개로 이곳에 온 분들, 생전 처음으로 농사는 지어보는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우랴 십고 궁금하여 찾아가 본 것이다. 이 농장주인은 35년간 쓴맛 단맛 다 본 사람이며 농과출신이어서 배울 바가 많을 것이다.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야 다 같이 몽였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간 15일간의 경험담도 듯고 또 많은 격려를 해주었다. 장張씨 말이 한국 농촌에서는 일을 해도 겨우 살아갈가말가 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 일하면 일하는 만큼 "돈"이 되는 것을 보니 즐겁고 희망에 넘친다는 것이다. 약 5알켈의 농장에는 여러 가지가 심어져 있었는데 COBEFLOR(꽃배추)[71]라는 채소는 고급요리高級料理로써 수국꽃만큼 큰 것으로서 100원(200환)씩 하는데 전 농토를 덮었으니 큰돈이 될 것이라 한다.

추럭 2대, 트럭타- 2대, 자가용 1대, 또 온 농토에 뻗친 물을 줄 때에 쓰이는 "뽐푸". 하여튼 좋은 시설이서 편리하겠다. 그리고 양계 6,000마리를 하고 있으며 주로 부인들의 일이라고 한다. 그들은 주인 부인들의 근면함을 칭찬하고 있었으며, 요새 1알켈에는 감자를 심었다고 하고 집을 짓는 것도 배웠다고 하며 자신自信이 좀 생긴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우선 마음이 좀 놓이고 기뻤다. 요새 "계란"과 채소 값이 비싼 시내보다도 더 잘 차린 저녁식사를 먹고 컴컴해진 산길을 나왔다.

그들에게 건강과 인내력忍耐力과 또 주의 은총恩寵 중에 희망을 갖이고 살아가기를 또 한 번 빌면서 뻐스를 탓다. 밤에는 몹씨 추웠다.

## 74. 1963년 4월 20일 토 맑음

오후 1시부터 이곳 시내 중국요리집에서 고국의 전 세계일보世界日報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 반공청년 주영복씨의 결혼피로연에 참석했다. 신부는 요사이 한국에서 비행기로 온 최여사이다. 우리 한국인

71) Couve-flor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꽃양배추, 콜리플라워를 뜻한다.

을 비롯해서 외국인의 그의 우인友人들이 많이 몽인 가운데 뜻깊은 자리였다. 우리는 영자가 있는 물감을 다 몽아서 소월의 시 "부부"를 적은 간단한 그림을 선사했다.

### 75. 1963년 4월 24일 수 맑음

수용소에서 또 한 세대 정식으로는 장상기씨는 동생과 1세대로 왔지만 따로 나게되여 장상식씨가 GUARAREMA에 들어갔다. 인제 한국 "아리랑"촌村이라 이름한 그곳이 점점 번창하게 될 것이다.

세대 수로는 1인도 한 세대로 하면 작년에 오신 분, 우리와 같이 온 독신부대 합, 서재옥, 안계승, 한춘교, 고광순, 고계순 장남 고홍일, 장만식, 장만식 씨와 같이 하는 박응호, 조중환, 장상식, 김_____씨(전 소령) 꼭 10세대이다.

× ×

4월호 사상계를 받았다. 첫 면頁에 영화『엘마 · 간트리』의 빨간 특별회원권特別會員券이 눈에 띄는 순간 단성사團成社 극장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두군거린다. 목차目次에 내 이름을 보았을 때는 나의 보잘것 없는 일기가 부끄러워 얼굴이 확 달았다. 너무나 읽을 것이 많다. 한 달 내내 두고두고 잘 읽으련다. 그런데 아직도 2, 3호는 못 받았으니 혹시 분실될까 걱정이다.

× ×

수용소에 있는 또 다른 4세대는 30km 지점에 있는 원시림으로 우선 집을 지으러 들어가고 애들만이 남아있다 한다.

### 76. 1963년 4월 28일 일 맑음

가족 일동이 친구의 차로 소위 '아리랑'촌 GUARAREMA에로 떠났다. 12시 좀 전에 시골에서 살 수 없는 사탕, 고기를 사가지고 중앙시장을 나와 곧장 뻗은 "리오"가도街道를 달렸다. 꼬마는 좋와라고 야단들이다. 40분 후 우측에 JACAREI라고 써 붙인 곳 패를 보고 그길로 꺽어 들어 3km쯤 시골풍경을 바라보며 서서히 갔다. 그곳은 일본인 '사꾸라'식민지(농장)이며 그 옆에 유명?한 우리 '아리랑'농장이다. 도중 일본인을 만나 인사를 했더니 애들 아버지더러 의사가 아니냐?고 한다. 아마 자주 드나드시는 큰아버지께서 이야기한 모양이다.

그 땅 제일 첫 번째 큰 빈 집에 들어있는 장만식씨 댁에 들어갔다. 뜰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여 있었고 흰 점이 많이 밖혀있는 잘생긴 "말"은 한가롭게 풀을 뜯어 먹고 있었다. 그 옆의 고운 무늬의 "베니루"를 빙 둘러친 곳이 '목욕탕'이라니, 한국촌의 여유 있는 모습이 엿보여 기뻤다. '호-스'로 길게 끌어온 수도水道물에 손을 씻고 들어갔다. 검게 탄 씩씩한(과거 한국에서 화식요리점和食料理店을 경영) 우

리 한국 청년개척인青年開拓人 장만식씨는 지금 박응호씨와 같이 우선 육育축기를 사다가 병아리 500마리부터 기르기 시작했다한다. 밤잠을 못 자면서 온도를 조절하면서 귀여운 자녀를 기르듯이 힘을 드리고 있었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그가 성공, 불성공不成功을 논하기 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농촌에 있을 생각을 했다는 것은 용이容易한 일이 아니며 믿어운 바가 있다. 석유냉장고에서 나온 어름에 시원한 냉카-페-를 마시고 땀을 식혔다. 빙둘러 앉은 토실토실 귀여운 자녀들을 바라보며 과연 시골은 건강에 좋은 곳이라 느꼈다.

우리 홍일이는 그간 과수를 심을 "구덩이"를 6개나 팟다고 하며 자랑이더니 이 엄마에게 자기의 말탄 모습을 보이고 싶어 벌써부터 장만식씨 댁의 "말"을 타고 산으로 달리고 둘째번째 집에 들어있는 아리랑촌의 자랑인 서재옥씨(중령)댁에 갔다. 과거에 찚차나 타고 다니며 남을 호령이나 하던 사람이 손수 8m 깊이의 "우물"을 파놓은 것을 보고는 근처의 일본인 진짜 농사꾼들도 깜짝 놀라고 있다 한다. 나도 그 깊은 우물에 가보고 놀랐다. 하여튼 사람이 하고저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서씨는 지금 우물 옆에 집터를 닦아놓았는데 내일부터는 인부가 마땅치 않으면 집도 자기 손으로 지을 생각이라고 한다. 하여튼 농촌 생활은 모두 처음이어서 무엇부터 손을 대여야 할지 모르는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계획計劃을 세워서 착착 일 해가는 서씨에게는 외국인들까지도 탄복하고 있으며 주시하고 있다. 그 다음은 넓은 땅을 사놓고도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루 속히 한국서 가족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춘교씨에게, 같은 처지인 큰아버지는 친구를 만나 같은 걱정들을 하였다. 수일 전에 들어간 장상식씨(뻐쓰운전 10년)는 짐 정리에 바쁜 모양이었다. 우선 큰아버지 땅에 있는 빈 집에 들어있었으며 벌써 나무상자로 마루를 깔았으며 조중환씨 땅에 많이 있던 "미깡"을 서너 자루 따다놓은 것이 눈에 띄었다. 한 쪽 방에는 우리 홍일의 침대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놓인 "키타-"가 어찐지 쓸쓸해 보였다.

그 집을 나와 다음은 서씨 땅, 우리 땅, 큰아버지 땅, 한춘교씨 땅, 장만식씨 땅, 조중환씨 땅, 안계승씨 땅을 돌아서 구경하고 안씨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가려는데 마침 차가 고장이 났다. 큰일이다 싶었다. 이런 시골에서 더구나 일요일에 이런 일을 당하였으니 갈 길이 걱정이었다. 그러나 장상식씨가 있는 기술技術을 발휘發揮하여 차의 부속품附屬品 하나가 달아 없어진 것을 발견發見했다. 너무나 덥고 시장하여 차는 그냥 두고 서씨 댁에서 차려놓은 점심을(닭볶이)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안계승씨 댁으로 가는 길에 집을 지을 나무를 찍어 갖이고 오는 안安씨 부자父子를 만나 같이 그이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갔다. 집 앞에는 트럭터- 한대가 놓여 있었고 같이 있는 이곳의 고문격格인 김소령은 쌍파울로에 출타出他 중이고, 또한 같이 있는 조중환씨는 마침 청소에 바쁜 중이고, 침대, Fogão, 찬장 등 깨끗이 꾸며저 있었다. 우리도 시간이 없어서 일어서 나오는데 안씨 부인은 따다놓은

"미깡"과 뜰에서 딴 예쁜 "쪽밖"을 보자기에 싸주며 애기를 업고 따라 나오며 그동안 집터를 닦으려고 풀에 불을 놓았다가 고만 바람이 불어 옆의 조趙씨 땅까지 붙었을 때의 그 산불의 무서움을 이야기해주었다.

차는 그동안 어떤 지나가는(큰길) 점잖은 "스위스"인의 찦차에 끌려 쌍파울로까지 가기로 약속이 되여있어 나는 홍일이兒의 전지電池, 비누, 면도, 가위 또 한 채의 이불(밤에는 몹씨 추움) 등의 주문을 받고 여러분들과 작별했다. 아무쪼록 여러 외국인들의 주시 속에서 정말 지식인知識人들답게 머리를 잘 써서 한국 "아리랑"촌의 이름이 날리는 날을 기구하면서. 아모 관계도 없는 그 스위스인은 우리를 위해서 큰 행길에서 거진____km나 될 아리랑촌에 들어와서부터 아모말 없이 묵묵히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차를 밧줄로 이끌고 그리고 우리 모두다 자기 차에 태우고 50km나 되는 SAÕ PAULO까지 달릴 때 머리가 저절로 수그러졌다. 그 사람의 친절을 본받고 또 그 사람이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하는 동안에 온 나라 전체가 복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여튼 우리는 그 친절을 본받아야 한다.

### 77. 1963년 4월 30일 화 맑음

오늘은 모다 외출한 중에 나 혼자 조용이 여러 가지를 우리 집의 살아갈 일을 자세히 생각해 보았다. 결국 그동안 이민 수속하고 이곳에 오기 위해 길에다 널어놓고 보니 우리가 이곳에 가지고 온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농토 값만 물고 나면 농장에 혼자 들어가 있는 홍일에게 보내줄 농자금農資金은 어디 있으며 수입收入 없이 생활은 얼마나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여러 번 옥신각신 의견이 많았지만 농업이민으로 왔다 하드래도 해보지도 않은 농사를 기계화해야 되는 이 나라 넓은 농토에서 자금마저 부족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구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

모두 다 자기의 갈 길을 가야하지 않을까? 우리는 아버지가 의사이니 그 길을 살려야 할 것이다. 우선 자존심自尊心을 버리고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남의 병원에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말도 모르는 의사를 누가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킬까? 수술만 하면 될지. 말이 필요 없으니.

### 78. 1963년 5월 1일 수 맑음

DIA DE TRABALHO 노동절勞動節이다. 공휴일公休日이라. 이날을 이용해서 각각 교외로 놀러들 간다. 우리는 또 그 NASSAL씨의 권유에 못 이겨 SANTOS 해수욕장海水浴場으로 가기로 했다. 안개 낀 아침 거리를 달렸을 때는 귀가 멍멍했다. 우리가 처음에 이민선에서 하선해서 이곳에 오던 길을 다시금 자세히 바라보니 복선으로 되여있는 멋이 있고도 아름다운 경치였다. 800m 고지인 SAÕ PAULO에서 자꾸만 꼬불꼬불 내려갔다. 그곳은 여름과 같이 더웠다.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차들이 소거름과 같

다. 휴일이면 이렇게 여러 곳에서 몰여드는 차가 만여 대가 넘는다고 한다. 해수욕장은 큰 빌딩이 죽 둘러서있었고 나무가 많아서 좋왔다. 나는 그늘에서 멀리 떠있는 기선들을 바라보며 외국인 수영객水泳客들과 이야기하며 앉아있었고 우리 애들은 오래간만에 헤엄을 치게 되니 좋와하며 물에 뛰어 들어가 파도를 타고 놀고 있었다. 점심은 우리 한국 사람처럼 복잡한 게 아니고 그저 간단하게 차려가지고 와서는 꼭 "상보"를 깔고 먹고 있었다. 이렇게들 휴일이면 온 가족이 산으로 해수욕장으로 의례히 가는 걸로 알고 있는 이곳 사람들은 볼 때에 일평생一平生을 마음을 못 놓고 휴일을 즐기지 못하는 한국 사람이 불쌍한 것 같다.

## 79. 1963년 5월 2일 목 맑음

이곳은 요새가 가을인데 아침에는 꼭 안개가 뽀-얗게 잘 낀다. 새벽녘에 뜰에 나가면 선뜻한다. 감기에 걸리기가 쉽겠다. 오늘 하오(오후반)부터 홍철, 홍준이는 근처 사립私立 국민학교 1학년에 들어갔다. 우선 말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온 식구가 몰여 앉아 브라질어 공부를 했다.

뜰에 곱게 자란(시험삼아 심어 본) 배추, 무우, 시금치의 잎이 이슬에 젖어 싱싱하고도 귀엽다. 동리洞里집에서 얻어다 꽂아놓은 화초들은 아직 뿌리가 내리지를 않아 볕이 뜨거운 낮이 되면 시들어질가 조마조마 하다.

× ×

수용소의 소식을 들었다.

한승韓承일씨, 안동安東협씨, 김중혁金重赫씨, 서재옥씨 동생 서재徐載성씨 등 4세대는 작년昨年에 온 김상진振씨와 함께 이곳에서 26KM 지점인 NOVA BOM SUCESO라는 곳에 입주했다고 한다. 요새 그들은 집을 짓기에 바쁘다고 한다.

한용전씨는 시내에 집을 얻고 이사했다 하고 김철연씨는 일주일 후에 또 다른 방향으로 25km지점인 ITAQUERA에 있는 어떤 농장을 맡아서 일하게 되였다고 한다. 나머지는 자동차 수리공장에 취직한 양楊승갑甲씨와 김승한씨 가족만이 남아있다고 한다.

### 제1차 이민 루락된 가정 상황

양승갑 황금옥 〈1963년 2월부터 이민수용소 생활 같이 함〉

- 1963년 5월 4일 장녀 HELOISA 출생
- 1963년 5월 중순 일본인 ITO GRANTA 양계육종연구소 취직

양승갑 – 영어통역과 번역 황금옥 – 총무과외 사무원

- 이불판매
- 1980년도 – 보석장

## 80. 1963년 5월 5일 일 흐림

어제는 실비가 뿌리더니 밤새껏 추워서 새우잠을 잤다. 너무나 추워서 "코-트"를 꺼내입고 성당에 갔다. 우리나라 11월만큼 추운 것 같다. 오늘 기온은 7도라고 한다. 이 나라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비만 뿌리면 춥고 해만 나면 더운 것 같다.

## 81. 1963년 5월 8일 수 맑음

오후에 외출했다. 어찌나 더운지 이 나라 여인들은 소매 없는 옷을 입고 있었고 아침에 나온 사람은 코-트를 입었고 가지각색 제멋대로이다.

× ×

수용소에 있던 김승한씨는 25km 지점인 ITAQUERA 농장에 입주하고 양승갑씨는 부인이 해산解産을 하여 퇴원退院과 동시에 직장 가까운 곳으로 나갈 것이라 한다. 이로써 17세대가 완전히 수용소에서 나가 각자 자기 갈 길을 찾아 들어간 것이다.

× ×

저녁에는 SALA를 비롯해서 침실, 또 현관玄關의 벽돌 바닥들을 깨끗이 물걸레로 닦고 말린 후 CERA(살충제殺蟲劑도 들어있고 바닥을 광을 내는 고체固體로 된 것)를 마른 헌겁에 무쳐서 마루에 바르고 나종에 문지르면 광이 잘 나서 냄새도 좋고 방 안이 깨끗해졌다. 광을 내는 기계는 CERADEIRA라고 하는데 다음에 사기로 하고 온 식구가 열심히 닦았다. 이렇게 매주每週 계속하면 외국인들 집모양으로 반질반질하게 될 것이다.

## 82. 1963년 5월 10일 금 맑음

우리 한국 사람은 하루 세끼 밥을 안 먹으면 아모리 배가 불러도 식사한 것 같지 않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하로 세끼 더운밥 해먹다가 볼일 다보군 했다. 우리도 요새에야 겨우 식구가 다 아침에는 CAFE LEITE(우유), 빵, MANTEIGA(빠터-)만으로 견디게 되었다.

내일 우리 17세대와 같이 온 독신 혹은 군인부대 중 4명 이정수李正秀(대위大尉)씨, 한대령大鈴, 김해곤씨, 윤봉尹鳳선씨가 또 우리 아리랑촌 GUARAREMA로 들어가게 되었다. 도합 14세대가 되는 것이다. 하루속히 한국에서 가족이 들어오면 아리랑촌이 번창할 것인데.

## 83. 1963년 5월 11일 일 맑음

5월의 둘째 주일인 오늘이 이 나라의 어머니날이다. 아이들의 개성을 나타낸 축하의 카–드와 정성 어린 작은 선물들을 대하고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좋은 어머니가 되여야지! 오늘 성당에서는 천주교의 나라인만큼 성모를 위하는 이달에 또 오늘의 어머니날을 겸하야 특별한 미사가 있었다. 부모님 생각 간절했다. 돌아가신 시어머님과 또 이북에서의 생사를 모르는 친정어머니, 또 모–든 어머님들을 위에 기구드리며.

## 84. 1963년 5월 18일 토 흐림

날씨가 흐리고 추운 날이였다. 오후 5시부터 일본인 감리교회理敎會에서 반공청년 김창원씨와 장승호씨 딸 미타 미에三田美惠씨의 결혼식이 있었다. 나는 혼자 조용히 가슴에 십자 성호聖號를 놓고 그의 새 가정을 위해 기구했다.

나는 브라질 말을 알아듣지 못하여 잘 알 수 없으나 한국 교회에서의 결혼식과 같은 것 같았다. 다만 둘러리 대부대모代父代母가 같이 동부인同夫人해서 서있는 것과 부인婦人들은 옷 색갈에 맞추어서 둥글 넙적한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피로연"은 전부 서서 접시에 자기 식성대로 음식을 덜어다가 환담하면서 먹게 되여 있었고 오늘의 주인공主人公들은 앉아 있었다.

## 85. 1963년 5월 19일 일 흐림

바쁜 날이었다. 새벽에는 성당에 미사 참례. 다음에는 장보아오랴, 오후에는 2시 반부터 시내 OTHON PALACE HOTEL에서 박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포들이(약 90명) 재백 제2회(우리는 처음) 5·16 기념행사가 있었다. 목진태睦鎭泰씨의 피아노 연주演奏로 우렁차게 애국가를 봉창했을 때는 감개무량했다. 미쓰장의 박의장朴議長에게 보내는 멧세–지 낭독朗讀이 있으 후 만세삼창으로 식이 끝났다. 5분간의 휴식을 이용하여 목진태씨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잘 부르는 "은구슬" 등 동요로서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고, 이어서 재백한국인교민회가(만 18세 이상) 열렸다. 작년도의 애로 많았던 사업보고事業報告가 있은 후 앞으로 1년 동안 일해주실 역원役員들을 선출했다. 시간[72] 관계상 임시의장이 수명의 인원을 지명指名하고 그들이 역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취한 결과

회장會長 – 한승엽韓承燁(이민해온 때 제1차 독신, 군인출신)
부회장副會長 – 주영복(반공反共), 김영金永묵(문화사절), 김윤문文(문화사절)
이사理事 – 이성용李性熔(문화), 홍관순洪寬順(문화), 장만식(문화), 강석근(반공), 이종무(문화),

72) 원문에는 [時關]

고계순(제1차), 서재옥(제1차)

고문顧問 – 박동진朴東鎭 대사, 윤尹경도 참사

그리고 대사님의 격려사激勵辭가 있은 후 폐회閉會하고 대사관에서 베풀어 주신 맥주와 기타 음식을 나누면서 환담했다. 나는 처음으로 인자하신 우리 대사님과 인사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 86. 1963년 5월 26일 일 맑음

TEATRO MUNICIPAL(시립극장)(일요일 오전 중은 무료)에 갔다 돌아온 딸애는 한국에서 제대로 우리나라 연극演劇을 보지 못했고 이곳서 처음 본 연극에 대해서 감感탄하고 있다. "쏠베이지의 노래"라는 제목인데 무대장치며, 의장衣裝이며, 음악의 화음和音이며, 무용이 모두 멋있고 잘 되여 있었다고 한다.

× ×

오후에는 아직 가족이 오지 못한 독신부대들이 몽여와서 하로 종일 바쁘고도 기쁜 날이었다. 오래간만에 "아코데온"에 맞추어 명곡, 민요, 동요童謠 막 부르면서 향수鄕愁에 젖었다. 밖에서는 동리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있었다. 노래로써 모-든 시름을 씻고 명랑한 기분으로 헤여졌다.

## 87. 1963년 6월 2일 일 흐림

벌써 6월이다. 가족일동이 강석근씨 차로 여기서 약 26km-30km 지점인 NOVA BON SUCESO에 살고 있는 우리 제1차 이민동선자 한승일씨, 안동협씨, 김중협씨, 서재옥씨 동생 서재성씨와 1년 먼저 문화사절로 온 김상金相진씨를 찾아가기로 했다.

마침 휴休가 나온(버섯농장) 윤명섭씨와 시장에서 식료품점食料品店을 경영하는 홍관순씨와 시내 빵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오래간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한승일씨 장녀長女 MISS[73]한, 안동형씨의 친척 MISS최를 뻐스정류장에서 만나니, 차 내는 옴짜달삭할 수 없이 꽉 찼다. 우리는 "리오"가도를 달려갔다. 아리랑촌으로 들어가는 곳보다 조금 가까운 곳에서 좌측으로 "커-부"를 돌았다. 무슨 대궐에나 들어가는듯한 기와로 만든 대문을 들어섰다. 결국 그 옛날 이곳은 한 부자가 갖고 있던 광廣범위한 토지를 여러 사람에게 쪼개어서 팔았는데 어느 지역보다도 이곳의 농장에서 제일 먼저 성공했다 해서 이름을 BON SUCESO(성공한 곳)라고 지었다 한다. 그 땅을 빌리고 우리 서울농장이 새로 생긴 셈이다.

73) 원문에는 [時關].

약 100m를 지나 우측으로 돌아가니 학교 운동장에서는 큰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다. 이 학교에서 우리들의 2세들 9명이 이사해 간 그날부터 배우고 있다고 한다. 학교에서부터는 양쪽에 쭉 곧은 유까리 나무가 무성한 푸른 곳을 지나게 되니 어쩐지 노래가 나올 정도로 즐거운 기분이었다. 약 1km 반쯤 낮은 언덕을 올라간 곳에 우리 한국인 두 번째의 촌인 서울농장이 있었다. 차의 "크락숀"을 자꾸 울렸다. 모두들 깜짝 놀라며 뛰여들 나온다. 우리들은 서로 손을 잡고 반가워했다. 한국에서 수년 동안 사귄 친구보다 몇 달 사귀지도 않은 이국땅에서의 "우정友情"이 더 깊음을 느꼈다. 우리 17세대 중의 제일 고령高令이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를 하고 난 후 주위를 빙 둘러보았다.

토지는 타인의 땅을 합동合同으로 빌리고 있어 약 5알켈, 입주한지 두 달 동안에 우선 2알켈(원시림)을 개간하고 집 4동棟을 짓고 있는 중이었다. 총 인원 22명, 6미터 깊이의 우물을 파 놓았고 식사도 다 같이 무엇이나 공동체共同體였다. 즉 부인 2명은 취사, 세탁 등 가사일체一切를 맡아보고, 또 부인 2명은 이미 개간開墾한 땅을 더 잘 닦는 일을 하고 남자들은 개간도 하고 집짓는 일을 하였으며, 우선 먹을 야채를 심어 놓았고, 주인집에서도 친절하게 잘해주고 동리 일본인들이 2, 3일에 한 번씩 채소를 갖어다 준다고 한다.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옷들이 깨끗하고 잘들 입고 있어서 부모들의 마음 쓰임을 알 수 있었다. 방 1칸씩은 온돌溫突을 놓을 생각으로 철판鐵板들을 사다 놓았고 우물 옆에는 2개의 목욕탕용沐浴湯用 가마가 걸려 있었고 양철통에는 콩나물이 빽빽이 자라고 있었다.

김중혁씨 장녀 MISS김金은 한국에서 갖이고 온 "편물기機"로 스웨-터를 짜서 삯이 2,500원(5,000환)을 받는다고 한다. 하루 걸러씩 쌍파울로에 나가서 주문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데 혼자서 하루벌이가 약 3,000원(6,000환)이 된다고 한다. 여기서는 털실로 짠 옷은 참 비싸다. 우리는 서로 격려激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오래간만에 콩나물, 고사리나물과 콩탕(비지)로써 맛있는 식사를 했다. 모두 명랑한 기분이 되여 엉성하게 만든 국기게양대國旗揭揚台에 태극기를 달고 다 같이 기념촬영을 했다.

어느덧 해는 기울기 시작하여 우리는 잠간동안의 기쁨과 웃음을 나누고 석별의 눈물로써 그곳을 떠났다. 착한 사람들만이 몽여사는 그곳에 주의 많은 은총과 건강과 성공이 있기를 빌면서 싸늘한 저녁 도로를 달렸다.

## 88. 1963년 6월 8일 토 맑음

이곳 사립학교는 토요일土曜日은 휴교休校한다. 아이들에게 견학도 시킬 겸, 또 외국인 틈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총각 윤명섭씨를 찾아가기로 했다. 요새 우리에게 브라질어를 가르쳐주고 있는 강석근씨의 찦차로 25km지점에 있는 COTIA라는 곳에 있는 버섯농장으로 출발했다. 가보지 못했던 멋있는

주택지를 지나서 굉장히 넓은 경마장競馬場 앞을 지날 때에는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의 날씬한 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학문學問의 전당인 대학촌大學村을 지나 쌍파울로에서 유명한 독사연구소毒蛇研究所를 바라보면서 그 옛날 강姜씨가 7년 전에 무일문無一文으로 브라질에 도착해서 1년 동안 일했다는 철도공장을 지날 때에는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식사를 하러 나오는 많은 직공職工들이 대개가 자전거自轉車를 타고 있었다. 몇 사람은 공장 담 밑에서 부인이 정성껏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우리 한국 사람들과 어찌나 같은 풍경인지 친밀감親密感을 느꼈다. 먼지가 날쌔라 차를 가만이 조심해서 그곳을 지나 약 20km 지점에 이르렀을 때 큰 하천河川을 건너 좌측으로 돌아가니 시골 아이들이 우리들의 어린 시절 모양으로 학교에서 돌아가는지 옆에 보자기를 끼고 멍하니 쳐다본다. 한가로운 시골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길을 잘못 들어 이리저리 전진前進하는데 뜻밖에도 말馬 시장인 듯한 곳을 지나게 되였다. 남녀 수십 명이 모두 말을 타고 있었다. 외국영화에서 본 서부인西部人들을 연상케 했다. 말 한 필만 보아도 좋와하는 우리 애들은 너무나 좋와서 어쩔 줄을 모른다. 다시 길을 잡아들어 약도대로 뻐스 길에서 2km쯤 들어간 곳에 북떼기를 덮은 밭이 보이는 곳이 틀림없이 버섯 농장이었다.

일본인 노부부가 40년간이나 가꾼 정원에는 여러 가지 꽃이 만발하여 있어 무슨 별장과도 같았다. 윤씨가 반가히 맞이해준다. 이곳에서 3개월간 일한 윤씨는 농장을 안내해주었다. 그간은 15평가량 되는 지붕만 있는 방에서 버섯 재배를 시작했다는데 북데기풀을 헤쳐보니 하얀 사탕알만한 버섯이 수없이 달려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 즉 무無에서 유有가되는 이 신비神秘로운 일, 주인은 얼마나 재미있으랴. 요새 새로 밖에서 말라빠진 옥수수대 사이에 칸데라를 만들고 종자種子를 심는 것을 보았다. 무슨 흙 같은 것을 세 손가락으로 집어서 심고 있는데 그 종자에서도 벌서 버섯 냄새가 많이 풍겼다. 지금까지 경험한 윤씨의 설명에 의하면

① 거름을 1개월간 잘 썩힌다. 볏짚, 풀, 옥수수대(15cm 길이로), 말똥馬糞, 암모니아, 석탄石炭, 마加가린산酸 등등.
② 거름으로 "간데라"를 만든다 -〉 약 70cm넓이로(보통 밭두덕만큼식)
③ 거기에 종자를 사방 15cm간격으로 심는다.
④ 흙으로 5cm 두께로 덮는다.
⑤ 태양을 가리기 위해 마른 풀을 덥는다.
⑥ 때때로 물을 준다.
⑦ 심은 지 1개월 후면 수收획을 할 수 있다.

요새 15평에서는 1주일 전부터 매일 3kg씩 딴다고 한다. 한kg = 800원(1,600환)이며, 조금이라도 커지면 통조림 공장에서 사주지 않는다고 한다. 제일 중요重要한 것은 종자를 만드는 것인데 어둑컴컴한데서 사이다병같은 데에 배양한다고 하며, 기술자技術者가 그것은 가르쳐주지 않고 비밀이라고 한다.

결국 우리가 그 종자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면 우리 한국인들도 재배[栽培]할 수 있을 것이다.

버섯은 요새와 같이 비가 오지 않고 서늘할 때가 좋다면서 앞으로 올 여름을 위해서 지붕만이라도 가리우는 집을 지어서 몇칭으로 단을 만들어서 재배할 것이라고 한다.

## 89. 1963년 6월 13일 목 비

교황[教皇] 요왕 23세의 장례날이다. 세계 온 신자는 물론 모든 사람이 애도를 표하는 날, 전 브라질에서는 학교는 물론 공장, 관청 모두 휴업하고 애도를 표했다. 종일 가랑비가 내렸다.

## 90. 1963년 6월 16일 일 흐림

아리랑농장에 갔다.

현재 총 인구 30명, 세대 수 13. 총 면적 약 40알켈(약 28만평). 서재옥씨와 장만식씨는(성[城]과도 같이 크게) 큰 집을 8할 가량 짓고 있었으며 1주일 후에는 완성[完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張]씨가 기르는 병아리 500마리는 지금 이쁘게 잘 자라고 있으며 새 계사에서 모이를 쫏고 있었다. 안계승씨 댁은 남자 이상으로 씩씩한 부인과 함께 13m 깊이의 우물을 파놓고 새집에서 담에 흙을 바르고 있었다. 끓여온 카-페-를 맛있게 마시고 장상식 댁에 갔다. 약하던 그의 부인은 임신 중인데도 아주 건강하였으며 남편 못지않게 일에 재미를 부쳤다고 한다. 집 근처에는 배추, 무우, 고추, 파, 양배추, 시금치, 양파 등 갖가지 채소를 심어 몇일 있으면 벌써 뽑아먹게 되여 있었다. 나머지 땅은 마침 조중환씨가 와서 "트럭타-"로 갈아주고 있었다. 조중환씨는 그간 농토 5알켈을 전부 갈아놓았고 지금 우리 아리랑 농토를 각 개인마다 경작할 만큼씩 우선 갈아주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안씨부인 말이 굉장이 깊은 우물을 파놓고는 너무나 기뻐서 20여리나 되는 곳에 있는 성당에 온 가족이 함께 나가서 감사의 미사를 드렸다고 한다.

저녁에는 입주한지 며칠 되지 않는 군인 독신부대들, 윤봉선, 김해곤, 이정수씨를 찾아갔다. 어둑컴컴한 산골길을 작업복[作業服]들을 입고 붉게 타는 석양을 등지고 빈 도시락들을 들고 돌아오는 그들. 나는 한 여성으로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반가히 맞이해주었다.

방에 들어서니 말이 아니다. 고국에 있을 때에는 영급[領級]들이고 갑부[甲富]로써 또 가장[家長]으로서 대우를 받던 분들이 자진해서 고생을 각오로 오기는 왔지만 너무나 많은 고생을(가족이 없어서 더 한층) 하고 있는 것이 안 되여서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그들은 그새 농토를 트럭-타로 갈기 전에 우선 개간 중에 있었으며 이곳에서 하는 식으로 일전에 땅에 있는 잡목[雜木]이나 풀을 태우려고 불을 질렀는데 바람이 불어 생각했던 이외로 범위가 넓어져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불이 타고, 남의 농토에 불이 옮겨

질까 겁이 나서 불을 끄려고 종일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이야기며, 사람이 어려울 때에는 저절로 "하느님"을 찾게 되더라는 말을 호롱불을 앞에 놓고 내가 도운 "김치찌개"와 조중환씨가 가지고 온 "삥가-"(이곳 소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갔다. 그리고 정의파正義派인 이정수(대위)씨는 요사이 과거의 젊었을 때의 아니 지금까지의 모-든 과오를 반성하고 통회한다고 하며 인제부터 종교를 갖는다고 한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서로 악수하고 천주교식으로 십자 성호를 가슴에 놓고 기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이럴 때에 우리 한국인 신부가 계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가 싶었다.

농토에서 멀리 떨어진 빈집에 들어있는 이 아저씨들은 아침 일찍이 반찬도 변변치 않은 도시락을 들고 종일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면, 반가히 맞이해주는 사람도 없고 쓸쓸하고 캄캄한 방에 들어가 지친 몸으로 늦은 저녁을 지어야 하는 그들. 요사이 얼마나 처자가 그립고 소중한지 늦게나마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집을 지을 때까지 임시로 들어있는 엉성한 방에서, 그래도 향기로운 "미깡"냄새가 풍기는 방에서 그들에게 평화와 희망을 주시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용덕勇德을 주실 것[이]다. 고국의 가족들의 꿈이라도 꾸게 해주기를 천주께 기구하며 밤길을 걸어 나와 숙소인 서씨 댁으로 갔다.

## 91. 1963년 6월 17일 월 맑음

GUARAREMA 아리랑 농장의 밤은 밝았다.

바람 한 점 없는 대자연의 조용한 하침,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냇가에서 세수를 했다. 6월이면 우리나라 11월에 해당하는데 약간 단풍진 초목들, 누렇게 된 바나나 잎, 우리나라 가을 풍경을 연상케한다. 7시 반 아침 카-페-를 마시고 있는데 벌써 계사를 돌보고 돌아오는 박응호씨(장만식씨 댁의)가 마차를 몰고 돌아왔다. 서씨 댁 아가씨들이 좋와라고 가방을 들고 뛰어나간다. 나란이 앉아서 학교로 가는 아리랑 농장의 아가씨들, 그 얼마나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인가. 나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나는 어제 독신부대 아저씨들과 약속한대로 맡아 둔 열쇠를 갖이고 그 집에 갔다. 집은 벌써 비어있었다. 오늘 여기 모-든- 세대주들은 봄바-(폼푸)를 사러 쌍파울로에들 갔다. 나는 부엌에 있는 두 포기의 배추를 소곰에 절여놓고 그동안 온 집안의 문을 활짝 열고 고리타분한 냄새를 빼고 희망의 광선光線을 담뿍 비치게 한 후 바닥에 물을 뿌리고 쌓인 먼지를 쓸었다. 있는 대로의 재료를 찾아내어 있는 솜씨를 다해서 김치를 담아놓고 돌아왔다. 오후에는 우리 홍일이와 함께 마차를 타고 우리 땅에 가보았다. 인제 겨우 일부만 불로 태운 섬과 같이 생긴 물로 빙 둘러싸인 아늑한 땅. 내가 좋와하는

남아프리카에서부터 보아 온 얄쌍한 하늘하늘한 아까시아와 같이 생긴 나무들과 야자수, 갈때숲을 지나 우리 땅 중앙까지 가볼 수 있었다. 이런 곳에서는 차 보다도 도리어 잘 어울리는 멋있는 마차의 흔들림, 대자연 속에 파무치고 보니 그저 가슴이 벅찰 뿐이었다. 차차로 과수도 심고 연못도 만들고 멋있는 다리도 놓고 하는 홍일이兒의 큰 포부를 들으며 장차 우리 별장지別莊地가 될 곳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이상한 기분이었다. 산들바람에 말 목의 하얀 털이 소로록 날린다. 모-든 것을 잊고 대자연 속에서 그저 멍하니 이름 모를 새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천천히 그저 이대로 끝없이 가고만 싶은 마음 뿐이었다.

## 92. 1963년 6월 18일 화 맑음

아리랑 농장에서의 제3일이다.

아침 6시부터 일하기 시작한다. 임시로 들어있는 지금의 "집"에서 자기 농장을 향해서 떠나는 것이다. 우물을 파놓았으니 "집"을 지으러 가기도 하고 자기의 농토를 개간하러 가기도 하는 것이다. 머지않아 집이 완성되면 일하는 데에 편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일이 활발히 진전進展 될 것이다. 깨스 FOGÃO으로 카페-를 끓여먹었다. 홍일이는 어느새 참새 5마리를 잡아가지고 왔다. 5발 5중 제법 솜씨를 보여 대견하기도 했다. 아침부터 땅을 개간하러 나선 독신부대 아저씨들을 따라나섰다. 생전 처음으로 땅을 가는 "트럭타-"도 타보았다. 5알켈 전부를 시원스럽게 갈아놓은 조중환씨 땅을 거쳐서 장만식씨 땅, 한춘교씨 땅에서는 수없이 달린 "미깡"(귤)을 (전 주인이 심은 것) 포켓이 있는 대로 따 넣고 그 다음부터는 아직 길을 내지 못해 한 길이 넘는 풀숲을 헤치며 또 개미집과(바위만큼 한) 나무 뿌리를 피하면서 트럭타-는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했다. 마치 전쟁戰爭터로 나가는 용사와도 같은 기분이었다. 도중에 개울을 건너 울퉁불퉁한 너무나 경사진 곳에서는 트럭타-가 올라가기가 힘이 들어 "삽"과 "괭이"로 파헤치기도 하면서 전진하여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간 불을 지르기도 하고 도끼와 괭이, 혹은 "낫"으로 개간한 곳을 오늘 "트럭타-"로 갈아 엎는 것이다. 가지고 온 "귤"로 목을 축이고 나서 갈기 시작했다. 트럭타- 뒷 꽁무니에 있는 2개의 큰 접씨와 같이 생긴 날카로운 "쇠"가 땅에 내려지더니 땅은 순식간에 검은 흙이 위로 올라오면서 갈아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저분하던 땅이 쪽 고르게 갈아지는 이 기계의 힘. 참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到底히 딸아갈 수 없는 이 후련한 마음. 참 통쾌하고도 신기했다. 나는 가만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정수씨는 물오리와 매 한 마리를 솜씨 좋게 잡았다.

저녁에는 뜰에 나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온 동리 우리 한국인들이 빙 둘러앉아 지글지글 타는 장작

불에 추워오는 몸을 녹히면서 잡아온 물오리, 매, 또 조중환씨가 잡아온 뱀 등을 구어먹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에 꽃을 피우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어느덧 아리랑농장의 밤은 깊어,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이 아늑한 친밀감, 이 아름다운 농촌의 밤. 내일의 희망의 일터를 위하야 일찍 휴식休息.

## 93. 1963년 6월 24일 월 맑음

쌀쌀한 겨울날이다. 신문지상으로는 쌍파울로 부근 어떤 곳에는 영하 8도까지 기온이 내린 곳도 있어 "서리"가 내려 농작물이 피해被害를 입은 곳도 있다 한다. 아므튼 올해는 유별나게 추운 해라고 한다. 오후 1시부터 시내 OHTON PALACE HOTEL에서 한백협회韓伯協會 이사장理事長으로 온 이성용씨가 주최, 대사관에서 후원하는 민예전시회民藝展示會가 열렸다. 이곳 신문지상으로나 테레비, 잡지雜誌 등에 활발한 한국이주자의 문화교류文化交流라는 제목으로 알려주었고 칭찬해주었다.

전시품展示品은 인형, 자개함, 쟁반, 담배곽, 평풍과 공보원公報院에서 제공提供한 사진 등이 었다. 개장 즉전即前까지 여러 교포들이 많은 애를 썼다. 우리의 자랑인 유일唯一한 피아니스트인 목진태씨(문화사절)와 그의 부인 발레리나인 황수연黃水蓮(영화 검은장갑에 출연)여사女史는 신문사社, 테레비사社 등 찾아다니며 외교外交에 힘써주었고 회장會場 꾸미기, 인형 옷을 대림질 하는 것은 내가 도왔고, 또 관觀람객 접대接待 등등 어려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총각 윤명섭씨는 이李씨와 숙질叔姪간이어서 많이 일을 했다. 여하如何튼 많은 관람자가 있어 기뻤다. 앞으로 4일간 계속 할 것이다.

## 94. 1963년 6월 27일 목 맑음

시내 각 신문지상에는 우리의 민예전시회에 대해서 칭찬들을 하고 있다.

일본인의 몇 백분의白分之 일의 수바께 안 되는 우리 한국 국민은 문화교류의 의욕이 많다는 것이다. 나는 고국을 떠난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복을 입었다. 전시장의 인형들의 산 의상衣裳을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외국인들은 물론 우리 교포들도 향수에 어린 눈으로 그윽히 바라본다. 하여튼 성공리에 우리 한국을 많이 소개했으며 무사히 유종有終의 미를 거두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 ×

큰아버지는 그간 여러 독신부대 아저씨들과 함께 가족 초청 수속 서류 작성으로 인하여 바쁘게들 뛰여다니시더니 오늘에야 겨우 완료 되였다고 한다. 어서 속히 가족들이 와서 같이들 살아야지 도모지 기운起運들이 없어 딱해서 볼 수가 없다.

## 95. 1963년 6월 28일 금 맑음

아침 CAFÉ 시간에 반공청년인 공장을 하고 있는 이봉엽씨가 왔다. WILLYS 자동차회사에 볼 일이 있어 가는 길이니 "드라이브"나 하자고 한다. 큰아버지나 영자는 방을 치우고 따라나섰다. 아침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춥지도 덥지도 않은 오늘의 기후는 "드라이브"하기에 꼭 알맞았다. 이李씨의 말이 그 차 회사는 SANTOS에 가는 길가에 있다고 하며 그 지대는 5년 전만 해도 전부 밀림이였다는데 지금은 수도 없이 많은 공장이 서 있고 주택이 많은 큰 도시로 변했다고 한다. 요사이도 쌍파울로시가 어찌나 발전하는지 나날이 달라진다고 한다. 그 차 회사 직공 수는 1,200명 10종류의 차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공장 내에 들어가려면 미리부터 신청申請을 해야 한다 하여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씨가 볼일을 다 마칠 때까지 넓은 광장에 늘어선 차들을 나는 이 다음에 이런 차, 아니 저런 차하고 말로만으로 소유해보기도 했다. 하여튼 이런 굉장한 차 회사가 수 없이 많다고 하니 아모때고 우리에게도 차례가 돌아오겠지 하는 희망을 안고 언제가도 멋있는 산토스 길을 다시 돌아왔다.

× ×

오후 4시부터 아이들 학교에서 무슨 축제祝祭가 있다기에 아버지와 같이 갔다. 오늘부터 1개월 간 겨울방학放學이 시작된다면서 아이들의 성적표成績表를 준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전부 이쁘게 옷차림을 하고 있다. 내일 성 베두루의 축일인데 오늘로 다 가서 지낸다고 한다. 여러 어머니들이 작만해가지고 온 음식들을 들고 다니면서 먹으라고 한다. 교정校庭에서 선 채로 파-티-가 벌어진 것이다. 모두 다 잘들도 먹는다. 잠시 후 남녀 어린 학생 아이들이 빙 둘러서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들을 춘다. 우리 꼬마 홍준이도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멋적은 듯이 노래 하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장작대미에 불을 붙혔다. 어둑컴컴한 저녁 하늘에는 푸르스름한 반달이 붉게 달아오르는 어린이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나라는 축제도 많고 또 그럴 때마다 여기저기서 불꽃노리를 하누라고 총소리마냥 탕탕 소리를 내여 깜짝 놀라군 한다. 이달은 늦가을인데 밤에는 꾀 춥다. 성聖요왕 축일, 성 베두루, 바오로 축일 합해서 한 달 내내 모닥불을 피우고 먹고 마시고 흥겨롭게 춤을 춘다. 그리고 큰 풍선 BALAÕ을 불을 켜서 띄워보낸다. 꼭 우리나라 정월正月 기분과 흡사하다.

아마 이 때가 가을이라 추수의 감사를 겸해서 불을 피워서 모-든 악마(우리나라로 말하면 액운을 쫓는)을 쫓아버리는 풍습이라 한다.

## 96. 1963년 6월 29일 토 맑음

그간 동고동락하던 우리 이민자 중 최고령最高齡이신 한韓옹께서(73세) 별세別世하셨다는 소식을 듯고 우리 가족 일동은 NOVA BON SUCESO 서울농장으로 달려갔다. 이민선 중에서는 우리들보다도 더 식사도 잘하시고 정정 하시더니 이렇게 돌아가시고 보니 너무나 허무虛無한 것 같다. 신장염으로 별세 후 24시간만인 어제 가까운 공동묘지共同墓地에 장례를 지냈으며 근처에 사는 외국인들이 차도 보내주고 또 부조금까지 해주어서 참 고마웠다고 한다. 우리는 갖이고 간 꽃다발을 생존生存 시에 거치하던 온돌방에 가만이 놓았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들의 발전도 못 보시고 고이 잠드신 할아버지의 명복을 빌었다.

× ×

지금 이곳 농장에서는 그간 열심이들 일한 보람이 있어 집 5동棟은 거이다 완성 중에 있었으며, 각각 한 동에 한 세대식 들어있었다. 오늘과 같이 더운 날에는 후끈한 온돌방이 역껴워보였고 "우물"을 두 군데나 파고 있는 중이었다. 각 집의 한 칸식을 막아서 내월來月부터는 병아리 24마리씩을 기를 예정이라고 하며 그 후에 옮겨놓을 큰 계사도 지어야 한다고 한다.

MISS김(김중혁씨 장녀)은 그간 스웨-터-를 짜는데 재미를 부쳐서 이곳에서 많이 입는 굵은 털실로 짜는 편물기를 또 한대 작만하여 동생과 함께 짜고 있었다. 내월來月에 있을 이곳의 낙성식落成式에 다시 만날 기약을 하고 우리는 돌아왔다.

저녁에는 쌍파울로 하늘은 축제의 마지막 밤을 장식하는 모닥불의 연기로 뒤덮었고 여기저기서 불꽃노리하는 쾅쾅 소리에 귀가 따겁다. 집 마당에서 동리길에서는 아름다운 옷차림의 여자들과 무슨 광대와 같은 차림들을 한 남자들이 몽여서 노래하고 춤추고 법석들이다. 온 장안이 모다 들떠있는 것 같다.

## 97. 1963년 6월 30일 일 맑음

오전 8시 그 NASSAL씨가 어디를 가자고 하여 따라나섰다. 차는 어느덧 "리오"가도를 달려 서울농장의 입구를 지나 또 아리랑 농장 입구를 지나고 공장지대工場地帶를 지나 JACAREI라는 곳을 지나게 되였다. 이곳은 "쌀"의 산지로서 다른 지방에서는 대개가 "밭벼"를 심지만 여기만이 유일한 "논벼"를 짓는 곳이다. 바라다 보이는 넓은 들판이 전부인 논이다. 지금이 겨울이라 벼는 다 추수를 하여서 꼭 우리 한국 농촌 풍경과 꼭 같았다. 그 다음부터는 목장牧場지대였다. 유유히 한가롭게 "젓소", "말"들이 풀을 뜻고 있었다. 10년 전만해도 이곳 은행銀行에서는 목장주牧場主들이 저금貯金만을 했을 뿐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운영이 곤란할 만큼 촌이였고 또 돈을 쓸 줄 몰랐다고 한다. 가끔가다 푸른 유-까

리 나무가 드믄드문 서있을 뿐 그저 바라다 보이는 곳은 전부가 목장이었다.

건축을 자랑하는 브라질의 대표적代表的인 멋있는 공장이다. 멋있는 농장을 지나칠 때마다 처음으로 보는 우리 가족은 함성을 올렸다. 그저 한없이 곧바른 길을 시속時速 100km로 달려 11시 반 약 150km 지점에 있는 성지 "APARECIDA"라는 곳에 도착했다. 조고만 이 시내는 가파로운 곳에 있어 무슨 산구름 위에 떠 있는듯한 오래된 곳이며 동리 중앙에 성당이 있었다. 순례자巡禮者들이 좁은 골목 가득이 차 있었고 동리 전체 상점은 거의가 다 성물聖物, 묵주를 비롯해서 십자가 고상, 상본 등등을 팔고 있었다. 이곳은 그 옛날(약 300년 전)에 우리 아리랑촌에서 가까운 PARAIVA강江에서 어부漁夫들이 두개로 쪼개진 성모상聖母像을 발견하여 그물로 건져다가 어떤 자그마한 성당에 놓았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어려울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걱정이 있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굻고 많이 기구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기적"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래서 NOSSA SENHORA CONCESSAÕ이라 이름 짓고 수호신守護神으로 모셨다. (1904년에 APARECIDA 성모상의 대관식戴冠式이 있은 후부터 수호신이 되였다고 한다.)

매 일요일에는 많은 순례자, 참배자들이 줄을 지어 걸어 다닌다. 그 동리 입구에 지금 남미 제일가는 큰 성당을 짓고 있는 곳에 가보았다. 성당 입구의 벽에는 옛날의 "기적"을 나타낸 노예의 발목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고 있는 성모님의 그림이 있었다. 미완성인 성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임시로 마련한 제대祭台를 향해서 미사를 드리고 있었다.

그 NASSAL씨의 갓 난 질녀姪女(1세)는 오늘 이곳에서 여러 친척들의 축복을 받으며 뜻깊은 곳에서 "세洗"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먼 곳에까지 와서 "영세"시키는 그 열성熱誠이 놀라웠다. 우리는 좋은 분위기에서 다시 한 번 십자 성호를 놓았다.

성당 안 제대 중앙에 그 까만 여신상女神像이 안치安置되여 있었다. 우리는 기념으로 보글거리는 상점에서 그 성모상이 들어있는 작은 성물을 사고 돌아왔다. 전 코-스 300km가량 된다고 한다. 넓은 이 땅에서는 하루에 몇 백km쯤 달리는 것은 보통普通이다. 속 시원하게도 넓은 곳이다.

## 98. 1963년 7월 3일 수 맑음

그간 병중病中에 있던 NASSAL씨의 동생의 병이 완쾌完快되여 축하하는 뜻에서, 또 수일 후에 고향 LEBANON의 부모의 곁에서 좀 더 정양靜養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송별送別연이 있었다. 몽여있는 그의 지인들의 소개를 받았다. 그들은 전부 "코"가 크고 체격이 크다. 먼저 식전食前에 한잔씩 건배하고, 음식은 시리아 빵이라고 하는 손바닥만큼씩 넙적하고 큰 빵에다, 밥은 고기도 섞고 "간"을 해서 좀 짜고 Feijoada라고하여(브라질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것인데, 검으죽죽한 콩에 되지고기 귀, 혀

를 넣고 폭 끄린 것) 검으죽죽한 것을 뚝배기에 하나씩 담아서 갖어온다. 우리는 먹을 줄을 몰라서 못 먹고 쌀라다와 다른 반찬을 먹었다. 그들도 흥겨로워서인지 송별연이어서 그런지 노래들을 부른다. 춤도 춘다. 동양東洋 춤에다 스페인 춤을 합친 것 같은 그들의 춤이었다. 그들도 중동 지방 사람이라 그런지 음식을 권할 때나 모-든 것이 우리나라 사람과 비슷한 데가 많았다. 우리도 다같이 "아리랑", "도라지"를 불렀다. 같은 동양 사람끼리 통하는 데가 많은 것 같다.

### 99. 1963년 7월 18일 목 맑음

겨울이라 추운 날을 기다리는데 매일같이 따뜻한 날만 계속된다. 이대로 겨울이 지나간다면 너무나 서운한 감이 든다. 남반구南半球의 기후가 겨울이라 해도 눈은 아니 내닐 것이고 근 2개월간 비가 오지 않으니 춥지 않을 수바께. 오늘 장에 나갔을 때에는 어찌나 더운지 모두 하복 입고 있는 것이 좋와 보였다. 지금 농촌에서는 복숭아꽃이 한창 되여 있다고 한다. 겨울인데도 꽃은 여전히 피여있고 갖은 야채는 시장에 가득 쌓여 있으니 따듯하지 않으면 이상하겠지. 일전에 좀 추울 때에는 어떻게 농작물이 견디어냈을까? 했더니 아주 남쪽 지방地方은 제외하고 이곳 쌍파울로 근처近處에서는 수년간의 경험으로 인하야 서리(상霜)가 내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밤에는 야채를 위해서 2, 3일간 잠을 자지 않고 "봄바-"로 물을 뿌린다거나 여기저기 불을 피운다든가 연막煙幕으로 야채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은 서리가 내리지 않는 곳을 잘 가려서 토지를 사야한다고 하며, 올해와 같이 몇 십 년만의 추위로 인해서 광범위廣範圍하게 서리가 내릴 때에 아모 방편도 하지 못하는 곳은 많은 손해損害를 보게 된다고 한다. 오래간만에 "소갈비"를 사다가 끌여 먹었다. 이곳 사람들은 갈비는 먹을 줄 모르고 그 국물만 먹기 때문에 값이 고기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

### 100. 1963년 7월 22일 월 비

저녁나절부터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룩주룩 소리를 내며 비가 온다. 모두 문을 닫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일가 단락의 시간이다.

이 비는 아마 우리나라의 펑펑 쏟아지는 함박눈에 해당할 것이다. 포근한 향수를 그리게 하는 눈. 생각만 하여도 보고 싶어 미칠 것만 같다. 후일 나는 고국을 방문할 때에는 단풍진 가을에서 흰 눈이 내리는 겨울을 택하고 싶다.

그간 뜰에 심었던 무우, 배추는 잘 자라서 여러 번 김치를 담아먹었고 다시 씨를 뿌리기도 하고, 파도 심고, 또 "알젠틴"에서 수입輸入해온다는 "마늘"도 시험 삼아 심어 보았다. 이웃에서 얻어다 심은 "다리아"도 꽃봉오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모-든 생물이 1년 내내 쉬지않고 자라기 때문에 10년이

아니라 1, 2년이면 강산江山이 변하게 된다.

### 101. 1963년 7월 24일 수 맑음

비온 뒤끝이라 쌀쌀하다. 겨울이 다 지나가버린 줄 알았더니 비만 오면 이렇게 춥다. 태국泰國에서 1년 반 동안 살다가 왔다는 정성철鄭聖哲이라는 애가 찾아왔다. 아버지는 교회의 목사牧師이며 한국인 친구가 그리워서 놀러 온 모양이다. 우리 홍철이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 태국은 비가 많이 오고 무던이도 덥고 모기가 많아서 좋지 않은 곳인 것 같다. 그곳에 있는 우리 교포들도 브라질에 오기를 원願하고 있다 한다.

### 102. 1963년 7월 27일 토 맑음

수일 전에 한국에서 온 추의사秋醫師 외 2인이 찾아왔다. 고국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신문지상으로 보면 어렵고 작은 우리나라가 비로 인해서 많은 시련試鍊이 겹쳐 마음 아픈 일이다. 도울 수조차 없는 우리는 그저 멀리서 마음 조리며 고국의 평화와 안녕을 빌 뿐이다.

### 103. 1963년 8월 1일 목 맑음

한 달 동안의 휴가를 마치고 오늘부터 각 국민학교가 개학을 하였다. 방학 중에는 한 번도 학교에 가는 날이 없었고 또 오늘은 2학기 첫날인데도 꼬박 전 수업授業을 착실히 시키고 있다.

### 104. 1963년 8월 5일 월 흐림

쌀쌀한 날이었다. 저녁에 외출에서 돌아온 큰아버지 고광순씨는 세 가지 BONBA와 트럭타-, 기타 농기구 일체를 3,000꼰트(60만환)로 사기로 했다는 말에 온 집안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가족이 올 때를 기다리며 여러가지로 많은 생각을 한 결과 아리랑 농장에서 한국이민의 모범농장을 경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농기구를 갖추고 농사에 종사從事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인 전체의 기쁨이며 자랑이며 대견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어서 속히 가족이 와야지.

### 105. 1963년 8월 6일 화 흐림

바람이 쌩쌩 불고 추운 저녁 7시부터 교민회사무실에서 브라질어伯語 공부가 시작되였다. 강사는 7년 전에 온 반공청년인 강석근씨가 문법을 맡고, 브라질 여선생 DONA(부인) NICE씨가 회화를 가르

치게 되였다. 오늘은 여선생과의 첫 시간이었고 월, 화, 금에는 문법文法시간을 갖이게 되였다. 영자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배울 수 있는 브라질어伯語 책을 번역도 하고, 장차 한국에서 강의도 하고, 백한사전伯韓辭典도 만든다고 큰 꿈을 갖이고 있다.

### 106. 1963년 8월 11일 일 맑음

기다리던 한충교韓忠敎씨 가족이 화란선和蘭船으로 SANTOS에 도착하게 된다. 2개년만의 상봉相逢, 얼마나 기뻤으랴. GUARAREMA 아리랑 농장에 들어갈 것이다. 어서 다른 가족들도 오게 되여야 하겠다.

### 107. 1963년 8월 15일 목 맑음

뜻깊은 해방解放의 날, 수만리 이역에서 많은 교포들이 몽인 가운데 축하식이 우리 교민회사무실事務室에서 있었다. 새로 한국에서 입국한 2인과 일본에서 온 분 또 미국에서 시찰視察차次 온 두 분도 다 참석하였다. 식후에는 대사관에서 보내준 음식으로 축배를 들었다.

### 108. 1963년 8월 19일 월 맑음

오늘부터 영자, 홍일, 또 박응호씨는 MADRESA라는 단기短期 중, 고학원學院에 나가게 되였다. 이 학원은 외국에서 온 학생이나 또는 이 나라 사람들이 공부가 늦어진 사람들이 중, 고등 졸업 자격증을 얻기 위하여 시험을 치루기 위하여 공부하는 곳인데, 온지 얼마 되지도 않고 말도 모르니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 109. 1963년 8월 23일 금

MADRESA 즉 말하자면 속성 중, 고등학원과 같은 곳에 다니는 우리 큰 애들은 선생이 말하는 말조차 알 수 없다고 한다. 그간 집에서 브라질어伯語를 초보初步는 배웠다 해도 어려울 것이다. 영어도 아니고 생판 다른 말이니. 그러나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이기에 모든 면에 조심해진다고 한다. 이 나라 중학은 4년이고 고등과는 3년이다. 그것을 말도 모르는 주제에 1, 2년에 다 해치우려니 어려울 일이다.

### 110. 1963년 8월 24일 토 흐림

독신부대 즉 혼자 오신 분들이 그간 외로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족이 올 수 있다는 소식에 모두들 기뻐하고 있다. 또 한국에서 4명이 입국入國하였다. 자꾸 오고 가고 하여 한국이 더욱 가까워

지는 느낌이 든다. 아모쪼록 우리 동포가 많이 와서 이 나라에서의 많은 활약活躍이 있기를 기다리며 어서 속히 제2의 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111. 1963년 9월 2일 월 맑음

영자가 오늘부터 우인友人 NASSAL씨 고무스립퍼 공장에서 일하게 되였다. 아버지께서 이곳 의사면허 갱신을 얻을 때까지 온 집안이 다 같이 일하기로 했다. 한국에서부터 각오를 하고 왔지만 본인本人 역시 서글퍼하는 것 같고. 부모 또한 애처롭다. 말을 모르니 사무도 볼 수 없고 제일 쉬운 일로 플라스틱 봉다리에 다 만든 "스립퍼"를 넣고 쇠조막으로 봉다리를 열리지 않게 찍어내는 일이라는데도 종일 서서 있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고 손끝이 상한 것을 보니 부모의 마음 아프다.

### 112. 1963년 9월 7일 토 맑음

비가 오지 않아 몹씨 더웁다. 저녁 7시부터 시내 교민회사무실에서 고국을 떠난 지 처음으로 한국영화 "두고 온 산하"를 볼 수 있었다. 영화를 평하기 전에 그저 내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스크린을 보니 반갑고 기쁘다. 앞으로도 좋은 영화를 종종 상영해주기로 하였다. 오래간만에 한국 신문도 많이 보았고. 다만 우리나라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 113. 1963년 9월 17일 화 맑음

어제 약간의 "비"가 뿌리더니 바람이 불고 쌀쌀하다. 오늘 오후 한국 시간으로는 18일 브라질 제2이민단이 출발하게 될 것이다. 그간 많은 애들을 쓴 보람 있어 이곳에 먼저 온 세대주들이 초청한 가족들이 오게 된 것이다. 호래비부대라는 별명別名으로 처량하던 그들은 모두 싱글벙글하며 교민회사무실 안은 기쁜 얼굴들만이 들락거린다. 다들 가족들이 오기 전에 있을 집들을 마련하기에 바쁜 모양이다. 우리가 고국을 떠나던 때가 회상回想된다. 굉장히 바쁜 출발이었다. 아무쪼록 무사한 여행이기를…….

### 114. 1963년 9월 20일 금 맑음

뜻밖에도 "18일 성모병원聖母病院에서 부친父親 별세"라는 전보電報를 받았다. 맥이 탁 풀린다. 얼마나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으랴. 좀 더 살아 계셨드라면 브라질에 모셔다가 그 좋와하시는 우리의 이상적理想的인 농원農園을 경영하시게 하려든 것을. 이렇게 돌아가셨으니 원통하다. 영자는 몇일 못가서

NASSAL씨의 고무공장에서 일하기를 그만두었다.

### 115. 1963년 9월 24일 화 흐림

변변한 비가 오지를 않아 40년래來의 가뭄으로 야단들이다. 농업에는 물론 식수食水, 전기電氣까지도 걱정이다. 이 나라는 자資원은 많으나 그리고 큰 하천도 많으나 아직도 개발 도중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은가보다.

우리 가족 중 만 16세 이상의 영주권이 다 되였다. 대서소代書所에 신청한지 10일만에 다 되였다. 처음에 본인이 외국인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찍고 싸인을 하고 양쪽 손끝 전체全體의 지문指紋을 찍고 오면 고만이다. 인제 영주권이 나왔으니 이 나라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외국에도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민을 초청할 수도 있게 되였다.

### 116. 1963년 10월 1일 화 흐림

기다리던 비가 2, 3일 전에 조곰 온 후는 매일같이 비를 재촉하는지 흐린 날이 계속된다. 오래간만에 "아리랑"농장에서 큰아버지가 나오셨다. 겨우내 "봄바-"로 물을 주고 가꾼 첫 수확인 "캬베쓰"를 손에 만져보니 참 신기했다. 요새 농사철을 만나 대단히 바쁘다고 한다. BOMBA가 없는 농가에서는 하늘만 쳐다보고 비를 기다린다는데 왜 이다지도 비는 오기 싫은 모양인지 좀체로 시원스럽게 오지 않는다. 무우, 배추, 특히 한국 "고추"는 잘 자라고 있다 한다.

이곳 고추는 큰大 고추는 너무 맵지 않고 작은 고추는 너무 맵고 작아서 가루를 만들기가 어렵다. 우리 한국 고추만 잘 생산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잘 먹을 것이다.

### 117. 1963년 10월 3일 수 흐림

뜰에 시험 삼아 심었던 마늘이 크지는 않으나 잘 여물었기에 뽑았다. 그냥 먹기에는 아까워 장아찌를 담기로 했다. 이렇게 잘되는 마늘을 왜 "아르제친"에서 수입해오는지 모르겠다.

× ×

근처에 있는 구두방에 구두를 서너 켤레 수修선을 하러 가지고 갔다. 한국 구두가 가죽이 좋은 것이라 한다. 더욱이 구두 밑창은 참 좋다면서 BON, BON[74]한다. 한국 것을 좋다고 하니 기분이 좋다. 아마 양복지洋服地[75]와 구두는 우리 한국 것이 좋은가보다.

74) "좋다."라는 뜻이다.

75) 양복감.

× ×

오늘이 추석이라고 한다. 송편 떡을 찌는 솔 냄새가 풍겨오는 것 같다. 오전인 지금 한국은 밤이라 지금쯤 달구경들을 할 것이다. 이곳은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나마 고국에서도 같이 쳐다볼 "달"마저도 보지 못하게 되였으니,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돌아가셨는데 성묘省墓도 못하고 쓸쓸하다.

## 118. 1963년 10월 12일 토 맑음

아리랑 농장에 갔다. 무성하던 풀들이 말끔히 손질이 되여 길을 잘못 들었나 하고 망설일 정도로 달라져 있다. 한춘교씨 가족이 입주한지 두 달이 되여오는 곳으로 갔다. 모두 새 집을 지으러 들 나간 모양인지 아무도 없다. 도라서려고 하는데 집을 짓고 있는 아들에게 점심밥을 갖다주고 돌아오는 부인과 딸을 만났다. 다시 되돌아서 방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희망에 찬 즐거운 가족의 분위기를 알 수 있었다. 지금 한씨의 두 아들은 그간 한국에서 10여 년간 배워온 모-든 지식을 살려 실지로 체험하고 있으며 닦아온 늠름한 몸으로 벽돌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부모는 물론 보는 사람마다 대견스럽고 멋이 있으며 흐뭇한 만족滿足감과 기쁨을 느낀다.

다음은 고광순씨와 장상식씨가 같이 경영하는 농장에 갔다. 길가에 우거졌던 풀숲이 불태워져 있었고 한국인으로서는 제일 처음으로 봄바-를 사서 물을 주어 시험 삼아 길러낸 "카베스" Repolho는 싱싱하였고 이태리 "호박"도 많이 달리고 또 나무가지를 세운 "오이"도 달리기 시작하여 마수로 따준 풋오이를 나는 서벅서벅 베어 물었다. 1년 4시절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사계절四季節이 있고 요새가 봄이라 채소가 가장 적게 나오는 때에 또 서리와 40년래來의 가뭄으로 곤란한 이 때에 막 데기를 세운 영양榮養 좋은 "도마도"를 보니 나의 일처럼 마음이 흐뭇했다. 내일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첫 수확물을 팔게 되였다. 머지않아 "도마도"도 한 목 볼 것이다.

한국 고추와 호박, 카베쓰를 선사받고 서재옥씨 댁으로 갔다. 시골에는 좀 과남한[76] 문화주택의 흰 벽이 어스름 황혼에 뚜렸이 나타나 보인다. 녹크를 했다. 애, 어른들이 반가히 맞아준다. "갈비찜"에 동치미로 저녁을 잘 먹고 나니 안계승씨 내외와 큰아버지 고광순씨가 왔다. 여러 가지 시골 이야기와 도회지都會地의 이야기가 교환되고 쌍파울로는 생활비生活費가 많이 들고 살기가 힘들다고 했더니 안安씨 부인 말이 시골서 살고 있으니가 아모 걱정 없고 살이 찐다고. 그리고 이 나라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세금稅金이 통 없으니 좋고 거기다가 수도세水道稅, 전기세電氣稅 걱정 없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인분人糞을 절대로 비료로 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한국서 같으면 인분을 치울 걱정을 해야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도시는 물론 아리랑 농장에서도 새집에는 전부 구식이나마 수세식水洗式으로 되여있기 때문에 편리

76) 과람하다. 분수에 넘치는 데가 있다는 뜻이다.

하다. 여러 가지 쌓이고 쌓인 이야기에 밤 가는 줄도 모르고 늦게야 헤여졌다.

### 119. 1963년 10월 13일 일 맑음

아침에 일어나 선선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서徐씨 댁 집 뒤에 심어놓은 복숭아 묘목苗木을 보았다. 호박, 옥수수도 심어 있었다. 서徐씨는 허약한 부인과 어린 딸들을 데리고 혼자서는 채소를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과수하는 데 필요한 "계분"을 얻기(비료로) 위해서 우선 양계를 할 예정으로 계사를 지을 생각이라 하며 혼자서 그 터를 닦고 있는 중이라 한다.

의사이며 치과의사인(옛날) 아버지는 서徐씨 댁 아이들과 장씨 부인, 안安씨 댁 아이들의 "이"를 뽑아주고 그리고 갖이고 온 "회충약蛔蟲藥"을 나누어 주었다. 아직 이주한지 얼마 안 되고 말도 잘 모르고하는 그들에게 우리 애들 아버지는 한국서부터 갖이고 온 회충약을 아리랑 농장 전원全員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것이다.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서徐씨 댁을 떠나 안安씨 댁으로 갔다.

안安씨 부인은 요새 비가 오지 않아 귀한 "배추"를 뽑아들고 우리 집에 가지고 가라 한다. 우리는 차도 없는데다가 아리랑농장의 차 대용품인 마차가 고장이 나서 약 10리쯤은 걸어야 하는데 김치를 담을 욕심으로는 가지고 가고 싶으나 사양했다.

다음은 한씨 댁의 새 집의 "기와"를 올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장만식씨 댁으로 갔다. 대궐같이 넓게 지은 집이었다. 벽돌로 지은 "부화장"이며 전에 보지 못하던 굉장히 길고 큰 계사가 또 완성 중에 있었다. 되지우리에서 일하던 장씨는 반가워한다. 시험 삼아 기른 병아리 500마리는 알을 낳기 시작하여 요새는 1일 90% 생산하여 재미가 나고 신기해서 법석들이다. 아바까시(파인애플), 복숭아, 호박, 수박, 한국참왜 등 심어져 있었다.

마침 놀러온 윤봉선씨, 이정수씨와 같이 코카콜라를 대접받으며 이야기했다. 요새 윤씨와 이씨는 제2이민선으로 올 가족들을 맞이할 집을 짓고 있으며 복숭아 묘목과 도마도 갖가지 채소를 심었다고 한다. 장씨 댁에서 선물로 싸준 "계란"을 선물로 받고 이번에 또 올 때에는 더 많은 발전을 하기를 빌며 작별作別했다.

### 120. 1963년 10월 17일 목 맑음

아버지께서는 지난달부터 이곳 자선병원慈善病院 성가聖家병원인 HOSPITAL SANTACASA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다. 한국에서 20년간의 경험을 쌓고 진실한 의미意味의 착실한 의사이지만 우선 말을 배우기 위해서 자선병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했다. 말도 모르니 갓 졸업한 젊은 의사들에게서의 아니꼬운 꼴을 참아가며 이 나라의 의사의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21. 1963년 10월 31일 목 맑음

오늘은 좋은 날이다. 한국에서 애들 고모부姑母夫가 밤 11시 50분 비행기飛行機로 도착했다. 박순씨와 함께. 밤새것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듣누라고 새벽 5시에야 눈을 붙쳤다.

× ×

우리는 그동안 많은 생각 끝에 또 진통 후에 의사와 가까운 직업職業이 약국藥局이라 하여 그 친구인 NASSAL씨의 도움으로 약국을 계약했다. 전액全額 7,000불이며 처음에 반액만 내고 나머지는 1년 동안에 나누어서 지불하게 된다.

### 122. 1963년 11월 2일 흐림

우리나라 천주교에서나 이 나라에서는 오늘이 죽은 모든 이의 영혼을 위하는 날 "추사이망追思已忘"이다. 즉 이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추석秋夕과 같은 날이다. 부모님을 위해서 연미사도 드리고 묘지에는 울긋불긋한 꽃다발을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

### 123. 1963년 11월 3일 맑음

오늘부터 민생문제民生問題?를 해결解決하기 위해서 그 첫 단계로 약국을 시작했다. 무無에서 시작했으니 운영이 어려울 것이며 첫째로 말이 통하지를 않으니 어떻게 될 것인지? 전 주인이 한 달 동안은 같이 보아주는 것이 브라질의 상례常例이라고 하니 조곰 마음이 놓인다.

### 124. 1963년 11월 12일 월 맑음

제2이민이 SANTOS항에 도착했다. 이번 배는 1, 2등실을 중심으로 한 배船이기 때문에 3등실은 형편없이 시설이 좋지 못했다고 하며 또 세대주들은 먼저 브라질에 와 있었고 부인과 애들만이 오게되여 인솔자는 모-든 면에 애로가 많았다고 한다.

먼저 와있던 아버지들은 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리오"까지 마중들을 나갔다고 한다.

### 125. 1963년 11월 20일

서울 농장의 소식을 들었다. 착한 사람들만이 몽여사는 그곳에 주께서 은총을 더욱 주셨는지 고생한 보람이 있어 이번에 육계肉鷄를 두 번째로 팔았다고 한다. 더구나 요새 브라질 육류肉類를 외국에 수출輸出함으로 값이 오른 이 때에, 닭 값과 계란 값이 비싼 이 때에 팔게 되였으니 서울농장은 덕을 본

게 된 것이다. 좋은 소식을 들으니 나 역시 기쁘고 흐뭇하다. 이번에 제2이민선으로 오는 김상진씨 가족도 서울농장에 들어가게 되면 인원 총수 30명이 될 것이다.

### 126. 1963년 11월 30일 토 맑음

오늘 시내 중앙지인 ALAMEDA BARAÕ DE LIMEIRA에 있는 우리 약국 뒤곁에 집으로 이사했다. 한 달 내내 VILA MARIANA에서 다니누라 힘이 들었다. 그래도 브라질에 와서 처음으로 살던 집, 들에 심었던 꽃들이 피기 시작했는데, 여러數 포기의 옥수수도 익어 가는데 떠나야 했다. 이웃집 브라질 부인은 눈물까지 글성거리면서 분홍빛 장미꽃 한 가지를 선사해 주었다.

종일 짐정리에 바뻤다. 더구나 약국은 공휴일에 번가라가며 당번當番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데 이사 오자마자 그 당번 PLANTAÕ이라 청소하랴 약을 팔랴 바쁘다. 인제 본격적本格的으로 가족 전원이 약국에 익숙해질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 아버지는 약국에 경험 있는 점원만 두면 다시 그 병원에 근무할 것이다.

### 127. 1963년 12월 1일 일 맑음

벌써 금년今年의 마지막 달이다. 12월 달이라 해도 날씨가 여름이라 더우니 연말의 기분이 안 난다. 종일終日 뙤약볕에 쪼이는 빨래터에서 졸졸 나오는 물에 빨래를 할랴면 신경질이 난다. 아주 오래된 집이다. 모든 것이 불편하다. 틈틈히 약국에도 나가본다. 말이 통하지가 않아서 답답하다. 저녁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주州통령領(주지사州知事)관官서 옆에 있는 큰 성당 CORACAÕ jesus에 가보았다. 가는 도중 학교가 많았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기가 좋겠다.

그 큰 성당에서 경영하는 학교가 얼마나 큰지(국민학교에부터 대학까지) 어마어마했다. 또 우리 약국 주위周圍는 은행도 많고 자동차 판매점販賣店도 많고 하여 멋있는 차 구경을 실컷 하게 되여 아이들은 좋와한다. 빵집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다.

영자는 약국의 환경정리를 잘한다. 우리 한국 인형도 여기저기 장식하고 KOREA 선전宣傳도 많이 한다.

### 128. 1963년 12월 10일 화 맑음

더운 날이 계속된다. 약국의 온도계溫度計는 30도 내외로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한 "소나기"만 하면 저녁에는 선선해진다. 인제 약국에도 훨씬 익숙해졌다. 하도 외국인들이 모인 곳이라 벼라별 인종들이 제멋대로 배운 브라질어로 지껴려대니 무슨 약을 찾는지 알 수가 없어 멍하니 서있기가 일쑤고,

있는 약도 몰라서 못 파는 수가 많다.

오늘 홍준이는 학년말 시험을 치루고 왔다. 이제 발음 등 브라질어伯語의 초보는 국민학교 1학년에서 다 배운 셈이다. 이 나라 역사는 언니들보다도 제대로 배운 꼬마가 곧잘 브라질말로 줄줄 외운다.

### 129. 1963년 12월 13일 금 맑음

홍준이와 홍철이는 평균平均 91점으로 1학년을 맞쳤다. 인제부터 방학이라 한다. 그동안 새 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단단이 하여야 한다.

### 130. 1963년 12월 14일 토 흐림

날씨가 흐려 선선한 여름날이다. 요새 시내는 인파, 차파車波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한다. NATAL(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게마다 물건과 사람이 꽉 차있다. 벌써부터 선물꾸러미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아직 약국을 호화롭게 꾸미지는 못하고 깨끗이 청소만 자주하고 구석구석마다 머리를 잘 써서 진열한다. 더운 여름날에 눈 나리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면서…….

### 131. 1963년 12월 15일 일 맑음

아리랑 농장에 갔다.

서재옥씨 댁은 우선 창고倉庫를 짓는 중이었고 한국 풋고추가 파랗게 물이 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수數 4포기의 만조까(이곳 원주민들의 식료품)와 수백 포기의 호박은 벌써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다. 장상식씨와 고광순씨 댁도 식구가 총동원하여 사람 키보다도 훨씬 자라 10단이 넘는 도마도 잎사이로 "도마도"를 따고 있었다. 또 한편에서는 "트럭터-"로 풀이 자란 땅을 다시 갈고 있었다. 안씨 댁은 온 가족이 성당에 (성탄 축일을 앞두고) 미사 참례하러가고 없었고 빨갛고 굵은 한국 종자 고추만이 벽에 걸려 있었다. 안씨 댁도 농장에는 "도마도" 3,000본을 심어 벌써 4, 5단이 자라고 있었으며 바제콩도 잘 자라고 있었다. 장만식씨 댁에서는 이번에 제2차로 오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니, 그분들이 한국을 떠나던 날 돌아가신 저의 시아버님 생각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우리는 그 댁에서 가꾼 브라질 땅에서의 첫 수확인 아리랑 농장의 한국 씨앗의 노랑 나이롱 "참외"를 먹어보니 신기하고 참 맛이 있었다. 조중환씨 댁의 넓고 깨끗한 집에서는 제2차로 온 동생을 맞이하여 우물을 다시 더 깊이 파고 있었으며 누이동생 정자양은 두부부침 냄새로 시장기를 더 한층 도꾸어 주었다. 우선 육계를 할 계획이라 한다.

한춘교씨 댁은 아들들이 손수 지은 집에서 단란하게 지내고 있었으며, 외딸인 영숙양은 우리를 위해서 커-피-를 끌여주었다. 한씨는 아들들이 큰 일꾼이라하며 특히 농업에 관심이 많은 둘째아들 형석군은 수걱수걱 고추밭에서 말없이 일을 하고 있었다. 호박 수천 포기, 바제콩 74본本을 심어놓고 있었다. 다음은 200꼰트를 들였다는 벽돌집에서 제2차로 온 부인께서 손수 부군夫君님의 이발을 하고 있었으며 어린 두 딸들을 쓰다듬어주고 있었다. 이씨도 우선 육계를 할 계획이라 했다.

다음에는 집에 하얀 칠을 하여 더욱 산듯해보이는 윤봉선씨 댁에서는 이 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구라지오라스[77]" 꽃을 많이 심어져 있었으며 목초牧草를 심고 우선 "소" 한 마리를 길러보겠다고 했다. 제2차로 온 부인과 아들딸들은 오늘 쉬는 날을 이용해서 친선차로 동리 집을 방문 중에 있었고 한국 인형과 자개 화병이 그릇이 가득 찬 찬장, 높은 곳에 장식되여 있었다.

큰 동리 세대주들은 모두 모여앉아 개미떼들이 모여드는 이야기며, 시장이 서는 과정課程이며 토지를 잡히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수 시간동안 이야기 했다.

돌아올 때에 바라다보니 한씨 댁에서는 식구 총동원하여 콩밭에 뽐뿌로(봄바-) 물을 주고 있었다. 서씨 댁에서 오래간만에 만두와 불고기로 저녁을 먹고 앞으로의 계획을 여러 가지로 토론했다.

### 132. 1963년 12월 18일 수 맑음

우리가 부산항을 떠나던 것이 어느덧 1년이 되였다. 뻰드의 아리랑 연주에 눈물을 흘리며 얼룩진 고국의 산천을 이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 133. 1963년 12월 25일 수 맑음

꽤 쌀쌀한 남반구의 크리스마스다. 수일 전부터 날씨가 흐려 저녁이면 오-바-까지 등장하는 요사이 이곳 여름철의 일기다. 추운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기분을 맛보이려는지, 아니 우리가 한국의 추위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약국은 당번이어서 종일 약국에서 성탄을 지냈다. 고국의 크리스마스의 찬 눈을 회상하면서…….

### 134. 1963년 12월 27일 금 맑음

여전히 바쁜 하루를 지내고 나니 박선관씨에게서 빨리 나오라는 호출전화電話가 왔다. 그간 박씨 부인의 간단한 수술치료와 또 김해곤씨 부인의 폐렴肺炎 치료를 한 사례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사실은 그들 3세대는(김명익 전 대위) 400km 지점에 있는 PARANA주의 SANTANA의 ITARANA에 땅 70

77) 글라디올러스 꽃. 일본 발음으로 그라지오라스라고 한다.

알켈을 사고 제2차로 온 가족들을 맞이하여 시내 쌘푸란시스코 호텔에 묵으며 심신心身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출발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송별인사 차 온 처음으로 뵈온 제2차로 온 홍관순씨 부인과 딸과 김명익씨 부인과 인사를 나누고 출발에 앞서 보건保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의相議하고 약품藥品을 구비具備하기로 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만리반점萬里飯店 중국식당中國食堂에서 새우튀김과 닭요리, 돼지고기 등으로 대접을 받고 장래의 포부를 들었다. 내일 아침 짐을 실은 트럭을 따라 김해곤씨와 김명익씨가 추럭으로 떠나고 박선관씨는 3가족을 인솔하고 뻐스로 출발한다고 한다.

그리고 70알켈을 산 원대한 포부는 우선 집들을 짓고 야채는 심어먹고 토지를 잡히고 양계를 ___ 만마리는 할 예정이고 토지를 잡히고 융자를 받으면 과수 복숭아, 비와 등등 심을 것이고 차는 10년 후에 사겠다고 하였다. 희망과 포부에 넘치는 이들에게 아무쪼록 소원성취所願成就하기를 바라고, 귀엽고 아모 고생 모르고 자란 희멀건 아들딸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빌면서 헤여졌다.

### 135. 1963년 12월 31일

한산한 섣달 그믐날이다. 가게 문들을 일찍 닫고 오늘밤에 지낼 가족파-티- 준비들을 한다고 한다. 다만 시외 뻐-스정류장인 RODOBIARIA에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손님客들로 붐비고 있었다. 서울역驛을 연상케 한다.

우리도 밤에 조촐한 가정파-티-를 열고 금년과 작별하고 있다. 탕 터지는 샴펭으로 기분을 돋구고 외국에서의 불안과 곤란을 앞두고 자칫하면 우울해지는 마음을 달래며 40년 간 지내온 고국의 은은한 제야除夜의 종소리를 추억하며 일제히 울려오는 싸이렌과 탕탕 튀기는 불꽃노리의 소리와 더부러 이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다. 고국의 백설을 눈 그리며…….

#3

# 1964

## 1. 1964년 1월 1일 수 흐림

보슬비마저 내리는 무더운 새해의 아침. 온 가족이 함께 PURIMO(사촌) 형(애들 큰아버지) 고광순씨 댁에 갔다. (그 댁은 제2차로 온 가족을 맞이하여) 가는 도중 고국을 수만리 떨어진 이곳 어떤 골목에서 혹씨 색동저고리가 뛰어나오지나 않나하고 엉뚱한 기대期待를 가져보기도 했다. 형님 댁에 도착하여 서로 악수로 새해의 인사들을 하고 법석을 했다. 오래간만에 한국 기분을 내서 손수 만든 두부로 만두도 빗고 또 순두부도 뜨고 잡채와, 또 젓국을 넣고 맛이 있게 담근 김치로 포식을 하고 난 후 몽여앉아 화투목으로 "섰다"를 하며 집안이 떠나갈 듯이 한바탕 웃었다. 오래간만에 모-든 시름을 잊고 재미있는 하루였다. 새해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푼 가슴을 안고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 2. 1964년 1월 4일 토 맑음

이곳에 온지 40년이 되는 장승호씨 2세 미타 유키에三田雪枝양孃으로부터 그의 졸업파-티-에 초대를 받았다. 미타양은 그간 주간에는 직장서 일을 하고 양재洋裁, 조화 등등 틈틈히 배우고 있어 손재주가 여간 아니며 야간에는 고등과를 통학通學하여 이번에 우수優秀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여, 사정에 의해서 부모님은 참석치 못하니 부모 대신 참석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 온지도 얼마 되지 않고 그러한 자리에 나갈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었으나 딸과 같은 여학생의 마음을 상할가 염려스러워 옷도 변변치 않았으나 밤 11시에 시내 지정指定 장소에 도착했다. 넓은 홀 여기저기서 부부간이, 혹은 아들과 어머니, 아버지와 딸, 또 애인끼리 서로 즐겁게 춤을 추고 있었다. 미타양도 제2세이나 아직도 이런 장소에는 처음이라 한다. 뺀드에서 울려 나오는 곡은 템포가 빠른 것이어서 우리 노인老人측에는 맞지 않았다. 새벽 4시에는 졸업생들의 "월쓰[78]" 춤으로써 끝을 맺는다고 하나 우리는 가만 앉아 있으려니 너무나 잠이 와서 밤 1시에 돌아왔다. 이곳에서는 중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학년초, 학년말末에는 FESTA(파-티-)가 많이 있다.

78) 글라디올러스 꽃. 일본 발음으로 그라지오라스라고 함.

### 3. 1964년 1월 5일 일 맑음

오후 6시 반 오래간만에 중앙성당의 장엄한 "파이프" 올갠 연주를 들으면서 미사 참례를 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 교민회에서 나오는 일행을 만나 시내에서 9년 전에 온 반공청년 박정환朴正桓씨가 경영하는 중국식당인 남경반점南京飯店에서 그간 교민회 부회장으로 일하던 김윤문씨(전前 중령)와 김선회씨는 브라질의 이웃나라 "빠라과이"로 떠나게 되여 많은 교포들과 함께 송별회가 있었다. 빠라과이는 면적面積이 남한의 4배쯤 되며 흑인이 없고 백인이 많으며 인구는 도무지 180만 명밖에 없다고 하며, 시가는 깨끗하며 가로수도 미깡나무라고 한다. 앞으로 한국 농업이민 100세대를 곧 그곳 정부와 약속하고 돌아왔다 하며, 세대 당 약 10알켈은 사게 된다고 한다. 저녁 늦게 서로의 성공을 빌며 작별하다.

### 4. 1964년 1월 7일 화 맑음

새벽 7시 비행기로 고모부는(이성현李聖鉉) 김윤문씨와 같이 "빠라과이"로 떠났다. 나는 아리랑 농장에서의 첫 수확인 한국 고추씨를 빠라과이로 시집보냈다. 우리 고추씨가 좋은 땅을 만나 온 빠라과이를 뒤덮을 때 우리 한국이민의 자손子孫들이 많이 번성하기를 바라면서…….

### 5. 1964년 1월 12일 일 맑음

오후 1시 서울농장에서 제1차로 우리와 같이 온 최정순崔貞順양과 반공청년 손孫천기基의 결혼식結婚式이 있었다. 우리 이민 중 제1호 결혼식이다.

오늘 하필 우리 약국은 또 당번이어서 아버지와 영자는 할 수 없이 남았고 나는 홍일, 홍철이와 같이 반공청년 이봉엽씨의 차로 12시 반에 서울농장에 도착했다. 전에 우리가 다녀 온 후 수개월 동안에 어쩌면 그렇게도 많은 발전을 했는지 참말로 기뻤고 그만큼 만들기에 얼마나 피나는 고생들을 했으랴 싶었다. 서울농장은 지금 큰 계사와 작은 계사가 각각 한 세대에 둘 동棟씩 지었고 또 살림집까지 합치고보니 그럭저럭 건물이 열다섯 채요, 육계 수는 17,000마리가 여기저기서 터치는 예포禮砲소리에 놀라서 꼬꼬대며 와르르 이리저리 밀리고 하여 요란스러웠다. 예포에 이어 결혼식이 시작되였다 멀리 아리랑 농장에서 또 ITAQUERA에서 또 SAÕ PAULO에서 많이 모인 교포들 다 서로 악수로 인사를 나누었다.

없는 살림에 용케도 손수 만들은 식장式場은 훌륭했고 테-불 위에 놓인 빨강 다리아꽃은 오늘을 노래하는듯 더 한층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주례主禮 박순씨에 이어 신랑 손씨가 입장한 후 신부 최양은 양부養父인 안동엽씨의 부축을 받으며 흰 저고리에 분홍치마에 흰 다리아 꽃을 안고 입장하자, 모두 기립起立을 하고 박수로 오늘의 경사慶事를 축복했고 예물禮物 교환, 여러 내빈들의 축사祝詞가 있은 후 예포로 식이 끝난 후 기념촬영 후 돼지 잡고, 닭 잡고 잘 차린 갖가지의 한국 음식으로 배가 놀랄 정도로 즐겁게 식사를 하며 여흥으로 한바탕 웃음꽃을 피우고 뜻 깊은 날을 지냈다. 앞으로의 어려운 곤란을 이기고 기리 행복하기를 빌면서 저녁 해를 등지고 돌아왔다.

### 6. 1964년 1월 18일 토 맑음

동리에 서는 "장"에서 수박 중치 하나에 200원(4원)을 주고 또 포도 1kg에 160원(32원)을 주고 사왔다. 포도는 요새가 한창인 모양이다. 이곳 봄에 먼저 나오는 과일은 "비와[79]"인데 새금하고 달고 맛이 좋았고, "복숭아"는 좀 작고 냄새는 훌륭한데 우리나라 것보다 맛이 좀 싱겁다. 그 다음이 LARANJA 미깡종류가 나오고 포도가 나왔다. 사과는 알젠틴 사과이며, 향기는 좋으나 단단치가 않아, 바나나는 항상 있고 채소도 항상 많고 상추(둥근 것) 한 포기에 30원(6원)이었다.

### 7. 1964년 1월 24일 금 비

비가 온다.

약국 점원으로 15년간 경험 있는 브라질인 NELSON이 온 후 부터는 우리 약국은 활기活氣를 띠운 것 같다. 그는 아침 6시에 커-피- 한 잔을 하고 집을 나오고 점심은 가게에서 간단하게 사 먹고 밤 11시 반에 집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는다고 하니 얼마나 시장하랴고 했더니 부라질인들은 대개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습관이 되여서 괜찮다고 한다. 그래도 약국은 월급이 많으니 (50꼰트)(만원) 브라질인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얼마나 부지런이 일하고 있으며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틈틈히 그가 좋아하는 커-피-를 자주 끌여다 주곤 한다.

### 8. 1964년 1월 19일 일 맑음

우리 동선자이며 제2차로 온 가족과 함께 시내 아퍼-트에서 사는 전 해군海軍소령 권태영權泰榮씨를 찾아갔다. 마침 그곳 동리에서 서는 장에 갔다가 사이좋게 돌아오는 두 분을 길에서 만났다. 브라질에서는 장에 갈 때에는 꼭 어깨동무하고 다니며 무거운 짐이나 장바구니를 남자가 들기도 하고 끌고 다닌다.

79) 비파.

ELEVADOR(에레베-타-)를 타고 6층에 있는 방에 들어갔다. 귀엽고 깨끗하게 자란 두 딸과 인사를 하고 보니 집안이 잘 정돈되여 있으며 과거의 생활을 말해주듯이 좋은 식기食器가 담긴 찬장이 눈에 띄었다. 권씨는 과거의 해군 생활에서의 배운 기관機關 기술을 살려서 지금 어떤 개인이 경영하는 봄바-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인제는 작은 공장이라도 독립해서 경영할 생각이라고 했다.

우리 한국이민은 이렇게 각 개인이 모다 과거에 중류中流 이상으로 살아 온 사람들이며 각자가 생활해나갈 기술을 갖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문에 빨리 진출할 수 있으며 성공할 날이 빠를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맥주로서 몸과 마음을 확 풀어버리고 내일의 희망을 품고 돌아왔다.

## 9. 1964년 1월 24일 금 맑음

그간 브라질에서 문화교류에 많은 활活약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목진태씨와 부인 발레리나 황수연씨는 "리오"로 떠났다. 양兩씨는 주로 테레비죤으로 음악과 무용으로 한국을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부인 황여사는 MY FAIR LADY라는 무용단舞踊團에 시험을 치루고 수십 명 중에서 선발選拔되어 입단入團하고 RIO에서는 1년간 연속 공연했으며 SAÕ PAULO TEATRO PARMAUNT에서 작년 8월 6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연 중에 있으며 그 단체에서 그 늘씬한 체격과 멋있는 발레-가 인정을 받아 엄격한 TEST 후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3명이 선정選定되였으며, 브라질伯國 일류 무용인 등 42명으로 구성構成된 CARLOS MACHADO의 BRASILIAN MUSICAL SHOW단團이 조직되여 해외공연으로 초招빙당하게 된 것이다. 금년 1월 30일 멕시코로 향하야 2월 초부터 6주간 공연하고 미국으로 가서 LAS VEGAS, MIAMI, NEWYORK 등지에서 약 2개월, 그 다음 서인도제도西印度諸島 안에 있는 PORTO RICO[80]섬에서 1개월 이렇게 4개월 예정으로 떠난다고 한다. 그리고 부인을 미국으로 보내고 당분간 혼자 남을 목씨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드니 부인이 돌아오면 한국문화연구원韓國文化硏究院 같은 이름하에 한국 음악, 무용 등 교수, 소개하며 주로 TV를 통하여 우리 고유固有문화 등을 소개할 것이라 한다. 현재는 그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모든 것에 앞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빨리 소개할 수 있는 훌륭한 문화 부부가 재백하고 있는 것을 가장 다행多幸으로 생각하고 있다. 어서 우리의 생활이 안정이 되고 대를 이을 2세, 3세들이 많이 양성養成되기를 바란다.

## 10. 1964년 2월 9일 일 맑음

시내 중앙시장에서 식료품 상점을 내고 있는 홍관순씨 댁으로 찾아갔다. 홍씨는 문화사절단 케-스로 왔고 교민회 감사監事일뿐 아니라 명실名實 공共히 한발자국 먼저 이 나라에 온 사람으로써의 우리 후

80) 원문에는 [PUESTO RICS]라고 되어 있다.

진들의 모-든 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전에 이곳에 혼자 와서 농사에 종사했던 일이며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산 조언을 해주고 있다. 많은 고생 중에도 가족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불안 중에서도 우선 이 나라의 말을 배워야한다는 신념하에 가장 꾸준이 브라질말을 배웠으며, 그 당시 같이 온 사람들이 고국에서 잘 살던 생각만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가족도 없고 말도 모르고 하여 아모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때에 벌써 시장 남의 가게 한 구석에다 식료품 몇 가지를 놓고 장사를 시작하였던 것이 1년 지난 지금 제2차로 온 이민들을 맞이하여 사업事業은 번창하고 냉장고, 전축 사놓고 아모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고 있다. 더구나 부인이 온 후에는 여러 교포들에게 만두, 녹두부침, 송편 등으로 향수를 달래주고 있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는 그의 장녀 신애양은 내 고향 남쪽 바다-를 들려주었다. 마침 놀러 오신 이종만李鍾晩 박사博士는 제3차로 오는 가족이 지금쯤 모리샤스섬에 도착할 것이라고 하며 기뻐하고 있었다. 맛이 있게 차려 온 한국음식이며 냉장고에서 내온 시원한 포도며 감 등으로 저녁을 잘 먹었다. 오늘이 마침 사육제의 초일初日이라 아이들은 저마다 물총으로 물을 뿌리며 놀고 있었다.

### 11. 1964년 2월 13일 목 흐림

요새는 하루에 한 번씩 비가 온다.

새 학기를 앞두고 SAÕ PAULO에 있는 우리 부모들은 저마다 자녀들의 학교 입학 수속 때문에 걱정들이 많다. 사립학교에는 좀 쉽게 들어가게 되는 모양인데, 공립학교는 몹씨 까다롭다.(학비전무學費全無) 홍준이는 전 1학년 성적표(91점)를 내놓고 집 근처 주립학교에 2학년에 수속이 되였다. 앞으로 실력 여하에 따라서 3, 4학년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오후에만 나가서 일하던 브라질 병원에서 조수助手가 아닌 당당한 의사로써 첫 수술을(탈장脫腸) 하였다. 한국에서 20년간이나 의사로 있던 사람이 말 한 가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수술을 하나 허락받을 때까지의 많은 수모와 아니꼬운 꼴,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참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아버지의 그 수술하는 솜씨를 본 후에는 인제 언제든지 와서 무슨 수술이던지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앞으로 남은 것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하루 속히 이곳의 의사 면허를 갱신하는 것이다.

### 12. 1964년 2월 15일 토 흐림

전 이민협회 상무常務로 있었고 우리 제1차 이민을 인솔하고 도백渡伯했던 박동렬朴東烈(전前 대령)씨가 집에 왔다. 그는 이번에 떠난 제3차 이민의 선발대원先發隊員으로써 또 책임자로 왔으며 쌍파울로에서 약 1,000km 북쪽인 ESPIRITO SANTO주 수도 빅토리아시 근처에 280알켈(206,000평)을 산 제3차

이민들이(68세대, 세대주만) 오기 전에 우선 합숙할 집 2동棟을 짓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주가 준 말한 필과 찝차 한 대로 넓은 광야를 달리며 일하고 있다고 하며, 얼굴은 건강색으로 알맞게 타 있고 손과 발목은 모기에게 물린 자죽[81]이 있었다. 그리고 제3차의 가족, 제4차 이민이 올 때까지는 68동棟의 집들과 학교, 성당, 병원, 매점 등을 짓게 된다고 한다. "리오"의 대사관과 자주 연락을 취하면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 아모쪼록 이번 이민은 실패하지를 말기를 바랄 뿐이다. 즉 진짜로 농업이민으로써 농토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란다.

### 13. 1964년 2월 16일 일

PARAGUAI에 갔던 고모부 이성현씨와 김윤문씨가 돌아왔다. 땅 1,500알켈을 사고 이민 100세대를 계약 받고 왔다 한다. 기후는 이곳보다 덥고 거리는 깨끗하고 조용하며 수도首都 ASUNSION은 인구가 30만이며 대전大田시만 하다고 하며 외국인이 많으며 집단농장集團農場을 경영하고 있다 한다. 주로 목장이 많기 때문에 고기값은 싸나 야채나 계란 등은 굉장이 비싸며 생활비는 이곳의 배倍는 더 든다고 한다. 이민하기는 쉬운 모양이다. 2, 3일 후에 한국에 나가게 된다고 한다. 이민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쉽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려는지?

그간 가뭄으로 인하여 옥수수가 타죽어 사료飼料 값은 오르고 닭 값은 반값으론 내려 한 때 양계 붐으로 너도나도 기르던 것이 요새는 폐계廢鷄로써 야단들이다. 닭으로 생계生計를 이어가는 서울농장이 걱정이다.

### 14. 1964년 3월 1일 일 맑음

맑게 개인 날 소풍이라도 하고 싶은 청명淸明한 날이었다.

우리 재백在伯교민들은 가족 동반하여 시내 교민회 앞에 몽였다. 뻐스 1대를 대절貸切하여 서울농장으로 향했다. 태국에서 입국한 가족을 처음 만났다. 홍관순씨 부인은 나일롱 분홍 저고리에 하늘색 치마를 입고 와서 인기였으며 우리는 더욱 명랑한 기분이었다. 근 백 명이 한 뻐-스 안에서 제1차, 제2차, 서로 간의 인사와 반갑게 쌓인 이야기들을 했다. 서울농장에서는 인절미도 만들고 국수도 삶어내며 바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 정오 12시, 박동진 대사님과 여러 대사관 직원들 참석 하에 제 46회 3 · 1절 기념식을 거행擧行하였다. 국기國旗에 대한 경례敬禮에 이어 우리 영자의 아코데온에 맞추어 애국가와 3 · 1절 노래를 봉창하고 회장 기둥에 세워놓은 "3 · 1정신 이어 받아 재백在伯교민 합심合心하자"라는 푸랑카-드를 바라보며 박대사님의 기념사記念辭를 들었다. 그리고 오늘의 화제話題꺼리였던 표창이 있었다. 농업이민으로서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남의 토양이 된 서울농장의 김중혁씨와 아리랑농

81) 자국의 방언.

장의 서재옥씨에게 감사장感謝狀이 수여授與할 때에는 박수拍手소리가 떠나갈듯이 요란했다. 특히 참석치 못한 서씨 대신으로 마침 시내에서 우리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의 딸 연희가 감사장을 받을 때에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여기저기서 후랫슈를 터뜨렸다. 다음은 우리 교포들에게 무보無報수로 부라질어를 가르치고 있는 NICE 여사에게 우리나라의 고전 무용을 추고 있는 여인을 새긴 자개 벽거리를 선사한 후 즐거운 마음으로 큰 잔치가 베풀어졌다.

### 15. 1964년 3월 2일 월 맑음

홍철이는 근처의 사립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다. 어학語學이 부족하여 역사, 지리, 국어 시간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모험을 시켜보는 셈이다.

### 16. 1964년 3월 5일 목 맑음

제3차 이민선이 오늘 "리오"에 도착하는 날이다. 여러 교포들이 리오로 마중을 갔다. 이번 이민은 세대주로만 68명이 도착 후, 뻐스로 목적지인 여기서 300km 떨어져있는 ESPRITO SANTO주의 FONENOVO항으로 직행直行할 것이라 한다. 아무쪼록 그들에게 인내와 확고確固한 신념信念을 주소서…….

### 17. 1964년 3월 8일 일 맑음

오늘 브라질 신문에 의하면 2, 3일 전에 온 비는 인공적으로 내리게 한 비라 한다. 일전에도 상파울로를 중심으로 인공人工비가 많이 쏟아졌는데 이번이 제3차의 시험비라 하며 경비도 그리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손쉽게 비를 오게 하였다고 하니 장차 가뭄으로 인한 농업의 지장은 없어질 것이 아닌가? 어쩐지 이상한 생각이 든다. 나의 단순한 머리로서는 세상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

### 18. 1964년 3월 11일 수

PARANA주로 들어간 3세대는 그때가 마침 방학 중이어서 비어있는 토지 근처 국민학교 교실에 들어있다가 새집을 짓고 요새 이사를 했다 하며 지금 양계를 할 예정으로 병아리 1,200마리首씩을 주문하고 계사를 짓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그 중 박선관씨는 큰 아들을(휘문중2 재학 중에 온)을 SAÕ PAULO에 데리고 나와 어떤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입학시키고 다시 농장으로 들어가고 김해곤씨는 부인의 병이 심해져서 역시 이곳 시내에 아파트를 얻고 정양 중이며, 아이들도 전부 데리고 나와 시

내 학교에 보내고 있다. 그리고 태국을 거쳐 입국한(제3이민으로)그의 처제는 부인의 시중을 들게 하고 처남妻男 2명은 오늘 저녁에 새로운 포부를 안고 PARANA 농장에 들어갔다.

### 19. 1964년 3월 11일 수 맑음

가을이라고 하는데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부터 홍일이는 그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카톨릭계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딸아갈 수 있을지가 문제다. Portugues 시간에 선생이 너무 빨리 불러주어서 받아쓰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이 곳에 온지 1년바께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며 한 시간 내내 옆에서 잘 지도해주드라고 한다. 외국인으로서 온지 1년 만에 고등과高等科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며 모험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직 안정되지 못한 생활 중에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공부하는 학생이나 학비를 대주는 부모 역시 어려운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길 수 있을지?

### 20. 1964년 3월 15일 일 맑음

큰아버지께서 BAR(우유, 카페-, 담배, 빵, 음료수, 식료품)을 사고 이사한 곳으로 갔다. 중심지에서 뻐-스로 40분이나 가는 새로운 주택지였다. 바로 앞에 브라질인의 큰 BAR가 있었으나 웬일인지 그곳은 한산하고 유달리 JAPONES로 통하는 동양인의 가게는 종일 손님이 끈어질 새가 없다 한다. 아직 이사 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정리도 잘 되지 않아 가게 안은 엉성했다.

Coracão jesus cristo 성당에서 미사 후에 본당 신부를 만나려고 사무실에 갔으나 말이 통하지를 않아 일본 신부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였드니 한참 만에 나오신 외국 신부님과 일본말을 하다 보니 마침 한국에 계시다가 이곳에 도착한 살레시오회 알젠틴 신부라 하며 한국말도 잘 하신다. 어찌나 기쁜지 이런 것이 하늘이 도운 것인가 참 우연이도 말이 통하는 신부님을 만나 제1차 이민의 이야기며 바쁜 중에 한국을 떠날 때에 노盧대주교님의 싸인을 받은 것으로 교적보 대신이라 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약국에도 안내하고 환담했다. 그의 말이 브라질은 가톨릭 국가이니 만큼 교우가 많고 신부 수는 적어 냉담자冷淡者가 많으니 말은 몰라도 본당本堂 신부님 찾아가서 자주 성사를 보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번에 이곳에 오셔서 한국 카톨릭 이민을 위해서 여러 신부님들을 마나서 좋은 땅을 많이 기부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하여튼 반갑고 기뻤다.

### 21. 1964년 3월 18일 수 맑음

선선한 가을 날씨다. 한닢 두잎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 한국 생각이 나고 따뜻한 온돌방溫突房이 그리워진다. 아리랑 농장에서는 자금 부족과 인력人力 부족으로 생각다 못해 시내로 나온 이정수씨와 장상

식씨는 한 아퍼-트를 갖이 빌리고 새벽 도매시장에서 브라질식 "불고기" 장사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정수씨는 한편 과일 도매도 해보았는데 추럭 1대만 있으며 생활에 걱정이 없을 것 같다고 한다.

× ×

또 아리랑 농장에 있던 장만식씨는 제2차로 온 부모님들에게 농장을 마끼고 시내로 나와 차 매매점賣買店에서 일을 하는 한편 한국적韓國的인 음식점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다. 또 수일 전에 일본인과 함께 이철희李哲熙씨, 차신모車信模씨, 또 김金소령은 음식점을 개업했다 한다. 나는 아직도 가보지 못했다.

× ×

학교에 들어간 지 한 달도 못 되여 아직 시험 문제조차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데 시험을 치루게 되여 홍일, 홍철 애를 쓰고 있으나 큰 걱정이다.

이곳 학교는 오전, 오후, 야간夜間으로 나누어 있어 공부만 잘 하면 한 사람이 두 학교는 다닐 수 있고 (영어, 음악, 기술 등) 또 직장에서 일하며 공부할 수 있다. 아무튼 평균 60점 혹은 50점 이상이면 진학할 수 있다고 한다. 경제經濟와 시간이 허락하면 얼마던지 일평생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나라이다.

### 22. 1964년 3월 21일 토 맑음

대사관의 윤참사와 제3이민을 인솔하고 온 한국보사부 직원 전田씨가 왔다. 내일 PARAGUAI 이민을 위해서 정부 대표로서 이민협정移民協定을 맺기 위해서 PARAGUAI로 떠난다고 한다. 동양인이 적어서 일본인과 한국인은 이민을 허락한다는 것이다.

### 23. 1964년 3월 25일 수 맑음

몹씨 더운 날이다. 홍철이를 생선을 사러 중앙시장 보냈다. 큰 명절名節을 앞두고 시장은 더 한 층 복잡했다하며 성주聖週간(부활절 전 주간週間)을 잘 지키는 가톨릭 국가답게 고기간은 전부 문이 닫치고 생선들만 사가기 때문에 겨우 칼치 중치 한 마리에 400원(80원)을 주고 사왔다고 한다.

부활절을 앞두고 내일부터 전교나 대개의 직장도 쉬게되므로 우리도 오래간만에 숨을 좀 돌리고 쉬게 되였다. 가게에는 큰 동물 모양을 한 "쬬코렛"을 많이 팔고 있다.

### 24. 1964년 3월 26일 목 맑음

(성당관계) 한국 박성종朴成鍾 신부가 오셨다. 6개월 만에 온 식구가 고해성사告解聖事를 보고 가든한 마음으로 다 같이 저녁미사(최후의 만晩찬, 발 싯는 예절 등)를 참례한 후 밤 10시에 저녁식사를 했다.

예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그 날 밤에 박신부님을 중심으로 같은 기분에 젖으면서…….

## 25. 1964년 4월 1일 수 가랑비

어수선한 날이었다. 하늘마저 흐리고 우울해지는 날이었다. 지금까지 여러 번 겪어온 것이 전쟁인데, 시내에 바리케-트를 치고 군인들이 늘어서있다는 말이 들려오는가 하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일찍 돌아오고 라듸오에서는 "자유인自由人들은 뭉치고 일어서라"고 외치고 나는 또 한 번 큰일을 치루는가 보다 했다. 그간 좌左경의 정치를 한다고 말성이 많던 "죤 고랄"대통령을 불신하는 가장 유력한 자유진영自由陣營의 6주통령(주지사)들과 군대와 합세하여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집 앞의 각 은행은 물론, 큰 가게들도 문을 닫고 각각 "라듸오"를 중심으로 긴장된 얼굴들이었다. 오후가 되니 또 라듸오에서는 GUANABARA주(수도가 있던 곳)에 있는 사람은 "쌍파울로의 집으로 돌아오라", 군의관軍醫官은 몽여라, 쌍파울로 공대생 200명이 주통령에게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협력하겠다는 멧-세지 등 시시각각時々刻々으로 긴장해간다.

드디어 저녁나절이 되니 대통령은 할 수 없다는 듯이 "리오"에서 수도 브라질리아로 사표辭表를 냈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잠시 후 우리 집 근처 주통령 청사 CAMPOS ELISEUS궁에서는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한 기쁨의 축포가 연달아 울려나왔다.

나는 저녁을 지으며 지난날의 고국의 정치인政治人들을 생각하며 과연 자유를 사랑하는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인 브라질이 모-든 면에 대륙적인 감을 느꼈다. 또 한 페-지의 멋있고도 산 역사를 엮고 해는 저물었다. 주여 이 나라를 보호하소서.

## 26. 1964년 4월 2일 목 흐림

집 앞에 있는 치과齒科에 이를 치료하러 갔다. 브라질인 의사는 젊은 사람이나 침착했고 진찰실도 자그마하고 깨끗했다. 카-드에 이름을 적고 이를 검사하더니 잠시 후 치료하기 시작했다. 마취 주사를 놓을 때도 아프지 않고 유닛트도 자동식自動式으로 되여 있어 타구는 수세식이요, 이를 갈 때에도 한편으로는 물이 나와서 저절로 씻게 되여 있었다. 한국 시골에서 치료해 본 나는 부라질이 어수룩하지 않고 이런 면에는 더 앞선 것 같았다.

× ×

(성당관계) 한국 가톨릭 이민관계로 입국한 박효원朴孝遠씨는 박성종 신부와 같이 찚차로 고일면[82]씨(여행자로 입국)와 브라질어를 잘 하는 안태경(소령)씨와 같이 PARANA주 CURITIBA 근처로 들어간다기에 비상약품非常藥品을 준비해주었다.

82) 『사상계』에선 고일명이라고 되어있다.

## 27. 1964년 4월 4일 토 흐림

여행자로 입국한(수개월 전에) 황새건씨[83]가 감기感氣가 들었다고 하며 목에 붕대를 감고 왔다. 황씨는 전기냉冷장고의 기술자로서 지금 이곳 어떤 스페인인이 경영하는 공장에 취직하고 있으며 냉장고와 에어코디숀[84]을 수리하고 있다 하며 한 달에 90꼰트를 받고 있다 한다.

## 28. 1964년 4월 5일 일 흐림

제1, 제2차로 가족이 몽인 김병한金秉씨는 그간 이곳에서 25km 지점에 있는 ITAQUERA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약 1주간 전에 서울농장 입구에 있는 전구電球공장에서 아들 5형제兄弟가 전부 취직을 하고 그 공장 근처로 이사를 했다 한다.

## 29. 1964년 4월 6일 월 맑음

브라질에 온 지 최고로 불쾌不快한 날이었다.

아침 일과日課를 마치고 주초週初의 상쾌한 기분으로 약국에 나가 앉아있었다. 아버지는 SANTACASA 병원에 나가시고 점원도 잠깐 나간 사이에 집 앞에 찦차가 멎더니 철모를 쓴 군인들과 별짜리가 들어왔다. 아마 전화라도 빌려서 쓰려는가 했더니 안으로 들어오면서 집을 좀 보여 달라고 하여 나는 깜짝 놀랐다. 군인 2명은 문 밖에서 지키고 또 한편으로는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아무 죄는 없지만 기분 나빴다. 밖에서는 무슨 큰 일이 난 줄 알고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었다. 챙피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외국인 신세를 한탄도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근일近日 "리오"에서 중국집에서 불온문서가 나왔으며 쌍파울로에서도 사상불순思想不順한 동양인東洋人들을 붓들어갔다 한다. 그래서 근래近來에 입국한 중국인, 한국인들은 또 더구나 우리 집과 같이 유별나게 출입出入이 많은 곳은 한 번씩 조사하게 되여있다 한다. 그러나 아모 연락도 없이 그런 법이 어듸 있느냐고 분개해보는 것이 안 된 말이지. 혁명 시時에 있어서 그러한 여유가 어디 있으랴고 짐작은 하지만 하여튼 종일 기분 좋지 못하고 맥이 탁 풀려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우리의 사정을 잘 아는 브라질인들은 밤늦게까지 찾아 와서 위로해주었다. 호구조사戶口調査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어수룩하다고 믿어오던 제2의 고국이 될 이 브라질의 꽉 째인 일면一面을 엿본 듯 싶어 한편 대견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

---

83) 『사상계』에선 황세건이라고 되어있다.

84) 에어컨디셔너. 에어컨.

## 30. 1964년 4월 10일 금 맑음

제3차 세대주들만이 온 ESPIRITO SANTO로 들어간 사람들 중 땅이 좋치 못하다고 하여 각각 다른 곳으로 정착할 곳을 찾으려 많이들 이곳으로 왔다고 한다. 물이 너무 많다, 모기가 많다, 개미가 많다고들 하는데 개미나 모기는 농촌 어느 곳이나 있는 것이며 전에 땅을 살 때에는 건조기라서 물이 없었다는데 지금은 우계雨季여서 그런지 물이 많아서 농사를 못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그곳 좋은 땅을 골라서 정착定着할 세대도 있다 한다.

× ×

그리고 제4차로 제3차의 가족들이 한국을 떠날 때에 백문규씨가 딸라 사건事件으로 인하야 떠나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에게 달린 20세대는 떠나기는 떠났으나 완전完全히 살 길이 막연하다고 한다. 지금의 농사는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농촌에서 도시로 나오는 이유가 전부 자금난으로 인한 것이 많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도 앞으로는 농업이민이라 해도 최소한 5,000불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민을 허락許諾하지 않는다고 신문에 수차數次 보도報道되였다.

## 31. 1964년 4월 12일 일 맑음

반공청년 김서국金瑞國씨가 장차將次 결혼할 사이인 제1차로 우리와 같이 온 MISS장張[85]과 같이 왔다. 김씨는 시내 큰 철물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기중기, 트럭터- 등 큰 쇠들을 만들어내는 곳이라 한다. 잠시 후 "잔디라"라는 곳에서 미국인 선교사宣敎師의 양자로써 그곳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입시 준비 중에 있다는 한국말을 가장 잘 못하는 반공청년 임창용씨와 CAMPINAS의 자동차 공장의 부속품의 밋숀의 제도사製圖士인 얌전한 반공청년 김중진씨와 같은 고장의 DUNROP 다이야 공장 검사실檢査室에서 근무하고 있는 역시 반공청년 최국주씨가 왔다.

## 32. 1964년 4월 18일 토 맑음

전기냉장고 기술자 황새건씨는 앞으로 들어올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이웃나라 PARAGUAI로 내일 떠나게 되였다.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같이하여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85) 『사상계』에선 장영자라고 되어있다.

## 33. 1964년 4월 19일 일 맑음

그간 천주교 이민관계로 PARANA주에 들어갔던 박효원遠씨 일행이 나왔다. PARANA주의 CURITIVA에서 140km 부근의 PONTA GROSSA시에서 12km지점에 있는 경사진 초원 일대를 한 세대에 4알켈씩 100세대분 샀다고 하며 시의 주교主敎와 본당 신부의 후원後援 하에 일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그들도 이곳 혁명 직후에 입주하였든 관계로 찚차채로 몽땅 낯서른 동양인으로서 군인들에게 불리워갔었다고 하며 그곳 본당신부의 증언證言으로 신분이 보장되였다고 한다. 박씨의 말은 이주 예정지에 대한 계획은 토지의 중앙에는 교회와 기타 공설公設시설을 하고 주위에 집을 짓고 그 후에 한국에 갈 것이라 한다.

지금 한국이민을 엄밀이 따진다면 1차 이민 후에 온 것은 그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이번이 제2차 이민이 입주한 셈인데, 1차는 들어갈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이번 2차는 땅이 나쁘다는 이유로. 여하튼 지금까지 완전한 집단농장을 경영하지 못했으니 한국 이민은 실패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때에 정신적精神的으로 합심하여 2, 3년간 집단농장을 경영할 천주교계 이민계획은 많은 관심을 몽으고 있다. 어려운 모-든 난관을 뚫고 얼마나한 성과를 걷을 수 있으려는지 기대된다. 그러나 지금부터 수속을 해도 앞으로 1년 후에나 이민이 될 것으로 본다.

## 34. 1964년 4월 21일 화 맑음

오늘은 TIRADENTES(이를 뽑는 사람이란 뜻) 날이라 하며 국정國定축일이다. TIRADENTES는 치과의사이며 본명은 JOAQIN JOSE DA SILVA XAVIER[86] 긴 이름이다.

그는 브라질 독립운동에 MINAS주州에서 혁명을 계획하다가 밀고密告로 체포逮捕되어 "리오"에서 1792년 4월 21일 교수형絞首刑에 처했다. 그의 최후의 말은 "자유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말을 남기고 처참하게도 사지四肢를 찢기우는 몸이 되였으나 나종에는 그것이 독립의 도화선導火線이 되였기 때문에 국경일國慶日로 정하고 오늘도 CASTELO BRANCO 신新대통령은 그의 고향을 방문하고 그의 동상 앞에 화花환을 기증할 것이라 한다.

× ×

4월 15일에 이곳에 도착했다는 홍규표(전前 대령)[87]이 찾아왔다. 3월 20일에 서울을 출발했다하며 국내의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

86) Joaquim José da Silva Xavier

87) 『사상계』에서는 홍국표라고 되어있다.

### 35. 1964년 4월 25일 토 맑음

그간 농장에서 나온 후 시장에서 많은 고생 중에 있던 이정수씨는 전에 농장에 있을 때에 주문했던 과수의 묘목을 사기로 한 일본인에게 대금代金을 받으러 22번째로 찾아갔던 중 어떤 브라질인을 만나 이야기가 진전되어 SANTOS로 가는 도중에 있는 SANTO AMARO라는 호수가 그의 별장 관리인으로 2, 3일 후에 가게될 것이라고 한다. 집도 주고 닭도 기르고 채소도 심어 먹게 될 것이고 MECANICA[88] 인 이씨는 그의 뽀-트는 물론이고 그곳 타인들의 엔진도 수리할 것이고 낚시터도 만들어 유遊흥객들에게 대여해줄 것이라 한다. 앞으로 꾸준한 노력으로 신용만 얻으면 이李씨도 탁 트인 앞길이 올 것이다.

### 36. 1964년 4월 27일 월 흐림

버섯농장에서 많은 경험을 얻고 난 후 시내 SUL BRASIL(남경南京)조합組合 계란부鷄卵部에서 일하고 있으며 착실着實한 청년으로 직장에서도 칭찬이 자자한 총각 윤명섭씨는 우리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다가 제2차로 온 6촌寸 동생(윤준)을 맞이하여 근처에 집을 얻고 이사를 했다.

### 37. 1964년 4월 30일 목 비

1차로 입국한 권태영씨는 가족을 맞이하여 시내 봄바-[89]공장에서 일을 하여오다가 많은 경험을 얻고 여기서 100km 지점인 깨끗한 도시 CAMPINAS시 중앙에 집을 얻고 봄바-수리공장을 신설新設하게 되여 오늘 이사를 했다. 인제 이곳에 온 지 1년이 지나고 보니 한 사람, 두 사람 자기 능력能力대로 자리를 잡게 되였다.

### 38. 1964년 5월 1일 금 흐림

추운 날이었다. 오래간만에 잠깐동안 아리랑농장에 갈 수 있었다. 그간 이동이 많이 있었다. 시내로 나온 장상식씨, 이정수씨, 윤봉선씨의 빈집들은 쓸쓸해보였다.

조중환씨는 조중철씨와 같이 4차로 오는 모친母親과 형을 맞이하기 위하여 온돌방을 꾸미기에 바뿐 중이었다. 장만식씨는 부모님께 농장을 맡끼고 시내에서 식당을 경영하려고 지금 내부 수리 중에 있으며, 휴일을 이용하여 다니러 들어온 딸들은 넓은 마당에서 뛰놀고 있었다. 서재옥씨는 봄-바 9마력짜리를 사고 클라지오라스 꽃 재배 5,000본本을 시작하여 지금 질서정연하게 곱게 자란 화원은 볼만 하였다. 한잎 두잎 피기 시작한 꽃들을 오늘 우선 200타-스를 짤라서 꽃시장으로 가지고 갔다하

88) 기계 기술자, 수리공을 말한다.

89) 펌프.

며 만나지는 못했으나 부인의 말에 의하면 내일부터 계속 짤라서 팔 것이라 한다. 꽃은 야채에 비해서 손이 많이 가지는 않으나, 그래도 다달이 계속 5,000본本씩 재배하려면 자본부족, 인력부족으로 도저히 혼자서는 어렵다고 한다. 나는  깨끗한 꽃밭에서 모든 시름을 잊고 꽃과 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잠시동안 꽃 속에 파묻혀 있었다.

안계승씨는 그간 농자금이 부족하여 많은 생각 끝에 시내에 취직을 하고 내일 이사를 한다고 한다. 홍洪씨(조중철씨 친척)는 땅 2알켈을 사고 후일 오는 가족을 맞이할 준비로 빈집을 수리 중에 있다고 한다.

## 39. 1964년 5월 3일 일 흐림

아버지는 작년에 우연히 중국 신부를 알게 되여 면회를 갔었는데, 그때 마침 각국인들이 모여서 반공회의反共會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한다. 아버지는 한국인으로서 반공회反共會에 들게 되었고 오늘은 반공 인원 중 루-마니아국의 독립일獨立日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 가족도 초청받았으나 또 약국의 당번이어서 아버지만이 각국의 국기를 앞세우고 모인 가운데 초라한 우리 국기를 들고 나가서 부끄러웠다 한다. 그러나 성당에서 미사도 지내고 또 루-마니아인들이 작만한 점심도 대접 받았다고 한다.

늦은 가을이라는데 종일 약국 안에서는 추워서 떨면서 지냈다.

## 40. 1964년 5월 4일 월 흐림

7개월 전에 PARANA주의 JAGUAPITÃ에 들어간 박응호(여행자로 온)씨가 왔다. 그는 1차로 온 이명李明제씨와 같이 자가용 비행기까지 있다는 큰 부호 브라질인 농장의 땅을 얻고 들어가 있는데, 그간 많은 경험을 얻었다고 하며, 인제야 겨우 농사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한다. 지금 양계를 하고 있으며 다시 들어가서는 채소를 심을 것이라고 한다. 또 그곳에 있는 역시 1차로 온 한용전씨는 트럭을 사서 큰 아들과 같이 CAFÉ도 날르고 쌀도 운송運送하여 생활에는 걱정이 없다고 한다.

## 41. 1964년 5월 10일 일 맑음

어머니날이다. 오래간만에 가족이 함께 영사기 3대로 일시에 스크린을 비춘다는 CINERAMA 영화관에 갔다. 이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미국 어떤 지방의 눈과 산들, 어떤 부락部落에서 벌어진 "아이스쇼-"를 보았을 때에는 정말로 마음마저 시원하고 통쾌하고 나도 같이 스케-팅 하는 기분이었다. 또 어떤 누렇게 단풍진 가을철의 학교 교정을 볼 수 있었고 고색이 창연한 파리의 거리를 거닐어보기도

하고 영화의 인물과 함께 앉아서 여러 곳을 구경할 수 있었다. 우리 아이들에게 스크린을 통해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리라 믿는다.

### 42. 1964년 5월 11일 월 맑음

여태껏 많은 신세를 진 LEBANON인 NASSAL씨 찾아가기로 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감사의 뜻을 표할 것이 없어 걱정하던 끝에 그가 한국에서 3년동안 살면서 잘 먹는다는 "김치"를 잘 담어서 알맞게 익힌 것과 화장비누 몇 개를 가지고 갔다. 온 가족이 반갑게 맞이해주었고 저녁식사 후에 갔는데도 어찌나 김치를 잘 먹는지(부부가) 변변치 않은 것이지만 기뻤다. 아이들은 서로 잘도 떠들면서 놀고 있었다.

8시가 되어 그의 어린애들은 우리들에게도 뺨에다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하고 자러 들어갔다. 우리는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 43. 1964년 5월 16일 토 맑음

반공청년으로서 교포들에게 브라질어를 가르친 바 있는 강석근根씨와 1차로 온 서울농장의 김중혁씨 장녀의 결혼식이 시내 교회에서 있었다. 신부의 한복 차림을 구경하려는 외국인들도 많았다.

나는 처음으로 이종만李鍾晩 박사 부인(3차로 온)과 강장노 부인(3차로)과 인사를 했다. 오래간만에 교포들이 모여 먹고 마시고 즐겁게 환담했다.

그간 서울농장의 리-더-격이던 김상진씨는 생각하는 바 있어 많은 고생 끝에 서울농장을 나와서 가족과 함께 25km 지점인 ITAQUERA의 양계장에서 일하고 있다 한다.

### 44. 1964년 5월 22일 금 맑음

한국상은商銀농구단이 칠리, 페루, 알젠틴, 파라과이를 거쳐서 오늘 아침에 이곳으로 도착했다. 저녁 9시부터 시내에서 좀 떨어진 PARQUE SAÕ JOJE[90]에 있는 실내 농구장에서 이곳 팀과 시합이 있다기에 우리 교민들은 모든 일을 제쳐놓고 응원하러들 갔다. 마침 나는 경기장 입구에서 푸른색 유니폼을 입은 얄쌍한 우리 아가씨들을 만났다. 바쁜 스케-쥴에 지친 듯 기운들이 없어 보였다. 입장 후 잠깐 동안의 연습이 끝나자 흑색 상하上下(하의에는 옆에 흰 줄을 친)의 유니폼을 입은 브라질 선수들과의 악수와 환영의 꽃다발 증정이 있었고 기념 촬영 후 경기가 시작되었다. 전반전에서는 우리 팀이 32대 29로 리-드를 하였고 잠시 휴식, 우리 선수들은 큰 타올에 땀을 씻고 난 후 경기는 계속되

90) PARQUE SAÕ JORGE로 보인다.

여 47점 동점이 된 후부터는 아슬아슬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 우리 응원단들은 손바닥은 아푸고 목은 쉴 정도로 응원하였으나 너무나 긴 여행에 지친 몸이라, 57대 53으로 분패憤敗하고 말았다. 한때는 불공평不公平한 심판에 분함을 참지 못했으나 오늘 연약한 여성의 힘으로써 우리 대한大韓의 이름을 떨쳤을 뿐 아니라 한백韓伯 간의 많은 친선親善이 된 것으로 만족할 뿐이다. 경기가 끝난 후 시내 장만식씨가 수리 중에 있는 미완성인 식당에서 김치, 불고기, 갈비찜 등 교민이 베푸는 저녁 파티가 있었다. 단장의 인사와 선수단들의 '몽금포 타령', '노란샤쓰 입은 사나이', '아리랑' 등의 우리나라 민요를 들려주어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고 고국을 더 한층 그리게 해주었다. 또 내일의 께임을 위해 피곤한 몸들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들갔다.

### 45. 1964년 6월 6일 토 흐림

추운 날 저녁 반공청년 주영복씨 댁에 갔다. 작년에 한국에서 초청한 부인을 맞이한 주朱씨가 생남生男하여 백일을 맞이하여 잔치가 벌어졌었다. 그는 이곳에 온지 약 9년이 되여 브라질인 친구도 많이 와 있었고 이곳식으로 서서 파-티-를 했다. 우리가 브라질에 온 이후 우리 한국인 중에서 제2세인 BRASILEIRO가 벌써 여러數 명 출생했다. 1차로 온 양승갑씨의 딸, 서재성씨의 아들, 장상식씨의 아들, 반공청년 김창원金昌元씨의 딸, 오늘의 주朱씨의 딸 그리고 1차로 온 김상훈씨의 손녀 이렇게 6명이다. 어서 어서 우리 2세가 자라서 브라질에 제2의 한국을 만들어야지.

### 46. 1964년 6월 21일 일 맑음

시내에서도 가장 복잡한 중심지인 SAÕ JOAÕ거리에 한국인이 경영하는 CHURRASQUETO RANCINHO LTDA라고 간판을 부친 브라질식 불고기집이다. 아리랑 농장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라지오라스꽃 5,000본本을 재배하고 나온 제1차로 온 서재옥씨와 전에 고국에 있을 때에 요리점을 경영한 바 있는 장만식씨와 태국에서 입국해 온 한인훈韓寅勳씨 등이 약 2개월간에 걸쳐서 내부수리를 마치고 오늘 내외인사人士들의 많은 시식리試食裡에 개점을 하게 되였다. 선사 들어온 꽃다발(전부 생화生花) 속에 파묻힌 식당은 아담하였고 우리들은 동포의 일원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 날로 번창하기를 빌 뿐이었다.

### 47. 1964년 6월 30일 화 흐림

몹씨 추운 날이다. 올 겨울은 유별나게 춥다고 한다. 그간 3차, 4차로 온 우리 이민 68세대世帶는 목적지 VITORIA 지방에서 나와 SAÕ PAULO 시내로 아리랑 농장으로 또는 서울농장으로, PARANA주

농장으로 각각 흐터졌다. 오늘 박동렬씨 가족이 이곳으로 이사 나옴으로서 전원이 자기의 갈 길을 찾아서 간 셈이다. 당분간 우리 한국이민은 어려울 것 같다.

### 48. 1964년 7월 14일 화 흐림

우리와 함께 제1차로 온 김철연씨의 큰 아들이 왔다. 이민 온 후 ITAQUERA 과수원에서 또 양계장 등에서 많은 경험을 얻고 BAIA주州를 위시해서 많은 토지를 보고 다닌 결과 오늘 공기 좋고 살기 좋은 ATIBAIA에 7알켈을 사게 되였다고 하며 인제부터 본격적인 농장을 경영할 것이라고 한다.

### 49. 1964년 7월 18일 토 맑음

4차四次로 온 김연학씨가 뇌일혈腦溢血로 별세했다. 김金씨 일찌기 고국에 있을 때 메추리새 붐을 일으키기도 하고 일본으로 개구리를 수출하였으며 십여 년간 서울시 녹번리를 개간하여 장미원을 경영해 온 분이다. 그는 아리랑 농장에 우선 6알켈을 사고 가족과 함께 입주했으며 그의 원만한 인격은 부근의 외국인들과의 친선에 많은 공이 있었다고 한다. 브라질에서 제일가는 농원을 꿈꾸며 희망에 벅찬 그는 그곳에 온 후로는 고혈압高血壓의 증세를 통 느끼지 못할 만큼 깨끗한 산천에서 재미있는 나날이었다 한다. 그러나 인제 많은 꿈을 안고 그냥 가버렸으니 인생의 허무함을 다시금 느끼지 않을 수 없다. 3년 후면 전 브라질이 놀랄 만큼 아리랑 농장을 만들려던 것이 그만 무너져버렸으나 김씨 부인 역시 김씨 못지않게 꽃에는 권위자라고 하니 부군의 큰 뜻을 받들어 성공하기를 빌 뿐이다.

### 50. 1964년 7월 26일 토 흐림

바람이 쌩쌩부는 날 김서국씨 장영자張榮子양이 결혼을 하였다. 그들의 새 살림집은 김金씨가 근무하는 직장職場 근처이어서 시내에서 꽤 먼 곳이었다.

### 51. 1964년 8월 1일 토 맑음

아버지의 의사동창醫師同窓 박좌빈朴左彬씨를 초대했다. 박朴씨는 세계보건기구世界保健機構에서 일하고 있으며 현재 '리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公務 관계로 이곳에 들렸다 한다.

× ×

김덕종金德宗씨 원자력원관리과原子力院管理課에서 1년간 계약으로 PIRACICABA농과대학農科大學에서

(CAMPINAS 근처) 교환교수交換敎授로 근무하고 있는 김金씨는 우리나라의 수원농대水原農大[91]도 이곳에 지지 않는 설비設備를 갖추고 있다 한다.

## 52. 1964년 8월 8일 일 맑음

나의 경성여자사범京城女子師範시대의 동창同窓 김효숙金孝淑 여사가 가족과 함께 도착했다. 68세대의 일원이다. 3년간의 쌓인 이야기로 밤을 새웠다. "리오"에서 하선했는데 가지고 온 짐이 세관에 걸렸다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 우리 이민 제1차 17세대, 제2차 11세대, 제3차 68세대, 기타 2세대가 된다.

## 53. 1964년 8월 15일 토 맑음

8.15 행사를 중국회관中國會館을 빌려서 거행하다.

68세대를 맞이하고 보니 장소도 협소할 뿐 아니라 서로 만난 기쁨에 이야기하기에 바빠서 회장會場은 수라장이었다.

기념행사記念行事에 이어 표창이 있었다. 장승호씨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거주居住한 분으로써 우리 이민들을 잘 돌보아준 분으로 또 주영복씨 반공청년으로써 브라질어도 잘하고 우리를 도와주었으므로 또 아버지 고계순씨 의사로써 우리 이민들을 잘 돌보아줌으로써 박대사님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앞으로는 어서 속速히 이곳 의사면허醫師免許를 갱신更新하여 교민僑民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식후式後에는 제2회 교민회총회僑民會總會가 열렸고 선選거에 의하야 다음과 같이 임원이 선출되었다.

회장 – 고계순
부회장 – 주영복, 김영묵
간사 – 한춘교

## 54. 1964년 8월 30일 일

아버지는 이민회사무실移民會事務室에서 처음으로 이사회理事會를 소집했다. 우리 이민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우리 회관會館을 만많들지 않으면 안 될 필요를 느껴 앞으로 몇 년이 걸리드라도 그때를 위하여 지금부터 조곰씩 기금基金을 만들기로 했다 한다. 즉 이민회관기성회移民會館期成會를 작성하여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나 또 본국의 우리 동족同族들에게도 호소할 것이라고 한다.

91) 수원농과대학.

### 55. 1964년 9월 10일 목 바람

저녁에 부회장 주영복씨가 왔다. 주朱씨는 오래전부터 우리 교민들이 브라질어伯語 공부에 난難관이 많은 것을 보고 우리말 번역 회화會話책을 만들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고 있었으나 아버지께서는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백한伯韓사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强調하였드니 오늘부터 원고原稿를 쓰기로 하였다.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物質이 들 것이고 어려운 일인 줄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 2세들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 얼마나 우리 학도學徒들이 공부할 때에 막대한 시간 절약과 편리를 줄 것인지 기대된다.

### 56. 1964년 9월 24일 목 흐림

미국美國에 6개월간 체류滯留하다가 고국에 돌아가는 도중에 이곳에 들린 서울 고대학장高大學長 권오익權五翼선생께서 집에 들리셨다. 과연果然 경제학經濟學박사님이신만큼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많은 이민이 나와야한다"는 좋은 의견意見을 많이 들었다. 내일 서울농장, 아리랑농장을 방문하고 알젠틴과 PARAGUAI를 거쳐서 귀국歸國할 것이라 한다. 계백 이李–씨 시이모부媤姨母夫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더욱 반가웠다.

### 57. 1964년 10월 14일 목

불란서 드골 대통령大統領이 중남미를 여행하고 어제 리오와 수도 브라질리아를 방문하고 오늘 SAÕ PAULO로 도착하여 주지사를 회견會見하였다. 그는 체격體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특별히 침대를 맞추었다 한다.

### 58. 1964년 11월 13일 금

홍일이는 이종무씨 같이 MATOGUROSSO주州로 여행을 떠났다.

### 59. 1964년 10월 14일 목

저녁 8시부터 시내 (브라질인의) 천주교회여자청년회관天主敎會女子靑年會館을 빌려 목진태씨 문하생門下生 피아노 발표회發表會가 있었다.

### 60. 1964년 11월 15일 일

여섯번째로 부산항을 출발한 이민단가 리오에 도착. 그 중 까우사케-스는 리오에서 하선하였고 BOLIVIA케-스는 SANTOS항으로 도착했다.

### 61. 1964년 11월 21일 토

이석재씨 장녀 이현숙양과 반공청년 김중진씨의 결혼식이 (이석재씨 자택自宅에서) 있었다.
가족끼리 피아노를 중심으로 즐거운 음악으로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 기쁜 날이었다.

### 62. 1964년 12월 19일 토 오후 4시

반공청년으로서 시내에서 중국식당 남경반점을 경영하는 박정환씨는 성成씨 딸과 결혼했다.

#4

# 1965

### 1. 1965년 1월 15일 금

홍일이가 이종무씨(전前 중령)과 같이 AMAZONA 유역流域 여행에서 돌아왔다. 많은 고생을 하고.

### 2. 1965년 2월 1일

PARANA 천주교계총이민단관계天主教系總移民團關係로 온 박호원씨와 후진後進 부대로 온 3인과의 사이에 금전金錢 관계로 옥신각신하다가 박朴씨 인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귀국하려다가 경찰警察에 잡히는 몸이 되였으나 다행이도 오늘 자유의 몸이 되였다.

### 3. 1965년 2월 8일

PARANA주州 PONTAGROSSO에 아버지는 교민회 회장으로서 박호원씨와 같이 임林박사(정섭)와 김영묵씨 내외 등 떠났다.

그곳 브라질 주교를 만나서 많은 의견교환意見交換이 있은 후 또 그곳 책임 신부와 한국에서 오신 윤을수尹乙洙 신부님을 만나 일을 잘 처리하여 박朴씨가 귀국하게 되였다 한다. 그곳 농장은 장소도 좋고 지금 40알켈이나 "벼"를 심어 놓았고 그 말성많던 "기계"는 과연 많이 사 놓았더라고 한다. 먼저 해야 할 이민 수속이 되기도 전에 선발대先發隊로 온 박朴씨 자기 독단으로 (사용한 날이 먼) 기계機械(농農기구具)를 많이 샀기 때문에 그 기계값을 마저 치루지 못하여 다른 물건까지도 차압을 한다 하여 야단이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이민들은 망치게 되고 한국에서 수년 전부터 기다리는 수백 명의 생명이 위험해짐으로 말성이 많은 것이었다.

### 4. 1965년 2월 26일 금

윤을수 신부님이 집에 오시다.

PARANA 카톨릭 이민 관계로 SAÕ PAULO에 오신 것이다.

### 5. 1965년 2월 28일 일

PIRACIKABA의 대학에서 원자력과原子力科를 연구 차 작년에 온 후, 1년 만에 귀국한다고 인사 차 들렀다.

김덕종 교수敎授

× ×

CARNAVAL[92](사육제) 시작되다.

세계 무대舞台인 "리오"의 MUNICIPAL극장의 입장료入場料는 무료. 500꼰트라고 한다. 수천불의 보석을 단 옷을 입고 그 3일간에 호화찬란한 인생人生을 끝마치려는지? 아니면 일생의 많은 빗을 지고 2, 3일만 실컷 놀고 먹고 마시려는지. 우리 한국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다.

### 6. 1965년 3월 22일

한국외국어대학外國語大學 SPAIN[93]과科를 나온 김창수金昌洙씨가 SAÕ PAULO대학 문과文科 브라질어과에 장학생生으로 왔다.

### 7. 1965년 4월 1일 목

일전에 아버지께서 "리오"에 대사관에 가셨다가 풍문風聞에 한국인들만이 선원으로 구성된 배가 브라질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는데 오늘 어떤 미지未知의 키가 작은 한국인 청년이 찾아 왔다. 그는 어쩌다가 브라질에 오게되여 지금 SANTOS에서 왔다 하며 한국인을 만나서 기쁘다고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금년 2월에 선주船主는 중국인이고 배의 국적國籍은 빠나마로 되여있고 선원은 선장 이하 고급선원高級船員과 보통선원普通船員 합 34명이 순 한국인으로 구성되여 이번이 시험케-스로 승선하였는데 뜻하지 않게도 브라질에 들리게 되였다.

세계 각국을 다녀보니 과연 우리는 해외로 진출해야겠다고 역설力說하며 이번에는 2년 계약으로 고국을 출발(비행飛行기로 목적지까지 가서 승선)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고국의 땅을 못 밟을 줄 알았

92) 원문은 [CARNABAL].

93) 원문에는 [SPEIN].

는데 “리오”에서 가까운 항구에서 판철板鐵을 싯고 한국으로 가게 되였다고 하며 기뻐하고 있었으며 SANTOS에서는 기름과 물을 시르려고 들렸다는데 기관이 고故장이 나서 출발시出發時가 늦어지게 되여 SAÕ PAULO까지 들렸다고 한다. 우리는 바쁜 중에도 서로 국내외國內外 소식을 들었다.

### 8. 1965년 4월 12일 월

우리 동창생 김효숙씨의 장남 김덕원金德元군은 PORTOALEGRE 기독교基督敎에서 경영하는 학교學校에 반공청년 문文목사의 알선으로 입학하여 출발했다. 우리 조카. 고은희高銀姬양과 외外 4명의 여학생들도 문文씨의 알선으로 시내 SANTAMARO에 있는 미국여전교회美國女傳敎會에서 경영하는 학교에 입학하여 2주일二週日 전부터 기숙사寄宿舍에서 공부하고 있다.

× ×

리오 대사관에 신임新任해 온 윤尹참사관參事官과 문文영사가 SAÕ PAULO에 인사차 오다.

### 9. 1965년 4월 10일 토

부산항을 일곱번째로 떠난 이민단이 “리오”에 도착했다. BOLIVIA행行 17세대는 “리오”에서 하선하고 PARAGUAI행은 SANTOS를 거쳐 ALGENTINA를 향하여 떠났다.

### 10. 1965년 4월 25일 일

교민회에서 의탁받은 박순씨와 임정섭(박사)씨 교민회칙개정공청회僑民會則改正公聽會를 열다. 한편 교민회이사회僑民會理事會가 열리다. 지금까지의 모-든 잡음雜音이 없어지고 일치단결一致團結하야 제대로 잘 되여 나가게 되였다.

### 11. 1965년 5월 9일 일

어머니날, 처음으로 이곳 중앙대성당中央大聖堂 뒤 조그마한 성당(SAÕ GONSALO) 별실別室에서 일본인 요시우라 신부 집전 하에 우리 한국인 교포들이 한 자리에 몽여 첫 미사를 드릴 수 있었다.

황안나여사(황점례)(이李박사 부인)과 안가따리나양(안계승씨여동생妹)의 많은 노력으로 우루어진 것이다. 아직도 잘 전달되지 못하여, 나오지 못한 교우敎友들도 많았지만 42명이 몽인 가운데 가족적家族的인 미사에 감격하며 눈물짓는 부인들이 많았다. 미사 후에 기념 촬영.

### 12. 1965년 6월 4일 금

아버지께서 “리오”에 갔을 때 “가톨릭”계系 이민이 이곳 이민국에서의 “비자”를 맡았다고 한다. 머지않아 이 이민도 떠나게 될 것이다.

### 13. 1965년 6월 10일 목

제2차 PARAGUAI 이민(약 200명)이 SANTOS항에 도착. 세대주만이 이곳 교민회에 들렀다가 목적지로 떠나갔다 한다.

### 14. 1965년 7월 11일 일

교회 내에서 김승한씨(장로) 아들이 폭행을 하여 수라장이 되고 예배도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신교新敎는 이래서 자꾸만 갈라지나보다.

### 15. 1965년 8월 15일 일 맑음

CORACAÕ DE JESUS 성당 강당에서 8.15행사가 성대盛大하게 거행되었다. 아버지는 교민회 회장으로서 큰 대과大過없이 임기任期를 마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오늘의 성대한 행사로써 유종의 미를 걷우었다. 음악, 무용으로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기념행사에 이어 교민회총회에서는 새 회장단會長團이 선출.

회장 김영묵
부회장 주영복, 고광순(큰아버지)

### 16. 1965년 8월 31일

브라질에서 2년마다 열리는 세계미술전시회世界美術展示會 참가코저 서울예고藝高 선생 김金___오다.[94] 한국 대표代表로써 작품作品들을 심사한 결과 불佛란서西 작품과 일본 작가의 것이 특선特選이 되였다고 한다.

### 17. 1965년 9월 11일 토

IBIRA PUERA 미술전시장美術展示場에서 제8회 SAÕ PAULO 국제미술전시회世界美術展示會가 열리다. 이 미술전시회美術展示會는 일년은 불국佛國의 파리에서 열리고 또 한해는 이곳 SAÕ PAULO에서 교대交代로

94) 1965년 상파울루 비엔날레이다. 한국 심사원으로는 ‘김병기’가 참석하였다. (“‘내 한표가 ‘1965 상파울루 비엔날레’ 그랑프리 바꿨다”」 『한겨레』 2017년 10월 20일.)

열리는 것인데 그래서 BIENAL이라고 하며 우리 한국에서는 예고藝高의 김金 선생이 우리나라의 심사원審査員으로 우리나라의 작품들과 같이 오셨었다. 전시장展示場 입구에는 각 나라의 국기國旗와 나란히 우리 태극기도 새싹이 돋아나는 가로수 속에 휘날리고 있었다. 작품들이 전시展示된 장소는 1층一層은 부라질 국내작품國內作品들이 진열되여 있었고 2층, 3층三層은 세계 각국의 작품들이 전시되여 있었으며 이것이 과연 미술일까? 하는 놀라운 가지가지 부문部門의 작품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각국의 전시작품展示作品 틈에 끼인 우리나라 작품을 대했을 때에는 그저 기쁘고 반갑기만 했다. 작품 수는 적으나 이 작품들을 보내노라 가난한 나라에서 얼마나 애썼으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앗껴지고 대견스럽기만 하다.

## 18. 1965년 9월 16일

CAMPINAS시에서 국제적인 축제가 버러졌다. 이 국제제國際祭는 매년每年 같은 시同市의 가톨릭 부인회婦人會 주최하에 열리는 것인데 여러 가지 오락시설도 하고 또 각국인들이 음식을 작만하여 판 이익금利益金을 "고아원"에 기부한다고 한다. 해당 시當市의 우리 미약한 교포들도 정성을 다하여 최초最初로 참가하고 있으며 "불고기"와 우리나라 고전무용古典舞踊으로 인기를 모았다고 한다.

## 19. 1965년 10월 21일

"리오"시 창립創立 400년제祭의 세계 유도대회大會에 우리 한국 선수단 9명이 왔다.

"리오"와 SAÕ PAULO에서 좋은 성적成績으로 우리나라의 이름을 널리 알려 주었으며 우리 교민들의 어깨도 넓어진 것 같다.

## 20. 1965년 11월 16일

요새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 교포들 중에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김지산씨는 BAR를 경영하고 있는데 그는 장남(20대代)이 불량不良하여 말다툼 중 권총으로 아들을 쏘아 물이를 이르키고 있다.

× ×

지난 10월 초(8일)에 SANTOS에 도착한 시매媤妹 이성현씨 가족과 이창환씨 가족은 핸드백의 구술을 끼며 날을 보내고 있다. 보기가 딱하다.

## 21. 1965년 11월 28일 일

오늘은 이민의 날이다. 세계 각국에서 브라질에 이민 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세계반공회世界反共會 주최로 중앙성당中央聖堂에서 각국의 국기를 선두頭로 각국의 의衣상을 입은 여자들을 위시하여 각국민各國民이 몽인 가운데 각국의 이민과 또 공산共産권 내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사"가 있었다. 우리 재백在伯 교민들도 우리 태극기를 바라보며 한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구하였다.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부족한 것이 많아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우기 변변한 태극기도 없어서 이리 저리 구하러 뛰여 다녀야 하며 오늘의 행사를 위해서 아버지와 장학생으로 온 김창수씨가 많은 애를 썼다.

× ×

CAMPINAS의 가톨릭여자청년회女子靑年會 주최로 열린 세계 각국 축제에서 세계 고아를 위해서 기금 모집으로 판매한 중中 한국관에서의 음식 판매료料는 2,800꼰트였다 한다.

이민 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우리들은 교포들이 열심으로 합심하여 일한 보람을 느낀다. CAMPINAS시에 사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 ×

이종무씨가 김영복씨를 걸어 고소를 했다. 챙피스러운 일이다.

## 22. 1965년 12월 15일 수

이곳은 국민학교가 4년제制이다.

우리 이민 중 국민교國民校 1년에서부터 다니는 아이는 올해가 3학년 수료修了이고 나이가 많다고 하여 또 성적이 좋아서 월越반한 아이들은 올해에 중학中學 입시入試에 참가하게 된다. 12월 1일부터 시내 각 중학교中學校에서는 입학시험이 시작되였다. 입시과목課目 국어, 지리, 역사, 수학數學인데 각각 50점點 이상이어야 합격合格이 된다.

수속은 출생증명出生證明과 의사의 건강진단서뿐이고. 입학이 된 후에는 입학 전 학교의 성적증명서明書가 필요하다.

우리 홍준이와 이李박사 외아들 천天영(아란틴) 기타 여러 애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국민학교를 졸업했다. 우등상은 금金, 은銀, 동銅메달이다. 좋은 책 한 권도 받았다.

## 23. 1965년 12월 26일 일

교민회 주최로 온 교포가 소풍을 갔다. SANTAMARO 넓은 들판에서 마음껏 뛰놀고 호수가에서는 해수욕을 했다 한다.

#5

# 1966

## 1. 1966년 1월 15일

지난 7일에 리오를 통과한 소위所謂 천주교계天主教系 이민은 먼저 와 게시던 장張신부의 인솔 하에 무사히 53세대가 목적지인 PARANA주州의 SANTAMARIA농장으로 입주하였다 한다. 아직 가옥은 미완성未完成이라서 정부와 교섭 끝에 약 2개월간 군대軍隊 숙사宿舍를 빌려 일단 그곳으로 여旅장을 풀었다 한다. 천주교구敎호회會 통해서 식량도 보내게 되여 있다 한다.

이번 쌍파울로 주간지週刊誌 MANCHETE에는 리오 도착 시의 장신부와 이민들의 사진과 아름다운 우리 어린아이 사진이 실려 있었으며 이 나라에서도 만은 기대를 갖이고 있는 글이 실려 있었다.

## 2. 1966년 2월 6일 일

제1차 이민으로 단신單身 온 윤명섭씨는 (이성경李成竟씨 양자養子) 그의 직장인 남미조합사무실南美組合事務室에서 우리 애들 아버지인 고계순씨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 3. 1966년 2월 12일 토

우리 제1차 이민 도착 3주년週年을 맞이하는 날 우연이도 미국 외무성外務省 초청으로 5월간이나 재미在美하다가 이곳으로 온 동아일보東亞日報 편집국장局長 김金씨를 맞이하여 교민 7, 8명이 한자리에 몽여, 이민생활을 녹음錄音하였다. 나도 여성으로서 참석했으나 갑짜기 짧은 시간 내에 더구나 말주변이 없는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못했다.

### 4. 1966년 2월 27일 일

3.1절 행사를 시내 교외에서 (RIO BONITO) 성대히 거행했다. 우리는 또 약국이 당번이어서 참석치 못하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우리 선열先烈들의 명복과 우리 조국의 평안平安을 빌었다.

### 5. 1966년 3월 1일

시내 중고등학교中高等學校가 일제一齊히 개학開學을 했다. 홍준이는 주립州立 중1에(무료), 홍철이는 PORTUGUES[95]가 부족해서 중3으로, 홍일이는 고3에 나가게 되였다. 어려운 중에 간신히들 학교를 보내는 만큼 모두 열심히들 공부해주기를 바란다.

### 6. 1966년 3월 4일

김창연씨(68세대, 김효숙씨 부군 나의 동창생)의 차남次男 김태원金泰元군은 (서울 휘문중3졸卒) 이곳 주립학교州立學校 편입入시험에 합격되여 고1에 입학하였다. 김金군은 처음 이곳에 와서 ADMIRACAÕ(중학 입시준비반에 2개월을 다니고 나니 학년 말이 되여서 할 수 없이 쉬었다가 그 이듬해 새 학기學期부터는 MADRESÃ(속성速成 중학)을 1년동안 다니고 이번에 고1에 들어갔다. 우리의 자랑이다.

또 김해곤金海坤씨의 장녀와 장남도 각각 중학 4년에 고1에 입학이 되였다.

주립은 국민교, 중고교中高校, 대학까지도 학비學費가 무료이기 때문에 굉장이 들어가기가 어렵다.

### 7. 1966년 4월 15일

제3차(68세대) 이민으로 온 박동렬(전前 대령)씨는 그간 가족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던 중, 오늘 박朴씨는 카나다로 떠났다.

× ×

제1차로 우리와 같이 온 한승엽씨와 안동협씨는 가족들을 인솔引率하고 알젠틴으로 이주移住해갔다 한다.

### 8. 1966년 5월 6일 〈영자가 학생미술전시회 출품〉

영자가 학생미술전시회學生美術展示會에 출품出品한 유화油畵가 입선入選이 되여 동메달과 상장賞狀을 받아왔다. 이곳은 아직 미대美大는 없고 미술학원美術學院이 많다. 그 중의 한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별로

95) 원문은 [POLTUGUES].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 9. 1966년 6월 18일

영자가 브라질인 피아노 교수로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는데 오늘 그의 학생 제자[弟子]들의 피아노 발표회가 있었다. 영자도 세 곡목[曲目]을 했다. 바쁜 중에도 온 가족이 들으러 갔었다. 우리 영자는 감정[感情]이 살아있다.

### 10. 1966년 7월 1일

그간 말썽 많던 그리고 가족적으로 불행한 이종수씨가 카나다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 11. 1966년 7월 21일

신문지상으로나 서[書]적을 통해 많이 알려진 여류작가인 조경희[趙敬姬] 여사가 내성[來聖][96]하다.

우리 집에 초대해서 같이 저녁을 나누다.

시원스럽고 활달하다. 내 손금을 보고는 여성다운 여성이란다. 공연이 말소리만 클 뿐이지 적극적으로 아모것도 못하는 내 자신[自身]이 답답할 때도 있으니 이것이 여성다운 것인가.

### 12. 1966년 8월 27일

교민회 이사회가 있었다. 황안나씨와 나도 참석. 우리 여성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 13. 1966년 9월 23일 〈아버지 고등과 자격시험 합격〉

애들 아버지께서 이곳 PORTUGUES와 지리, 역사, 고등과 졸업자격시험[卒業資格試驗]에 합격이 되였다.

얼마나 오랜동안 걱정하던 일인지 모른다. 그래도 시작을 하고 보니 안 되는 일이 없다. 인제 본격적으로 의사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온 가족이 기뻐하였다.

### 14. 1966년 10월 6일 〈약국 문 닫음〉

만 3년간 경영하던 약국을 닫았다. 아침부터 밤까지 서로 교대하며 통하지도 못하는 언어로 짜징을 내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였고 아니꼽기도 한 생전 처음인 약[藥]장사를 인제 고만두고 보니 아이들

96) 상파울루에 오다.

이나 나 역시 어쩐지 허전한 기분이다. 이런 것이 아마 시원섭섭하다고 하는 마음일 것이다.

아버지께서 용단勇斷을 내려서 의학醫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고만두게 된 것이다.

### 15. 1966년 10월 14일

아버지가 이곳 의사갱신시험醫師更新試驗을 치루고저 오늘 비행飛行기로 북北쪽에 있는 옛 도시이며, 전全 브라질의 다섯 도시의 하나인 RECIFE의 연방대학聯邦大學(국립)으로 떠나셨다. 비행기로 만 하루, 뻐쓰로 만 3일간이 걸리는 먼거리이니 이 브라질은 얼마나 광대廣大한 나라인가.

가장에게 부디 건강을 주시기를 바라며….

### 16. 1966년 10월 30일

아버지께서 안 계시는 동안 생활을 돕기 위해서 우리 장남인 홍일이가 취직을 했다. 그 애는 회사會社보다 공장을 좋아하여 그의 뜻대로 하였다.

#6

# 1967

### 1. 1967년 1월 13일

방학 때를 이용해서 홍철이가 생활을 돕기 위해서 여기저기 취직자리를 구하던 중 어떤 회사에 취직이 되였다. 아이들에게 너무나 고생을 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잠시 동안 경험을 해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까.

### 2. 1967년 2월 2일

김창연金昌淵씨 장남 김덕원金德源군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주립 SAÕ PAULO 공대工大에 입학이 되었다.
군君은 한국에서 경기고京畿高3을 졸업하고 왔으며 온지도 얼마 되지 않은 그가 그 어려운 공대에 입학을 했으니 우리의 자랑이며 큰 잔치가 버려졌다.

### 3. 1967년 5월 5일 〈아버지의 시험합격 만세!〉

아버지께서 어려운 중에도 꾸준히 공부하시여 나이 50에 이곳 의사갱신醫師更新 시험을 끝마치고 "만세"하고 전보가 왔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으랴. 그 굉장이 더운 곳에서…….
이제, 한국인 제1호 브라질 의사가 된 셈이다. 정말 아버지 고계순 의사 만세!

### 4. 1967년 5월 20일

아버지께서 어려운 일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오시다. 양 머리 귀 밑에는 백발白髮이 되여 있었고 무슨 군대나 갔다 온 사람 모양 얼굴이 긴장되여 있었다. 온 가족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더 대견스럽게 맞이하였다.

### 5. 1967년 6월 2일

이석재씨 삼녀三女 경난양이 제1회 피아노 발표회를 갖었다. 나이 어린(18세) 소녀로써 교민 중에는 제일인자第一人者로 알고 있다.

### 6. 1967년 6월 3일

그간 아버지께서 안 계신 동안 나는 아이들에게 못지않게 집안을 돕기 위해 영자와 함께 구술빽또 껴보고 재봉틀을 월부로 사서 손재주 없는 내가 부라우스도 박아보았다.

계백 시이모姨姨母님께서는 위로의 편지를 주셨고 어떤 때는 설탕살 돈이 부족할 때도 있었다. 아버지와 의대 동창생 모毛기서씨 장남은(모경수군) 수개월 전부터 우리 집에 와있었는데 그간 중국요리中國料理집에 취직이 되여 가끔 들릴때마다 쇠고기를 많이 사가지고 와서 잘 먹곤 하였다. 그 애도 각지에서 고생이 많다. 미국인美國人 신부 맥도랄신부님은 아버지 안 계신 동안 각금 오셔서 찬도 없는 밥을 달게 잡수시면서 마침 전기불이 꺼져서 촛불이라도 켜놓으며 Festa(잔치)라고 하며,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 7. 1967년 8월 20일

고모네(애들)는 Apt를 얻고 구술빽을 끼고 있다. 남편 이성현씨는 김윤문씨와 PARAGUAI[97] 이민을 한다고 하더니 많은 돈을 다 없애고 빈 몸으로 다섯 가족이 왔으니 고생이 심하다. 우리라도 넉넉하면 도와주면 좋으련만. 우리 역시 이민 온지 얼마 안 되여 자리를 못 잡고 보니, 누이가 고생하는 것을 보기가 딱하다. 지금까지 고생도 해보지 않던 사람이니 더욱.

### 8. 1967년 8월 26일

그간 아버지께서 진찰실診察室을 내기 위해 여러 군데 돌아보시던 중 말이 잘 통하는 일본인이 많이 사는 조곰 떨어진 곳인 VILA CARRÃO에다가 (2층) 집을 얻고 이사를 했다. 무슨 너절한 짐이 그렇게 많은지? 한편 Apt에는 살림집이고 또 한편은 진찰실로 꾸미고 종일 온 가족이 짐 정리에 바빴다.

### 9. 1967년 9월 6일

브라질에서 첫 병원 간판을 걸고 맥도날신부님을 모셔다가 병원과 집을 축성하다.

97) 원문은 [PARAGUA].

### 10. 1967년 9월 7일 〈첫 번 환자(왕진) 미사예물로〉

첫 손님으로 온 사람을 따라 왕진往診을 가셔서 20꼰트를 받아오다. 감사의 미사예물로 바치다.

### 11. 1967년 7월

이원무씨와 조석필씨가 우리나라 자개를 주로 한 선물용 가게를 개점開店하다. 아마 교포로써는 이런 상점은 처음일 것이다.

### 12. 1967년 9월 15일

아버지께서는 이 나라의 정식의사는 되였으나 아직도 언어가 부족하고 또 이 나라에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못하여서 우선 집세나 물을 수 있게 오전 중에는 시내 큰 병원에 근무하게 되여 매일 아침마다 뻐스를 타시고 출근하신다. 전에 봉사하던 SANTACASA병원은 당분간 쉬기로 하고 진찰실은 오후에만 보시고 있다. 이 나라는 진찰은 진찰실에서 하고 수술은 자기가 원하는 큰 병원에서 수술하게 되여있다. 아버지께서는 4, 5개의 큰 병원과 결속結束을 하시고 환자患者들의 청에 의해 편리한 곳에서 수술을 하신다. 아무튼 수술을 잘하시기 때문에 각 병원에서 인기가 좋고 아버지 역시 자신을 갖이고 재미있게 일하고 있다.

### 13. 1967년 9월 24일

SAÕ PAULO 제9회 BIENAL에 참석코저 멀리 한국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한 유명한 화가선생畵家先生님들이 많이 오셨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릴 때 친구인 박래朴來현 여사[98]를 비롯하여 그의 부군 김기창 김인승金仁承씨 부처夫妻와 홍대미대弘大美大 조각과 과장課長 김金여사를 주식晝食에 초대했다.

즐거운 한때였다. 박朴여사는 아버지가 늙으막에 의사 공부 하시누라 수고하셨다면서 내조內助의 힘이 크다고 칭찬해주었다.

### 14. 1967년 12월 20일

우리 교포들의 자녀들은 어려운 이민생활 중에도 열심히 공부하며,

중학입학자中學入學者 약 40명

고교입학자高校入學者 수數 명 이 합격했으니 자랑스럽다.

98) 진남포 출신의 여성 동양화가인 박래현을 말하며 남편이 운보 김기창이다. 원문에는 [峽]를 썼다 지운 흔적이 있다.

이렇게 머리가 좋은 자녀들을 앞으로도 착하게 올바르게 이끌어나가야 하겠는데 안정安定되지 못한 우리 부모들의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7

# 1968

### 1. 1968년 3월 1일

3.1절 기념행사를 가톨릭부인회관婦人會館에서 연방聯邦 법무차관法務次官을 비롯해서 재백伯國 인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했다.

× ×

볼리비아 파라과이로 이민 갔다가 불법不法으로 브라질에 입국한 자者, 여행자, 기타 브라질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현 교민회장僑民會長 김홍기씨가 적극 노력하여 불법이든 어떻든 간에 근 200여 명이 그 원하던 영주권을 받았다고 한다.

### 2. 1968년 6월

장창국 대사가 초도순시初度巡視차 SAÕ PAULO에 오시다. 김홍기 교민회장 측側이나 회관 기금모집集 기성회 측이 서로 자기들만이 잘 보이려고 환영하는 꼴은 가관이었다. 남자들 세계가 이렇게 좁고 시시한가? 외 한국 사람들은 일치단결하지 못하고 남을 헐뜻고 서로 자기만을 내세우려는 것인지?

우리는 그간 정부에서 고관高官님이 오셔도 바쁘기도 하고 차도 없고 하여 마중하러 나가지 못하였으나 요새 아버지께서 중고나마 자가용(CINCA)을 산 뒤인지라 그래도 바쁜 틈을 타서 하루를 희생하고 우리나라 대사님을 대접하는 의미에서 비행장까지 나갔든 것이다. 그곳에서 그런 꼴을 보니 맥이 탁 풀리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아예 어디 나서지 않고 나 할일이나 꾸준히 하고 내 자식子息들이나 잘 키우면 그것이 내 나라를 빗내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 3. 1968년 7월 20일 토

장녀 영자와 혼자 이민 온 (부친이 역시 의사)인 김의현金義鉉군과의 약혼식約婚式이 집에서 간단하게 열렸다. 어려운 중에도 기쁜 날이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급한 환자의 왕진 때문에 바쁘셨다.

주여 우리 영자를 돌보아주소서.

### 4. 1968년 8월 10일

제7차 교민회총회僑民會總會와 8.15 기념행사를 이태리 회관을 빌려서 교민회 측側에서 거행, 기성회 측側은 대사관 직원 참석 하에 오끼나와 회관에서 거행. 그간 장대사가 오신 이후 소所위 신파新派, 구파舊派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더니 오늘의 이 꼴이 되여버렸다. 한 쌍파울로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교민들이 갈라져서 광복절光復節 기념행사를 하다니? 차라리 아모데도 가지 않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났다. 이 무슨 일이냐. 교민들은 1년에 한번인 8.15기념행사마저 마음 놓고 하지 못하게 되였으니. 모두 다 잘못이라.

### 5. 1968년 8월 20일

한 달동안 IBIRAPUERA 공원 내 미술관에서 한일친선미술전시회韓日親善美術展示會가 개최開催되였다.

### 6. 1968년 8월 24일

모기서(아버지 의대 동창)씨의 장남이며 모충해毛充海 여사의 족하되는 모경수군은 그간 약 3년동안 침식을 같이 하다가 이번에 그의 외숙外叔의 초청으로 도미渡美하게 되였다. 이곳에 혼자 와서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그 고생을 살려서 미국에서는 더 착실하고 훌륭한 청년이 되기를 빌 뿐이다. 아들 하나를 떠나보내는 심정이다. 본인은 좋기만 하겠지?

### 7. 1968년 9월 21일 〈영자결혼〉

영자의 결혼식 날. 너무나 어려운 이민 생활 중에 시집가게 되여 아모것도 못해주었다. 다만 아버지 차를 새로 깨끗하게 칠을 하고 태워주었다.

× ×

더욱 뜻 깊은 것은 그간 멀리 가 계시던 성인聖人과도 같으신 맥도날 신부님이 일주일一週日 전에 돌아오셔서 오늘 그의 주례 하에 혼배 미사를 들일 수 있었고 그가 축祝성해주신 혼배반지를 나누어끼게 된 것을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멀리 로-마에 계신 김바오로(영화榮華) 신부님께서 특별히 새 가족을 위해서 교황님의 축복祝福을 빌어주신데 대해서 또 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교포들이 참석하여 행복을 빌어주셨다. 또 NASSAL씨 댁 형제들도 다 와주었다.

새 가정에 주의 은총과 건강이 있기를 열심히 기구 드린다.

기리기리 행복하게 살라!

## 8. 1968년 9월 21일

한국경제사절단韓國經濟使節團 내백來伯

김金국회의원國會議員 내백來伯

## 9. 1968년 10월 6일

제3회 국제 POPULAR 음악대회音樂大會가 리오에서 지난 3일부터 개최되다. 세계 각국(34개국)에서 참가했으며 1위位 브라질, 2위 카나다, 3위 이태리, 이며 일본은 7위이다.

우리 한국은 언제쯤이면 참가할 수 있겠는지? 이런 몽임을 통해서 국위國威가 선양되는 것인데.

## 10. 1968년 11월 1일

영국여왕英國女王이 내백來伯하다.

이 나라는 각국의 원수元首들이 교대로 방문한다. 특별히 이 나라의 축구의 왕이라고 하는 PELE는 여왕과 만났다.

## 11. 1968년 11월 15일

이 나라에서의 주의원州議員, 시의원市議員 선거選擧가 있었다. 귀화歸化한 사람은 선거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여있다. 우리는 아직도 해당이 못된다.

## 12. 1968년 12월 8일

재백한국예비역장교豫備役將校클럽으로부터 초대를 받다. 시내 쇼핑센터-내에 있는 금룡金龍 중국식당에서 대접을 잘 받았다. 부인들은 대개가 한복 차림이었다.

## 13. 1968년 12월 15일

파나마 주재駐在 무역진흥회사貿易振興會社에서 일하고 있는 권병순씨 내성來聖하다. 김대헌金大憲씨 댁에서 간단한 국수로서 점심을 나누다.

#8

# 1969

### 1. 1969년 6월

제쥴리아나 수녀님 총장 수녀님의 허락으로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됨

### 2. 1969년 7월 21일

새벽 2시 56분 20초 미국 아뽈로 11호를 타고 달세계月世界로 간 암스트론 함장이 달에 착륙着陸하는 모양을 테레비로 보다.

세상世上은 변變해졌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 3. 1969년 7월 25일

시내 IPIRANGA에서 영사관領事館 개관식 거행. 인제 우리 SAÕ PAULO 교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되였다. 이 영사관은 지금 문화회文化會관의 일부를 빌려서 임시로 사무를 보게 된 것이다. 즉 전에 우리 교민들이 회관을 짓기 위한 기성회를 만들어서 뫃은 돈으로 현 교민회와 의견이 맞지 않아 그 뫃은 기금과 한국 정부에서 보내온 일만? 천달러仟弗를 합슴해서 구입한 집을 교민회관으로는 쓰지 않고 문화회관이라 이름하여 소위 구파舊派들만이 뫃여서 회장을 선출하였다하여 많은 물의를 이르키고 있었으나 아무튼 그 옛날 제2대 회장인 우리 집 고계순씨 시대부터 제창한 교민회관僑民會館은 꼭 필요한 것이니 후일 우리들이 일치단결하여 모-든 교민들이 여러 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큰 건물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4. 1969년 8월 15일

부슬비가 내리는 오후 7시 문화회관文化會館과 (IPIRANGA) 교민회(이태리회관)에서 8.15 행사를 거행. 밤 11시 반 경 교민회에서 문화회관으로 침입侵入했다 한다.

교민들은 인제 기념행사에도 무관심 해졌다. 어느 쪽으로 가야할런지? 살기도 바쁜 세상에 외 그런데까지 머리를 쓰게 하는지? 한심하다.

### 5. 1969년 8월 22일

부라질 신문에 (ESTADO) 사진과 함께 우리 교민 수십 명이 김홍기씨(교민회장僑民會長) 인솔 하에 "리오"의 우리 대사관 전면前面에서 데모하는 광경이 실려 있다. 일지日紙(SAÕ PAULO) 신문에도 "교포들을 간섭하는 대사는 물러가라"는 제목題目으로 실렸다. 지휘자는 김홍기씨라고.

아무튼 외국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챙피하다. 양쪽 다 잘못이다. 좀 더 외부外部에 나타나지 않게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 6. 1969년 9월 6일 〈홍일 개업〉

홍일이가 그간 근무하던 곳에서 배운 바 있어 부라질인 ESPIDITO씨와 함께 우리 집 조고만 SALA에서 시작했던 공장 ELIMINHADOR(녹음기, 전축에 사용하는 부속품)을 만들었었는데 너무 비좁아서 오늘 근처에다 월세 150꼰트로 집을 얻어 이사를 했다.

무無에서 시작된 공장이 1년만에 짐이 츄럭으로 하나 가득 차였다.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직공들의 점심밥도 내가 데워주었는데. 아무튼 공장이라도 따로 차리게 되였으니 대견하다. 아직 경험도 없고 이 나라의 법法도 잘 모르나 곧잘 해나간다.

### 7. 1969년 9월 7일

영자가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는 SANTANA병원에서 첫 애기를 출산出産하다. 남아男兒 3kg 500g, MARSELO, 현 KIEN

### 8. 1969년 10월 5일

첫 외손자外孫子인 MARSELO 모자母子를 우리 차에 태우고 CAMPINAS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 후 애기는 바뀐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있는지? 아물거리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9

# 1970

## 1. 1970년 3월 1일 일

인제 아버님께서 브라질의 의사로서 많은 경험을 얻어 시내 중심지에다가 또 하나의 진찰실을 개업[開業]했다. 작은 Apt이지만 간단한 수술도 할 수 있는 것을 2만 5천 꼰트를 월부로 사고 시작했다.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내 집이라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하시다고 한다.

오늘 미사 끝에 이곳 신부님을 뫼시고 진찰실을 축성[祝聖]했다.

× ×

오후 5시 우리 영사관에서 3.1절 기념행사가 있었다. 오래간만에 애국가와 3.1절 노래를 불러보니 감개무량했고 좀 더 넓은 장소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그리고 피아노도 있어야겠다. 식 중에 금년에 이곳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기념품[紀念品] 증정[贈呈]이 있었다. 식후[式後] 고전무용과 영화 "소문난 잔치"라는 것이 있었는데 얼마나 웃우운 희극[喜劇]인지 모다 오래간만에 한바탕들 웃었다.

## 2. 1970년 3월 24일

전 주일날에 제[諸]수녀님으로부터 "화비오라" 책을 보내주셨다. "성녀[聖女] 모니까"를 읽고 돌려보내드렸더니 또 이번에는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교[敎] 박해[迫害] 시대를 그린 "화비오라"를 보내주셨다. 소설식[小說式]으로 된 것이다. 재미가 있다. 나도 만일의 경우에 옛날 사람과 같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 ×

제[諸]수녀님은 옛날 경성사범학교[京城師範學校] 강습과[講習科]를 마치고 수녀가 되신 분으로 학[學]식도 많고 경험도 많으신 분으로 이곳에는 일본인 교우[敎友]들을 위해서 파[派]견된 분인데 세계 분도 여자 수도원장[修道院長](한국에도 오래 계서서 한국어도 잘 하는 외국 수녀)이 이곳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사정을 잘 말

슴드리고 우리 한국인을 위한 수녀로서 임명任命을 받고 그 후 우리 한국인 성당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고 있음.

### 3. 1970년 5월 28일

정鄭영사와 김홍기씨와의 고소 사건으로 인하여 말성이 많은데 우리 한국인들은 브라질 말을 모르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도 양심적良心的으로 통역할 사람을 구하던 중 우리 애들 아버지가 지명이 되여 오늘은 김홍기와 Mr.이李, Mr.민들의 통역을 하기 위해 이 나라 재판소裁判所에서의 출두명령出頭命令에 의해 어떻게 생각하면 영광榮光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진찰 시간인데도 진찰실 문을 닫고 나가셨다. 공연이 우리까지도 못살게 구는군. 그나마 통역을 하고 나면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니 한심들 하다.

### 4. 1970년 6월 5일

아버지는 작년 11월에 성당의 총회장總會長으로 선출된 후부터 정말 바쁘게 일하고 있다. 우리가 무슨 잘난 것도 없고 열심히 한 것도 못 되고 그렇다고 말을 잘 하지도 못하고 통솔력力도 없고 다만 양심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앞으로 수녀님이 계실 수녀원修女院을 사야 할 기금 모집募集도 해야겠고 또 우리 담당 신부님도 모셔야 하겠다.

오늘은 우리에게 전에 한국에 3년 동안 계셨던 이태리인人 남南신부님을 (브라질 PIAUI에 계신) 우리 교회에 모시기 위해서 여러 회장들과 브라질 추기경을 만나러 가셨다.

### 5. 1970년 6월 8일

각국을 거쳐서 온 우리 한국 여자농구女子籠球선수단이 6일에 도착하여 SAÕ CAETANO (조곰 떨어져 있는) 체육관에서 7일에는 이곳 팀과 시합하여 피로로 인함인지 분패하고 오늘은 또 다른 팀과 교전交戰하여 80 대 5__으로 잘 싸워 이겼다 한다.

### 6. 1970년 8월 15일

오늘 영사관 주최로 수년 만에 교민이 오래간만에 한자리에 몽여서 25주년 해방 기념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그 후에 제9차 교민회총회에 의해서 말성많던 김홍기씨는 조용하게 회장자리를 물러나고 새로운新 회장 이영민(의사), 부회장에 고윤근, 유재선씨가 선출되였다. 약간의 옥신각신은 있었으나 교민이 한자리에 몽였다는 것만으로 이번의 8.15행사는 큰 성공이라 할 수 있다.

### 7. 1970년 8월 23일

쌍파울로의 추기경께서 우리 성당에 오셔서 우리 한국인 교우들을 위하여 미사와 백 명에 가까운 견진성사聖事[99]를 주셨다. 여성들은 전부 한복을 입고. 아름다운 행사였다. 미사 후 강당에서 우리나라 두 영사님 부부와 각 교회의 간부들과 내외 인사들을 초청하여 성대한 잔치가 열렸다. 노래와 춤으로 위안을 해드렸고 각 가정에서 작만한 음식으로 대접했다. 잘 잡수시고 우리에게 우리 신부님을 주소서…….

### 8. 1970년 9월 6일 일

외손자 MARSELO의 첫 돐이 내일이다. 오늘 일은 일이라 가족이 다 몽여 친지들과 더부러 YILACARRAÕ 집에서 잔치하다. 똘똘한 MARSELO는 재롱떵어리여서 인기가 대단하다.

× ×

한국에서 재在브라질교민 동태動態를 조사코저 가장 연소年少한 국회의원 김상현씨가 왔다. 성당에도 방문 했다 한다.

### 9. 1970년 10월 21일

리오에 부임한지 3년 되고 쌍파울로에 3개월 근무한 문학충文學充 영사가 귀국하게 되였다. 간단하나마 집에 초대하고 같이 저녁을 나누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초대해 본 영사다. 부인이 상냥해서 외교관外交官으로서 좋은 내조자內助者를 두신 분이다.

### 10. 1970년 11월 8일

쌍파울로 대사교大司敎(추기경) 아기넬 롯시 까르데아우 추기경이 영전?하여 로-마로 떠나시게 되였다. 그간 우리에게 한국에서 3년 동안 계시다가 이곳 북쪽에 계시던 이태리인 신부, 남南신부님을 우리 성당에 파견해주셨다. 우리는 남南신(부)님과 회장단을 따라 떠나시는 추기경님을 뵈오러 갔다.

인사하러 온 각국인들로 가득 차 있었고 멀리서도 우리를 알아보시고 반가워해주셨다. 개별면회個別面會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인 교우들을 먼저 만나주셨고 잠간동안 말슴하신 후 각 한 사람식 전 교황 비오 12세께서 교상에 친구하시고[100] 있는 상본 하나씩을 주셨다. 우리는 마지막 강복을 받은 후 가락지 친구를 하고 돌아왔다.

---

99) 가톨릭교 일곱 성사 중 하나.

100) 친구(親口). 숭경의 대상에 대하여 존경과 복종을 나타내려고 입을 맞추는 것.

## 11. 1970년 11월 15일 일 〈묘지탐방〉

애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부님을 보내 주소서 하고 자주 추기경을 찾아가시던 중 그곳 사무실에 붙인 묘지墓地 구입에 관關한 것을 보시고 여러 가지로 잘 검토한 결과 우리 한국인들도 장차 묘지가 필요한 것을 느끼고 이왕이면 천주교 계통系統에서 알선하고 있는 묘지를 우리 교우들은 물론 한국인 누구든지 하는 것이 좋치 않겠는가 생각되여 여러 가지로 상의한 결과結果 오늘 장차 우리 한국인 가톨릭 묘지가 될 자리인 MORUMBI에 있는 GETEMANI 묘지를 구경 갔었다. 날씨는 추웠으나 가는 길도 좋았고 그리 멀지도 않은 참 좋은 곳이였다. 아마 우리 교우들은 이곳으로 정할 것이다.

## 12. 1970년 11월 22일 일

이곳에서 200km 지점地點에 있는 NOSSASENHORA APARECIDA 성지聖地에 우리 성당에서 뻐스를 대절貸切[101]하고 갔었다. 7년 전에 NASSAR씨를 따라서 갔을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낮은 곳에 바라보이던 신축新築 중에 있던 성당(남미 제일)이 지금은 웃뚝 높이 솟아보였고 높던 산은 깎아서 어느 정차장停車場보다도 많은 뻐스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여전히 성물을 파는 가게와 사는 사람이 복짝거리고 있었다. 10시에 남미 제일로 큰 목조식木造式인 성당 내에는 각국인의 신자로 꽉 차여 있었고 다른 여러 신부님들과 함께 우리 남南신부님도 같이 미사를 드려주셨고 우리들은 영성체領聖體도 할 수 있었다. 대자代子 박인철(요셉) 모친 이데레사씨는 처음 온 분이라 그저 모든 것이 신기하고 한국에 편지 보낼 생각에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다.

성당은 전보다 그리 많이 건축된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았으나 다만 성당을 중심으로 부속附屬 건물이 많이 서 있었다. 그리고 파란 잔디와 나무들이 보기 좋았다. 묵주와 홍철[이]가 원하는 목에 거는 금으로 만든 십자가를 샀다.

## 13. 1970년 12월 12일 토

한국인 남녀 청년들이 4개월 전부터 모집된 합창단원合唱團員들의 첫 공연이 부라질 여자 카톨릭 청년회관靑年會館에서 열렸다. 단장 오염애씨 단원團員 남녀 합 27명 필그림 합창단合唱團이라 명명命名[102]하고. 고운 노래 소리였다. 강약强弱과 화음이 되였다. 인원이 좀 적었으나 좋은 밤이었다.

101) 원문에는 [代切].

102) 원문에는 [名命].

### 14. 1970년 12월 13일 일

천주교회에서 연례총회年例總會가 있었다. 두 수녀님(제諸쥴리아나, 김안젤라)과 우리 남南신부님을 뫼시고 모두 열심한 가운데 잘 진행 되였다.

총總 회장 고계순
회장 한명환韓明換
회장 김관선金寬善
서기書記 주성근朱成根
회계會計 황영걸

#10

# 1971

### 1. 1971년 1월 31일 일

일본 부인합창단婦人合唱團 공연에 참석하고 난 후 뜻하는 바 그동안 개인적個人的으로 혹은 각 단체團體(주로 교회)를 방문하여 한국인 부인합창단에 관한 권고를 많이 한 우리 재백在伯한국인의 유일한 필그림합창단 단장인 오염애여사의 노력으로 금일 한국 동네에 있는 오여사의 족하되는 이현숙씨 댁에서 아직 명칭名稱도 없는 우리 부인합창단원들이 뫃여 첫 회합을 갖일 수 있었다. 우리가 아직 안정되지 못한 생활 중에도 한 달에 두세 번 틈을 내서 음악을 좋와하는 우리 부인들이 한 자리에 뫃여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며 그 즐거운 기분으로 각 가정家庭에서 또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또 한 거름 나아가서는 자손들에게 바쁜 중에도 노래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기쁨을 배워준다는 것 또한 뜻깊은 일이라 생각한다. 아직 연락連絡이 잘 되지 않아서 11명이 모인 가운데

① 그리움 – 작곡作曲 _____
② 뜸북새 – 작곡 _____

을 2부部로 나누어서 연습해보았다.

나는 앨토를 했는데 목소리가 원체 좋치도 않고 늙고 자신이 없다. 그러나 같이 해 볼 생각이다.

## 2. 1971년 3월 1일

3.1절(52회) 기념행사를 가톨릭 여자청년회관女子靑年會館에서 영사님들을 뫼시고 교민회, 문화회 합동으로 잘 지냈다. 식후式後 필그림 합창단의 찬조합창贊助合唱에 이어 우리 부인합창단도 노래를 불렀다. 잘했건 못했건간에 어머니들이 노래를 부른 것이 재미있었던지 많은 박수를 받았다.

## 3. 1971년 4월 17일

한국 여배우인 최은희崔銀姬씨 내성來聖, 한국동내 금강식당金剛食堂(양원배楊元培씨 경영)에서 환담회가 있었다.

## 4. 1971년 5월 4, 5, 6 ? 일

신임 대사 노석찬 대사께서 초도初度순시視차 내성來聖하다. 시내 소주판점에서 환영회를 갖이다. 과연 말슴도 잘하시고 체격도 좋으시고 전 대사님보다 정치政治를 잘하실 것 같다. 나는 가서 보니 홍일점紅一點이라 좀 쑥쑤러웠다.

## 5. 1971년 5월 15일 토

브라질에서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世界女子籠球選手權大會 개최, 우리 한국 선수단은 수도 BRASILIA에서 미국 선수단과 접전接戰 86:50으로 승리勝利. 이곳 신문에 보도[103]되다.

## 6. 1971년 5월 16일 일

어머니 합창단 연습.

"꾀꼴새" 인원 성당에서 4명, 연합교회에서 4명. 반주자가 부군이 도미渡美하여 애기 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 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반주 중 간난 애기가 울어서 할 수 없이 애기를 없고 피아노를 치다. 브라질 한국인 역사상歷史上에 남을 좋은 일이다.

## 7. 1971년 5월 17일 월

그간 BRASILIA의 B조에서 분투하여 오던 우리 한국여자농구선수단 예선豫選에서 우승優勝, 내일 내성來聖한다. 장하다. 우리 한국의 이름을 높여주었고 우리 교민들의 어깨가 넓어진 감이 든다. 끝까지 건강하고 잘 싸워주기를. 이 나라의 대통령(메지시씨)도 흠미있게 보았다는(우리 께임을) 보도. 우리 성聖빠울로 교민들은 환영위원회委員會를 조직하고 대기待期 중에 있다.

103) 원문에는 [報導].

## 8. 1971년 5월 27일

우리 선수단은 비교적 약한 팀 큐-바-와 접전. 으레이 이길 줄 알았던 만큼 패배敗北하니 창피할 정도다. 테레비 앞에서 모두 주먹을 불끈 쥐고 웨쳤다. 코-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선발팀에서는 제일 약한 큐-바-팀에 졌으니 정말 챙피스럽다. 그러기에 너무 깔보면 안 된다. 같은 동양인인 일본인 관중들도 분해한다.

## 9. 1971년 5월 30일

부라질 신문에 보도된 여자농구대회 성적 발표

1위 쏘련
2위 첵코
3위 브라질
4위 한국
5위 일본
6위 불란서
7위 큐-바-
8위 미국
9위 아우스트리아
10위 카나다
11위 알잰틴
12위 에뀨아돌[104)]
13위 MALgAXC[105)]

## 10. 1971년 7월 31일 토

필그림 합창단 창립 제1주년 기념공연記念公演이(제2회 발표회) 있었다. 작년보다 인원人員 수도 늘어서 39명이 되고 좋았으나 독창은 아직 너무 무리한 것 같았고 또 1부 2부에서 너무나 비슷한 곡목을 선택한 것 같아 지루한 감이 있었다. 더 많은 발전을 빈다.

## 11. 1971년 10월 4일

10월 3일의 개천절開天節과 추석절秋夕節을 겸하야 시내 ATHLETIC CLUB에서 우리 총영사總領事 이충李充

104) 에콰도르.

105)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희씨 주최로 외국 영사들을 비롯해서 여러 인사들과 교포 유지有志들이 참석한 가운데 Festa가 있었다. 우중雨中인데도 불구하고 성황을 이루었다. 나는 우리 집 양반과 함께 외국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외교에 힘썼다.

### 12. 1971년 10월 10일

큰아버지 고광순씨 댁에서 그의 장녀 은희銀姬양의 피아노 문하생 제1회 발표회가 있었다. 선생의 인품人品을 닮아선지 학생들이 모-두 침착했고 탓찌?가 정확했다.

### 13. 1971년 11월 1일

나의 생일날 저녁 부슬비 내리는 가운데 가까운 친지들만이 정주철씨 댁에 모여 홍일이兒와 정鄭씨 딸 애순이兒와의 약혼約婚을 했다.

### 14. 1971년 11월 15일

브라질에 와서 처음으로 여행다운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우리 영자아버지玲子父와 함께 우리 차로 CAMPOS DOJORDÃ이라는 곳에 갔다. 굉장히 높은 지대이라 피서지이며 마침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온 뒤끝이라 얼마나 추웠는지 모른다. 관광객客들은 모두 겨울 털옷들을 입고 있었고 공기는 깨끗하고 안개가 자욱하였다. 아름다운 키가 낮은 고산高山꽃들이 공원에나 별장 울타리에 또 HOTEL의 정원에 아름답게 피여있었고 이름 모를 새들이 재재거리고 있어 정말 외국에 간 기분이었다. 마침 연휴일連休日이라 잘 곳을 얻을 수가 없어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다. 이런 때에는 나도 운전을 할 수 있다면 교대로 했으면 좋으련만 영자아버지께서 몹씨 피곤해 하신다.

### 15. 1971년 12월 15일

시내 SANTAMARO에 있는 미국계美國系 학원(ESCOLA ANGLO BRASILEIRA)을 양원배씨의 딸 영미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 대부분이 중국인, 한국인이었다.

#11

# 1972

## 1. 1972년 1월 〈홍철 FAAP대 입학〉

홍철이가 시내 F.A.A.P.(ALVARES PENTEADOS) 공대에 입학이 되였다.

## 2. 1972년 2월 12일

영자 생일이고 우리 제1차 이민단 도착 9년 되는 날. 우리는 그간 아버지께서 이곳 의사면허를 얻은 후 진찰실을 개업하던 초기[初期]부터 약 5년 동안 살던 VILA CARRAÕ집을 떠나 진찰실은 그냥 두고 그간 통학하기에 너무나 시간이 걸려 불편하여 홍철이 대학과 홍준 CRUCINHO(대학 입시 준비 학원)에서 가까운 시내 중심지 주택지에 Apt를 얻고 AV.ANGELICA로 이사를 하다. 주위 환경이 깨끗하고 공기도 좋고 아침이면 새들이 지져귀고 비들기 떼들이 유유히 나라다닌다. 인제 정말 외국에 온 기분이다. 집세는 Apt대급[貸給106)]유지비를 합하여 1,000꼰트이다.

## 3. 1972년 3월 8일

지난 6일부터 홍철이는 머리를 박박 깍고(상급생[上級生]들이 초년[初年] 입학생[入學生]들에게 하는 예[例]) 오늘부터 대학생활이 시작되였다. F.A.A.P 공과생[工科生]으로써 희망에 부푼 가슴을 펴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에 도보[徒步]로 통학하고 있다. 매일같이 새로운 과목[科目]의 책을 사고 있다.

## 4. 1972년 7월 23일 〈홍준 대학 입학(의대)〉

홍준이가 수도 BRASILIA 연방[聯邦] 의대에 입학이 되였다. 어려운 시험을 잘도 치루었다. 그러나 홍

106) 원문은 [代及].

준이가 원하는 대학은 이곳 SAÕ PAULO의대이기 때문에 BRASILIA는 휴학계休學屆를 내놓고 계속 이곳 의대시험을 치루기 위해 CULCINHO를 다닐 것이다.

CAMPINAS에서 누나, 매형 모두 기뻐서 축하하러 달려오다. 저녁 중국집에서 잔치함.

### 5. 1972년 8월 20일

본인은 물론이려니와 온 가족과 친구들이 원하던 대학에 장남 홍일이가 입학이 되였다. 상과商科 경영학과經營學科이다. 7월에는 홍준이가, 1월에는 홍철이가, 또 8월에 홍일이가 대학에 입학이 되고 보니 72년은 아마 우리 아들들의 대학 입학의 해인가 한다. 참말로 기쁘다. 모두 다 건강해서 열심하기를 바란다. 천주天主님께 감사드리며…….

### 6. 1972년 9월 15일 금

저녁 8시 반 시내 일본문화회관에서 목진태씨의 브라질 독립獨立 150주년 기념 PIANO 독주회獨奏會가 있었다. 모다 종일 일하고 고달픈 몸을 그래도 우리 한국인의 음악회音樂會를 후원하는 의미에서 또한 거치른 마음을 정화淨化[107] 시키려고 많이들 모였었다. 목睦씨도 그간 불행한 가정형편家庭形便이었으나 일본인 얌전한 부인을 맞이하여 새 출발하였으며 그녀女의 내조로 오늘의 이 날을 맞이한 것이다. 오늘의 피아노 곡목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였으나 많은 노력이 엿보였다. 제일 끝에 브라질 국가國歌를 편곡編曲한 것이 가장 좋았다.

그간 오랫동안 쉰세음이지만 아직도 얼마든지 공부하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어라고 할까. 남성男性이기 때문에 웅장하게 칠 수도 있고 또 여른 음音도 정正확하게 아름답게 들려주었다. 우리는 초대를 감사하는 마음에서 꽃다발을 보냈다.

### 7. 1972년 9월 9일

시내에서 조곰 떨어진 SAÕ BERNANDO에 교포 4명이 조서길, 김석환, 김정규, ___씨 한국의 회사와 합자合資하여 라-멘 공장을(상호商號 SUPERAMEN) 건설하고 오늘 오후 3시부터 내외인사 다수多數 참석 하에 성대한 개업식開業式이 있었다.

기계도 상당히 큰 기계이고 이렇게 설비하누라 많은 자금資金도 들었고 애로가 많았다 한다. 앞으로 계속 잘 되기를 바란다.

107) 원문은 [情化].

## 8. 1972년 10월 1일 〈함신부님 초청 피정〉

지난 9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알젠틴에 계신 한국인 함咸비오 신부님께서 이태리인 우리 본당 남南신부님의 초청에 의하여 내성來聖하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피정[108)]"해주셨다. 좋은 말슴 많이 들었고, 우리는 그동안 그 이름대로 모-든 정을 피하고 신앙인信仰人으로 모두 열심한 생활들을 하였다.

나는 차를 잡지 못하여 두 번이나 걸어서 집에서 성당까지 갔다.

× ×

우리는 과연 말이 통하는 한국 신부님이 필요한 것을 절실이 느낀다. 고해성사, 특히 부녀자婦女子들 노인들에게는 절때로 필요하다.

어제부터 우리 한국인 이민들의 12단체의 축구팀들의 시합이 있었다. 저 떨어진 RIO BONITO 넓은 들판에서 우리 성당팀도 참가하여 3위를 찾이했다.

## 9. 1972년 10월 21일 토

홍일이兒와 애순(OTILIA) 두 사람의 혼배 미사가 NOSSA SENHRA DA PAZ 성당(한국인 성당)에서 함咸신부님 주례 하에 거행되다. 가족(여성들) 전부가 교포 사상史上 처음으로 브라질인들처럼 긴 옷들을 입었다. 주여 이 애들에게 건강과 평화를 주소서…….

미사 후 소주판점에서 피로연이 있은 후 집에 와서 서로 인사(폐백)를 나눈 후 호텔에서 1박一泊하고 IGUACU 폭포를 거쳐 PARAGUAI, ALZENTINA에 여행을 갔다.

## 10. 1972년 10월 29일 일

우리 한국인 천주교 교우들은 함咸신부님의 "피정" 이후 다시금 한국인 신부의 필요성必要性을 느꼈고 또 한편 이태리인 남南신부님도 항상 "한국사람 한국 신부 와야 전교 잘하고", "이태리사람 이태리 신부 있어야 전교 잘 함니다" 말하고 또 금년 말로써 남南신부님이 브라질에 계실 기한期限이 끝난다기에 우리는 이 기회會에 한국 신부 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여 그 의사표시意思表示를 했다. 그리고 현재 남南신부가 욱여서 이移전하여 미사드리고 있는 BOAMORTE 성당은 비좁은데다가 너무도 헐어서 위험하고 수리비修理費가 무진장으로 들어가고 또 장차 우리 교회가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하여 대주교님의 명령命令 하에 다시 전에 우리가 미사드리던 NOSSA SENHRA DA PAZ성당에서 당분간 본당신부本堂神父 ANTONIO 갈로 신부님 소속 하에 미사드리게 되였다. 우리 한국인 신부를 뫼실 때까지 이곳 본당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108) 일상생활의 모든 업무를 피하여, 성당이나 수도원 같은 곳에 가서 조용히 장시간 동안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는 일.

### 11. 1972년 12월 10일 토, 일

일본문화회관을 빌려서 우리 한국인 부라질 이주 10주년을 기념하며 또 이 나라의 독립 15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 한국인 예능제祭가 열렸다. 양원배씨를 (금강식당)(과거 악단에 소속) 위시하여 여러 예능 동호인同好人들의 노력勞力으로 음악, 무용 기타 부문에 여러 심사위원들 참석 하에 성대하게 거행되였다.

1위에는 구리치-바에 사는 오유광씨가 차지했고 2위는 안성에서 같이 지내던 곽경원 여사가 되였다.

#12

# 1973

### 1. 1973년 1월 7일 일

오늘부터 S.PAULO의 모-든 대학에서는 입시가 시작되였다. 5, 6일간 학생들이나 부모들은 더위와 싸우면서 초조하게 지내게 되였다. 우리도 홍준이가 의대 입시에 응應하고 있다. 다른 여러 교포 학생들이 많이 응시應試하고 있다.

### 2. 1973년 2월 11일 일

내일이 10년 전 제1차 이민인 우리들이 SANTOS항에 도착하여 브라질 땅에서의 첫 생활이 시작된 날이다. 오늘은 "리오"에 도착한 날이며 또 휴일이어서 우리 동선자同船者들이 한국 동리의 성당 마당에 몽여서 소풍을 가기로 했다.

가장 먼 곳에서 사시는 권태영씨(봄바-수리공장修理工場 경영)가 제일 먼저 도착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과연 그때의 어린아이들은 지금은 늠늠한 청년들이 되여 있었고 각 세대에 자가용 한 대 이상은 다 갖이고 있었다. 한 세대씩 몽여들 때마다 반가움에 모두 법석을 하였다. 그날 몽인 세대는 고계순(의사)씨 가족, 권태영씨 가족(군인 출신), 안계승씨 가족(제품製品. 멕키공장), 안安씨 동생

댁인 심준렬씨 가족, 유재선씨 가족(선물용 가게), 장상기씨 가족(과일 상점), 윤명섭씨 가족(과일가게), 김철현씨 가족(식료품 가게), 박선관씨 가족(제품 봉재)과 그 외 백白씨 가족(식당), 이李씨 가족,혼자 와서 결혼한 장영자 여사 가족, 장만식씨 가족, 또 우리 1차보다 먼저 사절단使節團이란 명칭 하에 오신 홍관순씨 가족(식료품 가게), 또 가톨릭 케-스로 온 박경곤씨(과자점店) 총 65명인 대부대大部隊였다.

불참석不參席은 연락이 잘 안 된 김중혁씨(주유소), 얼굴만 보이고 간 양승감(이불 제품)씨, 바로 앞에 살고 있는 이정수씨(제품), 꽃집 조중환씨, 한용전씨, 김해곤씨(가방 공장), 윤봉선씨, 또 이민 와서 최초로 결혼한 최崔_____ 여사(부군이 택시-) 등이고 서재옥씨(멕기공장)는 약속만 하고 오지 않고. 아무튼 몽인 우리들은 각자의 차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여 SANTOS 가는 도중에 있는 시립공원市立公園에 도착. 이곳에는 자그마한 성당을 비롯하여 해수욕장, 낙시터, 간단한 매점賣店, 모-타-뽀-트, 뽀-트 등 서민층이 즐길 수 있는 곳이며 넓은 축구장도 있다. 제법 가파로운 언덕을 숲 사이로 오르내리니 35°의 더위에 숨이 차다. 축구장 옆 풀밭에 호수가 보이고 신나게 뽀-트를 타고 있는 것이 내다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고 오랜만에 옛 이민선에서의 가지가지 추억담追憶談에 꽃을 피우고 가지고 온 점심을 나누며 아버지들은 얼큰해서 풀밭에 누워 이민생활의 고苦된 이야기들을 나누다. 각 세대에서 기부한(50꼰트) 것으로 사가지고 온 상품商品을 주기로 하여 어린애들부터 여러 가지 께임이 있었다. 과자 따먹기, 리레-[109], 또 청년들의 자루 속에 들어가서 토끼 뜀뛰기. 그리고 부부간 손잡고 뛰기 등등. 또 다음의 상봉을 약속하면서 귀가歸家하다.

× ×

오늘의 적은 행사. 어쩐지 싱겁고 무엇인가 모자라는 것 같다. 즉 지휘자가 없다고나 할까.

× ×

그동안 우리 제1차 이민 18세대 중 귀국 또는 하와이로, 미국으로, 카나다로, 알젠틴으로 다시 이주한 세대가 있어 현재 12세대가 남은 셈이지만 분가分家한 세대와 결혼한 세대를 합치면 여전히 18세대로부터 인원수는 더 많아진 셈이다.

### 3. 1973년 3월 1일

이민 10년만의 3.1절 행사. 한국촌 성당 강당에서 거행. 식에 이어 올해 대학 입학자入學者에 대한 장려상이 수여되였고, 현재 대학생大學生 수는 _____.

영화 공주님의 짝사랑이 상영되였다. 한국촌에서의 몽임이라 많이 참석할 줄 알았는데 평일平日인 관계로 모다 장사하기에 바쁜 탓도 있겠지만 무슨 선거다 하면 잘 몽일런지? 어른은 없고 아이들만 오골오골 하였다. 현 이민회 부회장 이동수씨의 기념사가 참 좋았다.

109) '릴레이(relay)'의 북한어.

### 4. 1973년 3월 31일

그간 우리 대사님 참석 하에 교민들의 축구 대회가 RIO BONITO 넓은 호수가에서 열렸다. 2, 3, 4일과 오늘 결決승전이 있은 결과 중앙교회中央敎會팀이 우승이고 우리 성당팀은 2위였다.

### 5. 1973년 3월 14일

오늘 저녁 홍준이가 수도 부라질리아 의대로 출발하였다. 수일 전부터 마음이 어수선하였다. 처음으로 집을 떠나는 그 애와 나는 인제부터 영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학 때에나 잠간씩 들리고 나그네와도 같이 다녀가군 하다가 수년 후에 타국他國으로 유학留學가고, 그 후 장가가면 아주 영 남이 되는 것이리라. 이렇게 하나 둘 떨어져 나가면 장차는 어떻게 될 것인지?

### 6. 1973년 3월 18일

요셉 첨례날. 인철이와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오후 4시 반에 중앙성당 광장에서 로-마로부터 추기경의 임명을 받고 돌아오는 Paulo 아그델 롯치 추기경의 환영식이 있었고, 5시부터는 대성당大聖堂 내에서 추기경으로서의 첫 미사가 거행되였다. 얼마나 교우가 많이 몽여서 움직일 수 없이 꼭 끼어서 흰둥이나 껌둥이나가 다 같이 땀을 흘리며 미사에 참례했고 미사 후 서로 다투며 첫 강복을 받고서 열列을 지었다. 과연 가톨릭국답게 아직도 열심한 신자가 이렇게 많음을 볼 때 복 받은 나라이라 생각하고 또 기뻤다.

### 7. 1973년 4월 20일 금

부활절의 연 3일간의 휴일을 이용하여 이민 만 10년 만에 수도 BRASILIA에서 공부하고 있는 홍준이를 만나러 아버지와 홍일, 홍철과 함께 우리 차로(덧지) 새벽 4시 40분에 출발했다. 간단한 김밥과 과일, 음료수를 가지고 허허벌판 삼천리三千里 길을 온종일 달렸다. 홍일이가 어찌나 차를 잘 운전하는지. 휴일이라 차도 없고 길은 좋고 기름만 갈고 카-레-만 마시고 도중 간단한 점심만 먹고는 달리고 달려 수평선 아닌 지평선地平線이 까마득이 바라보이는 고원高原이 계속되는 곳에 수도가 있었다.

오후 3시 도착. 푸른 하늘과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하얀 구름, 맑은 공기, 파란 잔디, 웅장한 건물. 그러면서도 어딘가 적적하고 쓸쓸한 도시.

홍준이가 공부하고 있는 연방대학은 과연 넓고 규모가 큰 학교였다. 수도의 4분의 1이 학교의 땅이라는 넓은 인공호수人工湖水가에 서 있는 학교는 참 멋이 있었다. 학생들은 시설 좋은 곳에서 마음껏 이용하면서 늠늠히 자랄 것이다. 교내校內 도서관의 웅장함. 체육관 등등.

### 8. 1973년 6월 18일

홍준이는 브라질리아의 한국인 합창단을 조직하고 첫 공연?을 갖었었다고 한다. 큰 성공이었다고 앞으로도 초청이 있으면 응할 것이라 한다.

### 9. 1973년 6월 24일

제諸줄리아나 수녀님의 수녀 생활 25주년 즉 은銀경축의 날이다. 오랜동안 나를 희생하고 주를 섬기기에 무척 노력하였을 것이다. 교우 일동이 몽인 가운데 잔치하다.

× ×

오후 4시반 한국관韓國館에서 김홍기金弘基씨의 변호사 견습생見習生으로서 브라질인과 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되여 그 축연이 그 외 여러 대학 교수진敎授陣과 한국인 다수 참석 하에 성대하게 지냈다.

### 10. 1973년 7월 1일

큰아버지 은희네와 사촌댁과 같이 이곳에서 250km 지점인 CANANEIA라는 바닷가의 토지를 보러 갔었다.

도중 그 옛날 우리 첫 이민이 입주할 예정지인 MIRACATU를 거처 또다른 입주 예정지엿던 IGUAPE를 지나 현재는 아주 한촌寒村이며 고기잡이 통통배가 오락가락 할 뿐인 항구며 우리가 본 땅은 해변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천 평방미터平方米당 2만 꼰트이라고 하며 3천 평방미터를 3인이 나누어서 사자고 한다. 점심은 그곳에서 잡아서 까놓은 "굴"로써 배불리 먹다. "굴"과 "새우"의 산지라고 한다.

### 11. 1973년 7월 2일

나의 결혼 31주년의 날이다. 저녁 늦게 영자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꽃다발을 들고 오셔서 깜짝 놀랐다. 31년 동안 고락을 같이 한 우리들 어려운 일도 많았고 또 기쁜 일도 있었지만 항상 조마조마한 가운데 긴장하고 살아온 것 같다. 더구나 브라질에서의 10년간은 참으로 뜻깊었고 너무나 바쁜 생활이어서인지 잠간 사이에 지낸 것 같다.

영자네와 홍일네가 나의 반지와 아버지의 반지(에메랄드)를 해주었다.

오늘 현재로 우리와 영자네, 홍일네 각각 Apt를 샀고 차가 네 대 오-토바이 한 대. 또 각각 사업도 잘 되고 있으니 천주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주여 앞으로도 저의 집안에 건강과 평화를 주시고 남은 여생을 주의 뜻에 맡도록 살게 하소서…….

### 12. 1973년 7월 10일 화

브라질리아에서 공부하고 있던 홍준이는 1학기一學期를 마치고 첫 방학을 맞이하여 오늘 오후에 귀가하였다. 온 가족이 밤늦게까지 몽여앉아 4개월간의 서로 쌓인 이야기로 끝이 없었다.

### 13. 1973년 7월 13일 금

오늘 하오 4시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국인 함咸신부님을 CONGONIA 비행장飛行場으로 마중 나갔다. 환영의 푸랭카-드를 들고 바쁜 중에도 약 50명이 환영 나갔었다. 신부님은 기후 차이差異로 인해서 땀을 흘리면서 일일히 인사하였다.

### 14. 1973년 7월 15일 금

함咸신부님 한국인 본당 신부님으로써 첫 미사 거행하다. 과연 많은 교우들이 몽였고 속 시원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의 강론 얼마나 우리들이 원하든 일인지.

× ×

우리 집 근처 PACAEMBU 시립경기장市立競技場에서 재在부라질한국태권도협회와 대사관 후원으로 제1회 브라질 태권도 선수권 대회 및 사범경기대회가 열렸다. 모-든 서류가 잘 구별區別되여 있었고 질서가 잘해 있었다. 브라질인들도 많았고 도리혀 그들이 체격도 좋고 더 날새게 잘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족하들인 춘우, 남우, 또 ROSA씨의 아들 대히가 출전出戰하였다. 이민 10년 만에 처음인 태권도 대회인데도 성대하게 잘 되였다.

### 15. 1973년 7월 23일(22일?)

함咸비오 신부님의 환영미사를 겸한 교우 전체의 피크닉을 갔다. (일본 칸츄리클럽에서)

오늘따라 바람이 불고 날씨는 흐려 마치 우리나라의 입동立冬을 상상케하는 추위 속에서 떨면서 미사를 드렸다. 뻐스 4대 자가용 차 수십 대. 인원 수백 명 참가. 미사 후에 함咸신부 환영식에 이어 점심식사, 축구시합, 기타 경주, 보물찾기로 뜻깊은 하로를 즐기다.

× ×

원元충회 치과의사齒科醫師의 딸애기 VANESSA의 첫 돐잔치가 시내 중국집에서 다수 인사가 몽인 가운데 기쁘게 지냈다. 우리 식구 전원 참가. 영자가 사회를 보고.

### 16. 1973년 8월 15일 수

한국 동네 성당 강당에서 8.15행사를 거행하다. 내년來年에는 일치단결할 것과 문화회관 기금 모집에 적극 호응하여 내년에는 우리 회관에서 행사를 거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달라는 총영사님의 말슴이 있었다. 간단한 식후式後에 영화 상영하다.

× ×

성당에서는 성모 몽소승천 첨례와 8.15를 맞이하다. 성대한 미사성제와 아울러 단체적으로 영세성사領洗聖事와 첫 영성체성사領聖體聖事가 있었다. 우리는 성成인경(화우스트)의 대부대모代父大母가 되였다.

### 17. 1973년 8월 18일 토

헤만 음악연구회 음악연구발표회의 밤이 열렸다. 전례前例없이 꽉 차인 장내場內에 음악인들의 열성과 모-든 노력이 엿보였다. 특히 4인조四人組의 외국인 관악 반주는 우렁찻고 지휘자指揮者는 훌륭했다. 그리고 꾀짜였다. 대단한 성황이었다.

### 18. 1973년 9월 16일 일

SAÕ Paulo에서 10월 5일부터 열리는 VIENAR 미술전시회에 작품도 출품하신 추상화 화가畵家 정상화 교수 오시다. 그가 묵고 있는 고광순씨 HOTEL RECOLD에서 잠간 환담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오신 예술가로써 조용하시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지성인다웠다.

### 19. 1973년 9월 30일 일 〈RUA NOVOHORIZONTE 46〉

우리 집을 축성해주시다. 함咸신부님과 수녀님들, 대자代子 인철(요셉)은 내주來週에 부인이 이곳에 도착 예정이고 인경(파우스트)는 어제 도착한 부인(쥴리아나)와 같이 또 임林왕(RORENSO) 도와서 같이 점심식사를 같이 하며 즐거운 한 때를 지낼 수 있었다.

### 20. 1973년 10월 1일 월 〈(1971년부터) 의사회 시작〉

약 2년 전부터 우리 의사들의 친목회를 갖었다. 그간 매월每月 한차례씩 모여서 시내 유명한 식당을 순방하면서 즐거운 회식會食을 하였었다. 그러나 바쁜 탓인지 요새는 통 만나지를 못하다가 오늘 시내 IBIRAPUERA 공원 근처의 "배"의 모양을 한 식당에서 떠나시는 이윤희 총영사님의 송별送別연을 갖이다. 과연 맛있는 해산물의 요리가 많았다.

참석자參席者 회장인 이종만 박사 내외, 부회장인 고계순 부부, 주성철朱星哲의사 부부, 총무總務인 원충렬元忠烈 의사 부부, 김여흥 의사, 이영한 의사, 이윤희 총영사 부부, 영사 임규식 부부, 김金영사.

### 21. 1973년 10월 21일 〈PAULO EVARISTO ORNS〉

SAÕ PAULO 추기경님께서 오시어 우리 함咸신부님의 취임就任미사와 70여余의 견진미사가 있었다. 우리 한국 영사님들을 비롯해서 각 교회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엄하고도 성대하게 이루어졌다. 우리들 여성들은 한국 치마저고리를 입어 알록달록 아름다웠고 명절 기분이었다. 미사 후에 부속 강당에서 젊은이들의 연에 푸로가 박인철 지도 하에 또 우리 홍철이의 사회 중에 이루어졌고 그 옆 넓은 홀에서는 모-든 어머니들의 정성것 작만한 음식 파-티-가 있었다. 추기경님께서는 무척 기뻐해주셨다.

### 22. 1973년 10월 30일 화

밤 9시 시내에 있는 미술박물관 내에 있는 강당에서 8년 전 68세대 케-스로 온 김金씨의 장녀의 RECITAL DA CANTORA(메조 소푸라노) 독창회가 열렸다. 외국인들과 우리 교포들의 참석 하에 1부에서는 세계 각 곡 중에서, 또 2부는 부라질 작곡가作曲家의 노래와 한국인 작곡作曲가의 노래를 불렀다. 부드럽고 아름답게 잘 불렀다. 이민생활 중에도 그만큼 성공하게 된 것은 본인의 노력도 여간 아니었겠지만 어려운 중에도 그처럼 뒷바라지를 한 부모들과 주위 어른들의 힘이 큰 것이리라.

### 23. 1973년 11월 1일 〈내 나이 50세〉

내 나이 만 50이 되는 날이다. 평북平北 정주定州 림포면 깊은 산속 과수원果樹園 큰 기와집에서 나서 새소리, 물소리 들으면서 자랐고 비온 후의 떨어지던 사과, 빨간 딸기 생각. 남자들 틈에서 나 혼자 다니던 서당書堂 생각, 삼촌三寸들이 짓궂게 양羊을 타던 일, 그리고 그 곳을 떠나던 일.

정주 읍내邑內에서의 소학교 시절. 경성사범京城師範 시대時代. (너무나 딱딱한 교육제도敎育制度) 졸업 후 정주군郡의 운전雲田에서의 교사 시대. 그 후 서울에서의 결혼 시대. 아니 시媤집싸리 시대. 부산에서의 피난 생활. 그래도 아버지의 전성시대全盛時代였던 경찰병원 시대. 그 후 인천에서의 3년 동안의 고생. 또 안성에서의 7년 동안의 또 한 번의 전성시대. 부라질에 와서의 10년. 즉 결혼 생활은 30년이 된다.

인제 할머니가 되고 시어머니가 되였다. 이해 깊은 시어머니가 되야겠고, 좋은 추억을 줄 수 있는 할머니가 되어야 할 텐데. 언어는 점점 통하지도 못하고 무슨 추억을 줄 수 있겠는가?

### 24. 1973년 11월 15일 목

아침 7시 35분 아버지의 제왕수술 하에 홍일의 장녀(3,700g) CAROLINA(애리愛俐) 출생出生하다. 얼굴이 희고 포동포동하였다. 아빠 닮은 듯? 모두 서운한 듯?

#13

# 1974

### 1. 1974년 2월 23일 〈CAROL 출생〉

CAROLINA(손녀)의 면일面日이다. 엄마와 할머니가 또 온 가족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오늘을 맞이했는지. 약 7kg 무게이며 잘 자랐다. 외친부모外親父母도 참석하고 대부모代父母로는 고모인 영자 내외가 서고 뜻깊은 영세식領洗式이 있었다. 주의 사랑하는 딸로써 건강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자라도록 기구한다. 저녁에는 온 식구가 신북경반점新北京飯店에서 식사.

### 2. 1974년 10월 〈목진태씨 우리성당 성가대 지휘〉

지난달부터 성당 성가대聖歌隊를 위하여 목진태씨가 지휘자로 오시다. 훌륭한 선생님이 오셨으니 모두 열심해진 것 같고 신이 나는 것 같다. 나도 앨토로서 배우기도 할 겸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어서 또 인원이 부족해서 같이 하고 있다. 노래 부를 때만은 즐거운 기분이다.

### 3. 1974년 11월 25일

김형근씨와 차신모씨의 두 아들과 같이 궁전宮殿이라는 식당을 개업하다. 이로써 한국식당이 5개가 되는 셈이고 또 식료품 가게도 두 군데가 된다. 우리들 살기도 점점 편리해지는 것 같다.

### 4. 1974년 10월 16일 〈북쪽 여행〉

아버지와 함께 북동北東쪽으로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여행하다. 전에 아버지가 의사갱신시험을 치루러 갔던 Recife를 비롯해서 BAHIA 등 옛 도시를 볼 수 있었다.

#14

# 1975

### 1. 1975년 1월 28일

홍일의 차녀次女 PATRICIA(유리俞俐) 출생하다. 4kg 400g. 이사짐을 싸랴 애기도 가보랴 바쁘다.

### 2. 1975년 2월 1일 〈SERGIPE 627로 이사〉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Apt를 사고 이사하다. RUA SERGIPE 627. ANGELICA 공원 윗길 꿈에 그리던 지역으로 왔으니 기쁘다. 공기도 좋고 아침에는 공원의 나무에서 새소리 들려오고 여름인데도 시원하다. 새사람 낳고 이사하고 바쁘고. 고단한 날이었지만 하느님께 감사.

### 3. 1975년 9월 18일

한국 남자배구팀과 BRASIL팀이 시합이 있음. 전주前週에는 여자배구팀의 시합이 있었다.

### 4. 1975년 9월 23일

저녁 TERRAZZA MARTINI에서 LITTLE ANGELS의 어린이 무용단들의 초대 파-티-가 있었다.

### 5. 1975년 9월 25일

TEATRO MUNICIPAL에서 어린이 무용단들의 공연 관람하다. 어린 것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국위선양을 많이 해주었다.

### 6. 1975년 10월 1일~ 31일까지 〈북미 여행〉

북미北美 여행을 하다.

NY - TORONTO - LAS VEGAS [110] - LA - MEXICO 등

자세한 것은 별지別紙에.

### 7. 1975년 11월 6일

옛날 경여사京女師시대의 연습과 졸업생인 일본인 스기야마杉山 여사 내백來伯. 이숙李淑 여사, 하구씨 4인이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옛 이야기 하다.

### 8. 1975년 11월 7일

병중病中에 있던 "홍관순"씨가 별세하여 오늘 장례식에 참례하다. 인제 옛날에 오신 친구들 하나둘식 가버리다.

### 9. 1975년 12월 19일

홍일 공장에서 새 모양의 이쁜 스티-커-를 만들었다. 큰 것 작은 것 또 이번의 것 등 처음에 만들 때마다 집에 갖고 온다.

### 10. 1975년 12월

한춘교씨 교민회 회장이 되다.

110) 원문에는 [BEGAS].

#15

# 1976

### 1. 1976년 2월 10일

제1회 미술전美術展람회가 일본문화회관에서 열리다.

김영희, 김정권, 김귀연, 김숙희, 박남순, 오애신, 오형신, 정천제, 최연희, 한국진, 황정민, 방종수 모두 열심하고 진지한 모습이 엿보였다. 영자도 연락은 받았으나 장사하랴 애기보랴 응하지 못해서 서운했다.

### 2. 1976년 2월 22일

요새는 8.15, 3.1절을 기해서 단체로 모국방문母國訪問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만큼 여유가 생겼다고나 할까. 햇수가 많이 지났다고 할까?

### 3. 1976년 2월 29일 〈안나회(1967년 시작)〉

성당에서 어머니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에 지금까지 중책을 맞지 않으려 했으나 할 수 없이 한번만 맞기로 했다. 성격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내가 어떻게 어머니회를 이끌고 나갈 것인지. 활발한 것 같으면서도 내성적이고 무었이던지 귀치않게 생각하는 나는 적임자가 아닌데. 주의 가호와 여러 어머니들의 협력을 바랄 뿐.

### 4. 1976년 3월 10일

10여 년 전 이민 초창기初創期에 아버지가 교민회 회장으로 있을 때에 포어葡語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기성회를 갖었었고 그동안 자금 문제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주영복씨가 혼자서 지금까지 애쓴 보람이 있어 정성定成이 되였다.

인제 그 사전이 고국에서는 물론 브라질의 우리 학도의 큰 힘이 될 것이다.

### 5. 1976년 3월

홍일 공장 견학(새로 이사한 천 평방미터(1,000))의 큰 공장을 경영하게 되였으니 장하고도 감개무량하다.

### 6. 1976년 4월 19일

CAROLINA가 성주간의 휴일을 마치고 다시 유치원에 가기 시작했다. 2살 6개월부터 다니고 있으니 앞으로도 20년을 공부로써 시달리게 될 터이니 애처롭기도 하다. 그래도 벌써 유치원에 다니는 보람있어 말도 제대로 잘하고 (나는 점점 말이 통하지 않게 되지만) 인제 울지도 않고 혼자 다른 애들과 함께 통학차通學車를 타고 곧 잘 간다. 아무튼 샘이 많아서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공부도 잘 한댄다.

### 7. 1976년 5월 1일

영자가 두 번째 애기이며 장녀인 PRISCILA를 7년 만에 출산했다. 오후 3시에 2kg 700이라 작은 애기지만 야무지게 생겼다.

### 8. 1976년 6월 11일 〈시내 중심 ANGELICA 진찰실 개업〉

저녁 8시 반부터 함咸신부님 오셔서 아버지의 새 진찰실(ANGELICA 916에 있는 MEDICAL CENTER) 축성하다. 문희철 총영사님 내외와 여러 교민들과 또 부라질인 의사 친구들 참석하여 뜻깊게 지내다. BRASIL SALGADO 음식으로 손님 대접하다. 아버지께서는 마음에 드시는 진찰실을 마련하셔서, 자랑스럽기도 하시고 기쁘신 모양이다. 건강하셔서 더 훌륭한 의사가 되시기를 빈다.

### 9. 1976년 6월 12일

전 진찰실에서(CONSELEIRO FRUTADO) 새 진찰실로 이사했다.

### 10. 1976년 6월 15일

새 진찰실에서 환자 진찰 시작. 진찰비 350꼰또.

### 11. 1976년 8월 31일

홍일네가 가까운 HIGIENOPOLIS에 Apt를 얻고 이사를 하다. 네 식구가 한꺼번에 나가고 보니 집이 텅 빈 것 같다. 손녀들의 생각만 해도 저절로 눈물이 난다. 건강하여 행복하게 잘 살기를 빈다.

### 12. 1976년 9월 19일 〈부父 총회장직을 또 맡음〉

사정에 의하여 아버지가 또 성당의 총회장직을 맞게 되었다.

### 13. 1976년 11월 27일

아침 7시 HOSPITAL SANTA HELENA에서 아버지께서 환자의 위胃 십이지장궤양 수술을 하시고 방학을 하고 돌아온 의대생醫大生인 홍준이와 장시간 동안 오늘의 수술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진지했다. 홍준이가 지금 4학년인데 어떻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이해를 잘하는지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착실함을 기뻐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실력을 다시 한 번 인식했고 놀라는 부자지간父子之間의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았다. 고高씨 집안의 훌륭한 의사들이여. 만세!

#16

# 1977

## 1. 1977년 1월 23일~26일

한국에서 서울교구[教區] 이李사무총장 신부님 오시다. 함[咸]신부님은 다시 유임[留任]하시게 되여, 이곳 부주교[副主教] JOSE THURUDER 신부님과 공동[共同]으로 미사하다. 이[李]총장 신부는 과거 외국에도 많이 게시고 말슴도 잘 하시고 큰 인물인 것 같은데 이곳 사정을 너무나 모르시는 것 같았고 같은 신부의 입장[立場]에서 자기 고집만 세우고 신부의 입장을 생각하는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주교단[主教團]과 이곳 추기경과의 연락 하에 다시 유임하게 된 함[咸]신부를 다짜고짜로 가자구 할 것이 아니라. 좀 다른 기회로 미루고, 가실 때에는 함[咸]신부를 중심으로 합심해서 열심한 종교생활[宗教生活]을 하기를 바란다는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다리던 그 옛날의 구세주의 말슴과 같았을 것이고 훌륭한 큰 인물 신부님의 하실 말슴이 아니겠는가. 도리혀 신자간의 벌집 쑤시듯이 해놓고 갔으니 천주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듯는 세상이라 아니하겠는가?

## 2. 1977년 2월 8일

한(전[前] 대령)씨 댁을 방문하다.

한국에서 영문과[英文科]를 나온 후 군[軍]에 입대[入隊]하여 통역관으로 있다가 영문[英文]으로 된 돌, 즉 보석에 관한 책을 번역하는 동안에 취미가 생겨 많은 공부를 하고는 브라질에서 많이 나는 돌에 관해서 연구하고 대사관에서 돌에 대한 기술 이민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기술이민으로 온지 2년간 MINAS, BAHIA 등 이름도 다이아몬드 강 근처로 수차 다니면서 각가지 돌을 사다가 잘 깎아서 외국인들에게 팔고 있다는데 원체 돌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라 그곳으로 가면 원주민들이 "돌의 박사"라고 하며 많이들 와서 물어본다고 한다.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자기는 돌에 취미가 많아서 고생을 무릅쓰고 다녀온다고 하며, 여름에는 장시간동안 뻐스를 타고 오지[奥地]를 가면 몸은 땀띠 투성이고 촌에는 음료수와 음식이 마땅치를 않아 깡통을 갖이고 가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원체 보석을 캐는 대는 강도도 많고 또 그곳은 무법천지라 권총을 다 갖고 있다 한다. 환자로 왔다가 사귄 사람이다.

### 3. 1977년 2월 20일

BRASILIA 수도의 우리 한국 대사관 신축 낙성식은 이미 끝났으나 SAÕ PAULO의 교포들은 어제 뻐스 2대를 대절하고 올라갔다고 한다. 대사관의 알선으로 일류 HOTEL에서 유숙했고 공관公官 댁에서 대접을 잘 받았다고 한다.

### 4. 1977년 3월 19일 〈내가 수영과 꽃꽂이 시작〉

내일이 홍준이 생일인데 BRASILIA로 공부하러 가누라 수년 동안 제대로 한 번도 생일을 못해주어서 오늘 저녁에 AP 밑에 SALAÕ에서 친구 몇을 불러서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 ×

금주부터 운동 부족이라기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다. 월수금月水金 일주一週에 세 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6시 반부터 A.C.M.(Y.M.C.A.)클럽에서 초보자 12인과 같이 연습하다. 내가 나이 53세에 처음 물속엘 들어가려니 겁이 나고 무서워서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은 젊었을 때 배우기 마련이다. 그리고 일본문화회관에서 "꽃꽂이"를 시작했다. 갑짜기 운동을 했으니 온몸이 아프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용기를 내야지. 아무튼 바쁜 나날이다.

### 5. 1977년 4월 7일

저녁 성聖 목요일木曜日 제왕수술帝王手術로서 홍일 삼녀 CAMILA 출생하다.

### 6. 1977년 4월 21일

이연실 무용발표회가 일본문화회관에서 열리다. 진행도 좋았고 춤도 잘 추었고 우리나라의 어린이들 기특했다.

### 7. 1977년 4월 24일

VIENA소년합창단少年合唱團 공연 처음으로 들었다. 조금 쓸쓸한 기분이었다. 곱게 부르지만 우렁찬 맛은 없었다.

### 8. 1977년 5월 17일

홍일 삼녀 CAMILA 아침 7시에 잠자듯이 갔다고 전화받음. 삼녀라고 천대받아서 갔는가.

### 9. 1977년 7월 23일 〈홍철 약혼〉

홍철이와 황기오 박사의 차녀 은덕양과 간소하게 약혼.

### 10. 1977년 12월 10일

박선관(전前 대령)씨의 차남 상기군이 오늘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INSTITUTO TECNOLOGICO DE ÁERONÁUTICO(I.T.A) ENGENHARIA MECONICO 즉 기계과를 졸업했다. 이 학교는 앞으로는 이곳에서 출생한 자에 한해서 갈 수 있는 최고로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의 학교인 만큼 그 당시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기군이 이 학교에 입학했던 것을 생각하면 과연 우리 한국인의 자-랑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축하해 맞이않는다.

× ×

저녁에는 우리 홍일이가 입회入會한 꼴프클럽에서 B조에서 우승하고 또 클럽 전체에서 우승을 했다 하며 대大짜의 우승컾과 또 다른 우승상을 타가지고 왔다. 모두들 기뻐했다.

### 11. 1977년 12월 11일 〈문학의 밤〉

성당에서 옆의 음대音大의 강당을 빌려 젊은이의 문학文學의 밤을 _____회원들이. 과연 젊은 아이들이라 섬세한 시詩 낭독이 많았다. 이렇게 하여 우리 청소년靑少年들이 올바르게 잘 자라게 될 것이다.

#17

# 1978

### 1. 1978년 1월?

사돈 황기오씨가 은혜음악원을 개원

### 2. 1978년 3월 29일

L.A. HAWAII에서 아버[지]들 의사회醫師會에 참석하고 한국에서 한 달, 일본, NY, PHILADELPHIA를 거쳐서 5월 29일 돌아왔다.

### 3. 1978년 7월 30일 〈혜성유치원 개원〉

혜성 유치원 개원식 원장에는 제줄리아수녀님이 되시다.

### 4. 1978년 7월 31일

오후 2시 30분, S.paulo 교육문화협회[教育文化協會]서 한국총영사님(장기안)께서 ONANERI 훈장을 수상하다. 아버지도 참석.

### 5. 1978년 8월 12일~13일 밤까지 〈성당어머니들 피정〉

성당 어머니들 48명이 VIRACOPOS 비행장 근처에 있는 ITATIAIA에서 특수 피정을 받다. 모-든 것을 잊고 오로지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간. 가슴에 각자의 이름을 써 부치고 임원 형제님들의 진지한 강의도 좋았고 아침에 불러주신 노래는 잊을 수가 없다. 프르른 환경 맑은 공기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① 먼동 틉니다. 잠을 깨세요. 동녘 하늘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이 새벽 안녕하세요. …
② 일어나세요. 잠을 깨세요. 어둠의 옷 벗고 광명의 갑옷을 어서 입으세요. 이 좋은 아침 …
③ 성인 되라고 새벽인사를 우리 다 같이 기쁘게 나누며 감격에 잠긴 채 얼어 납씨라. …
④ 그대 나던 날 생각나세요. 물과 성실으로 천사들 알아서 새 꽃 한 송이 피어나던 날. …
⑤ 저 하늘에서 별들 따라가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기쁨의 하나는 사랑의 선물이 되게. …

### 6. 1978년 9월 4일

김미영(LIDIA) 대녀가 바이올린 독주. MUSEU DE ARTE에서

### 7. 1978년 9월 21일 목

한국무용단 공연 관람

### 8. 1978년 12월 1일~3일

홍준 BRASILIA 연방 의과대학[醫科大學] 졸업. 감개무량.

#18

# 1979

### 1. 1979년 1월 9일

성당 대지 구입

### 2. 1979년 1월 19일

홍철 황우덕과 결혼(오후 8시 반)

### 3. 1979년 2월 26일

SERGIPE 집에서 ALTO DALAPA 집으로 이사하다.
APT에 있다가 집으로 가니 걸어 다니는 데가 많아서 운동은 되지만 고단하다.

### 4. 1979년 3월 20일

홍준이 생일날(27회).
제법 가을이라 저녁이면 풀 속에서 벌레들이 울어대고 밤이면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는 것도 볼 수 있다. 집 안팍을 오르락내리락 다리가 아프다. 공기는 너무나 좋고 바라다 보이는 PELÉ CLUB의 경치는 아름답고 우리 집 뜰의 계속인양 착각을 한다. 높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여있다.

### 5. 1979년 4월 20일~25일

리오에서 열리는 세계정형외과학회世界整形外科學會(7회)에 참석코자 아버지를 따라서 갔었다.

### 6. 1979년 4월 25일~26일

사둔 황기오 교수를 중심으로 몇몇 음악인들이 몽여서 가곡의 밤을 개최하다. 제1차 이민들이 많이 힘써주었다.

### 7. 1979년 6월 15일~16일

AV. SAÕ LUIS GALERIA DE METROPOLE에서 고모가 "돌"가게[111]를 시작했다. 그동안 없는 돈에 수리하랴, 물건 사랴 많은 애를 쓴 보람 있어 멋진 가게가 되였다.

### 8. 1979년 7월 18일 〈아버지 회갑〉

옛날에 오신 분들과 아이들 친구를 초대하고 "진" 식당에서 잔치를 했다.

### 9. 1979년 7월 20일

"리이"오에서 열린 세계펜클럽대회에 한국에서 참석한 문인文人 14명이 S.paulo에 도착했다. 모윤숙毛允淑(70이 넘은) 여사, 전숙희田淑姬 여사와 또 아버지와 의과동창인 문인 윤尹호영永 박사와 또 우리 동창 부군인 정한숙 교수 등 여러 분이다.

### 10. 1979년 7월 23일

나의 동기동창同期同窓 김효숙 여사의 가족과 함께 정한숙씨를 중심으로 여러 분을 화식和食집에서 점심을 같이 하고 오후에는 고모네 가게에서 돌(선물을)들을 사고.

저녁에는 아버지 동창 윤호영씨와 또 한국 문화원장文化院長이며 광운공대교수光云工大教授인 이우재李又載 박사와 함께 간단한 저녁식사를 하고 TERAÇO DE ITALIANO 건물 꼭대기에서 BATISA를 마시며 환담하다.

### 11. 1979년 8월 15일

교민들이 이민 10년 만에 산 새로운 회관에서 23회 8.15행사를 지냈다. 대지는 약 4200평방미터, 건물은 3층으로 약 34평방미터인데 너무나도 대견했다.

### 12. 1979년 8월 27일

그간 카나다에 가 계시던 음악가 목진태 선생이 3년 반 만에 이곳에 다리러 오셨다. 딸 유리가(6세) 바이오린(천재교육天才教育)을 시켜서 오늘 카톨릭 여자청년회관에서 첫 독주회를 가졌다. 아버지(목씨)가 피아노를 반주하고 애기가 너무나도 잘 켜서 눈물이 날 번 했다. 목선생이 못 다한 음악가의 포부를 애기에게 실현시키려는가보았다. 감격한 날이었다.

111) 원문에는 [가게].

#19

# 1980

### 1. 1980년 2월 9일

홍철의 장녀 SIMONE(미리美俐)를 새벽 6시 50분에 순산順産했다.(3kg 100)

### 2. 1980년 2월 19일

알젠틴, 파라과이를 거쳐서 이곳에 오신 박朴주교님(제주도구區 주교님이시고 해외교포 지도 신부) 집도하에 견지미사 견진미사[112] 거행. 강론은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부라질에 와 있는 교포 모두 잠시 동안 다녀가는 타향사리. 여행자인 것. 본 고향은 하늘나라다.

바보짓같이 보이는 신자가 진짜 신자.

### 4. 1980년 7월 3일

S.paulo CAMPO DE MARTE에서 내백來伯하신 교황님의 미사가 있었다. ANCHETA 신부님의 시복식도 겸함.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12일간 재백在伯하심.

7월 1일부터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홍일 공장 경영이 힘이 들어서 PAGODA공장이 CONCORDATA[113]에 들어가다.

### 5. 1980년 8월 26일 ~ 9월 1일까지

한국의 수원교구水原教區를 맡아 보시는 김남수金南洙 추기경님께서 내백來伯하시고 목, 금, 토, 일, 4일간 저녁 8시 미사 후에 피정강론 하시다. "주의 기도"에 관해서.

### 6. 1980년 9월 1일

한국 11대 대통령이신 김두환斗煥[114] (전前 장군將軍)께서 취임식就任式을 거행하셨다.

### 7. 1980년 9월 25일

홍준이 장녀 TAHISA 출생하다.

---

112) 견진미사의 오기(誤記).

113) Company voluntary arrangement. 회사 자율 약정.

114) 전두환.

#20

# 1981

### 1. 1981년 5월 29일 〈BIJOTERIA 개업〉

홍일네 PINHEIROS[115] 21리 TEODORO SAMPAIO 1,114번지에서 BIJOTERIA(MARVY) 상점 열다. 인제 OTHILIA도 바빠지고 나도 더 바쁘게 생겼다.

### 2. 1981년 5월 30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세계 로-타리클럽 대회에 참석코저 고국에서 80여명이 내백來伯하다. 아버지 의과동창 김린기 선생 만나다.

### 3. 1981년 6월 15일

아버지 속을 태우다. 암흑시대.

### 4. 1981년 10월 20일

미국서 친구와 함께 문희(시제종사촌媤姨從四寸) 사촌동생四寸同生이 오다. BRASILIA, RIO를 같이 여행하고 IGUAZU를 구경하고.

### 5. 1981년 11월 6일

문희 고모 미국으로 귀국하다. 명랑하고 웃기도 잘하고 남을 즐겁게 하는 귀여운 여성이다.

### 6. 1981년 11월 27일

요사이 애들 아버지는 미술학교(3년제) 졸업 론문 작성하랴.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정리하랴 몹씨 바쁜가보다. 본업本業이 의사인데 어떤 것이 본업인지 알 수 없으리만치 바쁘게 뛰고 있다.

115) 원문에는 [PINEIROS].

#21

# 지난일기

## 1. 1976년 10월

BAIRO HIGIENOPOLIS의 중심공원(BUENOS) 근처 R. SERGIPE로 이사를 하고, 어느 날의 일기인 것 같으다.

우리와 우리 손녀들(맏아들 홍일네와 같이 살 때) 우리가 이 Apt를 사려고 할 때 지도상으로 건물에 비해서 땅 전체가 넓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했었는데, 과연 다 지은 후에 와서 보니 건물 주위로 빙 둘러저 있는 넓은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살아보니 공기도 좋고 7층 Apt에서 정원을 내려다보면 마치 우리 개인의 뜰인 것처럼 느끼며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으면서 바나나 나무의 푸로른 큰 잎사귀를 신기하게 바라본다. 정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는 흰 칠을 한 낮은 기둥들 사이사이로 반원을 그리며 굵은 쇠줄이 둥글둥글 밑으로 드리워져 있고, 현관을 향하여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검으스름한 작은 돌이 밖혀 있는 길을 사이로 양쪽 앞들에는 잔듸가 깔려 있고 많은 꽃과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어떤 때에는 노랑꽃이 이쪽에서 피여있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저쪽에서 빵강 꽃, 하늘색 꽃이 피어 있기도 하며 철따라 여러 가지 꽃들이 번갈아가며 여기저기 피군 한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에는 우리 손녀들이 너무나 어려, 큰 애는 첫 돐이 지났으나 작은 애는 출생한지 이틀바께 되지 않아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한 두어 달 후 부터는 뒤뜰의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하루 두 차례식 애기 엄마와 나, 또는 식모가 번갈아가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고 데리고 가서 같이 놀아주곤 했다. 작은 애는 어린이 차에 눕여 나무 그늘에 놓으면 되지만 큰 애는 가만이 있으면 운동이 부족할까보아 시-소-를 타기도 하고 성과 같이 쌓아 올린 놀이터에 올라가서 숨바꼭질도 하고. 자전거를 태워 주기도 하고 공 던지기도 같이 하고 나면 나는 지쳐서 의자에 앉아 지켜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시간이 있을 때에는 더 바빴다. 삼촌들이 숲 속에서나 나무 밑에서 또 잔듸 위에 앉아서 귀여운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고 우리 손녀들에게는 앞뜰 뒷뜰이 즐거운 놀이터이다.

작년 NATAL[116]에는 현관 바루 앞 화단의 잔듸밭 속에 심어져 있는 PARANA 소나무 수 구루에 얼기설기 츄리를 만들어 놓아서 저녁이면 반짝반짝 여러 색의 조고만 전등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여 아름다웠는데 우리 손녀들이 그 앞을 지날 때마다 ACENDEU, PAGOU[117]하며 기뻐하였다.

그 후 큰애가 유치원에 가기 시작해서부터는 데리러 오는 차를 기다리며 정문 앞 낮은 담 위에 LANCHEIRA[118]?를 올려놓고는 그 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그 옆에 줄줄이 늘어져있는 굵은 쇠줄을 흔들기도 하고 그 쇠줄을 위로 처들고 뜰안 잔듸밭으로 들어갔다가 또다시 행길로 나가기도 하곤 하다 잘들 놀았다. 그러다가 차가 와서 큰 애가 "짜우"하고 가버리면 작은 애는 집에 들어가자 할가보아 곧장 뒷뜰로 내달린다. 하는 수 없이 나는 그 뒤를 따라가서 같이 놀아주곤 하였다.

방학 때가 되면 뒷뜰은 광장하다. 이 건물의 큰 애 작은 애 모두가 다 놀이터에 몽이니 애들도 더 신이 나는 모양이고 제각기 장난감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먹을 것도 갖고 와서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 자전거 경주가 벌어지기도 하고 서로 잘 놀다가도 싸우기도 하며 서로서로 어린이들의 사회생활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다. 마침 그때 새로 만든 모래장이며 그 속에 세운 미끄럼틀에서 몇 차례 오르락내리락 하면 옷은 엉망이고 종일 그것만 계속하겠다는 데는 질색이었다. 억지로 데리고 집에 가서 씻어주고 밥을 먹게 하기도 한다.

인제 애들도 다른 Apt로 이사를 하여 나가고 뒷뜰의 그 "어린이 성"도 헐리고 수영장을 만든다던 그 자리는 그냥 "휑"하니 남아 있고 유치원에 갈 때마다 놀던 그 쇠줄도 다 없어지고 처음에 이 건물에서 계획했던 대로 요새 새로이 공사를 하여 정면에는 홰색 창살이 높이 세워지고 또 하나의 정문과 찻길이 생기고 하여, 우리 앞뜰의 낭망적인 면은 사라지고 위엄만이 웃뜩 서있게 되었다.

옛날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나오고 건물도 작구만 변하는데 상하의?[119] 나라에도 엄연히 사계절은 있어서 우리 앞뜰의 정문 옆에 서 있는 묵은 큰나무가 죽은 듯이 겨우내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드니 요새 그 추위에도 가지에 푸른 기운이 도는가보다 했더니 파릇파릇 새 삯이 돋기 시작하였다.

잠간잠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내려다보던 우리집 양반도 그 나무에 관심이 있었던지 하루는 "저 죽은 나무를 왜 찍어버리지 않고 그냥 두었나? 했더니 새싹이 났네."하시며 큰 발견이나 한 듯이 어린애마냥 기뻐하신다.

해마다 우리 손녀들은 몰라보게 잘 자랄 것이며 앞뜰 뒷뜰도 점점 변해갈 것이다.

116) 크리스마스를 말한다.

117) acendeu, apagou. 켜짐과 꺼짐을 뜻한다.

118) 도시락 상자.

119) 상하(常夏)의.

## 2. 종교 관련 지난 일기 정리

- 1962년 12월 18일 부산항을 출발하기 전에
  유재선씨의 동생이신 유제국신부님게 고국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부산부두에 함께하고 강복을 받다. 천주교 신자 가족 4세대 고계순 가족, 유재선씨 가족, 장상기 가족, 안계승[120] 가족(6명)

- 1963년 2월 12일에 S.PAULO에 도착 후 각기 서울농장(NOVA BON SUCESO) 아리랑농장 (GUARAREMA) 혹은 남의 (농업) 고용사리도 하고 지내다.

- 1963년 2월 12일 SANTOS에 도착한 교우 고계순, 유재선, 장상기(동생 장상식?), 안계승 가족. 독신자 박선관씨

- 1964년 3월 26일 성주간聖週間[121] 목
  박성종 신부님이 오셨다. 온 가족이 성사보고 같이 저녁 만찬

- 1965년 2월 8일 윤을수 신부님과 아버지는 교민회장으로써 PONTAGROSSO 농장 관계로 만남. (박호원씨 농기구 구입으로 인한 말성으로)

- 5월 9일 어머니날
  SAÕ GONSALO성당 별실에서 일본인 요시우라 신부님의 집전으로 교포가(42명) 한 자리에 몽여 첫 미사를 드릴 수 있었다. 황안나(점례)씨와 안까따리나양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다.

- 7월-8월? 쯤부터 미국인 MCDONALD 신부님께서 우리를 돌보아주심.

- 1966년 1월 15일
  천주교계 이민은 장張신부님 인솔 하에 53세대가 무사히 목적지 PARANA의 SANTA MARIA 농장으로 입주

- 1967년 6월 3일
  미국인 맥도날신부님은 아버지가 안 계신(RECIFE로 의사 갱신 시험 시루고 동안 가끔 오셔서 우리들을 위로해주시고 찬도 없는 저녁을 달게 잡수어 주셨다. 한동안 안보이시다가 영자 결혼 일주일전에 다시 오셨고.

- 1968년 9월 21일 – 영자 결혼식에 맥도날신부님 주례

120) 원문에는 [아계승].

121) 부활절 기간.

- 1970년 3월 24일 제수녀님이 “하비오라” 책을 빌려주심

- 1969년 11월 한국성당총회장으로 선출됨

- 1970년 6월 5일
  전에 한국에 3년 동안 계셨다는 이태리인 남南신부님을(현재 부라질 북쪽 삐아우이PIAUI 계신) 우리 교회에 모시기 위해 여러 회장들과 추기경을 만나러 감

- 8월 23일
  S.PAULO 추기경께서(아가넬 롯치) 한국 성당에 오셔서 100명에 가까운 “견진성사”를 집전. 우리에게 우리 신부님을 주소서.

- 11월 15일
  MORUMBI에 있는 GETEMANI 묘지 탐사
  11월에 총회장 고계순, 회장 정주철, 부회장 김관선

- 11월 8일
  S.PAULO 추기경 로-마로 영전 배웅하러 가다.

- 1971년 1월 8일
  남南신부님 첫 미사
  72년 12월까지 계심.

- 12월 13일 (일)
  천주교회에서 연례총회年例總會 (BOAMORTE성당)?
  남南신부님과 제수녀님, 김안젤라수녀님 참석
  총회장 고계순
  회장 한명환
  회장 김관선
  서기 주성근
  회계 한영걸

- 1972년 9월 24일 ~ 10월 1일
  아르젠틴에 계신 한국인 함비오 신부님께서 남南신부님의 초청에 의해 내성하시고 우리들을 위해 “피정” 해주셨다.

- 10월 29일
  BOAMORTE성당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다시 이태리성당으로 내려가게 되고 남南신부님은 금년 내로 부라질에 계실 기한이 끝나게 되고 우리는 한국 신부님을 모셔야 함으로 그때까지 ANTONIO 신부님께서 돌보시게됨.

- 1973년 6월 24일
  제수녀님의 은경축

- 7월 13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함신부님 부라질에 도착

- 7월 15일
  함신부님 첫 미사

- 7월 22일
  피크닉(일본칸추리클럽) 교우 약 백 명 참가

- 8월 15일
  성세성사聖洗聖事와 첫 영성체

- 10월 21일
  추기경님 오셔서 함신부님의 취임미사와 70여명의 견진성사가 있었다.

- 1976년 2월 29일
  어머니회 회장

- 1977년 1월 23일 – 1월 26일
  서울교구 이李사무총장 신부님 오시다.

- 12월 11일
  젊은이의 문학文學의 밤 개최

- 1978년 7월 30일
  혜성유치원 개원식. 원장 – 제수녀님

- 8월 12일 – 13일 밤까지

  어머니들 48명이 ITATIAIA에서 특수피정 받다. (꾸르실료[122])

- 1979년 1월 9일

  성당 대지 구입

- 1980년 2월 19일

  제주도 박朴주교님(해외 교포 지도 신부)께서 견진 집행

- 7월 3일

  교황님 내백來佰 미사 집전 S.paulo CAMPO DE MARTE

  시복식[123]6월 30일 – 7월 11일까지

- 8월 26일 – 9월 1일까지

  김남수 주교께서 4일간 미사 후에 피정강론 "주의 기도"에 관하여

---

122) 꾸르실료(cursillo)란 '복음화를 위한 단기교육'이란 뜻으로 일종의 교육과정인데 강습이나 과정과는 구별된다. = 단기강습회

123) 죽은 사람의 덕행과 신앙을 증거로 공경의 대상이 될 만하다고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시복식은 해당 사람을 '복자'로 높이는 행사이다.

#22

# 1983~89

### 1. 1983년 6월

함咸신부님 송별회送別會

### 2. 1983년 7월

정비오 신부님과 함께(임안젤라수녀님) 피정
강사는 전승유, 유현상, 김, 문
약 44명 여자들만.

### 3. 1985년 5월

레지오마리애[124] 아치에스[125] 행사 (구신부와) 제수녀님, 사비나수녀님.

### 4. 1986년 8월

성령세미나
유신부님, 구신부님, 김안젤라수녀님, 박누갈라수녀님

124) 가톨릭교회의 평신도 신앙 공동체.

125) 라틴어로 사열식, 전투대형으로 정렬된 군대의 예식을 말한다. 레지오 마리애 의무 행사 중 하나이다.

#23

# 1990년 이후

### 1. 1997년 1월 12일

애들 아버지 고까밀로(계순)씨는 세상 떠났다.

모든 이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셨고 본인도 약 반년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신 것 같으다.

### 2. 1998년 2월 19일 ?

김종국(바르나바)신부님 오시다.

### 3. 1999년 2월 16일

생전 처음으로 PARANA PIACABA라는 곳으로 등산을 가다.

### 4. 1999년 3월 17일

오늘 오후 4시 역사적인 한국성당 대지를 계약했다. BOMRETIRO 땅.

조문환 미까엘 총회장과 조중현 건축분과위원장과 고홍일 부위원장과 이종기 변호사(교우) 사무실에서 계약함.

주님 감사합니다. 인제 우리는 모두 합심하여 성당 건물을 지어야 한다. 김종국(바르나바) 신부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화로 알려주셨고 또 우리 건물 8층에 사는 젊은 사람인 심장병으로 입원해 있는 정덕현(베네딕트)을 영세시켰다고 함. 정회연(데레사)씨의 막내 동생.

## 5. 1999년 10월 9일

외손녀外孫女 김현 MARCELO의 첫딸. 나의 증손녀(ISABELA)의 영세식이 본당 제대 앞에서 3시에 다른 댁 귀여운 자손들과 함께 뜻깊고도 기쁨 가운데 거행되다. 본당 신부님이신 김종국 바르나바 신부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정성껏 자애깊으신 모습으로 식을 해주셨다.

나의 증손녀 "이자벨라"야. 주님의 은총 중에 착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라.

## 6. 1999년 10월 13일 (11~12)

12일 APARECIDA 축일의 휴일을 이용하여 11일에서 12일까지 성당 기도회 주최로 기도회 간부들의 모임에 김종국 바르나바 신부님과 진고스마 회장님의 도움으로 S.P.와 MINAS 경계지점에 있는 높이 2500미터나 되는 높은 돌산인 POUSA DE PICO DOS MARINS[126] 라는 산에 따라갈 수 있었다. 약간 이방인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박회장님 내외와 같이 가게 되어 다행이었다.

HOTEL, 산꼴짜기의 간소하고 유-까리 나무와 PARAHA송松이 평풍같이 둘러쳐있는 앞산과 경사진 잔디 수국과 하얀 COPO DE LEITE[127] 꽃이 피여 있었고 아늑한 움막집과도 같고 엉성하나마 외국풍으로 지운 간단한 숙소까지는 1,200km 지점? 차로 올라갔고 밤에는 선발대로 와있는 다른 팀과 합쳐서 (그곳까지 가서) 모닥불을 피고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노래하고 (모닥불 피어놓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 옛날 36년 전에 아리랑 농장에서의 추운 겨울날 모닥불을 피우고 오손도손 모여 앉아 농민이 아닌 우리 1차 이민들의 고생하던 시기와 S.P 시내에 있을 때 아이들 학교에서 6월 SAÔ JOÂO날에 작은 교정校庭에 불을 피우고 아이들이 FESTA를 하던 생각이 나서 감개무량했다.

12일에는 새벽부터 준비해서 또 차를 타고 망원대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박회장과 나와 몇 사람은 돌산을 올라가기가 너무 힘이 들었고 수녀님(인도미니까)도 속이 좋지 않아서 신부님과 여러 분은 올라가시고 우리는 전망대까지 다시 돌아와서 차로 올라갔던 길을 걸어서 내려왔다. 돌산은 아름다웠고 내려다보는 경치는 동양화와도 같이 아름다웠다. 산골짜기마다 사이사이로 깔려있는 구름은 마치 물과 같이 보이기도 하고 꿈나라 같았다. 그러나 잠시 동안 다른 곳을 바라다보면 어느 사이에 아주 구름이 덮어버리고 산도 안 보이게 되고 잠시 사이에 또다시 뭉게뭉게 구름에 덮여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가 하면 또다시 바람에 없어지고, 볕이 났는가 하면 흐리고 돌산이 보이고 또 덮히고. 자연은 시시각각으로 너무 변화무쌍했다. 자연 일에는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드니 정말로 10분 후의 상황을 알 수 없었다. 그러기에 등산가들이 길을 잃어 실종자가 되는가보다. 오후 4시쯤 마중을 갔드니 모두가 녹초가 되여 돌아왔다. 모두 장해보였다. 산을 정복하고 돌아온 사람들?

126) POUSADAS PICO DOS MARINS라고 쓰려던 것 같다. Pousada는 숙소, Pico dos Marins는 산의 이름이다.

127) 칼라 릴리.

옛말에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변한다더니 산의 변화에 댈 것이 아니다. 김신부님께서는 체격처럼 마음도 넓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잘 감싸주신다. 각자에게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쉬운 일이 아니다.

박회장 부인 아네스씨는 감기로 이틀 동안을 식사도 못하고 그 웅장한 산과 변화무쌍한 경치도 못 보셨으니 건강을 빈다.

### 7. 1999년 11월 11일

올해 11월은 뜻 깊은 달이다. 성당 안에 걸려있는 유사이래 본당에서 별세하신 분들의(연대별[年代別]로) 성함이 적혀있다. 바로 들어서는 정면에 "고까밀로"와 마주칠 때마다 감개가 무량하다. 노년에 좀 더 잘해도 주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 ×

이달 초에까지 약간의 말성이 있던 성당 터의 건축설계도의 건로 회의를 거듭하고 검토를 한 결과 회장단과 그 관계자들의 만장일치로 첫 번째의 설계도가 다시 통과된 것 같으다. 하느님께 감사한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리라. 인제 사목위원들에게 찬성을 얻고 건축에 착수할 것이다.

× ×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SANTOS 해변가에서 남미 한인 천주교 선교사 회의 모임이 있었다. 우리 본당 신부님의 주관으로 남미 각국에서 참석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선교사님들 13명의 진지한 모임이었다함. 어제 10일 저녁 9?명이 드리시는 미사는 너무나 감개무량했다. (달력, 주소록, 토산품, 선교비 등 선물함)

× ×

2000년의 성당 달력이 나왔다. 각 달마다 연대별로 중요하고 뜻 깊은 우리 본당의 사진들이 실려 있는 달력. 이 본고장에서 만든 것이다. 김신부님과 회장단들, 35주년 역사편찬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영육간의 은총을 빈다.

### 8. 1999년 11월 26일

오늘밤 12시에 우리 자녀들과 친구들이 피땀 흘려 건설 중이던(홍준이가 중심으로) ITAQUERA에 있는 홍일이 땅에다가 모두가 합심하여 CHOPERIA DANCATERIA CASA DE CHOW JUMBO MAX를 개업하게 되었단다. 나는 멀고 늦은 시간이어서 못 가보고 저녁미사 때에 우리가족을 위해서 감사의 미사를 청할 것이다. 모두가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힘든 일을 해냈으니 과연 형제는 합치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으다. 제발 모두가 건강해서 잘 꾸려나가도록 기도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셨

도라면 기를 쓰고 가보셨을 것이다. 덕분에 나도 가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홍준에게 건강을 주소서.

### 9. 1999년 11월 28일

새성전 건축 대지 축성 미사와 기공식이 있는 날이다. 30여 년 동안 기다려 온 이 날 눈을 뜨니 3:30. 자리에서 감사의 묵주기도를 단숨에 15단을 바치고 이러나 세수하고 아침 성무일도[128]를 마치고 연도[129] 를 끝내고 나니 신부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구름이 살짝 끼고 좋을 날씨라고." 신부님도 뜻깊은 오늘을 맞이하시게 된 것이 무척 기쁘신 모양이다. 나도 오늘따라 새소리가 아름답게 지저기고 있으니 날씨가 좋을 것이라고. 아침 CAFÉ로 마시는 등 옷을 가라입고 9시에 만나기로 한 유재선씨 댁으로 가니 한 시간이나 이른 8시었다. 할 수 없이 Apt로 올라가서 보니 TV에서는 우연히도 성지 APARECIDA성당에서 대림 제1주일[130]의 미사를 의식을 갖추어서 아름답게 성대하게 드리고 있었다.

× ×

말끔히 치워진 성당 터에는 벌써 차들이 여러 대 도착해 있었다.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는 유사이래 처음으로 대여해온 아담하고 깨끗한 화장실 6군데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1구역부터 빙둘러 자리를 잡고 텐트를 치고 있었다. 나도 5구역으로 가서 잔돌 투성이고 울퉁불퉁한 땅을 막대기로 메꾸고 깍고 하여 평평하게 만들고 그 위에 돋자리를 깔고 앉으니 좋았다.

기다란 땅 정면에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성전 건축 대지 축성 미사"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보았을 때에는 가슴이 뭉쿨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뒷면에는 태극기와 브라질 국기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고,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마이크 시험 중에 있었고, 마당 중앙 앞자리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나무 의자가 놓여있었고, 고르지 못한 땅이지만 몇일동안 애쓴 임원들의 노고로 아침 (따가운) 햇볕에 반사되는 하얀 의자들이 줄을 마쳐 놓여 있었다. 우리는 얼른 걸레를 찾아다가 기쁜 마음으로 의자들을 닦기 시작했다. 성가는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구름같이 몰여왔다. 차를 타기도 하고 걸어오기도 하고 아무튼 한 미사에 이처럼 많이 참석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았다. 김신부님께서는 연방 기쁨이 가득한 미소로 교우들과 얼론인들을 맞이하셨다. 수녀님들과 성가대들 또 여러 임원들은 바쁘게 걸어다닌다.

입구에서는 풍선과 간부들에게는 장미꽃(빨강) 한 송이씩을 꽂아주었다. 나도 흰 저고리 포켙에 빨간 장미를 꽂으니 마음이 더 한층 들뜨는 것 같다. 미사 전에 신부님을 만나게 되어 "기다리던 오늘

128) 매일 기도.

129) 연도(煉禱), 위령 기도 같은 것을 말한다.

130) 성탄절 전의 4주.

을 맞이하니 감개무량해 울고 싶다"고 말씀 드리니 "남편 생각이 나는가보다"하셨다. 사실 생전에 그렇게 성전 건립을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기다리신 양반이다. 착잡했다.

미사는 시작되었다. 지금 암만 생각해도 무슨 성가를 먼저 불렀는지 생각이 안 난다. 신부님 강론시간이 되었다. "어떤 분(박미일)이 가까운 Apt에서 성당터를 2, 3일 전에 비가 온 뒤 내려다보니 쌍무지개가 서있드라고" 감격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말씀과 앞으로의 계획 3가지를 말씀하시다.

1. 하느님의 집, 만남의 장소,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곳.
2. 청소년을 위한 사목(건강을 위해서 체육 방면), 노인들을 위한 시설.
3. 성당은 교우만이 아니라 전체 교민들을 위해 봉사 대여하고 싶은 것과 성당센터 – 등?

미사가 끝난 후 이어서 대지 축성(약 6천 평방미터)을 오랫동안 하시고 드디어 기공식이 있었다. 조문환 회장님의 인사와 조중현 건축위원장의 인사에 이어 신부님, 수녀님, 회장단이 흰 장갑을 끼고 10사람씩 흙을 삽질할 때 수백개의 색색가지 풍선은 두둥실 하늘로 올라가고 폭죽을 쾅쾅 터뜨리고 음악을 울리는 순간 온 천지는 진동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순간이었다.

사목위원들의 차례가 되어 나도 꾸리아 단장으로써 흰 장갑을 끼고 황수녀님 옆에서 모래 한 삽을 펐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즐거운 점심시간, 우리 5구역은 어제 구역장 정대진 가족과 함께 사갖이고 온 연한 PICANHA[131]를 굽고 밥과 반찬을 사이좋게 나누어 먹은 후 장기자랑으로 들어가서 모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흥겹게 춤추고 노래를 불렀다.

그때 어떤 약간 정신이 조곰 이상한 듯한 브라질인 허름한 여자가 구걸을 하러 왔다가 흥겨운 음악에 마추어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너무 신나게 추니까 신부님께서도 오늘의 기쁨을 참지 못하셨던지 그 여자와 추기 시작하셨다. 모두 박수갈채를 보냈다. 한국에서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여기서는 보통이다. 김신부님께서는 그만큼 소탈하시고 누구에게나 마음 쓰시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사목하시는 일면을 다시 본 느낌이다. (브라질인들은 카니발을 위해 어렸을 때부터 일 년 내내 춤을 추기 때문에 못 추는 사람이 없다.)

아무튼 각 구역별로 즐겁고 흥겨운 장기자랑을 마치고 나중에는 넓은 땅에서 손에 손을 잡고 빙 둘러서서 노래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신부님의 강복으로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질서정연하게 끝마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이고 따끈한 햇볕에 꺼실리면서도 모두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하느님께 바치면서 감사하면서 지낸 것이 너무나 좋았다. 다만 한 가지 김신부님 차례가 되어 "청춘을 다 바쳤다고 들리는 성당의 종소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곳에 성당 완성되고 종이 울릴 때 당신은 가신

131) 피카냐(브라질에서 소고기의 우둔 부위로 슈하스코나 스테이크 등을 만듦).

다"는 말씀은 나의 마음을 너무나 슬프게 만들었고, 신부님을 오래 계시게 하려면 성당을 천천히 지어야 하겠고 또 신부님과 모두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빨리 완성되어야 하겠지? 아무튼 모-든 일이 잘 되었다.

× ×

1999년 본당의 사목 방침의 하나로 33년의 숙원사업인 주님의 성전을 적어도 짓기 시작하는 해로 정하고 회장단을 비롯해서 전 교우가 물색하던 중

- **3월 17일** = 오후 4시 역사적인 한국성당 대지를(BOMRETIRO) 계약함(6천 평방미터)
- **9월 29일**

  성당 대지에 들어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고 완전히 비워줌. 인제부터는 우리 성당 터에서 마음 놓고 기도하라 하심.
- **10월 31일**

  우리 본당을 위한 로사리오 기도[132] 100만단 봉헌식이 있었다. 모두 열심히 마치다.
- **11월 14일**

  사목회에서 장시간동안 건축 기본설계안을 검토 후 통과함
- **11월 28일**

  새성전 건축 대지 축성 미사와 기공식이 성전 터에서 성대히 거행되다.
- 1996 – 1997년?

우희수(발타살) 신부님께 가까운 BOMRETIRO R.25 DE JANEIRO 170. 210. 218. 220번에 위치한 면적 4720.83평방미터의 땅을(주교관) 우리 한국 성당 건축을 위해 받았었으나 (본당에서 5만?불 내고) 여러 모두의 청원도 무심하게 도로 주교관에게 반납을 했다 함. 그 땅은 우리의 성전이 안 될 땅이었나 보다.

## 10. 2000년 대회연, 한인 교회설립 35주년

본당 신부 : 김종국(바르나바)
회장 : 조문환(미까엘) 부회장 안준숙, 장윤철 총무 최승국
건축위원장 – 조중현(안셀모)
부위원장 – 고홍일 (아오스팅)
총무 – 방석원(라파엘)
재정 – 이재근(안드레)

132) 묵주기도.

**사목방침**

1. 구원과 기쁨의 공동체
2. 새성전 건축의 해
3. 35주년의 해 〈역사책 발간〉

**〈새건축위원 발족〉**

구 성전건축위원회는 해체를 하고 새로이 단원을 강화하고 새 출발하다.

## 11. 2000년 3월 23일 목

위원장 : 최승국(다니엘)
부위원장 : 태익(시메온)
총무 : 고승범(펠릭스)
재정부장 : 서호정(다니엘)

## 12. 2001년 2월 12일 〈영자 생일날〉

76년에 아버지께서 소원이던 진찰실을 사고 그곳에서 많은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고 또 우리의 생계를 유지했던 곳을 오늘 나와 사남매의 부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싸인들을 하고 다른 브라질 여의사에게 매도했다. 감개무량하다. 그간 25년 동안의 많은 고난과 추억들을 마감하면서 또 하나의 인생이 끝나는 느낌이다. 더운 날에 모두 일꺼리를 쥐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들을 하였다. 특히 막내 홍준이가 너무나 애를 많이 썼다. 서류가 8개월 만에 끝이 났으니 건물 매매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요새 우리 애들이 많이 힘들 때인데 인제 이것으로 내 생활을 책임져야겠지? 할 일은 많고……. 맏아들의 이름으로 새 성전 기금을 바쳐야겠고…?

## 13. 2001년 10월 6일 〈한글날(3일) 기념행사〉

〈제9회 꿈나무 큰잔치〉

장소, BOMRETIRO의 Luz 공원 내

우리 성당 대건학교(한글학교)를 비롯해서 S.PAULO에 있는 한국어 학교들이 함께하는 〈백일장〉이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오후에 가보았다.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말을 잊지 않고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후원하여 이처럼 하로를 유익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을 마련하신 담당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모든 것이 아직도 미미하고 엉성한 데가 많은 것 같았으나 아무튼 의의가 대단하였다. 학부모님들이 너

무 무관심한 것 같으다. 자녀들만 내보내고 몇 사람만 참석한 것 같았다.

내가 갔을 때의 푸로그램은

- 이태리인들의 합창 – 오쏘레미오 외 4곡
- 천주교 청년 성가대 – 기리엘레이숀 외 3곡
- 어머니 합창단 – 작은별 등 2곡

내가 10여년 전에 시작한 합창단원들을 만나서 반가웠다. 내가 또 나가야 하는가?

## 14. 2001년 10월 7일 〈제3회 본당신부배 구역대항 배구대회〉

작년보다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되고 많이 참석해주었고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들 같이 지낼 수 있어서 좋았고 LANCHE[133] 시간에 성모회?에서 만들은 빵이 맛이 있었다.

1등에 7구역. 응원상은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우리 5구역에게 주셔서 고마웠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남녀로소가 일치하여 본당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며 굳은 믿음으로 새성전 건축을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다.

장소 PRO-SPORT ®VERGUEIRO, 241. SAÔ JOAQUIM

## 15. 2001년 10월 25일

(이아오스딩 보좌신부님과 이클라우디아 수녀님과 정대진씨와 함께 방문)

오늘은 매우 바쁜 날이었다. 아침 일찍 수영을 하러 갔다가 볼일을 보고 12시 경에 집에 오니 정대진씨에게서 전화로 오늘 밤에 우리 5구역 3반 청소년들을 위하여 이 이아오스딩 보좌신부님의 가정 방문이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마음이 급했다. 배는 고프고 서둘러서 밥을 솥에 안치고 반원들에게 사전 연락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하였다.

오늘 밤과 주일 밤에 방문할 집을 대강 정해놓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2시에 우리 레지오 Pr.[134] 단원들과 몽여서 연차총친목회를 위하여 TV로 "사운드 오부 뮤–직"을 감상하기로 되어있는 장소로 거진 3시가 되어서야 허둥지둥 뛰어갔다.

오래간만에 감상하는 그 풍경과 주연 인물들. 잠시나마 정서적인 차분한 마음이 될 수 있었다. "외로울 때 찾아가던 언덕과 아름다운 하늘과 전원들과 개울 늘 가고 싶던 그곳들" … 너무 좋았다. 감상하는 틈틈이 3반 반원들에게 오늘 밤 가정방문에 대한 약속 전화를 걸어야했다. 7시부터 11시까지 6가족을 방문함.

133) 간단한 점심.

134) 쁘레시디움(Praesidium)으로 라틴어로 로마 군대의 파견대를 말한다. 레지오 마리애의 단위조직체.

**소감**

1. 전에 어른들을 방문할 때에는 딱딱하고, 자녀들에게 덜 관심사였든 것 같은데. 자녀들을 방문하니 도리혀 어른들께서 관심이 많았고 기뻐하시는 것 같았음.
2. 보좌신부와 아이들이 같이 성경도 (떠듬떠듬) 읽고 기도하고 신자들의 기도를 하면서 가족이 일치가 되는 것 같았고.
3. 신부님 수녀님께서 젊은이들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좋았고 꼭 필요한 일이다.

## 16. 2001년 10월 27일 〈고등부 나눔의 밤〉

저녁 8:30 〈그리스도 어제 오늘 그리고 영원히〉

김종국(바르나바) 신부님, 이아오스딩 보좌신부님, 수녀님들, 총회장, 박회장, 부모님들과 많은 청소년들 참석. 장래의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될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 모두가 신명이 나서 노래하고 춤추고 연극하고 더구나 잘 모르는 한국말로 떠듬거리면서 손바닥의 쪽지를 보면서까지 대사를 열심히 말을 하는 아이들의 정성이 좋았다.

연출은 새로이 교우가 된 연출의 경험이 있는 김병국(베네딕도)씨가 맡아서인지 예년과는 아주 달랐다. 무대 중앙 천정 전등을 중심으로 강당 천정 사방으로 된 망사천으로 전등으로 이여진 빛의 모양으로 장치해 놓은 것이 조명을 받아 하느님의 사랑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추는 것 같은 마치 꿈나라와 같이 환상적이었다. "꽁뜨"는 너무 어수선한 느낌이었고 TEATRO[135]는 좋았음.

다만 나중에 아이들이 보좌신부님과 수녀님과 분과위원장에게 보낸 꽃다발은 좋았으나 우리 본당 신부님께 먼저 드렸어야 했다. 아니면 보좌신부님께서 본당 신부님께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을.

## 17. 2001년 11월 18일 〈새 성전 및 카톨릭회관 착공식 날〉

그 옛날 1965년 5월 9일 SAÔ GONSALO성당에서 44명이 몽여서 우리말로 조촐하게 감명 깊게 첫 미사를 봉헌했던 우리 천주교 한인 교회가 전전긍긍하던 세방사리 공동체 시대부터 우리들의 숙원이었던 새 성전 건축이 36년만인 오늘 이루어지는 날이다.

어제 저녁까지 쏟아지던 비도 개이고 그리 덥지도 않고 알맞은 날씨에 아침부터 새들은 노래하다. 차를 봉사해 줄 사람을 기다리며 마음은 바뻤다. 오랜만에 입는 한복에 신경을 쓰면서 목적지에 다달았을 때 "성전 건축식 장소"라는 패말과 크게 부친 "성전조감도"를 대할 때 가슴은 뛰었고 울퉁불퉁한 우리의 성전 땅을 짐을 들고 뒤뚱거리면서 밟았을 때의 벅찬 감격. 무어라 말할 수 없이 감개무량했다. 장래를 둘러보니 많은 분들이 기쁜 얼굴로 구역별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본당에서 있는 대로

135) 연극.

다 갖고 온 마당을 메우고 있는 하얀 의자들이 아침 햇볕에 반짝이고 있었다.

중앙 무대에는 높이 "새성전 및 가톨릭 회관 착공식 기념 "라는 하얀 큰 현수막이 가로질러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색색가지 아름다운 풍선이 이쁘게 달려 있었고 기둥과 강당 주위에는 어제부터 꽃꽂이 회원들이 정성것 봉사한 꽃들이 화사하고 아름다웠다.

성가대는 왼쪽에 내빈석은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제1부 미사〉**

10:30 드디어 공경하올 CLAUDIO S. P 추기경님과 초창기에 우리를 돌보아주시던 일본인 "다께구찌"신부님 또 이태리에 "죠-지"신부님 또 우리 본당 김종국 바르나바 신부님과 이명상(아오스딩) 보좌신부님과 기타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뜻깊은 대미사가 시작되다. 미사전례는 박회장의 아드님 박준성(토마스)씨였고, 추기경님의 통역은 현재 대건학교 교장인 전형식(요한)씨가 맡았다. 다행이도 구름이 하늘을 덮어주어 볕은 쨍쨍하지 않았지만 더운 여름날이었다. 모두가 기쁨과 흥분과 더위로 얼굴이 홍당무가 되였다. 나도 조심스럽게 성체를 모시면서 오늘 시작하는 이 새 성전 건축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계획한대로 알맞는 시기에 모두가 합심하여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 후손들이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기리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전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였다. 뜻깊은 대미사가 끝나고,

**〈제2부 착공식〉**

사회 최태훈(토마스)(전 최회장님 아들 현재 상공회의소 소장)

통역 고수정(아가씨?), 전형식

- 국민의례에 이어 애국가, 브라질 국가 봉창
- 선조 교우님께 대한 묵념(이날이 오기를 기다리던 우리 애들 아버지 고계순 까밀로께로 드림)
- 본당 신부님의 말씀(별지)
- 내빈들의 축사
- 조문환(미카일) 총회장의 답사가 우리말과 유창한 브라질말로 우리를 대신해서 속시원하게 잘 해주셨음(별지)
- 공로패 전달(성전 터 구입과 설계도)
  전 건축분과위원장 조중현
  부위원장 고홍일
  변호사 이종기
  제일 먼저 땅을 소개한 자 – 박춘자
- 기둥박기 행사

착공식의 가장 감격적인 순간. 모두가 뒤로 돌아서서 우리 땅 저 끝에 하늘 높이 세워 놓은 "기둥박기" 시설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싸이렌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자동식으로 서서이 망치가 내려치면서 철 기둥이 박히기 시작하였고 폭축이 터지면서 불꽃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그 아름다운 불빛이 사방으로 반짝이며 흩어지는데, 2천개의 색색까지 풍선이 꼬리를 달고 하늘을 날을 때 모두의 가슴은 메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때의 그 광경과 마음은 글로 표현하기가 힘들고 어렵다. 그때 높은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는데 잠자리같이 작게 보이는 비행기 한 대가 날고 있었다.

**〈제3부 여흥〉**

점심을 먹으면서 새로 영세한 연출가 김병국(베네딕도)씨가 사회를 맡았다. 처음인데도 재미있게 진행을 했고

- 색동어머니 사물놀이(한국에서 오늘 이곳에 도착한)
- 각 구역 대항 장기자랑과 노래 마추기는 재미있었다.

이렇게 해서 36년 동안 기다리던 새 성전 건축 착공식 행사를 뜻깊게 성대하게 아름답고 멋있게 4시경에 끝마쳤다.

이 대회를 성공리에 이끌어주신 신부님, 수녀님, 회장단, 구역원들, 기타 모를 역원들과(특히 건축분과 위원들께) 모든 교우들의 수고에 감사와 찬양을 보낸다!

**〈오늘의 추기경(CLAUDIO)님의 강론과 축사〉**

1. 성 김대건 신부님과 103위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 훌륭한 공동체가 되도록
2. 이 성전 건축은 모든 분들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며 이 시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모범이 될 것임.
3.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며, 부모와 청소년들의 복음적 생활을 활성화에 노력하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늘 깨여 있으라.
4. 성당은 모든 이들의 교회이며 집처럼 언제든지 열려있고 찾아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5. 복음 전파. 이 세상에 전쟁이 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종말이 올 때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하느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며 그의 계획안에서 새로운 증거자로 나타나기를 바람

**〈(김신부님 말씀) 본당. (별지참조)〉**

- 하느님의 영광과 찬미를 드린다.
- 36년 만에 3,660명의 신자를 갖게 된 성당 착공식을 감사함
- 이 성전은 주님께 드릴 성전이며 우리들의 고향의 집이기도 함.

- 만남과 사귐의 쉼터이며, 열려있는 교회로써 믿음을 초월하여 예수님을 믿는 장소가 될 것임.
- 미래의 희망이며 모든 이의 꿈인 청소년들을 위해 이 성전을 바칩니다.
  (조미카엘(문환) 총회장의 답사는 별지 참조)

## 18. 2001년 12월 27일 〈성소후원회 발족〉

출석자 김종국 바르나바 본당 신부님, 이명상(아오스딩) 보좌 신부님, 황 마리스텔라 분원장 수녀님, 박명순, 오성도, 유재선, 신종철, 이치환, 구성원, 백옥빈

기타 총 17명

본당 김신부님의 적극적인 취진으로 "성소후원회"가 탄생되다. 나도 전부터 자라나는 자녀들의 영성을 위해서나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한국말과 PORTUGUES를 잘하시는 성직자와 수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매일 아침 "성소를 위한 기도"를 바쳐온 것이다.

이제 이 회를 통해서 자녀들을 더 올바르게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우리들은 기도하며 후원할 것이다. 회원들이 모두 기쁘게 환영하였다.

## 19. 2001년 12월 31일 밤

다사다난했던 2001년이 저므는구나. 오늘 저녁 김종국 본당 신부님의 강론은 좋았다. 정말 우리는 1년 내내 하느님께 너무나 많은 사랑과 은총을 받았는데도 감사할 줄을 모르고 있다. 년초에 계획한 일들을 얼마나 실행했으며 얼마나 기쁘게 살아왔을까?

김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본당에 베풀어주신 하느님의 은총 중에 다섯 가지는

1. 22/2 청소년들을 위해서 보좌 신부님으로 이명상(아오스딩) 신부님을 보내주신 것
2. 10/4 교회의 정관 통과
3. 성지순례(구라파) 4월 16일 – 5월 3일
   부친 김만석(요셉) 선종 4월 23일 (한국 대전에서)
4. 18/11 새 성전 건축 착공식 성대하게
5. 부활절과 성탄 때 100여명이 넘는 새 영세자를 주심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총을 받았고 애들도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나에게 건강 주셔서 봉사할 수 있는 은총 너무나 감사할 뿐이다. 오는 2002년에는 우리 모두 합심하여 새 성전 건축을 꼭 이루어야 하며 주님 뜻대로 평화롭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 20. 2002년 1월 29일

성소후원회 창립총회(청와장에서)
총 회원 23명, 출석인원 15명
회계보고 – 3,520 R불[136]
김신부님 보조금 – 2,020 R불?
중요 안건
성소후원회 회칙 심사 및 통과함
회장 – 오성도(요셉)
부회장 – 이치환(요셉), 백옥빈(모니까)
총무 – 구성원(마르꼬스)
재무 – 명 (루도비꼬)
감사 – 김삼용, 조문환, 정하원

## 21. 2002년 2월 19일

오늘이 김종국 바르나바 신부님 본당 취임 만 4주년 날이다. 그동안 김신부님께서는 말할 수 없이 많은 일을 하셨다. 쉬지 않으시고 정열적으로 꾸준히 대범하시면서 치밀한 사목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이에게 골고루 관심을 주시고 남을 기쁘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갖이신 분이며 모든 면에 조화있게 사시는 분이시다. 더구나 새성전 건축에는 온 정신을 쏟으시는 분이시며 수시로 미사 예물을 건축기금에 돌리시고 매일같이 공사 현장을 돌보시고 계신다. 길이 만수무강하셔서 계속 우리들에게 좋은 사목자이시길 기도한다.

## 22. 2002년 2월 20일

오늘 시의원 WILLIAM 우(부친 중국계 부인 한국인)씨의 도움으로 한인 회장 권명호와 여러분들의 협력하에 시내 시의회 VIADUTO JACAREI 100 8층 (JOÂO MENDES 근처)에서 "한인 이민의 날 설정 및 이민 39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그리고 1차 이민들에게 감사장?을 주셨다. (WILLIAM씨와 교민회장의 싸인이 있는)

(참석가족) 상장을 받은 : 고계순 양승갑 유재선 장상기 조중환 김중혁 김철현

(독신부대) : 주성철 권태영 박선관 김해곤

136) R$. 헤알(브라질 화폐 단위)

사망자도 많고 미국으로 재이민간 새데도 많지만 S.PAULO에 살면서도 연락이 잘 안된 분도 있고 사정으로 인하여 참례를 못한 분도 있다. 아마 내년 40주년에는 많이 모이게 될 것이다. 아무튼 교민 회장이 젊은 분이시라 취진이 잘된 것 같이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다.

### 23. 2002년 4월 20일

홍준이가 오늘 우리 가족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아버지 대ft를 이어 의사가 된지도 벌써 20여년이 되는 것 같다.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수년이 되었고 교수로 일하면서 틈틈이 국내와 외국으로 다니면서 꾸준히 강사로써 노력한 결과 오늘 어려운 시험을 치루고 영광의 "종신 교수"가 되었다.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모든 것은 꾸준히 열심으로 살 때에 그 보람이 나타나는 것이리라. 다만 좀 더 자기처와 함께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 24. 2003년 2월 16일

1963년 2월 12일. 장녀 영자(19세) 생일에 SANTOS[137] 항에 브라질 한인 제1차 이민단의 한 가족으로써 도착한지 어언 40년? 감개무량하다. 지난 14일 저녁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이민 40주년 기념 행사가 아넴비 대극장에서 개최되다.

우리나라 대사님 김명배, 총영사님 정화현님을 비롯하여 많은 내외 내빈과 이민 초창기에 오신 분들과 교민들이 참석하여 성대하게(3천석이 꽉 찬) 이루어지다. 제1부의 국민의례에 이어 내빈들의 축사가 있은 뒤 표창수여가 있었고 2부에서는 어머니 합창단들의 노래와 한국학교 학생들의 노래와 또 교민들의 유일한 자랑거리인 황윤재 한국무용단의 출연과 또 한국서 오신 젊은이들의 사물놀이 또 태권도의 시범 등 틈틈이 경품권 추첨 등 장장 5시간인 새벽 1시에 끝마쳤다. 많은 인원은 동원되었으나 좀 더 주최 측에서 짜임새 있게 진행했어야 했다. 너무 갑자기 계획성이 없었고 큰 행사를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했다. 서툴렀다.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일치단결하여 협력하여 다음에는 더 잘 지내기를 권한다.

### 25. 2003년 4월 27일

부활 제 2주일이며 하느님의 자비에 주일에 BOMRETIRO 21. R.MATARASO 20번지에서 새 성전 상량 축성 미사 거행.

× ×

137) 원문에는 [SONTOS].

문간에서 학생을 기다리는 선생님처럼 황수녀님께서 기쁘게 맞이해주셨다. 새벽 7시부터 오셨나보다. 우리는 서로 ABRAÇO[138]하고 우둘두둘한 세멘 계단을 올라가서 성전 입구에서 우리 본당 신부님과 악수로서 즐거운 아침인사를 나누고 제대의 정면 높이 "축 새 성전 상량 축성 미사 2003년 27일 천주교 브라질 한인교회"라는 현수막을 올려다보면서 벌써 마음은 감격에 차서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며 바라보니 천석을 마련했다는 까마득하게 지면에 자리 잡은 하얀 의자들이 따거운 아침 햇볕에 반짝인다. 내빈님들과 남녀노소 교우들이 구름같이 몰여들었고 몸이 불편한 분들도 휠체어까지 타고 기쁜 모습으로 참례하려 오셨다.

더운 중에도 응달진 오른쪽에는 내빈 자문위원들(과거의 본당 회장들) 주야를 불문하고 성전 짓기에 분투노력해 오고 있는 건축위원들, 또 원로들께서 자리하셨고 다음 자리는 장차 이 성당을 이어가고 빛내줄 우리 어린 자손들 그 다음은 뜨거운 뙤약볕에는 모자를 쓰고 우리 젊은이들이 차지했고 맞은편 저 멀리 왼편 앞쪽에는 장차 파이프 오로갠 자리에 성가대원들이, 중앙에는 제대, 건너편 앞쪽 2층에는 장차 우리의 더 어린 자손 유아실이 될 것이고 그리고 까마득히 우리 머리 꼭대기의 웅장한 성전 회색 담을 가로질른 상량의 두 기둥이 될 철강은 마음 든든하고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잠시 후 마이크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는 지금까지 어느 곳에서 듣던 것보다 맑고 깨끗하고 선명하던지. 건축위원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음향장치가 100% 잘 된 것이 감사했다.

신부님의 입장으로 미사가 시작되었고 김종국(바르나바) 신부님께서도 감격하신 음성으로 홍안이 되어 강론을 시작하셨다. 신자들과 함께 햇볕을 쪼이시면서 "오늘의 우리 새 성전 상량 축하 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집은 하느님의 섭리와 안배로 또 3,700명 교우들의 기도와 성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오늘의 제1독서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2,000년 전에 초대 신도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당시의 우리 선조들의 삶을 우리도 오늘날 실천하는 정성과 기도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38년 동안 교우들이 정성을 다해 지은 것이다. 이 새 성전은 기적의 성당, 평화의 성당, 사랑의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평화와 자유와 주님의 행복을 빌면서 나누는 새 성전이 되며 주님께서 주시는 정을 골고루 나누면서 살자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김신부님께서 과거에 세우신 어떤 건물보다도 웅장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고 잡음 없이 모두가 합심하여 잘 짓고 있는 성당이라고 기뻐하심. 아마 신부님 일생일대에 가장 마음을 쏟으시고 정성을 다하시고 건축하신 성전일 것이다. 이런 훌륭한 새 성전을 못 보시고 선종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의 앞날의 발전과 우리 성당의 행복과 활성화를 위해 기도드리면서 감개무량했다.

138) 포옹 인사.

그날의 자세한 모습과 광경은 동아일보(박태순 사장)에 잘 보도되었다.(신문 참고) 오늘 자비주일에 병자들과 다른 불상한 사람들을 위해 불가능한 일이 없이 기적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자.

### 26. 2004년 4월 30일

새 성전 축성을 5.9. 앞두고 새 성전을 위하여 전 교우가 9일 기도를 시작한 날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 성전 입주 허가가 나왔다. 김본당신부님을 비롯하여 모두가 기뻐하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알맞는 시기에 적절한 은총을 주시는데 우리는 참지 못하고 전전긍긍 안달을 한 것이 하느님께 부끄럽다고.

### 27. 2004년 5월 2일 일

형편없던 곳간 같은 건물을 개조하여 3,800여명의 교우 수를 이루는 동안 함신부님 때부터 현 김신부님까지 23년 동안 살아온 주님의 전당. 희비애락을 같이 한 이 성전에서의 주일 미사를 오늘로써 마지막이 되는 날이란다. 감개무량하다.

때마침 새 성전 축하식에 참석코자 오신 김동억 신부님의 집전으로 마지막 주일 미사가 되었다. 오늘의 독서와 신자들의 기도를 맡으신 안효상씨와 손쥴리아나씨의 울먹이는 기도소리가 우리들을 눈물짓게 했다.

### 28. 2004년 5월 9일

새 성전 건축 행사

일기(2권)

# 백옥빈 日記

브라질 한인의 첫번째 이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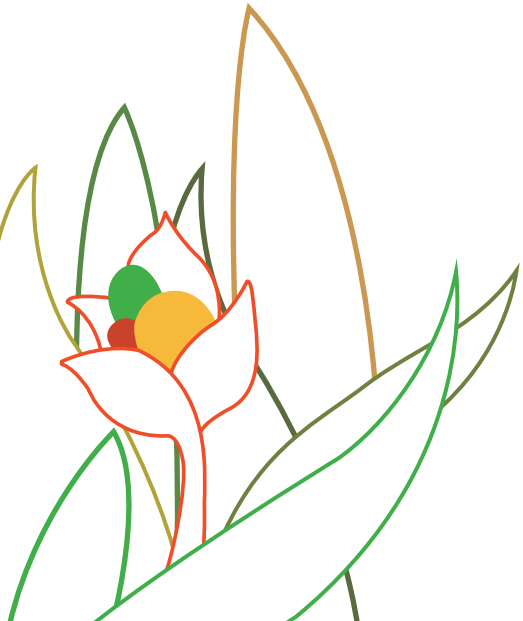
**발　　행**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발 행 처**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329
T. 032.440.4710~1

**발 행 일** 2021.12. 2.

**편집디자인** 디자인하다 MK 김미경
**인　　쇄** 디자인하다 MK

**발간등록번호** 54-6280254-000077-01
**ISBN** 979-11-87854-52-4 [93950]

**[비매품]**

한국이민사박물관
THE MUSEUM OF KOREA EMIGRATION HISTORY